

THE COMET

코메트



2

第 35 號



★ 단테의 꿈 〈目次·扉·序〉.....李 喜 世
△ 趣味의 美術鑑賞.....D.G. 로젠티작

△ 書報 △ 訓示하지는李大統領閣下
△ 지나간 세월 일일

△ 卷頭言 △ 統一達成을 爲하여.....金 基 完 (二)

空軍將兵에게 부치는 글.....國防部長官 金 貞 烈 (四)

第三回「國軍의 날」記念辭.....參謀總長 張 德 昌 (六)

△ 메세이지

韓國空軍에 期待함.....美國大使 윌 터·다울링 (八)

韓國空軍에 期待함.....比律賓大使 에드워드·핀데로 (一〇)

韓國空軍에게.....西獨公使 리카아드·헤르츠 (一三)

UN 反省의 있어야 한다.....黃 聖 秀 (一五)

世界の 不安地帶

——中東事態가 뜻하는 것——孔 鎮 恒 (三)

臺灣事態의 展望

核實驗中止와 誘導彈의 將來.....金 光 涉 (四)

戰 力 論 (完)

스위스의 表情 △ 紀行.....李 慶 春 (五)

詩

愛機와 가을.....朴 斗 鎮 (六)

苑

拋物線.....申 石 艸 (七)

空中과 宇宙

무너지는 宇宙의 神秘.....T.D. 화이트 (八)

航空知識普及의 길

航空教育試案.....金 澤 辰 (九)

共產主義者의 反問

나의 空軍時節.....金 昌 順 (一〇)

奇計縱橫하는 獨逸謀報戰

「폴라리스」彈道彈.....金 東 皓 (一一)

美國軍事力의 位置

美國軍事力의 位置.....金 東 皓 (一二)

氣 魄 論

現代政治의 解明.....金 敬 洙 (一三)

最近의 世界地圖

軍人과 讀書.....梁 柱 東 (一四)

人工降雨의 理論

飛擊震天雷와 狒狼機.....鄭 昌 熙 (一五)

未明의 새벽이 燦爛할 때 까지

故人을 回想하는 어느 冊子에서.....洪 曉 民 (一六)

베스트·플롭 (III)

인덕 위에서.....金 八 峰 (一七)

장가는 잘 갔는데

終着驛附近.....廉 相 涉 (一八)

梨園哀史 (上)

金利錫.....洪 銀 杓 (一九)

漫 畫

蒼空圓舞曲.....金 東 皓 (二〇)

나의 空軍時節

셋트操縱士의 隨感.....金 東 皓 (二一)

奇計縱橫하는 獨逸謀報戰

「폴라리스」彈道彈.....金 東 皓 (二二)

美國軍事力의 位置

美國軍事力의 位置.....金 東 皓 (二三)

氣 魄 論

現代政治의 解明.....金 敬 洙 (二四)

最近의 世界地圖

軍人과 讀書.....梁 柱 東 (二五)

人工降雨의 理論

飛擊震天雷와 狒狼機.....鄭 昌 熙 (二六)

未明의 새벽이 燦爛할 때 까지

故人을 回想하는 어느 冊子에서.....洪 曉 民 (二七)

베스트·플롭 (III)

인덕 위에서.....金 八 峰 (二八)

장가는 잘 갔는데

終着驛附近.....廉 相 涉 (二九)

梨園哀史 (上)

金利錫.....洪 銀 杓 (三〇)

漫 畫

蒼空圓舞曲.....金 東 皓 (三一)

나의 空軍時節

셋트操縱士의 隨感.....金 東 皓 (三二)

奇計縱橫하는 獨逸謀報戰

「폴라리스」彈道彈.....金 東 皓 (三三)

美國軍事力의 位置

美國軍事力의 位置.....金 東 皓 (三四)

氣 魄 論

現代政治의 解明.....金 敬 洙 (三五)

最近의 世界地圖

軍人과 讀書.....梁 柱 東 (三六)

人工降雨의 理論

飛擊震天雷와 狒狼機.....鄭 昌 熙 (三七)

未明의 새벽이 燦爛할 때 까지

故人을 回想하는 어느 冊子에서.....洪 曉 民 (三八)

베스트·플롭 (III)

인덕 위에서.....金 八 峰 (三九)

장가는 잘 갔는데

終着驛附近.....廉 相 涉 (四〇)

梨園哀史 (上)

金利錫.....洪 銀 杓 (四一)

漫 畫

蒼空圓舞曲.....金 東 皓 (四二)

나의 空軍時節

셋트操縱士의 隨感.....金 東 皓 (四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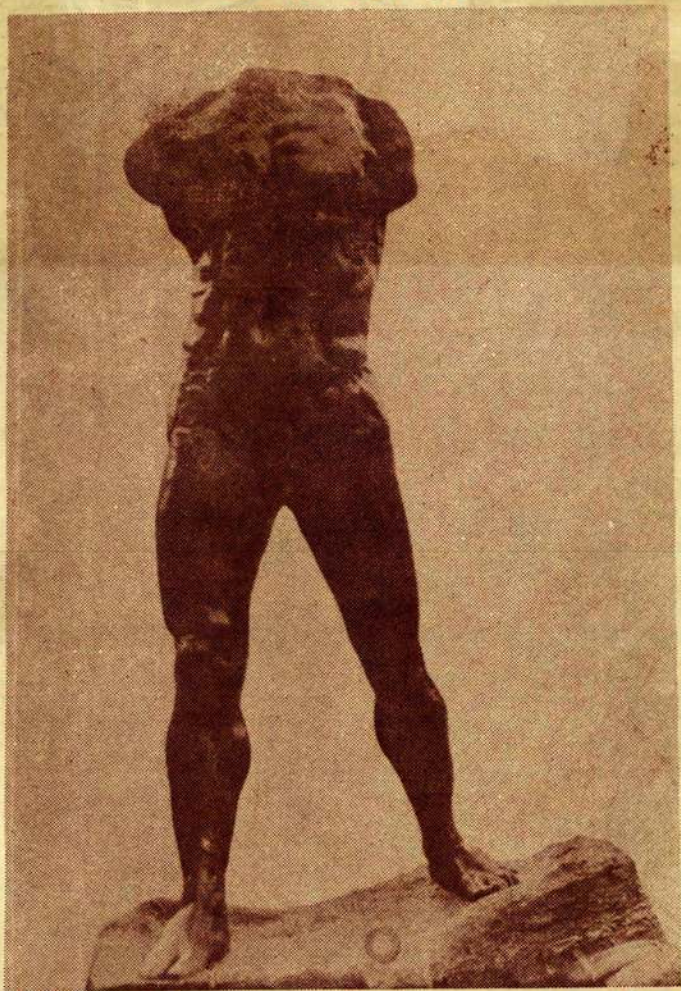
奇計縱橫하는 獨逸謀報戰

「폴라리스」彈道彈.....金 東 皓 (四四)

美國軍事力의 位置

美國軍事力의 位置.....金 東 皓 (四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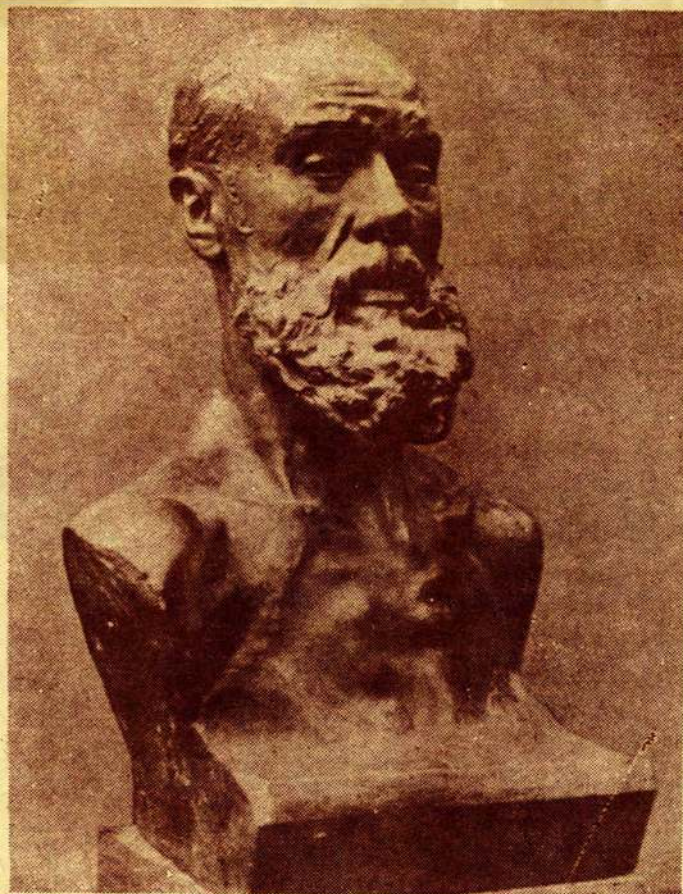
名 作 彫 刻



걸어가는 사람

로망 作

名作彫刻



「로오란스」의 肖像

로망 作

〈趣味의 美術鑑賞〉

「단테」의 꿈

로젠티(Dante Gabriel Rossetti) 一八二八년에 나시 一八八二년에 죽은 英國의 畫家이며 詩人. 그는 「페르디난트」一世에 反하여 「나폴리」에서 英國으로 망명한 伊太利人을 아버저로 하고 「런던」에서 出生, 一八四八년 「매독스·브라운」의 門下에서 美術修業. 나중에 「라파엘前派」를 벗고 結社. 그의 寫實主義的 言明에 上관없이 그의 作品은 神秘的이고 詩的이다. 그의 그림은 情熱에 넘치는 抒情的인 것이며 南方의 象徵主義의 뜨거운 血氣가 느껴진다.

「단테」의 꿈은 伊太利 詩人, 「단테」의 「비타누오와」의 一節, 即 「단테」가 그 애인 「비아트리제」를 死別하고 그 시체를 보러 가는 꿈을 꾸는 것을 그린 것으로서 그의 作品 가운데 가장 重要な 것이며, 綠色과 紅色의 따뜻한 階調를 이루어 많은 사람의 絶讚을 받았다.

방안에는 꽃이 가득히 뿌려져 있고 정면 침대 위에는 金髮白衣의 「비아트리제」가 금방 숨을 진 모습으로 누워있다. 黑衣의 「단테」는 半睡半醒의 상태도 「사랑」

단테·개브리엘·로젠티 作

의 天使한테 이끌리어 왔다. 두 날개를 가진 「사랑」의 天使는 한 손으로는 詩人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詩人의 가슴에 화살을 겨눈 채 「비아트리제」를 입맞추고 있다. 綠色의 두 「꿈의 女人」은 이제 영원히 「비아트리제」를 덮어 버릴 꽃이분. 거기가 꽃이 가득히 없이어 있다.의 양 끝을 꿰고 있다.

이것은 一八九九년에 서 七一年까지의 作品으로 「비타누오」의 「위어커」 畫堂에 保存되어 있다.

自由가 아니면 죽는 靑年이 되라

(대통령 각하 유시에서)



월 일 일.



↑ 공중 시위를 보시고, 미소하시는 리 대통령 각하.

← 푸른 하늘에 은빛 무늬를 그리며, 나르는 우리 F-86젯트기 원대 비행.



↑ 대회장에 휘날리는 태극기

← 지상목표를 명중시켜 화염이 증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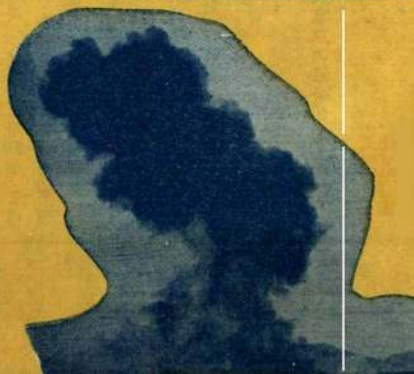
↑ 공중시위를 관람하기 위하여
운집한 시민들.



↑ 낙하산 부대의 낙
하시범
광경

10

↑ 투수 비행을



△유시초▽

이런데 미국 정부로부터 다시 一〇대의 「렛트」기를 우리 공군에게 양도한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바에 는 큰 변화를 위한 싸움이 다. (중략)

그래서 우리는 적과 싸울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그 무기를 주었는데 이를 위해서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바 이제 그들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지평이 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 무기를 주는 것이나 우리는 강퍽한 것을 막는데 이 기계의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후략)

(4388.8.17. 「렛트기 인수식에서」)

x x x

이번에 우리가 다시 새 무기를 받게 되

는 자리에서 말하게 되니 참으로 감격한 일이다.우리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우리 애국 청년들이 남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열렬한 용맹을 가지고 나온 까닭이며.....그리므로 우리가 맹세한 것은 끝까지 나아가서 나라에 복을 바친 군은 마음을 먼저 알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국권을 공고히 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분적에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되어서는 살지 않는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만 하겠다.

(4388.7.15 「렛트기 인수식에서」)

x x x

지난 四〇년 동안 쓰면은 세계적 복을 꿈꾸며 많은 나라들을 허위선전으로 기만하였고 많은 나라를 군사력으로 위협하였다. 쓰면은 또한 많은 자유유방국가들 그들의 위생국화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인구의 반 이상이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침략하려 하지는 않는다. 대신 점으로는 천천히 우습게 띄우고서 속으로는 계속 군

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행히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현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식을 다하고 있다. 이번이 공군본부 청사의 준공은 그물적인 증거이다. 오늘 그 낙성식에 제하여 미대를 따라보고 거기 준비물 가 주는 안목을 가진 미국의 여러 친구들에게 영원히 가지지 않는 감사의 뜻을 표한다.

(本部廳舍落成式에서)

x x x

(전략) 학교 교장이자 교직원 장교 여러 분이 다 잘 해나가는 것을 치하하는 동시에 우리 장병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국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듦이 나가는 것을 내가 치하하며 더욱 바라는 것이다

(중략) 각국의 군인들 중에서 우리가 전면에 서서 잘 해나간다는 칭송을 들어야 할 것이니 이러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며 잘단란 말로 치하하며 또 더욱 기대하는 바이다.

(제六기 장사생들입식에서)

코 메 트

THE COMET



第 35 號

12

△卷頭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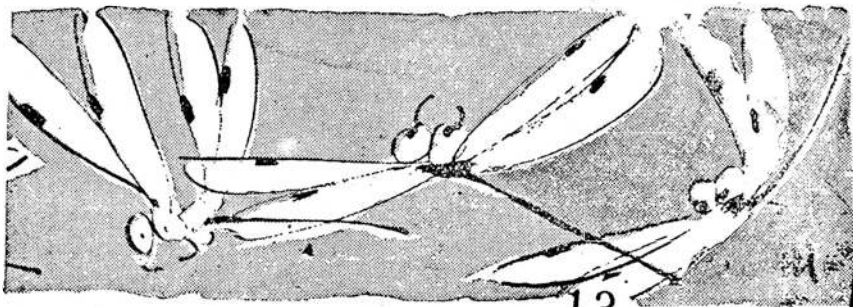
統一達成을爲하여

政訓監 金 基 完

十月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살진다하여 예로부터 天高馬肥의 季節이라 일컬어 왔다. 들로 나가면 웅만한 자승품은 잡을수 있는 季節이요, 찌프린 주름살이 퍼질수도 있는 環境과 霧圍氣다.

收穫의 季節이다. 苦難과 努力의 報酬를 받아드려 興겨운 철이다. 또한 不可抗力으로 因한 것을 除外하고는, 나타난 結果로 지난날의 自己 足跡을 反省할수도 있는 달이다.

해마다 이달이 오면 우리 空軍은 生日날을 맞는다. 벌써 生日잔치하기를 열번째다. 喜悅과 浪漫이라는 가을의 生理에시가 아니라, 우리의 誕生을 國民들과 더불어 眞情祝福하고 기뻐하며, 아울러 그 誕生의 意義를 새움게하고, 自覺하는 모



임을 갖는 것이다.

十年이란 歲月이 짧은것 같으나 方便으로 山川이 變한다는 年輪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오늘 十月一일, 우리는 國防의 意義를 새롭게 하면서 創軍十年間은 특히 變하며 자라난 우리의 모습과 힘을 誇示하며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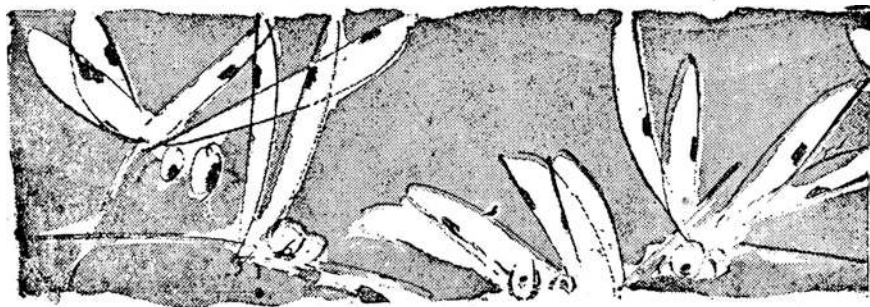
그 기쁨, 그 자랑은 비단 우리만의 자랑과 기쁨이 아니다. 온 겨레의 기쁨이요, 자랑이며 우리를 도와준 友邦뿐만 아니라 全自由民의 기쁨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오늘의 모습과 힘만으로써 解決될 수 없음을 自認해야 한다. 보다 變換 모습이며, 보다 強力한 힘이 우리의 課業達成에는 要求되는 것이다. 統一達成을爲하여 우리는 無限한 發展이 있어야 한다. 自己의 現位置를 自覺하며 創軍의 意義를 銘心하고 이에 符合할 수 있는 自己의 모든것을 淨化하고 갖추어서 토포히 發展시켜야 한다.

우리의 戰鬪裝備가 防衛뿐만 아니라 統一戰鬪의 一翼을 擔當하는데 損色이 없도록 強化되어야 함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의 一舉一動은 오직 祖國의 統一을爲하는데 基礎를 두었다는 證據를 提示할 수 있도록 뚜렷하고도 強力해야 한다.

十月、國軍의 날을 맞는 所懷



— 4 —
☆第三回 國軍의 날을 맞이하여☆

空軍將兵에게 부치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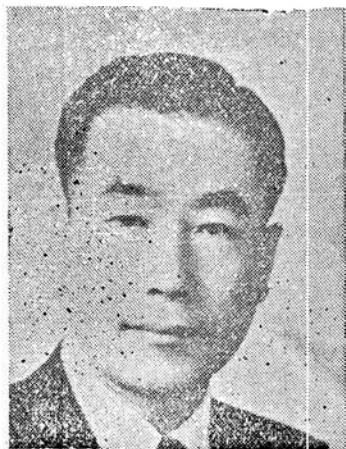
國防部長官

金

貞

烈

15



十月一日은 第三回 國軍의 날인 同時에 航空日이다。
오늘의 航空日은 우리 空軍의 創設 第十周年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六·二五戰亂이 일어나자 練習機에 爆彈을 싣고 손으로 敵陣에 投擲하던 그날에 比하여 堂堂한 제트機隊를 가지고 祖國의 하늘을 지키는 우리 空軍의 飛躍的인 發展은 實로 大韓民國의 자랑거리라 할 것이며 이 오늘의 盛觀을 가져오기 爲하여 殉國一念으로 奮鬪를 거듭하여온 數 많은 空軍勇

士들에게 致賀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

近代戰이 總力戰이라 하는것은 누구나가 周知하는 일이다.

戰鬪力만이 아니라 政治力、經濟力、精神力 등이 渾然히 하나가 되어 近代戰의 戰力을 形成하는 것이라 하지마는 또 戰鬪力 그 하나만을 育成하기 爲하여서도 軍 政府 民間이 渾然 一致하여 이것을 뒷받침 함으로서 비로소 可能한 것은 역시 再言할 必要가 없다. 오늘 맞이하는 航空日도 따라서 비단 空軍創設記念日로서의 意義만이 아니라 全國民이 航空에 對한 認識을 또한번 새로이 하고 여기에 全幅的인 協助와 支持를 아끼지 않을 決意를 또 한번 굳게하는 意義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國軍의 날이자 航空日이라는 뜻깊은 날을 當하여 우리는 空軍力이 近代的戰鬪力의 中核임을 다시한번 銘記하고 空軍增強을 期해 加一層의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은 勿論이려니와 우리 空軍將兵들로서는 우리 空軍에 對한 中外의 聲援과 期待에 酬應하여 말은 實務를 完遂할 決意를 새롭게 해야 될을 믿는다.

그러기 爲해서는 空軍의 傳統的 團結精神 밑에 끊임없이 새로운 戰術戰技를 鍊磨함과 아울러 旺盛한 國志를 培養해나아가야 할 것이며 常時 臨戰態勢를 堅持하여 어느곳에서 敵의 攻擊에 直面하더라도 能히 擊破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準備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뜻깊은 航空日을 맞아 우리는 長足の 發展을 한 空軍의 現狀에 満足해서는 안될것은 勿論 敵의 空軍力을 凌駕하고 어떠한 侵攻에서도 祖國의 하늘을 지킬수 있는 強力한 空軍의 育成을 위해 總邁進해 줄것을 거듭 強調하는 바이다.

第三回 國軍의 날 記念辭

空軍參謀總長

空軍中將 張

德 昌



激動하는 國際情勢로 自由世界의 安危가 一大試
練에 直面한 오늘 이마당에서 第三回 國軍의 날
을 맞이하게 되어 創軍 十年間의 偉業을 回顧해볼
때 感懷 實로 無量함을 禁할 길 없는 바입니다。
그동안 創軍의 大義를 위하여 獻身해온 國軍將
兵과 愛國의 聲援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國民여러
분께 衷心으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며 아울러
友邦 美國을 비롯한 自由世界 諸國國民의 物心兩面

의 援護와 激勵에 깊이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國軍誕生의 歷史와 나라니하여 열개의 年輪을 쌓은 우리 空軍의 발자취가 實로 苦痛스러운 荊棘의 길이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強力한 最新式 武器로 裝備된 또하나의 戰鬪飛行團을 增設하려던 우리의 宿願은 마침내 成就되었으며 이에 따르는 各種 部隊도 增強擴張되어 名實相符된 戰術單位의 現代空軍으로서의 規模를 가추게 되어 우리 國軍뿐만 아니라 全國民 여러분과 慶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共產主義者와의 鬪爭에 있어서 우리는 決코 외롭지 않을 것이며 忠勇한 우리 空軍將兵은 不徹晝夜 間斷없는 敎育訓練을 通하여 敵侵時 敵에게 致命的인 膺懲을 加할 萬般의 準備를 着着 進行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번째의 國軍의 날을 마지막에 된 오늘 本人은 全國軍將兵과 함께 오로지 創軍의 至上目標인 國土防衛를 위하여 信念과 確信을 더 한층 굳게 함과 同時에 自由 世界의 國民共通의 生活方式를 守護하는 世界的인 使命을 完遂하는데 一翼이 될것을 國民앞에 다시 한번 盟誓하는 바입니다.

△메세이지▽

韓國空軍에 期待함

駐韓美國大使

윌터·따우링



이제 自由世界는 地球를 둘러싸는 수많은 고리(環) 모양으로 防衛의 鐵鎖를 굳건히 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信賴할 만 한 것 중의 하나로 大韓民國이 있다. 共產主義者들의 攻勢의 意味를 直接 體得한 貴國은 어떠한 武力侵略이라도 防禦할 重要한 任務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軍事力을 準備해 놓았다. 만약 그러한 攻勢가 있을 時에, 大韓民國空軍은 韓國의 獨立과 國土를 守護하는데 主要한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이事實은 韓國의 陸海軍과 아울러 空軍에게 그 國境바깥으로까지 미치는 重大한 意義를 賦與하는 것이다.

全自由世界의 防衛陣에 附加하여 韓國의 軍事的能力은 共產侵略의 防止者인 同時에 侵略에 對한 不變의 警告가 되고 있다. 이러한 意

味에서 韓國空軍은 世界의 平和의 維持를 爲하여 重大한 功獻을 하였고 또 現在도 繼續努力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人間이 使用할 수 있는 破壞力이 地球上 全國家라도 破滅속에 몰아넣을 수가 있게 된 때문에 이 世界平和는 반드시 維持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韓國의 生脈 가운데 空軍이 行하고 있는 또 하나의 重要な 任務가 있다. 直接的인 觀察를 통하여 나는 韓國空軍의 副次的인 功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主業務의 副產物인 것은 事實이나 韓國의 發展과 그 平和스러운 生活를 爲해서는 顯著히 눈에 띄는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韓國內의 다른 機構의 追從을 不許할 만큼 高度의 機械工學上의 造詣가 韓國空軍에 依하여 수천명의 韓國靑年들 가운데서 質적으로 또는 그 範圍에 있어서 發展되어가고 있다는 事實이다.

오늘날 韓國에 實施중인 工業現代化의 成功을 위해서는 現代工學의 發展된 分野에 있어서의 많은 教育받은 專門技術者들이 要求된다. 이것은 主로 機械工學 및 雲氣工學의 廣範圍한 分野를 말하는 것이지만, 通信 精密金屬 工業, 水理學等도 包含된다.

지난 번 나는 金海에 있는 空軍技術學校를 訪問할 기회를 가졌었다. 거기에서 나는 教育者거나 被教育者이거나 莫論하고 그 眞摯하고 熱誠의인 態度에 感動하였고 그들이 모두 熱心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깊은 感銘을 받았다. 敎官들은 모두 貫祿이 있는 敎官들이었다. 그리고 比較的 歷史가 오래지 않은 韓國의 科學 및 工藝學의 現況을 생각해볼 때, 거기에서 被教育者에게 習得되어지는 精緻한 造詣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教育의 效果는 몹시 複雜한 「F-86」 제트機를 이들 學生들이 能嫺히 操縱하고 있고 또 비행기가 工場에서 나왔을 때와 조금도 다를없이 好調로 操縱되고 있다는 데서 곧 實證된다. 또한 現在 相當數의 韓國空軍이 專門的인 技術教育을 받기 爲해 美國에 派遣되고 있다는 事實도 이 證據가 되며, 더 그 證據를 찾자면, 韓國空軍 自力으로 樹立한 特許 空輸業務에 있어서의 飛行安全記錄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일찍이 美空軍將校들이 韓國空軍의 整備能力은 그들과 같은水準에 올라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空軍技術學校學生 全部가 軍人으로서 生涯를 보내려고는 하지 않는다. 每年 여기에서는 많은 學生들이 市民으로서의 社會生活를 하기 爲해 輩出되어 나간다. 비록 空軍에서는 이러한 學生들의 훌륭한 能力을 空軍에서 잃게 된다는 事實을 섭섭히 생각은 하겠지만 祖國의 發展에 要求되는 機械工學을 爲해 重要な 밑받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에서 자랑을 느끼고 좋은 것이다. 能率의인 軍事的 防衛力으로서 또 祖國의 經濟, 發展을 爲한 主役軍으로서, 大韓民國空軍은 그들의 祖國에 緊要한 活力을 부어넣고 있다.

Sincerely yours,

William Dowling
American Ambassador

△메세지△

韓國空軍에 期待함

駐韓比律賓大使

에드와르도·퀸테로



RECEIVED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has received the warmest congratulations to the officers, pilots and crew of the ROK Air Force on the occasion of its tenth anniversary.

The ROK Air Force started with a modest beginning when a few non-combat flight planes bearing the Korean National flag flew over Korea for the first time in September of 1948. As the years went by a very potent, efficient and dependable wing of the ROK Armed Forces has been built up. After a decade the ROK Air Force has gained much combat experience and its flying record is enviable.

The organizational skill of its high ranking officers, the aptitude of its junior figures and the loyalty, devotion to duty and patriotism of its members bear the test of any scrutiny of evaluation.

The fighting strength of the ROK Air Force has been increased with the acquisition of more modern combat planes.

The author therefore concludes that in any eventuality the ROK Air Force will be prepared fully to defend the Korean Republic to the very end with all its might to the ground.

The ROK Air Force will be dedicated to the sacred objective of the Republic's preservation in any form.

Edw. Quintero
 Ambassador

大韓民國 空軍創設 第十週年記念日を 맞이하여 韓國空軍 全將兵 여러분께 衷心으로 祝賀의 뜻을表하는 바입니다.

韓國空軍은 一九四八年 十月 太極旗 標識을 단 빛대의 非戰鬪用 輕飛行機가 韓國上空에 처음 날음으로써 조출한 그 첫발자욱을 내어디디었습니다. 그러다가 歲月이 흘러감에 따라서 有能하고 힘있는 그리고 믿음직스런 大韓民國 國軍의 一翼으로 育成되었습니다. 그 뒤로 十年이 지난 오늘날 韓國空軍은 많은 戰鬪經驗을 쌓았으며 그 飛行記錄은 他的 羨望의 的이 되었습니다.

高位級 將校들의 卓越한 組織能力과 操縱士의 優秀한 技倆、그리고 上下一體의 責任과 愛國心에 對한 忠誠과 獻身、이러한 것은 果然 他的 模範이 될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韓國空軍의 戰鬪力은 現代의인 戰鬪機와 裝備의 導入으로 더욱 強化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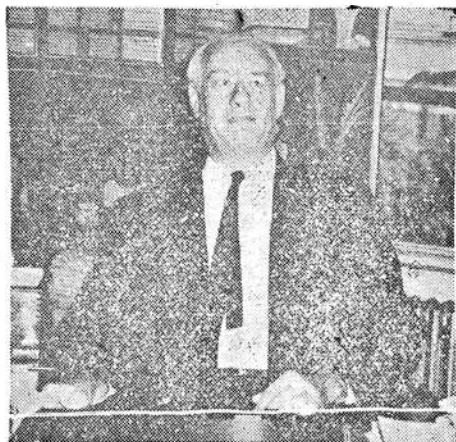
그러므로 本官은 韓國空軍이 必是 韓國上空을 守護하기 爲해 充分한 準備를 갖추게 될 것은 勿論 어떠한 形態이건 敵의 攻擊에 對備하여 싸워 이길 共同目的 아래 있는 陸軍 및 海軍을 全力을 기울여 支援할 充分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을 疑心치 않는 바입니다.

△매세에지▽

韓國空軍에게

駐韓西獨公使

리카아드·헤르츠



共産軍과 對陣하고 있는 前線에서 不過 四十마일 밖
 에 떨어져 있지 않은 首都 서울은 현재 敵이 마음만
 먹는다면 數分내에 敵機의 攻撃을 받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敵機를 邀擊하는 것은 純然히 有能
 한 操縱士의 勇氣와 技倆에 依存하는 것이다. 이 한
 가지 例는 그 愛國熱과 勇敢性으로 全自由世界友邦國
 家の 賞讃의 的이 되고 있는 韓國空軍에게 우리가 依

持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明示해준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지나치게 科學武器를 믿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特히 空軍과 같은 國防의 分

團에 있어서는 個個人の 責任의 重要性을 마음에 불러 일으키는 것이 重要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筆者는 航空이라는 것의 初期로부터 그 發達課程을 目擊해온 世代에 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五十

年 동안의 世界空軍의 눈부신 發展은 決코 人

間的인 要素를 萎縮시키지 않았으며 現在도 戰

爭과 平和問題에 있어서의 空軍의 成功如否를

決定하는 基本的인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韓國 空軍이, 現代의 航空機라는 큰

배를 大空에 달리게 할 수 있는 高度의 技

倆을 갖추 軍人들을 가지고 있음을 深深地

느끼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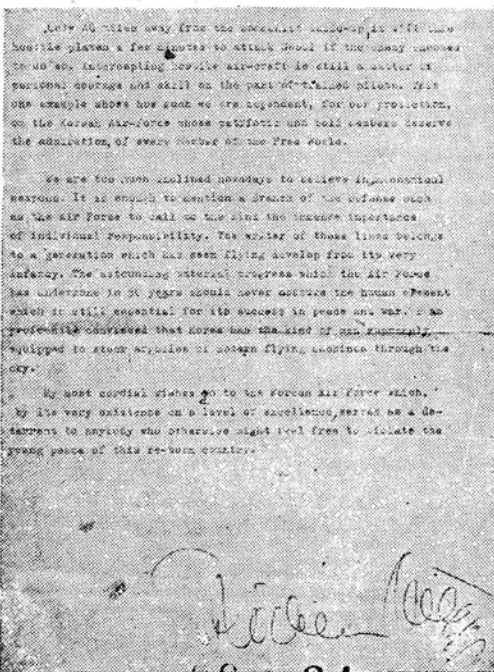
優秀한 實力과 水準을 保持함으로써 이 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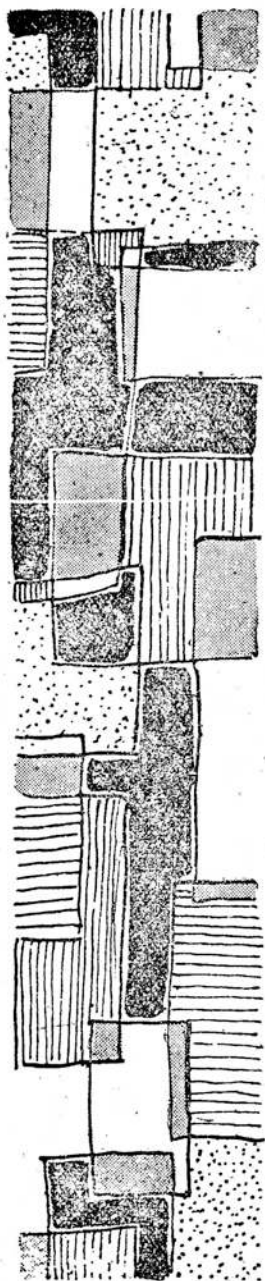
生한 國家의 오래지 않은 平和를 攪亂하려고

하는 어떠한 國家에 대해서라도 그 굳건한

防止者가 되고 있는 韓國空軍에게 衷心으로

祝賀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UN은反省이 있어야 한다

黃 聖 秀

25

一

國際聯合의 制度와 運營問題에 對해선 이미 지난 年末에 軍放送을 通하여 前後 十餘次에 걸쳐 講演한 바도 있으나 本稿에서는 그中에서도 主로 UN이 當面하고 있는 緊迫한 問題點의 指示와 同時에 그의 缺點을 剔抉하고 아울러 앞으로의 UN은 어떠한 規制와 原則 밑에서 運營되

어야 할 것인가를 考察해보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具體的인 問題에 對한 奧妙한 理論의 穿鑿은 可及의 迴避하고 韓國이 놓여 있는 國際的位置을 基點으로 하여 이것에 따르는 國際情勢의 聯關性위에서 이와 같은 問題點을 取扱해 보기로 한다.

오늘날에 있어 UN은 世界的인 規模의 國際政府를 意味한다. 그것은 하나의 法——憲章——을 中心으로 한 하나의 社會——國聯機構——임에는 틀림 없다. 그存在

는 평화와 안전을 希求하는 人間에게 있어선 辟으나 刺戟의 인 것이며 獨立과 主權을 사랑하는 國民에게 있어선 辟으나 鼓舞의 인 것이다. 따라서 世界法과 世界社會의 可能性도 여기에서부터 探求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비록 그存在가 萌芽에 不過하고 그活動이 斷片的인 것일찌라고 侵略을 防止하고 世界平和의 維持에 渾身의 努力을 繼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선 UN이라는 共同體야말로 強烈한 印象의 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우리들의 努力과 期待에도 不拘하고 그間에 繼續되어온 UN의 活動은 너무나 杜撰하고 不完全한 것이어서 正녕 UN이 우리에게 平和와 統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은 한낱 夢으로 된 憾도 없지 않다. 勿論 우리의 祖國統一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룩되고야 말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全世界民主主義國家와 國民의 共通의 願望과 理想인 世界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對한 UN의 努力에는 恒常敬虔한 協力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悍惡한 共產國家들에 依한 行動法式으로 因하여 阻止되고 破壞될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와같은 UN의 努力과 勸告에만 蟬覬하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UN이 統一을 爲한 性急한 計劃을 마련하지 않을 때 그리고 共產國家의 繼續的인 拒否權이

行使될 때 여기에 對한 自律的인 強力한 對策을 講究하는 同時에 過去 韓國動亂時에 볼 수 있었던바 와같은 UN憲章의 多樣性과 彈力性을 繼續 發揮할 수 있는 機能的變化의 方向으로 우리의 努力을 繼續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二

大體로 오늘날 UN이 當面하고 있는 커다란 苦悶은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에 있어서의 權限配分의 問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UN自身的 反省도 自然이 두가지 問題로 集約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먼저 兩者에 對한 權限問題를 是非하기 前에 UN의 性格을 暫時나마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그것은 總會나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問題를 論함에 있어 UN機構가 태어나기까지의 歷史的過程에 對한 慎重한 檢證없이는 正確한 討議가 不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嚴格한 意味에서 UN의 歷史를 따진다면 그것은 一九四三年九月二十一日 美國議會를 通過한 풀브라이트決議 *Fulbright Resolution*에서부터 始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해 五月九日には 獨逸軍의 降伏이 있었고 이로부터 次날後인 同年九月八日には 伊太利의 無條件降伏이 있

있으며 太平洋戰爭에 있어서도 前年부터 始作된 홀로몬 群島의 作戰에서 日本軍은 退却하기 始作하여 이해에 들 어서면서 戰勢는 더욱 有利하게 展開되어 日本軍의 敗亡 은 거이 決定的인 段階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美國議 會에서는 戰後の 平和體制問題를 論議하기 始作하여 永 續적인 平和建設은 오직 國際機構의 結成으로서만 可能 할것을 確認하고 同時에 美國의 여기에 對한 積極的參加 를 主張하고 前記한 폴브라이트決議를 通過시켰던 것이 다. 그後 美國은 加一屆 UN機構設立에 對한 熱意있는 活動을 繼續하였고 이것의 가장 代表的인 意思表示로 우 리는 同年十月十九日에서부터 十月三十일까지 十餘日에 걸쳐 있었던 美英소三國의 모스코바會談 그리고 同年 十一月五日 美國上院을 壓到的으로 通過한 카를리決議 Co- finally Resolution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모스코바會談 에서나 또는 前記한 폴브라이트決議 그리고 이번의 카를 리決議에 있어선 다만 UN機構의 必要性을 主張하는데 그치고 그것의 明確한 性格規定은 後日로 미루워졌던 것 이다. 이리하여 美國의 發議로 와싱턴效外 담바튼 오 178 Dunbarton Oaks의 모인 美英中소의 四個國會談 에서는 國際機構의 性格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主權平等의 原則과 世界平和의 維持에 對한 大國間의 責任과 協力을 規定하는 所謂 大國主義의 二點을 規定하기에 이른 것이

다. 國際總會의 機關으로서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를 構 想한것도 實은 이와같은 두가지原則을 實踐키爲한 徵表 라고도 볼 수 있다. 卽 世界平和와 安全을 維持할 責任 을 安全保障理事會에 두고 理事會는 自己의 決定으로서 加入國의 紛爭解決을 勸告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侵略行 爲와 같은 平和를 威脅하는 行爲를 阻止키 爲해서는 加入 國으로 하여금 經濟的 또는 軍事的인 強制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하는 強力한 權限까지도 附與키로 構想되었던 것 이다. 이와같은 構想은 總會나 理事會에 아무런 執行權 도 賦與되지않고 單純한 勸告機關에 不過했던 戰前의 國 際聯盟과는 根本的으로 相違한 것으로서 平和維持의 機構 로서는 進一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이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理事會의 決議가 侵略行爲 를 阻止하고 制裁手段을 決定하는 強力한 強制力이 있고 보니 國際聯盟時代와 달라서 그것을 決定하는 方法으로 多數決에만 依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理事會의 決 定이 單純한 多數決에 依할 때에는 自國의 意思에 反해 서 아무런 關心도 없는 地域을 爲하여 自國의 兵士가 酷 使되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의 陸海軍 의 幹部가 美國의 兵力使用에 對해 拒否權을 要求한것도 其實 이와같은 事情에서 온 것이었다. 여기에 있어 이와 같은 大國間의 必要以上の 過重한 犧牲을 拒否하고 自國

의安全을保障키爲한方法으로採擇된것이 이른바 國間の拒否權인 것이다. 以上으로 우리는 拒否權問題가 具體的으로擡頭되기까지의 國際聯合의 結成過程의 一面을보아온 것이다. 이以外에도 一般的인 歷史的인 必要한 說明은앞으로 있을 拒否權 유엔常備軍 地域協定 國聯 強化軍 등 本稿가問題삼을 一連의 UN의 反省點에 對한 說明을 돕는 範圍內에서 더욱 詳細하게 論及하기로 한다.

三

오늘날 우리가 UN의 反省을 促求하는 許多한 問題를 論함에 앞서 看過할 수 없는 가장 基本的인 重要點을 憲章原文에 對한 法律的討議의 正否는 姑捨하고 一九五〇



〈著者〉

年의 韓國 動亂을契機로 하여 國聯의 中心點에 非常한 變化를 가져왔다는事實이다. 오

늘날의 總會는 지금까지 安全保障理事會만이 行使할 수 있다고 믿었던 大部分의 權限을 引繼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總會의 能力의 源泉은 實로 侵略에 對抗하려는 前進基地로서의 UN의 所信일 지언정 決코 憲章條文의 文句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一九五〇年 十一月 유엔總會가 「平和를爲한團結의決議」 Uniting for Peace Resolution로서 「平和의維持에 對한 重要한 責任을 가진機關이 그責任을 完遂치 못할 때에는 總會는 國際 平和及安全을維持하는데 有效한 集團의措置를 取할 수 있다」고 하는 (憲章第一條目的中第一) 總會決議도 따지고 보면 憲章의 어느條文에도 總會에 그와같은 權限이 있음을 明記한 規定은 없는 것이다. 安全保障理事會의 必要한 措置가 拒否權으로 因하여 行動이 阻止될 때 總會가 平和를破壞한 事態를 檢討하고 侵略의 事實을 決定하는 同時에 自國의 武力을 包含한 侵略을 擊退할 수 있는 必要한 措置를 加盟國家에게 勸告할 수 있는 權限조차 認定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無意味한 것인 것이다. 憲章第二十四條는 安全保障理事會에 對하여 「國際平和及安全의維持에 關한 主要한 責任」만이 있음을 明示하고 있으며 主要한 責任이란 安全保障理事會가 全的인 責任을 갖는 것이 아님을 意味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問題는 總會가 그와같은 事實을 確認할 수 있는 組織體系와

加盟國政府가 總會의 勸告를 履行하는데 必要한 武力에 對한 保證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總會의 勸告의 實効性을 加盟國의 「平和를 爲한 團結」의 努力과 또한 安全保障理事會 또는 總會의 要求에 依하여 인제든지 自國의 武裝軍隊를 出動시킬 수 있는 準備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確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國際司法裁判所를 國聯의 職務遂行中에 있는 損害賠償에 關한 原則을 決定하는 가운데 憲章의 解釋에 있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卽「國際法에 依하면 비록 憲章에 明白한 規定이 없더라도 國聯機構는 그 義務遂行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權限은 暗暗裡에 附與된 것으로 看做한다」라고 하여 所謂 明示權限說을 明白히 肯定함으로써 國聯各機關의 權限에 對한 精密한 解釋說을 決定的으로 排擊하고 있는 것이다. 萬若에 憲章이 個人的 私權을 規定하고 貿易協定과 같은 契約事項에 關한 記述이라면 말한 것도 없이 精密한 解釋이 必要할 것이지만 그러나 憲章은 法文임에는 틀림없으나 同時에 그것은 多數國家代表者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對한 願望과 각가지의 理想 그리고 道義의 感情을 集約한 하나의 政治文書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憲章은 이미 存在하는 世界國家의 統治를 目的하기 보단 全人類가 期待하는 未發達한 國家社會를 그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萬若에 加盟諸國이 憲章의 精

神보단 字句解釋에만 齟齬한다면 國聯機構는 멀지 않은 將來에 廢氣樓와 같이 사라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으로 생각될 點은 拒否權問題다. 이미 여기에 對해서는 지금까지 數없이 論議되어왔고 또한 그것에 對한 批判이 여러 면에 걸쳐 加해지고 있는 터임으로 本稿에서는 이에 對한 詳細한 論及을 廻避하나 다만 여기에 特記할 事實은 拒否權에 依한 國聯의 安全保障機能의 狀態를 救濟키 爲한 國聯強化等이 美國에서 提案되어 一九五〇年十一月三日 國聯總會에서 壓到的 支持를 받고 通過되었다는 事實이다. 여기에 對해서 앞서言及한 바도 있거니와 이제 그 重要한 點을 簡單히 列舉해보면, 첫째로 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拒否權行使로 國聯의 安全保障이 阻害될 때엔 總會는 兵力의 使用을 勸告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는 國聯加盟國은 何時든지 國聯이 命하는 任務에 限할 수 있는 兵力을 各國의 國軍中에 常時 維持한다는 것, 셋째로는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 當事國의 同意를 얻은 後에 現地에서 紛爭에 關한 獨自의 調查를 行하고 이것을 總會에 報告케 할 平和監視委員會의 設置, 넷째로는 二十四時間의 豫告로서 會議가 招集될 수 있도록 總會의 手續規則을 修正할 것 등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拒否權行使로 因한 國聯機能의 마비를 最大限度로 排除하고 이것으로서 世界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도록 하자는 것

이다. 其實 國際紛爭의 當事者인 경우에 있어서도 拒否 權의 行使를 許容하고 있는 現國聯機構下에서는 總會中 心主義와 地域的集團 安全保障으로 發展될 道理밖에 달리 方途가 없는 것이다.

세째로 유엔常備軍問題다. 安全保障理事會의 指揮를 받 게될 UN常備軍은 그동안 五大國의 參謀總長에 依한 軍 事委員會는 組織되었으나 憲章第四十三條에 規定하는 特 別協定 卽 加盟國이 負擔할 兵力 援助 便益等 問題에 있 어 美英兩陣營의 分擔兵力에 對한 基準의 見解差異로 오 늘날 까지 成立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侵略者를 制裁할 集 團 安全保障機構로서의 UN의 一大缺陷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이와같은 UN의 弱點을 「카바」하 고 安全保障理事會나 總會의 制約을 받음이 없이 地域的 인 集團 安全保障機構를 가짐으로써 世界平和와 安全을 維 持하자는 말하자면 國聯의 精神을 地域的으로 살펴보자 는 案이 近來에 와서 活發히 推進되고 또한 實踐되고 있 음은 攄으나 注目할 일이라 하겠다. 勿論 이와같은 地域主 義가 國聯의 世界主義와 併立케 된 데는 中南美의 라틴 아 메리카諸國과 美國과의 關係를 度外視하고는 說明될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何如든 오늘날 地域的集團 安全保障 機構의 發展은 國聯의 所期대로의 目的達成이 危懼視되 고 있는 오늘날 世界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있어 가장 鼓

舞의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問題삼은 것은 地域的集團 安全保障機構의 非常軍을 UN도 使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四

以上으로 우리는 UN의 機構와 運營의 兩面에 걸쳐 금까지의 經過를 回顧해본 同時에 거기에 低迷하는 矛盾 과 反省點을 아울러 別快해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 막으로 UN과 韓國과의 關係를 若干 考察해 보기로 한다. 一九五〇年 六月二十五日 末明을 期하여 北韓傀儡는 大 韓民國에 對하여 全面的인 攻擊을 加해왔으며 이것에 對 한 UN의 反應은 그들의 武力行爲를 侵略行爲로 規定하 는 同時에 卽時 三八線以北으로의 撤退를 要求하였던 것 이다. 그러나 그들의 侵略行爲는 이와같은 유엔決議를完 全히 默殺하고 終乃는 中共軍의 介入으로 더욱 擴大되어 끝내는 UN으로 하여금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짓는 同時 에 一九五一年 五月 總會는 國聯으로서는 最初의 國際經 濟制裁인 中共 및 以北傀儡治下의 地域에 對한 軍需品目 의 輸出禁止를 勸告하는 決議案을 採擇하였다. 이보다 앞 서 一九五〇年 十月七日 總會는 맥아더將軍에게 民主的 이며 獨立된 統一政府樹立에 必要한 一切의 措置를 取할

것을 勸告하는 다음과 같은 內容의 決議를 본바 있었다.

첫째, 全韓國을 通하여 安定狀態를 確保할 모든 適切한 措置를 取할 것,

둘째, 主權韓國에 統一되고 獨立되고 民主主義的인 政府의 設立을 爲하여 유엔 主宰下에 選舉를 包含한 모든 措置를 取할 것,

셋째, 平和의 回復 選舉의 施行 統一政府의 樹立에 있어서 유엔의 機關과 協力하기 爲하여 南北韓國人의 모든 部面과 代表機關을 招請할 것,

그러나 이와 같은 UN의 決議는 前記한 바 中共軍의 介入으로 한거들의 進展도 보지 못한채 後의 休戰協定成立으로 오늘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一九四七年十一月十四日 四十對零棄權 六으로 韓國의 自由選舉와 政府樹立을 監視하고 援助키로한 UN 決議를 想起할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大韓民國政府는 實로 이와 같은 UN 決議에 依하여 UN 監視下의 自由選舉를 거쳐 樹立된 合法的政府이기 때문이다. 後大韓民國政府는 韓國에서의 唯一한 合法的政府로 一九四八年十二月十二日の UN 總會에서 四十八對六의 絕對多數로 承認되는 同時에 UN은 다시 新韓國委員會를 派遣하여 韓國의 完全統一을 援助토록 決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UN은 韓國에서의 唯一한 合法的政府로 大韓

民國政府를 承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大韓民國에 對하여 武力으로 侵略한 以北傀儡과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主義的인 政府樹立을 爲하여 選舉를 包含한 모든 措置를 取할것을 決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는 統一政府의 樹立을 보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러 있는 前記한 UN 決議의 違背일 뿐 아니라 國際間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 이目的을 爲하여 平和에 對한 脅威의 防止및 除去와 侵略行爲에 對하여 有効한 措置를 取할것을 規定한 UN 目的의 違反인 것이다. 우리는 UN의 이와 같은 撞着되고 逆說의인 自己行爲에 對하여 앞으로 UN憲章에 立脚한 正道的인 立場에서 우리의 立場을 主張하는 同時에 二非違를 糾彈하고 是正하는 方向으로 온갖 力量을 傾注하잖으면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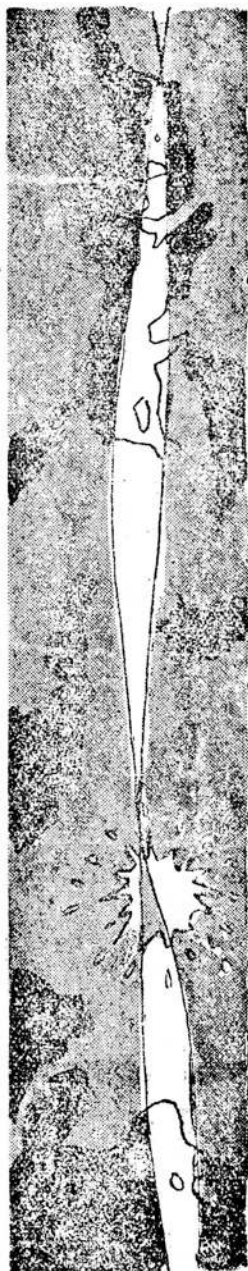
五

以上으로 우리는 韓國과 UN을 一環으로 繼起된 지금까지의 過程을 回顧해 본 同時에 그의 問題點도 數三指摘하여 보았다. 그實 憲章이 理想하는 國際正義의 維持와 伸張에는 이것이 共產國家들에 依하여 尊重되고 履行된 道德的水準과 이를 强要할 수 있는 힘의 實踐 없이는 安으로 自由國家는 敵意와 恐怖의 中心에서 벗어나서 恒久한 平和를 建設하기는 不可能이나 어쩔수 없이 일인 것이다.

세계의 不安地帶

— 中東事態가 뜻하는 것 —

孔 鎮 恒



「쏘련」이 中東地域에서 그 侵略의 계획을 성취시키느냐 또는 못시키느냐는 문제는 세계의 現狀 情勢에 對하여 앞으로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믿어진다. 먼저 우리는 中東이 人文的 地理的 또는 歷史的으로 어떠한 地帶임을 알아보는 同時에 共產主義가 成功할수 있는가를 檢討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中東이란 것은 「아라비아」 半島를 비롯하여 「카스피아」 海와 地中海사이 에 펼쳐있는 廣大한

地域에 살고있는 대개 回敎를 信奉하는 「세메틱」 種族을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페바논」의 半部만이 基督敎 信者라고 볼수 있다.

「세메틱」 種族은 古代文明의 先驅者로서 옛날 「메소포타미아」 文明과 埃及文明을 創造한 人들이며 더구나 回敎의 創建以後로 中世紀에 있어 北阿弗利加와 地中海沿岸을 휩쓸던 다시말하면 西班牙南端에 「그라나다」帝國을 建設하여 科學 藝術 및 交易과 航海術로써 휘날렸고

近世에 이르기까지 「오토만」帝國의 武力이 希臘을 征服하며 한때 「비엔나」까지 위협하던 만만치 않은 文明의 創造力과 政治力을 가졌던 種族임을 우리는 記憶하여야 할 것이다.

이 「아라비아」의 文明은 七世紀에 「마호멧」이 回回教를 創建한以後 宗教的인 信仰과 情熱로써 中東地域의 모든 文化를 回回敎化하며 모든 人民들을 回回敎徒化하는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回回敎文明이 바야흐로 기울어져 갈때에 西歐의 새로운 勢力이 치밀한 組織과 科學을 가지고 나타난으로써 北阿와 中東의 一部를 殖民地化하며 市場化함으로 말미암아 最近에 이르기까지 「아라비아」의 勢力은 숨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第一次大戰以後 「펜사이유」條約에 依하여 英國이 「팔레스타인」地域에 對한 委任統治權을 잡았을 때에 「자멘호프」博士를 中心으로 한 猶太人의 組織體 「자이오니즘」의 活躍의 結果로 「팔레스타인」地域을 猶太人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이것이 자라서 오늘날 「이스라엘」自由國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거기 千餘年 동안 「아라비아」人에게 占領當했던 이 「팔레스타인」을 世界를 放浪하는 나라가 없는 猶太人에게 돌려보낸 일은 마치 잔잔한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격의 波紋을 일으킨 바가 되어, 以來로 「이스라엘」과 「아라비아」

諸國과의 사이에 새로운 反目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오랜 동안의 暗鬭의 結果로서 爆發된 것이 곧 一九五六年 十月에 發生된 英佛「이스라엘」合作下의 「수에즈」運河 侵襲事件이었다.

이 事件은 결국 「유엔」의 干渉으로 말미암아 英·佛·「이스라엘」의 모처럼의 示威가 좌절되고 말았고 이로 말미암아 英國首相 「이든」이 물러가는 重大한 波紋을 政界에 일으켰다. 이때에 새로이 登場한 人物이 埃及의 首相 「나셀」이며, 美國으로부터 援助를 받지 못하는 反動으로 「소련」이 불기 始作하여 「모스크」를 こん집으로 삼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라비아」聯盟을 꾸민다고 하면서 여러 方面으로 「아라비아」의 文化와 人民들을 조직하는 일을 해오는 것이다.

「소련」은 西方國家와 對立되어 가는 中東地域에 손을 뻗치게 된 것은 事理의 當然인 同時에 民衆의 勢力을 助長하여 既成政權을 전복하는 行動을 격려시킨 것이다. 이러한 事態의 表現이 곧 「레바논」國의 革命事件이며 「이라크」王國의 王權轉覆運動이었다. 그러나 英美는 「요르단」을 包含한 이들 地域의 油田에 對한 莫大한 投資뿐 아니라, 이들 地方의 共產化의 危險性을 看取하고 지난번에 美軍은 「레바논」에 英兵은 「요르단」에 각각 上陸한 것이

이와 같이 美英의 中東地域에 對한 大膽한 軍事的行動은 第二次大戰의 休戰以後로 처음가는 快事인 同時에 「쑨런」은 그 快技를 하염없이 치어다볼 뿐이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外交的 失敗를 招來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美英은 「유엔」의 命令아래 언제든지 이 地域으로부터 兵隊를 撤收시키지 아니할수없는 運命에 處하게 될것인 同時에 앞으로 物資의인 援助와 其他에 依하여 中東의 共產化를 막으려고 애쓸 것이다. 美國이 物資援助와 現實主義로써 世界의 다른 地域에서 全部 成功하였다고 할수 없는만큼 中東에서 어떻게 成功할 것인가는 커다란 疑問인 同時에 「아라비아」諸國의 西歐文明에의 歸依가 그렇게 容易한 일 아니며, 宗教信奉의 情熱이 強烈한 이 種族들이 無神主義의 共產勢力에 그렇게 쉽사리 服從할런지는 疑問일 것이다.

타오르는 砂漠의 灼熱과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아가는 낙타위의 「아라비아」人에게 階級意識이나 資本主義의 憎惡感이 무슨 效果가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는 오직 한 주먹의 떡과 來世에 對한 永生의 信念의 追求가 있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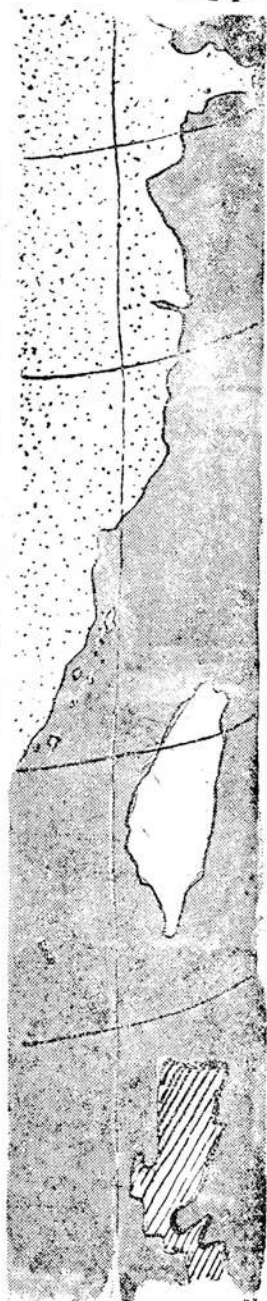
더구나 一九五三年 「스탈린」의 死後로 오늘날 「후루쉬 초프」를 中心으로 勢力의 暗闘가 그치지 않는 이 때에, 또한 「항가리」革命과 波蘭의 反共義舉以後로 衛星國家들의 民心을 수습하기에 餘念이 없는 이 때에, 共產指導者 그들이 中東을 共產化하고 다음에 阿弗利加를 共產化하는 巨業을 達成하기에는 이미 彈力을 잃어버렸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테바논」의 美軍上陸과 아울러 「쑨런」의 當

황하고 無能한 態度는 녀넌히 이를 證明한다고 본다. 中東은 그 巨星 土耳其가 「쑨런」과 正경하여 가로질러 있고 그 人民은 어디까지나 宗教的인만큼 쉽사리 共產化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同時에 世紀的으로 내려오는 西歐에 對한 感情의 나뭇으로 해서 용이히 美英에 굽히지 않은 自主的인 態度로서 이렇저렇 나가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美國이 다만 物資援助를 떠나서 思想 또는 教育宣傳으로써 이 地域에 浸透해 들어간다면 將來의 귀추는 달라지리라.

臺灣事態의 展望

——中共의 武力行使拋棄가 緊急——

金光涉



九月四日—中共軍이 馬祖島、金門島를 猛烈히 砲擊하기 시작한지 열사흘째 되는날—中共傀儡政權은 領海에 關한 새로운 決定을 다음과같이 聲明하였다.

1. 中共의 領海는 十二마일까지 擴張되며 이 規定은 中共에 屬하는 모든 領土에 適用된다.

2. 어떠한 外國의 軍用船舶이나 어떠한 外國航空機도 中共의 許可없이 中國領海 또는 그 領空을 侵入해서 는 아니된다.

3. 어떠한 外國船舶이든지 中國領海를 航行할 때에는 中華人民共和國政府가 制定한 關係法律 및 規定을 遵守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4. 前項의 規定은 臺灣 및 澎湖列島에 適用된다. 臺灣과 澎湖地域은 아직 美軍에게 占領되고 있다. 이것은 中華人民共和國領土保全과 主權에 對한 不法侵害이다. 臺灣 澎湖島 및 其他 이와같은 地域은 아직 收復되지 못하였으므로 中華人民共和國는 適當한 時機

에適當한方法으로이들地域을收復한權利를가지고 있다. 臺灣 및 그밖의 占領되어 있는 모든地域의收復問題는外國의 介入이 許容될 수 없는 中國國內問題인 것이다.

中共政權은美國政府가 美中相互防衛條約으로 말미암아自由中國의防衛問題를決定하기위한一連의高位層會談이 벌어지고 있을때以上과같이發表하였다.

韓國戰爭이勃發하자美國은臺灣海峽에第七艦隊를派遣하고臺灣의中立을宣言하였다. 그다음해인一九五一年에는「체이스」少將을團長으로하는美國軍事顧問團이臺灣에派遣되었고一九五三年二月에는臺灣中立化의解除가發表되었다.

그러나 그해七月에는韓國戰爭이停戰되었고그다음해에는「인도차이나」戰爭이終結되자自由中國權威아래에있는沿岸島嶼에對한大規模의攻擊을開始하였다. 이로말미암아自由中國의臺灣이侵略의威脅을받게되자美國과自由中國은一九五四年十二月二日「워싱턴」에서美中相互防衛條約을締結하고五五年三月에批准書를交換함으로써効力を發生하였다. 이러한相互防衛條約으로말미암아美國은自由中國이掌握하고있는어떤地域을防衛할것이냐하는防衛地域範圍가때때로論議된일이있었으나美國政府는臺灣과澎湖列島만을防

衛할 것이라는公式的인表明을한일이있었다. 그러나美國은臺灣과澎湖列島防衛다시말하면安全保障問題에對해서는그때그때考慮할餘地를남겨두었던것이다. 그런데一九四九年中共이本土沿岸에있는自由中國傘下の諸島嶼를攻擊하기시작한以來一九五五年一月에는中共의熾烈한攻擊도있었지만臺灣本島에서너무距離가떠러져있음으로써本土收復의前進基地로서는不適當하다는決定아래自由中國은江山島와大陳列島를拋棄하고만일이있었다. 그리하여大陸沿岸에있는自由中國掌握下の島嶼로서는馬祖島와大金門島小金門島및 그周邊에散在해있는 작은섬들만이남아있을뿐이었다. 그레도中共은恒常臺灣을「解放」시키고야말겠다는決意를機會가있을때마다豪言하는가하면또隨時로金門島와馬祖島에砲擊을加하는것이있었다. 그래서「아이제하위」美國大統領은臺灣海峽에서언제어느때危急한事態가突發할런지豫測할수없는事態를考慮하여議會에對하여美軍의出兵權을賦與해줄것을要請하였던것이다. 同要請을審議한美國議會는一九五五年臺灣海峽에의美軍出兵權을大統領에게承認하였다. 이러한出兵權의賦與를받고있는「아이제하위」大統領이이번에發生한臺灣海峽의緊張事態에處해서도果然中共이金門島와馬祖島에對한攻擊이金門馬祖島에上陸하려는것

이나 또한 거듭 떠나가서 臺嶼本島를 攻擊할 前奏曲이 나의 中共의 計略을 檢討하는 一連의 高位 軍政會談을 가지고 있을 때 中共은 그의 領海를 十二마일로 擴張한다는 宣言을 聲明하였다. 그러나 거기 이와 때를 같이하여 美國務長官「덜레스」氏는 『臺灣의 安全保障을 爲해서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自由中國의 本土沿岸에 있는 여러 島嶼들을 防衛하기 爲해서 躊躇없이 美國軍을 投入하겠다』고 中共에 對하여 警告하였다. 「덜레스」國務長官은 自己의 이름으로 發表하는 同聲明에서 「아이젠하워」大統領이 이러한 決定을 내렸다는 것을 明白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아이젠하워」大統領이 「워싱턴」에서 美合同參謀本部高級將星들로부터 臺灣海峽의 緊張事態에 對한 詳細한 報告를 聽取한 다음 「로드아일랜드」州 「뉴포트」夏季 白聖館에 머물러 있는 「아이젠하워」大統領과 더불어 一時間四十五分동안이란 長時間의 協議가 있은 다음 發表된 「덜레스」聲明이라는 點에 있어서 重大한 決定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덜레스」長官은 그의 聲明을 通해서 「아이젠하워」大統領이 金門島·馬祖島 그리고 그밖의 沿岸 島嶼에 對한 攻擊이 自由中國의 本島인 臺灣을 威脅하는 것이라고 斷言하는데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덜레스」氏는 『大統領과 나는 中共政權이 韓國에서 저지렸던 바와같이 世界秩序의 밑바침이 되는 基本原則을

또다시 無視하지 않기를 眞正으로 希望한다. 다시 말하면 領土의 野慾을 達成하기 爲해서 軍隊를 出動시키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忠告도 하였다. 臺灣海峽에서 中共軍이 軍事的인 侵略行動을 敢行함으로써 일어난 緊急事態에 對한 美國政府의 最初의 態度를 明白히 理解하기 爲해서 同 聲明의 主要한 骨子를 뽑아보면 이러하다.

一、臺灣이나 金門島 및 馬祖島는 決코 中共의 管轄을 받은바 없었다. 第二次世界大戰 終戰以後 十三年餘 동안 이地域들은 中華民國인 自由中國의 權限아래 있었다.

二、美國은 自由中國과의 相互防衛條約에 依하여 臺灣을 武力攻擊으로부터 防禦할義務를 지고 있으며 大統領은 美國議會의 上下兩院 合同決議案에 依하여 金門島 및 馬祖島와 같은 關聯地點의 確保 및 保護를 위해서 美國軍隊를 投入할 權限을 保有하고 있다. (註 民主黨 웨인·모스議員은 異見)

三、前記三個地域이나 또는 이中的 하나라도 占領하려는 中共의 어떠한 企圖도、世界의 秩序가 立脚하고 있는바 어떠한 나라도 새로운 領土를 빼앗기위해서 武力을 使用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原則을 違反하게 될 것이다.

四、中共軍은 約二週日間에 걸쳐서 金門島에 熾烈한

砲擊을 加하고 있으며 砲擊 및 小型海軍船舶들을 使用함으로써 民間人, 軍人을 合해서 總數 約十二萬五千名이 居住하고 있는 金門島에 對한 定期的인 補給을 阻害하고 있다. 北平의 官營放送은 軍事作戰에 依한 그들의 目的은 臺灣과 金門島 및 馬祖島의 武力解放이라고 屢次發表하고 있다.

五、中共軍의 豪言壯談과 그들의 오늘날까지의 行動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眞意가 臺灣 및 沿岸島嶼의 武力解放을 爲한 全面的攻勢를 開始하고 있는지는 아직 確實치 않다. 또한 오늘날까지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中共軍의 이러한 攻勢가 美國의 實質的인 兵站援助를 받고 있는 自由中國軍이 果敢하기는 하나 언제까지나 防衛的인 反擊으로 阻止될 수 있을지의 與否도 아직 確然치 않다.

「텔레스」長官은 아이젠하워大統領의 委囑을 받아 極東에 있어서의 武力行使로 일어난 이러한 事態는 自由世界의 立場과 美國의 安全保障을 危境에 몰아넣게 될 것이라 는 것을 指摘하고 美國이 默黙히 中共의 處事에 따르기만 한다면 世界到處에서 平和가 威脅을 받을 것이라고 警告하였다.

한편 中共이 그의 領海를 몇마일로 認定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十二마일로 擴張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봄 「제네

바」에서 열렸던 國際海洋法會議에서 쓰런이 主張한 十二마일 領海說을 따른 것으로 推測된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金門島와 馬祖島를 攻擊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領海範圍를 主張하는 聲明書를 宣言한 것은 金門島와 馬祖島 및 그周邊에 있는 여러 작은 섬들이 自己들의 領海안에 位置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리고 現在 臺灣海峽에 遊戈하고 있는 美海軍 第七艦隊의 活動을 牽制하려는 데 그 主目的이 있음을 明白한 일이라 하겠다. 中共이 그들의 領海를 十二마일로 擴張한다는 宣言을 發表할 때까지는 아직 美國이 그들의 臺灣事態에 對한 方針을 決定하려고 檢討하고 있을때이다. 中共은 그들의 領海 限界로 말미암아 美國政府의 政策樹立에 壓力을 加하려는 鬻政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一九五五年에 自由中國이 一江山島와 大陳列島를 拋棄했던 바와 같은 그러한 措置를 期待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中共의 領海限界를 十二마일로 擴張한다는 宣言이 發表된 다음날 美國政府는 「텔레스」國務長官의 聲明을 통해서 「아이젠하워」大統領이 臺灣澎湖島는 勿論 臺灣本島를 威脅하고 있는 中共의 金門·馬祖島 攻擊도 防衛해야 할 實務를 갖이고 있음을 闡明하였던 것이다.

美國務省代辯人·「조세프·S·리프」氏는 「美國은 十二마일 領海限界線을 認定한바가 絶對로 없다」고 美國

政府의 公式態度를 表明하였다. 美國은 第三代大統領인 「토마스·제퍼슨」時代부터 領海를 三마일로 認定한 以來 오늘날까지 이를 堅持하여왔다. 現在도 또한 「인도네시아」 「아이스랜드」 같은 몇몇 나라를 除外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三마일 領海를 主張하고 있는 것은 國際間의 慣例로 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四月 「제비바」에서 열렸던 國際聯合海洋法制定會議에서도 三마일說 六마일說 十二마일說等 議論이 百出하여 結局 美國도 各種의 限界를 내세우는 여러 나라 代表들의 主張을 折衷하는 妥協案으로 「六마일의 領海限界와 獨占의 漁撈權을 行使할 수 있는 附加的인 六마일의 漁撈線」을 提案한 일이 있었으나 또한 反對로 말미암아 採擇되지 못함으로써 領海의 限界는 最終的인 合意를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이 그의 領海를 十二마일로 擴張한다고 宣言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國際法 慣例上 認定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十二마일 領海主張은 아무런 合法的 根據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宣傳으로 밖에는 看做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어찌서 中共이 그의 領海를 十二마일로 擴張한 다는 것을 宣言했을까.

金門島·馬祖島 및 그 附近島嶼들은 中國本土에서 不過 二마일 乃至 八마일 地域에 散在해 있을 뿐 아니라 馬

祖島는 本土沿岸과 平行으로 十二마일에 걸쳐 福州 앞바다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萬一の境遇 自由中國이 本土를 收復하는 軍事作戰을 展開하게 될 때에는 自由中國의 前進基地로서 有利한 軍事基地가 되어 있는 곳이다. 이번 中共이 砲擊을 集中시킨 大小金門諸島에는 住民이 約四萬 守備軍隊가 約四萬五千을 헤아리고 있는 곳인데 八月 二十三日 中共軍이 砲擊을 開始한 以來 九月五日 現在 十萬五千發가량의 砲彈이 이 地域에 投下되었고 軍民死傷者도 八百餘名을 헤아릴 정도로 熾烈한 것이었다.

이렇게 自由中國으로서도 어느 모로 보나 빼앗겨서는 아니될 이 地域諸島嶼에 對하여 中共은 十二마일 領海를 主張함으로써 美軍의 介入을 牽制하고 同島嶼를 包圍하는 作戰을 有利하게 展開하려고 試圖하는데 그 根本的인 意圖가 있었다고 보겠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中共軍이 이번 金門島와 馬祖島에 對해서 積極的인 軍事的 行動을 取하는 것이 同島嶼와 함께 臺灣、澎湖列島를 奪取하려는 計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猛烈的 攻擊을 加함으로써 美國과 自由中國으로 하여금 同島嶼를 拋棄하도록 強要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中共政權의 攻擊意圖가 어디에 있는지를 判斷하기가 困難한 處地에 놓여 있다.

中東事態를 收拾하기 위해서 앞서 開催되었던 「유엔」緊

急總會에 出席한 「구로무이코」 소련外相은 유엔에서의 中國代表權問題에 關해서 『中國政府가 이번 緊急總會에 出席해야 한다는 것은 소련政府의 信念이다. 우리들은 中華人民共和國이 유엔에서 正當한 議席을 차지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強調한 것은 소련이 過去에도 機會가 있을 때 마다 中共에 유엔加入을 努力하여 왔지마는 第十三回 유엔總會를 앞두고 恒例의 宣傳工作을 展開하고 있는 것으로 觀測되며 또 中共이 例年에도 유엔總會를 前後해서 金門島 馬祖島를 攻擊한 일이 있는 例를 볼 때 이번 中共의 砲擊作戰도亦是 中共의 「유엔」加入을 爲한 美國에 對한 壓力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美國은 中共이 韓國戰爭에 있어서 「유엔」으로부터 「侵略者」의 烙印을 받은 以上 中共自身이 그 烙印을 씻을 수 있는 일을 行動으로써 實證하기前에는 中共의 「유엔」加入을 反對하고 있는 터이다. 그뿐 아니라 美國은 第十三回 「유엔」總會를 앞두고 그의 豫防線으로서 八月十一日에 中共의 「유엔」加入을 拒絶聲明을發表한 일까지 있다.

美國이 中共의 유엔加入을 拒否하는 美國政府의 態度를 거듭 聲明하는가하면 中共이 宣言한 十二마일 領海主張도 默殺할 뿐 아니라 過去 臺灣과 澎湖列島를 防衛하겠

다던 方針에서 한거를 더 나아가서 中共이 奪取하려는 野慾을 버리지 않고 있는 金門島 馬祖島도 美國이 自由中國과 함께 防衛하겠다는 「아이젠하워」大統領의 決意를 確認한 中共은 또 하나의 새로운 提議를 하였다. 「던레스」國務長官이 「아이젠하워」大統領과 長時間 會談한後 美國이 金門島와 馬祖島의 本土沿岸島嶼를 中共의 侵攻으로부터 防衛하겠다는 聲明이 發해진 다음날인 六日 中共은 砲擊을 停止하는 同時에 周恩來 中共政權首相은 「臺灣海峽의 危機를 解決하기 위해서 美國과 中共의 大使級 會談을 開催하자」고 提案하였다. 周恩來가 一九五五年 봄 「반둥」에서 開催되었던 「아시아·아프리카」會議에서 臺灣海峽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 美國과 더불어 會談할 用意이 있음을 밝힌 以來 그해 八月一日부터 美·中共大使級 會談이 開催되었다. 「아렉시스·존슨」當時의 「체코슬로바키아」大使가 美國을 代表했고 玉炳南「플렌트」大使가 中共을 代表하여 今年봄까지 無慮 二年半 동안 八十餘次의 會談을 持續하였다. 同 美中共大使會談은 中共이 抑留하고 있는 美國人의 送還問題와 臺灣海峽에 있어서의 武力行使 拋棄問題를 議題로 決定하고 八十餘次의 會合을 進行하는 途中 中共이 抑留하고 있던 美國人의

一部가 送還되었을뿐 兩側이 送還하도록 合意를 보았음에도 不拘하고 美國市民一部를 中共은 아직도 抑留하고 있는 現狀이다. 그리고 臺灣海峽에 있어서의 武力行使拋棄問題에 있어서는 兩大使가 發表한 共同聲明에서 美國과 中共은 武力行使를 否認한다는 것에만 合意를 보았다고 하였다. 重大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 同合意에도 不拘하고 中共이 一九五五年 十二月一日에 提出한 最終的인 原案에서 『中共과 美國은 二個의 中國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武力行使에 呼訴하지 않고 平和的인 協商으로 解決할것을 決議한다』고 主張한데 對하여 美國은 代案으로서 一九五六年 一月十二日 『美國과 中共은 平和的인 協商의 解決을 圖謀하며 臺灣地區에서 武力行使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決議한다』라는것을 提議하였다. 그러나 中共은 臺灣이라고 明記하기를 拒否하였으니 이대목이야로 美中共會談의 核心인 것이다.

이렇게 對立된 가운데 膠着狀態를 持續하고있던 美中共會談은 美國이 「아렉시스·존슨」大使를 지난봄 「인도네시아」駐在로 任命한 以來 美國은 大使級以下の 外交官會談을 提議하였다. 이때 中共은 會談의 下級化를 反對

하고 새로운 美國大使를 任命하라고 主張하였다. 그러자 七月二十八日 「텔레스」美國務長官은 武力行使否認에 關한 一連의 새로운 會談을 「와르샤와」에서 開催하자고 提議했던 것이다. 中共은 지금까지 「텔레스」提議에 對해서 一言半句의 反應도 보이지않고 있다가 九月六日 自己의 새로운 提議인양 美中共會談을 開催하자고 提議한 것이다 이로써 中共의 武力侵略行動은 그고비를 넘긴것같이 생 각되나 앞으로 開催될 유엔總會를 통해서 또 美中共會談을 통해서 「臺灣의 解放」을 主張하고 유엔에서의 中國代 表權을 繼續해서 主張하리라고 推測된다. 臺灣海峽의 緊張狀態를 平和的으로 解決한다는것은 世界各國으로 부터 歡迎을 받고있는 모양이나 美國의 態度가 變함이없고 또 中共이 臺灣 및 沿岸島嶼를 武力으로 奪取하려는 侵略行爲를 繼續하는限 아무런 期待도 걸수없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九月八日)

x

x

x

x

x

核實驗中止와 誘導彈의 將來

——平和、軍事兩面に 貢獻될 것인가?——

高 貞 勳

이러한 難點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爲해서 原子科學者들이 採擇한 監視案의 大要를 檢討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제 美、英兩國政府가 最近 發表한 同建議案全文을 차례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監視를 爲한 建議案의 要點▽

東、西兩陣營을 代表한 原子科學者들이 七、八、兩個

核武器 및 熱核武器의 試驗을 恒久的으로 禁止하게 되
기까지는 아직 數個年의 時日과 許多한 迂餘曲折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十月末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核武
器試驗禁止會議가 어느 程度로 實質的인 成果를 올리게
될런지 豫測키 困難하거나와 지난번 「제네바」技術者會議
가 關係國政府에 建議키로 採擇한 監視案에는 核武器保
有國家들이 短時日內에 實踐할수가 없는 難點이 許多하
게 包含되어 있다.



月間에 걸쳐 「제네바」에서 討議한 結果 採擇한 建議案은 百六十個所 乃至 百七十個所의 陸上監視所를 設置한 것과 十隻의 監視船을 海上에 配置한 것을 그 主眼點으로 하고 있다. 百六十 乃至 百七十個所의 陸上監視所가운데서 百十個所는 大陸에 設置될 것이 規定되고 있는데 그內譯은 다음과 같다.

北美 大陸 二十四個所

歐羅巴 大陸 六個所

亞細亞 大陸 三十七個所

「오스트라리아」 七個所

南美 大陸 十六個所

「아푸리카」大陸 十六個所

南極地帶 四個所

그리고 兩他의 五十乃至 六十個所는 島嶼에 設置되기로 決定되었다.

監視機關은 空中에 撒布된 原子灰 其他 證據物을 蒐集할 權限을 保有하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境遇를 考慮해서 이 建議案은

(一) 空中에서 「샘플」을 蒐集하기 爲하여 使用될 航空機는 原子灰를 실은 氣流가 位置하고 있는 當該國所屬 航空機라야 한다. 그리나 美、英、蘇 其他 監視權을 가진 國家의 代表는 監視員의 資格으로 前記 航空機에 塔載할 수

있다.

(二) 眞偽가 確實치 않지만 核武器試驗을 疑心케 하는 事件이 發生할 境遇에는 「國際監視機關」이 監視班을 該當地區에 派遣하여 眞相을 調査케 한다.』

고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한편 各監視所에 配置될 人員은 三十名内外로 規定되고 있으며 必要에 따라서 補助人員을 둘 수 있게 하고 있다. 監視所의 科學的性能에 關한 몇가지 特徵을 보면

(一) 地上十「키로미터」以內의 空中에서 試驗되는 「키로톤」以上の 核武器에 關해서는 完全한 監視가 可能하나 地上十「키로미터」以上으로부터 五〇「키로미터」에 達하는 高度에서 試驗될 境遇에는 監視가 不完全할 可能性이 많다.

(二) 大洋인 境遇에는 「키로톤」以上の 核武器가 海底에서 試驗되는 것을 거의 完全히 監視할 수 있다.

(三) 大陸인 境遇에는 「키로톤」以上の 核武器가 地下에서 試驗되는 것을 거의 完全히 監視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監視所가 保有할 科學的性能의 限界에 關해서 建議案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一) 極히 巧妙한 計劃下에 地下에서 試驗되는 核武器爆發은 地震과 混同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試驗을 探知할

에 있어서監視所는 許多한 科學的 制限을 갖게 될 것이다.

(二) 地上三十「키로미터」로부터五十「키로미터」에達하는 高度에서 試驗될 境遇에도 現監視性能은 많은 制限을 받게 될 것임으로 人工衛星의 使用、電離層現象의 記錄等에 依한 探知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三) 監視所와 距離가 먼 海中 또는 震央點附近 海中에서 試驗되는 것을 探知함에 도 難點이 많은 것이지만 爆發된 現場이 알려지기만 하면 眞相調査는 比較的 簡單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 監視所가 適用하게 될 探知方法에 關하여는 四個基本要領이 採擇되고 있는데 첫째로 音波를 探知하는 方法이 採擇되고 있다. 元來 核武器가 空中에서 爆發할 때에는 強烈한 音波가 發生하는 것이며 이러한 音波는 遠距離에서도 容易하게 探知할 수 있는 것이다. 現在 使用되고 있는 音波探知器로써 「키로톤」以上の 核武器試驗은 完全히 探知할 수 있거니와 三個監視所의 報告를 綜合하면 試驗地點을 容易하게 指摘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核武器가 水中에서 爆發할 때에도 強烈한 水中音波를 發生하는데 적은 核武器의 境遇라고 하더라도 그 水中音波는 「萬」키로미터의 距離에서 探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原子灰를 試驗하는 方法이 採擇되고 있다. 空中에서 爆發하는 核武器는 放射能을 가진 灰를 底空에 散布하는데 航空機로 採集된 原子灰를 試驗하면 것이 正確한 爆發地點과 時間을 測定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셋째로 震動을 記錄하는 方法에 依한 것인데 地下 및 海底에서 爆發되는 核武器는 遠距離에서 探知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震動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넷째로 「라디오」電波를 監視하는 方法이 採擇되고 있다. 大氣圈에서 爆發하는 核武器는 「감마·라디에이션」의 結果로 強烈한 電波를 發生한다고 한다. 核武器를 特別하게 包裝함으로써 電波의 發生을 制限할 수 있는 것이나、監視所의 增設 및 數個監視所의 綜合探知等으로 核武器爆發은 雷光 其他 自然現象과 識別될 수 있을 것이며 指目된 爆發地點에서의 現場調査는 眞相把握을 容易케 할 것이라고 한다.

△試驗禁止가 實現될때 까지의 曲折▽

대개 上述한 바와 같은 것이 現在 論議되고 있는 核武器試驗禁止監視案의 骨子이다.

그런데 上記建議案에는 監視所 乃至 監視機關을 運營할 責任者 또는 그 人員構成에 關한 規定이 包含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規定은 政治的 考慮를 必要로 하기 때

문에 關係國政府가 任命하는 外交代表會議에서 討議될 性質의 것이라든 解釋을 取한 것이 技術者들의 態度였다. 그러므로 十月末부터 「제네바」에서 開催된 關係國代表者會議는 技術者들이 意識的으로 또는 無意識的으로 看過한 問題들을 討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問題의 討議는 必히 許多한 國際政治的 問題를 惹起할 것이 아니라 東西、兩陣營이 各各 十月末부터 열리는 會議를 宣傳舞臺로 利用할 憂慮가 多分히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元來 技術者會議가 열리게 된 經緯만 하더라도 蘇聯의 逆宣傳을 封鎖하기爲한 하나의 試圖에서 結果된 面이 더욱 強했던 것인 反面에 眞摯하게 討議할 意圖에서 合意된 面이 極히 弱했던 것이 事實이다. 蘇聯의 逆宣傳은 七月一日 「제네바」技術者會議가 實際로 열리는 바로 三日前까지 繼續되었거니와 共產側代表가 同會議에 參席할 것인지의 與否가 六月二十五、六日頃까지도 確實치 않았던 것이다. 蘇聯의 宣傳은 「제네바」技術者會議가 開催되기 前에 美英兩國이 核武器試驗을 一旦 中止해야 한다고 固執했던 것이다. 周知된바와 같이 蘇聯은 今年度에 必要했던 核武器試驗을 全部 完了한 後인 지난 三月 一方的으로 核試驗의 中止를 宣言했던 것이었다.

지난번 「제네바」技術者會議가 開催되기까지의 經緯

도 上述한바와 같거니와 同會議에의 展望도 처음에는 暗瞻했었다. 대체로 同會議가 어떠한 合議에 到達하리라고는 期待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蘇聯은 처음부터 監視制度에 對해서 消極的인 態度를 取해왔었고 蘇聯領域內에 監視班을 設置하는 案에 對해서는 極力 反對意思를 表明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科學者들이 純全한 技術的인 考慮에서 建議案에 合意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建議事項을 이번 議會에서 共產側이 곧 受諾할 可能性은 稀薄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美國 政府內에서도 贊反의 意見對立이 激甚하여 國防省과 原子力委員會는 처음부터 共產側과의 協定締結을 反對해왔고 現在도 그렇다고 한다. 國防關係의 直接的인 責任을 갖고 있는 機關이 蘇聯의 約束을 不信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反對派가 重視하는 點은 全般的인 軍縮이 實施되지 않는 限 核武器試驗의 禁止는 軍事的으로 蘇聯에게 有利하고 美國에게 不利하다는 바로 그 事實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蘇聯의 一般兵力 및 在來式 火力의 保有量은 美國의 比가 아니다. 美國이 共產側의 人海戰術 및 一般火力에 對抗하수 있을 뿐만 아니라 共產側의 戰力を 凌駕할 수 있다고 自信하는 理由는 核武器發展 및 核火力의 保有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全般的인 軍縮이 實施되지 않고 다만 核武器發展

만制止되는事態가惹起하는 것을美國防省이나原子力委員會가反對하는 것은當然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以上 말한 바에 비추어核武器試驗禁止問題는 印대기와 그릇의圖面이作成되었을 뿐이고 이圖面の靑寫眞이 되고 必要한形態를 가진 後에 그內容을充溢케 하려면 아직 도長久한時日과努力이要할 것이다.

△誘導彈競爭의展望▽

原子彈이나水素彈을爲始한各種核武器의制限이란問題가常識적이고恒例의인軍縮問題論議의範圍를 넘어서게된理由가운데서 가장 큰理由는誘導彈의發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설핏 생각하기에는原子武器나水素武器가保有하는天文學的數字的破壞力이人類에게준衝激 또는核武器試驗이招來하는放射能原子灰의害毒等이軍縮問題討議의性格을달리하게만드는同時에核武器試驗禁止를論議하도록刺戟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核武器試驗中止論議와關聯해서 이러한一面이重視되어야 할理由가 있는 것이事實이지만但只天文學的數字的破壞力이나放射能의害毒만으로는人類的危機感을 그렇게까지切實한 것으로만드는 한편核武器保有國家의科學者로 하여금核武器試驗의禁止를 그렇게까지眞摯하게論議하도록만들지

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天文學的數字的破壞力은原子力の平和使用이란方向에서人類的危機感을造成하는原因으로부터人類的福祉를增進하는原動力으로轉化될 수 있는 것이고放射能에關한問題는『깨끗한爆彈』이라고 불리우는戰術用核武器의發展으로漸次解決될 수 있는問題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原水核爆彈의發展이計劃대로推進된 다손치더라도 이러한爆彈을目標에投下하는方法이從來의 그것과같이飛行機로運搬하는 것이라면近代戰의樣相이二次大戰末期와別다른差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核武器를保有하게된國家에서의核心的問題는『로켓트』의發展에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卽爆彈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보다 더 멀리運搬』하는問題를解決하는데最終的인決定權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意味에서蘇聯이人工衛星第一號、第二號를發射하는데成功한意義는 자못 큰 것이다. 그리고『스푸트니크』가人類에게준衝激은實로大端했던 것이다. 蘇聯의『스푸트니크』一號가發射된後百二十日만에美國도『익스플로러』一號를發射하는데成功했었다. 이리하여東、西兩陣營은『人類的最終武器』라고 하는誘導彈時代에서競爭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로켓트』의原理는至極히簡單하다. 『野球試合에서

「펫처」가 뿔을 던지듯이 어떠한 물體를 어떠한 目標에게 던지는 것」이다.

萬一, 어떠한 물體를 時速 一萬五千「마일」의 速度로 던질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大陸橫斷誘導彈의 「로켓트」가 되는 것이다. 「ICBM」이란 略字를 알려진 大陸橫斷誘導彈은 一萬五千「마일」時速으로 던져진 물體가 地球引力에 의해서 地上에 落下될 때까지 大陸이나 大西洋을 橫斷하게 되는 原理를 應用한 것이다. 그런데 물體가 一萬八千「마일」時速으로 던져지면 同物體는 大陸이나 太平洋을 橫斷할 뿐만 아니라 地球를 一周하고 大氣圈 밖으로 나간다. 大氣圈 밖에서는 空氣의 壓力이 全無하다 싶이 함으로 同物體는 地球引力의 作用만으로 落下하게 마련인데 同物體의 遠心推進力이 地球引力과 均衡을 맞추게 되면 同物體는 軌道 위에서 衛星速度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새 月世界에 發射되는 「로켓트」가 試驗되고 있는데 月世界에 到達하자면 地球引力圈을 버서날 必要가 있으며 地球引力圈을 버서나게 하려면 二萬五千「마일」時速으로 물體가 發射되어야 하는 것이다.

原子彈이나 水素彈이 時速 一萬五千「마일」의 「로켓트」로 發射된다면 過去에 航空機가 爆彈을 運搬하던 時代와 어떠한 差異가 나타날 것인가는 想像하기 容易한 일이다.

「스윙치」를 넣기만 하면 原子彈, 水素彈을 꼭대기에 실은

「로켓트」가 地球上 가장 먼 目標로 瞬息間에 날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로켓트」를 最終武器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도 無理가 아닌 것이다.

元來, 「로켓트」의 發展 그自體는 何等 制限될 理由가 없는 것이다. 原子彈이나 水素彈을 彈頭로 裝置하는 代身에 人工衛星 또는 天體旅行船等を 發射하기 爲해서 使用된다면 「로켓트」는 發展될수록 歡迎될 만한 것이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誘導彈의 彈頭라고 불리우는 爆彈裝置에 關한 問題에는 所謂 「리엔트리」(大氣圈으로의 復歸)라고 하는 重大한 難關이 있는 것이다. 卽, 大氣圈 밖으로 나갔던 爆彈이 다시 大氣圈으로 落下할 境遇 그 包裝이 空氣의 磨擦로 燃燒되게 마련인데 이 難題를 어떻게 解決하느냐가 重大한 問題인 것이다. 航空機에서 爆彈을 投下하거나 從來의 「로켓트」裝置로 發射하는 境遇와 그 性格을 달리하는 이 「리엔트리」問題는 冶金學과 이에 따르는 諸分野의 飛躍의인 發展을 要求하는 것이다. 美國은 얼마 전에 「리엔트리」試驗에서 成功했음을 發表했었고 「아」大統領은 國民에게 그 標本을 公開한 일이 있다. 同標本은 數百「마일」까지 上昇했다가 다시 大氣圈을 無事히 落下하여 指定된 海中으로 歸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彈頭の 歸着問題가 解決된 것이 事實이라면 時

速「萬五千」마일」速度로 原子彈이나 水素彈이 發射될 段階에 突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最少限 人工衛星을 다 시 地球上으로 歸還케 하는 問題의 하나가 解決된 것이 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誘導彈部門의 「로켓트」나 「리엔트리」等 諸問題는 平和的인 目的을 爲한 發展이 바로 軍事的인 目的을 爲한 것이 될수 있는 것이다. 마치 航空機나 船舶의 發展이 平和、軍事兩面に 同時的으로 貢獻하듯이 「로켓트」나 「리엔트리」問題도 그러하다.

따라서 宇宙旅行이라고 하는 學術的이고 平和的인 目的을 爲한 「로켓트」部門의 發展은 바로 그만큼 큰 比重의 軍事的意義를 갖게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平和的인 目的을 爲한 研究、試驗、發展을 制限할 理由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만큼 「로켓트」의 發展은 그대로 繼續될 것이며 誘導彈을 除外한 彈 部門의 試驗은 核武器試驗禁止와 關係없이 進行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筆者 朝鮮日報社 論說委員〕

原子式 宇宙 「로켓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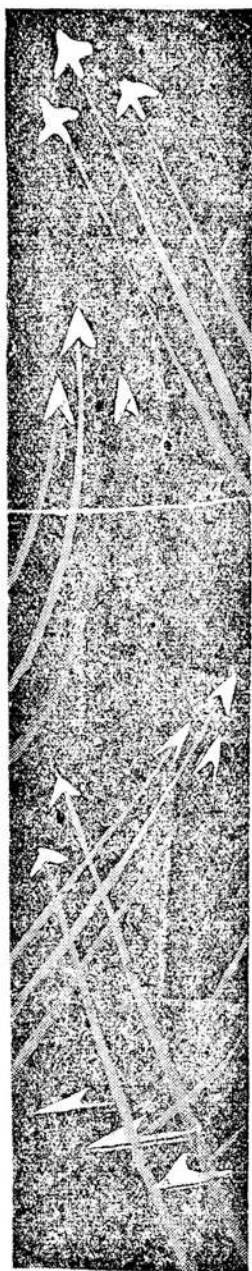
美 今秋에 實驗豫定

美國은 原子力推進式 宇宙 「로켓트」 및 飛行機製造를 爲한 實驗을 今年 가을에 實施할 豫定이라고 一美國科學者가 十二日 報告하였다.

同實驗은 「로켓트」와 飛行機에 裝置될 可能性이 濃厚한 少原子爐로서 行해질 것이라고 「캘리포니아」大學校의 「H. L. 레이놀즈」博士는 말하였다. 小原子爐는 直徑 「피트」 未滿의 「우라늄」核으로 製造되고 있다고 同博士는 原子力 平和會議에서 말하였다.

다음 段階는 原子爐에서 더 많은 電力을 發生케 하는 일이며 이것은 「로켓트」推進에 必要한 水素 또는 다른 氣체에 加熱할수 있을 것이라고 同博士는 말하였다. 이것의 實驗은 「로스·아라모스」科學實驗所에서 製作된 原子爐로 今年 가을 「네바다」에서 實施될 豫定이며 「리버모어」의 放射能 實驗所에서 製作된 原子爐에 依한 다른 實驗들도 「멀지 않아서」 實施될 豫定이다.

이 研究들은 「로켓트」飛行機에 推進力을 提供할 「로켓트」機關 및 船舶에 使用할 原子爐에 關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同氏는 附言하였다.



戰 力 論 (完)

(軍備을 中心으로한 몇가지 基本的思考觀에 對한 是非)

空軍大領 李 慶 春

第四章 軍備와 經濟의 均衡性 問題

軍備를 構成的面에서 分類한다면 人間 및 物的인 두 種類로 考察할 수 있다. 物的面이라는 것은 軍隊가 使用하

는 物的手段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利用可能한 資源生産力、財政負擔力、科學技術의 發達度 卽 國家經濟의 諸般要因에 依하여 制約된다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軍備라는 것은 經濟의 要素에 制約을 받는다면 戰爭亦是

經濟的要素와 不可分離의 聯關性을 가지는 것은明白하다.

戰爭狀態 或은 戰爭規模의 變化는 實로 이 經濟的發展에 隨伴하여 變遷된 것이며, 또 戰爭手段·戰爭技術의 變遷亦是 經濟變化의 反映인 것이다.

國民經濟가 戰爭으로 進出한 것은 二次大戰에서 一層 決定的으로 되었으니 客觀的條件이나 主觀的條件에 있어서도 一國乃至 一國民의 經濟的 運命을 即刻적으로 生存의 運命으로 融合되어, 必然不可避한 戰爭은 無制限의 性格을 發現하였다. 이와 같이 現代戰의 戰爭手段이 殲滅性機動性을 主로하며 廣大한 戰線에서의 巨대한 長期消耗戰을 顯現하고 武力戰이 그대로 生産戰 補給戰으로 轉化되어 過去와 같이 經濟의 戰爭에 對한 部分的 奉仕乃至는 協力이라는 關係는 總力戰으로 一變하여 그 全活動力을 戰爭遂行力으로 改編되며, 財政·金融·資源·工業·產業·貿易·交通·運輸等 經濟의 모든 活動이 綜合戰力化하여 國民의 消費生活마저 戰爭遂行의 一部를 分担하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現代의 戰爭樣相下에서 戰爭과 經濟의 相關性이 이리함에도 不拘하고 韓國國民의 大部分이 그 不可分離의 聯關性을 實感的으로 認識하지 못하여, 戰亂을 體驗한 國民이면서도 現存하는 武力 卽軍隊만 있으면 戰爭이라는 것은 二年 或은 三年 自動

的으로 계속될 수 있는 것과 같은 莫然한 感覺을 가지는 同時에 國家經濟의 困難性은 單純한 戰爭의 破壞性에서 오는 影響만을 받는 듯한 觀念을 가지게 되었다.

그理由로서는 韓國 國家經濟의 無力으로 모두가 軍事援助와 經濟援助에 依存하였다는 特異한 條件下에서의 戰爭經驗으로서 國家가 現存하는 軍備를 保有하면은 언제든지 戰爭은 可能하다는 錯覺과 幻想을 가지게 된것도 無理는 아닐것이나 그와같은 思考를 基礎로하여 現代式軍備와 國家經濟力과를 熟考하지 않고서 韓國의 國家經濟는 高度의 國防經濟體制로 編成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現代軍備의 特徵으로서 얼마나 巨대한 財政的規模를 必要로하며, 또한 高度의 科學技術을 要하는가를 考慮한다면, 韓國이 保有하는 國家經濟力과 技術로서는 現代의 軍備를 獨自의인 見地에서 論할 수 없다는 것을 明白히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이 原爆完成에 支出한 研究費는 二十億弗이며 이에 加하여 間接費는 그以上으로 尨대한 것이며 誘導彈研究에는 五年間에 四十億弗 以上을 支出하였으며, 電子兵器研究에는 二十億弗 以上을 使用하였다는 것이다.

韓國軍이 過去에 唯一한 戰鬪機로서 使用한 코-1은 一臺에 五萬弗이었으나, 코-8 戰鬪機는 二十五萬弗로

되었고, 또 이것도漸次로時代的인遺物로化할運命에 있으며 이에代置하여야 할 E-100 E-102 E-104型은六十五—七十萬弗、B-52는八百萬弗을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高價의現代武器는그性能의發達로서不過三、四年이 못되어廢品化한다는現實을 보더라도經濟的能力의重大한連關性을 알게 될 것이다.

近代軍備의整備을 위한資材·技術·生産·設備 등을考察한다면最新機一臺에所要되는電線의 길이는戰鬪機로서十數MB爆撃機는六十MB以上이며、重量當一屯에所要되는B/C는B-29는六千九百時間B-47은五千八百時間으로서一臺를完成함에必要한總時間은三百四拾六萬四千時間이所要되는 것이다.超音速JET機生産을爲해서는七萬五千屯級の「푸레스」一臺七五弗과、五萬屯級一臺、三萬五千屯級三臺、二萬五千屯級「푸레스」四臺가必要하며、또中型爆撃機一臺製作에所要되는工具는六萬個、그精密度에 있어서一萬五千個의볼트孔은五千分之一부터五萬分之一이라는誤差內에서의高度의技術을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簡單한例로서라도現代式軍備의遂行은廣域의資源의基礎와尨대한高度化된生産機構連綿不斷의總力的인努力科學技術의研究로서美國과 같은強大한國家에 있어서도政治活動의過半을 넘는財政的負

担으로서成立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反하여韓國의經濟的能力을一顧하건대、國家經濟의主幹인農業에 있어서도每年二百萬石以上の外穀의導入으로서國民의食糧을解決하며、工業에 있어서重工業은말할餘地도 없는同時에工業中에서가장發達된纖維工業에 있어서도그에所要되는原綿이九五%以上은外國으로부터의輸入으로서維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國家財政規模를通하여國家經濟의能力을보면九〇年度豫算에서政府豫算總規模中不過三十%만이國家財源에依한負擔이며其他七〇%는外國援助에依存하고있다.國家歲出의五四%國防費中國內財源으로서二〇%뿐이며그밖에는모두外援에依하여現兵力을平常時의狀態로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簡單한 몇가지例證으로서보더라도韓國의國家經濟力이現代式軍備를論함에는얼마나零細한가를明白히認識할 수 있는同時에、또 이러한能力程度로서아무리總動員하더라도現代戰爭의巨大한消耗性을充足할 수는 없는 일이다.

FOA(美國對外事業處)가美國會에서宣明한「對韓經濟援助의目標」를보면

「韓國이外部의實質的인援助없이西紀一九四九—五

○年の生計水準에 該當하는 國民生活를 維持하며、同時에 強大國을 除外한 其他 國家들에 依한 軍事의 攻撃에 對抗하여 그 侵略을 擊退함에 充分한 軍事力을 扶持할 수 있는 健全한 經濟를 南韓에서 發展시키는 것이며 그 第一次에는 『大韓民國의 效果的인 防衛力을 爲한 經濟基盤의 開發』이라고 指摘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政府가 立法形態로서 或은 政府의 政策形態로서 宣明한 內容으로서 어디까지나 將來에 있어서 韓國의 軍事力을 效果的으로 運營하는데 必要한 物的基礎가 될 수 있는 經濟基礎를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決코 現在의 韓國經濟 能力으로서 韓國의 必要한 防衛力에 對한 負擔을 加重하여 줄 것을 期待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現在로서는 韓國의 零細한 經濟能力으로서 軍備의 充足에 過重한 消耗로 因하여 經濟의 破綻을 招來하여 共產主義의 侵透를 容易하게 하는 溫床地를 造作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Fanless 委員會報告書에 依하며는 對外援助見解에 對하여 『自由의 窮極의 勝利를 爲하여 同 計劃이 將來에도 繼續되어야 한다』고 論하고、그 援助의 重點은 變更하는 것을主張하여 그 속에 過去와 같은 贈與式援助는 漸次로 減少시켜、借款形式으로 改定한다는 것이다. 現代美國은 援助에 對한 再檢討가 實施되고 있는 同時에 援助

는 繼續될 것이나、援助形式 或은 方法에 있어서 重點變更이 있을 것은 確實視되고 있는 이때에 被援助國인 韓國에 있어서도 無意味한 援助의 虛費 或은 非效果的인 運營에 再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美國下院分科委員會에서 民間人과 新聞記者들에 對한 質問에서 ICA 一般局長「프레드 브레이크」氏는

『一九五〇年 以來로 共產主義者들이、새로운 軍事行動에 着手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一年에 四十億弗을 支出하는 것이 얼마나 價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韓國軍이 休戰線을 지켜주고 있는 것만 하여도 四十億弗의 價値가 있는 것이며 이 全額은 韓國戰爭의 一年間費用보다 적은 것이다』라고 答辨하였다.

韓國經濟의 破綻을 防止하여 韓國戰亂의 破壞를 復舊하는 데에 美國이 現在까지 韓國에 提供한 諸援助額은 三〇億六百萬弗임에 比하여 지나간 韓國戰亂 一年의 消費가 四〇億弗以上이라는 것을 본다면 國民總所得이 十五億未滿인 韓國經濟로서 近代戰爭를 充足시킨다면은 國民總所得을 全部消費한다 할지라도 不過 三、四個月 以上은 繼續될 수 없는 것이며、國民의 生活를 最低로 維持하면서 戰爭을 遂行한다면 아무리 國家經濟를 總動員하여도 一個月 以上도 充足시키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明白한事實에 立脚하여 國家存命을爲한國防이며軍備임에 비추어서 참다운 그意義에 遂行하는 結果를招來치 않도록 連合의인 相互扶助의 精神에 透徹하여 集團防衛의 戰略속에서 自國의 能力에 相應하는 負擔으로서 速대한 計劃 밑에 戰力培養을 圖謀하며、共產軍의 侵略을 防止함으로써 國家의 嚴存을 期하는 것과 同一하게 國家經濟의 破綻을 防止하는 것亦是 國家百年의 大計를爲한 賢明한 策이라 믿는다.

結 論

國際政治의 所産으로서 誕生한 大韓民國은 그 出發點으로부터 獨立을 保障하여 준 國際政治의 矛盾된 餘波로서 하나의 宿命的인 課業이 부여되었으며 그 課業이란 너무나도 冷酷하며 또 크다.

達成하여야 할 課業이 무엇인가에 對하여는 모르는 바 아니나、그들 遂行함에 있어서 豫期되는 障害의 크기에 비하여 이에 所要되는 國力은 또한 甚히 微弱하며、韓國은「大砲와 빠다」도 모두가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大

砲와 빠다」이 兩者는 모두 自力으로서는 到底히 滿足시킬 수 없는 現實에 놓여 있다. 卽이것이 韓國의 悲哀이며「디펜마」인 것이다.

그러나 如斯한 諸般事實을 그대로 締念할 수는 없는 것이며 三千萬 國民이 眞正한 自由와 幸福을 누리느냐 아니면 共產主義의 奴隸를 甘受하느냐의 兩者擇一은 거북이가 목을 감춘다고 危險을 防止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를 回避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는 迫力있는 實踐과 果敢한 鬭爭만이 要求되며、鬭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科學的인 分析에서 이루어진 明哲한 洞察과 冷靜한 判斷에 依하여 基礎지워져야 한다. 어떠한 逆境과 難關에 逢着하여도 韓國의 運命은 韓國國民이 最後까지 解決한다는 精神的武裝의 強化와 堅固한 覺悟가 가장 主要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現代의 國際政治의 推勢는 一主權國家의 範圍를 超越한 보다 넓은 테두리속에서 國家의 活路를 擇함을 要求하고 있는 現實을 認識하여、그 內部에 있어서 一弱少國의 地位에 놓여 있는 韓國은 自國의 處하고 있는 位置에 對한 明白한 認識과 保有하고 있는 諸般의 能力自體에 對하여 正確한

限界가 과악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決코 獨立國家의 權利와 民族的自尊心の 拋棄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同時に 嚴然한 事實은 이렇한 單純한 民族的感情으로서는 否認될 수 없는 것이다. 大韓民國의 생존과 國民의 安寧福祉를 促進하기 위하여는 政治的面에 있어서는 國際政治의 本質에 沾하여, 지금의 共產主義를 포함하는 平和機構인 國際聯合에서의 韓國문제 해결은 期待하기 困難하다 하겠으나, 그러나 韓國의 國家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는 利用 가능한 限 有效히 利用함은 勿論 必要한 것이다.

그와 同時に 民主陣營의 一環으로서의 聯合的 結合體制에 韓國은 깊은 理解와 寬容과 忍耐로서 이에 信賴하며 또 依支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民主友邦의 內部에서 政治的인 孤立을 避하여야 하며, 國內의 으로는 真正한 民主主義의 具顯을 爲한 政治的인 努力과 아울러, 對外的 으로는 不必要한 不安을 除去一掃하여 相互扶助의 協助精神을 발휘하여 國家利害의 相互衝突을 惹起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一 4 3 一
戰爭이 하나의 政治的인 연장이라는 理論을 否認 못할진 데 戰略은 또한 政治의 影響을 받는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主權國家의 頑固性으로부터 飛躍한 보다 高次的인 政治理念에 立脚한다면 國家目的의

達成을 위한 戰略觀은 또한 그의 基礎로서 樹立될 것이며 韓國이 願하는 現代的 軍備의 保有는 現在와 같은 單純한 量的으로서의 自慰的 軍備를 止揚하여 完全한 政治的 理念의 融合에 依거한 聯合的 集團防衛의 戰略構想下에 質的面에 있어서 現代的 裝備의 軍備를 保有할 수 있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은 高次的인 政治理念의 確立과 聯合的인 戰略觀에 깊은 信賴와 自信을 가진다면 必然的인 歸結로서 現在와 같이 自國의 經濟的能力에 벗어난 過重한 負擔으로서 國內經濟의 不安全性을 助長하고 있는 內部的 危機는 量的 軍備의 自慰로부터 脫皮하여 自國의 能力에 符合되는 責任을 分掌하여 未來에 있어서는 自主的인 戰力的 保有를 可能케 하는 諸般基礎는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思考觀이 當面한 韓國의 現實과 符合되는 具體的 實踐手段을 誘導할 수 있는 根本的인 問題이며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幸福을 保障하는 堅實한 觀念이라 믿는다.

스위스의
表情

張基永

山川이 秀麗하고 風光이 明媚한 天
然風景이 世界에서 으뜸가서 世界의
公園이란 稱號를 받고 있는 點이라든
가 政治와 社會가 安定되고 道義나
文化가 高度로 發達된 點으로 보아
地上天國이라고 稱讚을 받아 그명을

날까지 數 많은 宣傳되어 있으니 내가
새삼스러이 여러 말을 아니하여도 뜻
있는 社會人은 이미 잘 아는 바 일 것
이고 또 내가 瑞西를 訪問한 것이 今
番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번 들려 본
곳이니 만큼 이 나라에 對하여 觀光客

으로서의 感興이 새로운 바가 없으니 이번 旅行에서 別로 새로운 紀行의 資料도 없다는 것을 告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태여 이나라에 對한 感想을 綜合하여 結論을 맺가지 적어보면 이렇다.

나라는 山川景概가 世界第一이라 하지만 國土의 大部分이 險峻한 山岳으로 되어 있어서 國民이 生活하여 나갈 天然資源 特이 衣食을 生産할 土地의 資源이 거의 없다고 할 程度로 貧弱하다. 그러나 그들은 금주리지 아니하고 高度의 文化와 道德과 工業産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農地

의 惠澤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牧畜이나 細工業으로 僅僅히 살아 왔으나 그들은 時代의 進運에 앞질르는 研究와 創案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精密機械가 發達하였고 發電施設이 完備되어 至今에는 世界에서 有數한 工業國이 되어 있다. 「文明은 必要에 짜인다」 하지만 天然資源이 窮乏한 民族이라고 모두 瑞西와 같이 文化와 産業과 道義가 發達하는 것은 아니다. 瑞西의 民族性이 優秀한데도 基因하겠지만 그 나라의 政府와 國民이 다같이 努力하고 研究하고 協力한 피와 魂의 結晶인 것이다.

이나라는 世界各國에서 모여드는
觀光客이 떠러뜨리는 돈이 國民所得
과 國家財의 重要한 地位를 차지하
고있다. 이나라의 山岳이 秀麗하고
數 많은 湖水가의 風景이 어는 곳이나
一大詩境을 자아내 氣候風土가 觀光
에 좋고 靜養에 適合하여 世界各國
富裕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勿論

이고 國際的政治會合이나 文化的事業的 會合의 場所를 選擇하는데는 于先이나라를 첫손가락에 꼽아보는 것은 이나라 民族이 타고나는 天賦의 惠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天賦의 惠澤을 高度로 活用하는 것은 瑞西의 努力이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外國人이 利用하여 好感과 慰安을 가질 수 있는 交通、建物的 施設에 不斷한 改良을 加하여 接待方法도 새롭새롭이 研究하고 向上하여가고 있는 것이 外國人으로 하여금 瑞西의 魅力를 더욱 자아내게 하는 것이겠지 만 무엇보다도 그나라 國土內全體 國民全體의 生活環境氣가 外國사람에게 平和롭고 高深한 感想을 주는 것이 地上天國의 稱讚을 받는 것이다. 實例를 하나 말하여 보면 旅行客이 行裝을 暫時停車場에 매끼여 두려고 무려보니 驛員말이 아무 데나 놔두라 한다. 事實「트렁크」나 其他物件을 待合室 乃至 길가에 놓

아 두었다가 몇 時間後 돌아와 보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行政의 理想社會를 山에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것들은 사람이 없아 드니 그말 그대로가 瑞西의 表情이다. 그들 國民의 生活相을 보면 山林은 茂盛하고 道路沿邊이나 住宅周圍는 藝術의 으로 매만져놓아 道路는 어디든지 整理되고 깨끗하며 住宅의 分布나 그周圍의 裝置는 한 幅의 살이 있는 畫面이다. 여기에 살고 이 속에서 움직이는 人間은 社會秩序나 公衆道德이 高度로 發達되어 있으니 佛經云 西方淨土를 다시 求할 必要가 없을 것 같다. 이 天然의 風物을 받아 가진 것은 그들의 先天的 幸福이었으나 이것을 잘 利用하여 그美를 享樂하는 것은 그民族의 後天的 努力에 있는 것이다.

그네들의 政治는 發達되고 安定되어 國民의 福祉를 爲하여는 政府가 全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政治의 씨

움은 눈에 미우지 않고 國民은 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國法과 道義를 지키고 默黙히 일하고 있다. 이러한 地上天國의 幸福은 決코 偶然이나 天然의 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民族의 長久한 歲月을 두고 自重하고 忍耐하고 努力한 結果인 것을 깊이 배우고 싶었다.

瑞西의 表情은 이만 그치고 이번 나의 旅行用件의 所得을 몇가지 덧붙여 두기로 한다. 나의 今番旅行은 歐羅巴各國 重石消費業者인 企業者들의 會議에 參席하기爲한 것이요 瑞西「제네바」湖水 北岸에 있는 「로산누」에 四日間滯在하였다. 이 會議의 目的은 重石의 國際時勢 暴落으로 인한 大韓重石의 活路를 打開하여 보자는 것이었다. 會議結果의 重要한 結論은

一、이 會議에 參加한 各國代表들은 大韓重石의 現在 難境을 打開하

愛機와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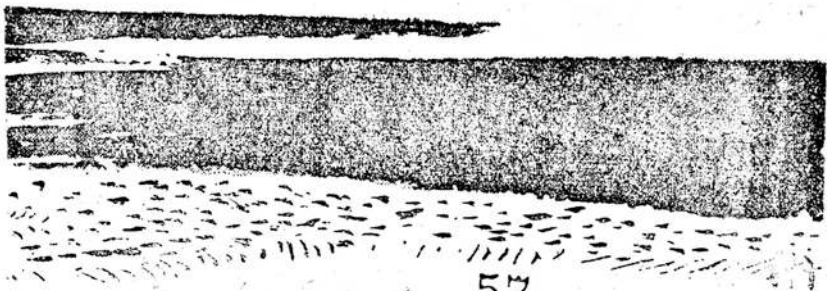
朴斗鎭

가을 바람은 금빛 바람——

골짜마다 가득가득 百果들 무르익고
五穀 豐登하게 온 들에 파도치는
아, 여기 이령도록 기름진 우리들의 國土
가을이면 한결 더욱 아름답고나。

가을 바람은 푸른 바람——

언제나 높아있고 아득하고 맑지만
저렇듯 자꾸만 푸르러만 지는
고요하고 경건하고 폭은한 하늘



가을이면 한결 더욱 아름답고나.

가을의 마음들은 순후한 마음——

시달리고 찢기워, 비록,

쓰라림과 아픔에 거칠었어도

그래도 아직은

안으로 한줄기씩 흐르는 핏줄

서로 보는 눈길 속에 따뜻하게 영겨

하나로의 血族 수수하고 어질은

언젠가는 爛漫하게 다시 피어질 人情

아, 가을이면 더욱 고은 마음씨들아.

그

하나로의 몸둥이인 우리들의 이땅을

하나로서 받들리울 우리들의 蒼穹을

하나로의 핏줄기인 우리들의 겨레를



이대로 갈리인채
이대로 찢기운채
이대로 더럽힌채
참고 있으랴?

아, 愛機!

가을을 하늘을 내祖國을 나르는
三萬千 五百 휘이트의 高空 위에서
부르릉! 부르릉!

수리처럼 팽팽한 鬪志에 싸여

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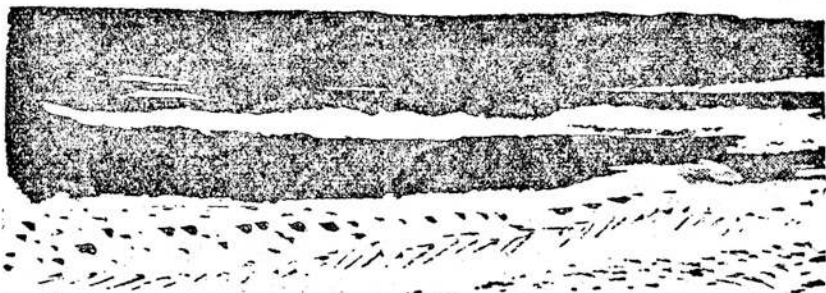
나보다도 세차게 憤怒하고 있고나。

잃어버린 半 땅

잃어버린 半 겨레

잃어버린 半 푸르른 하늘을

한 가슴 한 눈속에 모두어 넣고



뿌르르르: 뿌르르르: 떨고 있고나,
아, 꿈에도 못 잊히울 우리들의 失地

新義州、滿浦鎮、中江鎮、惠山鎮을

茂山을 會寧을 穩城을 羅津을

그 하늘을 이 나래로 휘날리고 싶어

南東南

南西南

南으로 南녘으로 機首를 돌릴때도

愛機! 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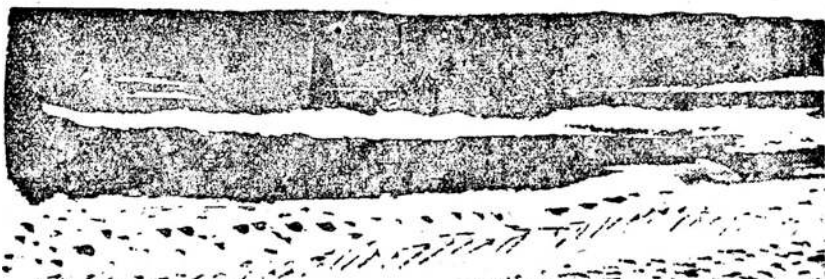
자꾸만 역사게 깃죽지를 사납혀

北東北

北西北

北으로 北녘으로 北半部를 向하여

스스로의 機首로 둘러 날아가려 드는고나。



△詩▽

물고기인 航空機는

金奎東

내가 砂場에 누워 덩굴때
西南쪽에서 날아온 航空機는
물고기 처럼
미끈거렸다。

은빛 비늘이
눈부신 機體、

나는 꿈을 꾼다。

하늘을 날으는 —

香港、로스앤젤레스、파리、런던、

또는 記憶에 생생한

西部戰線을 —

하늘의 水深에 잠앉아가는 엔진소리

그것은

머나먼 鄉愁와도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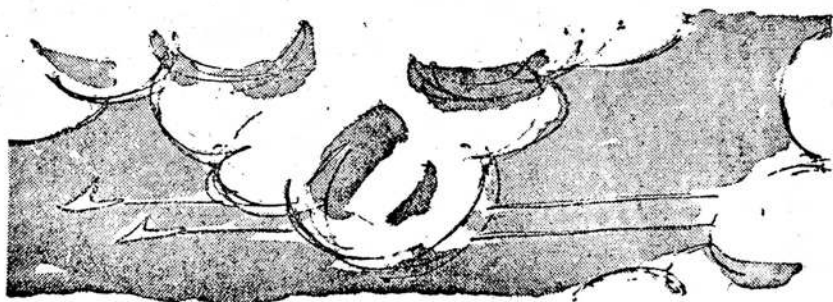
내 가슴의 壁에서 멀리 꺼져 간다.

하늘의 푸르름。

휘날리는 旗、

한대의 飛行機가 남긴 「이미지」는

하얀 新作路길처럼 멀리 뻗어 왔다.



空中과宇宙



— 이는 分割할 수 없다 —

로 — 마스 · D · 화이트

(美空軍大將)

十年이若干經過하는 동안에 熱核武器와 大陸間誘導彈 또는 爆擊機等이 다같이發展됨으로 말미암아 國際間の 相互關係性이 根本的으로 變貌되었읍니다.

이 國際相互關係性은 멀리 將來에 人間의 能力으로서 멀리 宇宙에 到達하기爲한 旅行에 依하여 複雜해질 것임니다. 急激하게 工藝學이 發達한 오늘날 世界는 全人類의 利益도 될 수 있겠으나 文明된 世界를 破壞할 수 있는 大犧牲의 結果로 도될 수 있읍니다.

美國空軍은 모든 힘으로서 戰爭을 豫防하도록 企圖하고 또한 提起되는 宇宙에

關한 智識으로서 平和의 利益을 推進코저 하고 있읍니다. 平和確立을 爲하여 美合衆國은 戰爭을 爲한 臨時變通이 아닌 恒久的인 準備의 狀態下에 強力한 軍事力을 維持하도록 된 것임니다.

우리의 軍隊는 戰爭을 防止하는 것을 그 主要目的으로 하기때문에 우리의 戰爭防止軍이 戰爭에만 投入되지 않는다면 그 目的은 達成된 것임니다. 如何間에 美國이 그 軍事力을 使用하도록 要求한다면 그들은 勝利를 期할 수 있게 充分히 强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空軍의 軍事力에 關한 美國空軍의 基本理念이란 두말할 必要

없이 融通性있는 攻擊力이라는 것이 必須條件입니다. 이러한 힘들은 우리나라의 目的을 擁護하도록 世界의 어떠한 지 作戰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합니다.

特別히 強한防空이란 強한防衛力이 重要한 것임니다만 우리가 最上의 攻擊軍을 가진다는 것은 敵의 侵攻을 막는 것이 原則입니다. 強力한 軍事力을 갖음으로써 戰爭을 防止하고자하는 生覺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時代에 있어서 戰爭을 防止하고자한 美國의 型態는 現在는 그 觀念이 變貌읍니다만 美國의 貯藏과 動員能力 또는 現存하는 軍隊의 規模와 能力과 같이 大洋에 依하여 餘有있는 防護로서 實存되었읍니다. 戰爭防止란 動員能力이라든가 또는 距離의 長短으로서만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誘導彈』

空軍의 才量은 附與된 責任에 依하여 恒常發展되어 왔고 또 이러한 基礎에 立脚하여 將來에도 企圖된 것임니다. 空軍이 어떠한 兵器體系를 確立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戰鬪能力을 만들어 낸다는 것임

니다. 瞬間的인警告로서報復할 수 있으며 強力한攻擊軍의 融通性과 力量이 오늘날 眞正한 戰爭防止를 意味합니다.

이 戰爭防止의 力量이란 假想敵으로 하여금 美合衆國이나 그 同盟國을 攻擊해 오았더라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確信시킬 것으로서만이 充分할 수 있는 것입니다.

美國空軍의 가장 重要한 責任은 이 戰爭防止의 力量이 强하고 또 現代化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力量은 그들이 꼭 必要로하는 모든 境遇에 適應시킬 수 있도록 充分한 融通性이 있어야 합니다.

美國空軍은 進歩되고 改良된 技術的인 進捷은 一九四五年의 B-29 原子爆擊機와 一九五八年度の B-52 JET 核爆擊機를 比較하여 明白한바와같이 刮目한 바 있습니다. 航空衛이나 宇宙科學은 共히 歲月의 흐름에 따라 놀라움고 더욱 重大하게 發展된 것입니다.

美國空軍은 中長距離誘導彈 計劃에着手했습니다. 그 理由는 誘導彈의 戰鬪力量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利益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初期의 誘導彈이 後에 發展確保된 것에 比較하여 우리가 期待

하는 것보다는 效果가 훨씬 없을지라도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戰鬪力量이 進歩的인 것은 事實입니다.

美國空軍은 이 誘導彈兵器가 作戰化될 때에 誘導彈의 後方支援의 準備과 作戰上 使用의 細部の 計劃下에 誘導彈의 研究와 發展을 圖謀하고 進展시키도록 考慮中에 있습니다. 誘導彈製造計劃은 近來에 있어서 空軍이 가지는 第一優先的인 企劃입니다. 彈導彈이나 誘導彈이 사람이 操縱하는 航空機와 對峙되고 이에 兩立되게 된 데엔 많은 理由가 있습니다. 待機能力迅速한 再行動 그리고 많은 空軍任務의 經濟的 實績과 더불어 많은 效果의 結果로서 作戰上 또는 實際의 으로 誘導彈은 敵을 攻擊함에 있어서 危弱性을 減少케 합니다. 그러므로 兵器의 選擇과 事前에 軍機構를 決定하는 것은 正確性 實際性 彈頭의 重量 運搬할 수 있는 能力 距離 價格 攻擊하여야 할 目標의 型態 등과 같은 많은 要素에 依存되는 것입니다.

『天文科學』

或間 彈導誘導彈이 窮極의 兵器인 것처

럼 잘못 알고 있지만 이것은 確實히 窮極的인 兵器가 될 수 없다는 大端한 疑心이 생기었을 뿐더러 經驗上으로도 一定한 時間과 一定한 場所에서 決定의 이 될 수 있는 單純한 兵器나 또는 兵器體制로서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誘導彈은 在來式 航空機로부터 宇宙航空機로 改造되면서 假令 아무리 重要한 課程이라 할지라도 다른 段階로 考慮치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宇宙와 空中을 論議할 때 둘사이엔 아무런 區別이 없다는 것을 認識하게 되고 모든 實際目的을 爲해서 空中과 宇宙間 作戰分野에 있어서 恒久的의 이고 分割할 수 없는 것으로 歸着됩니다. 마치 陸地와 바다를 아래로 우리들의 自由로운 行動을 空中에서 可能케 하여 統制할 수 있는 能力을 가졌던 過去와같이 未來에 있어서는 地球의 大氣層을 通한 地球表面 위에서 우리들의 行動을 自由로 할 수 있게끔 宇宙를 統制할 力量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空軍에서는 사람이 操縱하는 航空機로서 數年間에 걸쳐 宇宙의 邊두리를 開拓했던 것입니다. Bell X-3 Rocket 研究機가 Iven Kincheloe 大尉를 태우고 每時

間 1000 마일이라는 速度로 地球上 約 80 마일 높이를 飛行했습니다. 現在發展段 階에 있는 X-15는 이 X-2 보다 速度 度나 高度에 있어서 훨씬 越等하게 計劃 되어 있습니다.

다음 段階로서 空軍이 가지는 計劃은 超過音速으로 地球大氣層에 되돌아오기前 에 여러번 宇宙를 周航케 하는 것입니다. 兵器分野와 같이 이 計劃은 操縱에 依한 宇宙飛行은 確信케 하는 最初最大의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 方法은 地球周圍를 繼續的으로 廻轉케 하는데 사람을 搭乘케 한 다는가 그들 遊星近傍이나 宇宙外部로 되 워 보내는것등을 包含하여 많은 可能性을 示顯할 것입니다. 이를 順次的인 일이 進 展됨에 따라 技術의으로 오는 數年以內엔 사람이 搭乘한 宇宙飛行이 可能케 될 것입 니다. 最近에 이러한 技術的競爭은 前例 가 있을수 없었던 發展을 露呈했습니다. 不過 몇年前에 優秀하였다고 生覺되었던 出力은 벌써 여러번 增加되어 왔읍니다. 그리고 個人裝備에 있어서도 달에 到達하 도록 사람이 搭乘하는 宇宙飛行에 適切할 수 있는 點을 證明했습니다.

「空軍經驗要素」

空軍에서 空中과 宇宙의 將來性에 對해 서 統合하도록 越大한 作戰의 觀念을 가 진다는 것은 當然한 所以입니다. 距今 五 十年前에 空氣보다 무거운 殘骸를 날리우 기 始作한以來 空軍自體는 飛行機를 基礎 的인 方便으로 使用했는 것입니다. 그동 안에는 廣範圍한 知識의 發展과 作戰的經 驗 및 實質的인 技術等을 蓄積했습니다.

오늘날 美國空軍은 宇宙年代로 出發하려 하고 있습니다. 空軍이 飛行科學에 있어 서 成熟되었다는 것은 어림은 間에 大端히 價値있고 重要한 贊意인 것입니다.

航路 速度 高度의 特性 航空機의 搭載 能力 空軍에서 空中戰에 對한 技術의 發展 等的 持續的인 開發等은 第二次世界大戰 동안에 越等하게 熟達되었고 더욱 韓國戰 亂 동안에 더 많이 改良되었습니다. 敵의 防衛를 높고 縱心部에 들어간다는가 敵兵 力의 根源地를 攻擊하는 戰略空中戰은 空 軍의 자랑의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創作 이며 技術이며 經驗인 것입니다. 오늘날 空軍의 作戰上 構造한 職業化한 空軍將兵

의 獻身的奉仕와 優秀한 裝備로서 이룩된 經驗이 反影된 것입니다.

이 型態의 優勢한 特徵이란 迅速한 再 起와 融通性 選擇되는 火力 機動性 또한 侵入能力等입니다. 距離 速度 航路 高度 그리고 戰術等 組合된 無制限數와 不分割 障碍 無制限等 媒介된 作用과 더불어 美空軍은 이 無制限한 問題를 解決지을수 있습니다.

65

空軍은 課題에서 課題로 또는 한地域에 서 他地域으로 急速하게 바꾸어 놓을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戰爭에서 大端히 必要한 火力을 對適시킬수 있고 平和를 目的으로 하는 博愛主義와 政治的 또는 心 理學的으로도 使用되기도 합니다. 誘導彈 들은 이러한 強力한 作戰上經驗이 합칠때 大端히 効力있고 效果있게 爆發됩니다. 宇宙尖端으로 보내는 試驗航空機의 調査 와 誘導彈의 發展은 비록 MANHATTAN 計劃이 그範圍와 目的이 優秀하다 할지라도 大端히 여러운 事業입니다. 그리 멀 지 않은 將來에 効力있는 彈導誘導彈과 實 際로 實驗航空機가 우리 空軍의 作戰上武 器로서 看做될 것입니다.

空軍은 이미 그물을 받아들일 準備가 되
어있고豫想되는 難點과 새로운 問題를
通하여 그물을 効果있게 使用하도록 마련
되고 있습니다. 美合衆國과 그同盟國들
은 앞으로 닥쳐올 戰爭에 對해서 恒常 固
기있게 壓力을 作用시킨 力量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美國의 火力이 最

飛行접시는 存在하나?

접시 目擊說은 根據

薄弱

美下院 宇宙委가 報告

下院宇宙委員會 特別分科委員會의 一秘
密報告는 飛行접시들에 關한 報告들이 거
두해서 調査를 받음에 따라 그것들을 自
然現狀이라는 見지에서 說明하는 것이 더
容易해 지고 있다는 空軍將校들의 말들을
引用하고 있다.

高의 火力일때에 可能할 수 있습니다.

最上의 火力을 가지려면 晝夜로 一年
三百六十五日 非常하고 迅速하고 힘있게
反復을 遂行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힘
은 侵略者로 하여금 攻擊을 어렵게끔 할
것입니다. 空軍은 生産可能한 最高의 空
軍力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創業에 功獻할

明白한 事實은 飛行접시들이 다른 世界
로부터 온 物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同
報告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空軍은 經驗을 통하여 어떤 意味있는
말이 傳播되면 數百種의 새로운 目擊談이
뒤이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不幸히 이 目擊談의 大部分은 奇想으로 부
터나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研究力에
무거운 負擔을 지워 놓는다. 神秘의 帳幕
을 메끼려는 試圖들은 失敗하였고 唯一한
結果는 새로운 準宗敎의 的인 飛行접시들
인 사람들以外로 부터 智惠 있는 存
在들이 到着한 「事實」을 公開하라는 소리
를 높이게 된 것 뿐이다.』

것입니다.

『부침말』

本記事는 美國空軍의 彈導誘導彈報告書
의 序文으로서 美空軍參謀總長에 依하여
序述된 것입니다. (K T H 譯)

이와 같이 暫定的인 結論은 下院宇宙委
員會가 飛行접시를 또는 空軍이 이르는바
未確認飛行物體에 對한 公聽會를 여는 것
을 中止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結論은 分科委員會가 그의 中間報告에서
行한 六個의 建議中의 하나인 것입니다.

六個建議案은 分科委員會의 承認을 받
고 本委員會에 廻附되었다. 分科委員會報
告書의 다른 建議案은 十二月에 全國宇宙
計劃發展에 關한 公聽會를 開催할 것, 十
一日에는 空間推進에 關한 討論會를 開催
할 것, 同委員會委員들이 全國의 여러 宇
宙施設을 視察할 것 등이다.

무너지는 宇宙의 神秘



外誌에 서

「一瞬의 光陰도 나에게는 不可思議이며, 一寸의 空間도 神秘로운 것이다.」 — 윌트, 휘트만

空軍에서 宇宙軍으로

彈道誘導彈 計劃으로 宇宙로 浸透하며 有人航空機로 宇宙의 一端을 취무터트린 美國空軍은 地球의 大氣圈을 逸脫하여 廣漠한 宇宙로 有人「로켓트」를 發射하는 作業을 맡은 必然의 機關을 設置하기에 이르렀다. 蘇聯의 「스프르니크」一號 發射以後로 啞然 緊張과 活氣를 피우기 始作한 이나라의 軍事的 宇宙征服事業은 지금 最高潮를 向해 邁進하고 있다. 國防長官 「네인. H. 메켈로이」氏는 一九五八年 二月七日 新聞記者 會見席上에서 有人宇宙航空機의 研究發展은 美國空軍의 責任이라고 示唆한바 있었다.

이것이 決定으로 이끌고 그 決定은 이나라의 宇宙計劃을 促進시키고 있다.

美空軍 參謀總長 「와이트」大將은 일찍이 「大氣圈과 宇宙征服의 實際의 目的을 貫

67

徹하기 爲하여 不裂, 不斷의 作戰을 編成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어떤때에 있어서는 「스프르니크」一, 二號의 거의 神經質의 影響을 받아서 宇宙計劃은 마치 全히 새로운 軍事任務인것 같은데도 있었다. 이와같은 情勢는 二個의 結果中 하나에 接近할 수 있는 것이었다. 卽, 또는 實際의 目的을 위한 새로운 第四의 軍事業務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宇宙計劃을 위하여 三軍間에 苛烈한 競爭을 展開하는가?

兩者 어느것의 蹣跚도 이나라에 커다란 損失을 끼칠 것이다. 이와같은 理由로 美國政府는 空軍에게 宇宙計劃을 위한 莫大의 投資를 한것이며 萬一 어떠한 다른 機關에게 이 使命을 委囑하였더라면 遲延과 重複과 浪費를 招來시켰을 것이다.

空軍의 彈道誘導彈 計劃에서 宇宙征服의 발판이 되는 研究上, 生産上의 機構는 이미 存在하고 있었다. 宇宙醫學計劃은 宇宙飛行을 위한 生物學의 基礎를 세웠다.

半世紀의 歷史에서 첫거름을 내딛는 美空軍은 이렇게 하여 知性에 挑戰하며 幻想하는 情熱의 可能性을 가지고 宇宙의

境界線에서 있는 것이다. 多幸히도 美空軍은 不眠不休의 經驗과 技術、敎理와 哲學을 土臺로 이와 같은 重大한 任務에 接近할 수 있었다. 宇宙의 境界線을 往服하는 것이 決코 單純한 일은 아니로되 그것은 그 遊星의 平和와 安全의 擔保物이며 逆說의 으로 우리는 地球의 自由를 保持하기 위하여 그 遊星으로 반듯이 待避해야 할 것이다.

結果의 으로 激甚한 敎育의 負擔이 空軍의 어깨에 賦課되었다. 「프리스톤」推進式 航空機에서 全面的인 「렛트」推進式으로 轉換되는 過渡期에 있어서 이미 많은 任務에 操縱士의 「콕핏트」는 誘導彈計劃으로 과 차 있었으니 空軍將兵들은 同時에 二

重、三重的 負擔을 받았다.

技術的인 旋風은 操縱士들이 誘導彈이 飛行計劃에 包含되기도 전에 이미 宇宙船으로 突進하였다. 大陸間橋斷彈道誘導彈까지도 아직 最後의 武器가 되지 않고 다만 地球의 大氣圈에서의 有人航空機와 天體越便의 曠漠한 宇宙旅行間에 存在하는 幕間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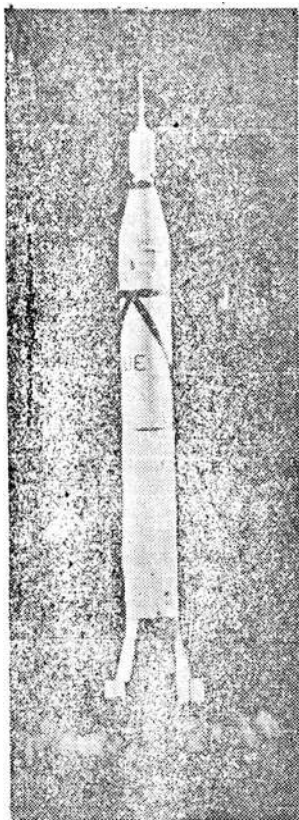
오늘의 空軍은 來日의 宇宙軍을 期約하며 오늘날의 始作은 來日에 가서 操作하게 될 媒介體에 對한것을 알기 위함이다. 宇宙軍은 引力、重力、氣象等과 같은 自然은 問題로부터 解放된다. 그러나 食料、航行等과 같은 새로운 問題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宇宙軍의 操縱士들은 離陸과 着陸、飛

行任務 遂行에 時間單位를 떠나서 幾週、幾個月 或은 年間の 單位를 使用할 것이다.

理想과 目標는 宇宙征服

宇宙는 實로 廣大無邊한 것이다. 그 廣大함은 實로 人間の 知性으로서 想像할 수 없다. 그러나 이 曠漠한 宇宙를 譬喻하는 卑近한 例가 있다.

英國의 天文學者 「제스·진」卿은 「宇宙에 散在하는 星座의 數는 마치 世界의 바닷가에 잔여있는 無數한 돌과 같다. 이 天體의 中心을 이루는 太陽은 다만 이 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空軍은 宇宙와 大氣圈의 境界線에서 있다. 그들은 地球의 大氣圈內에 있으면서 宇宙에서와 꼭 같은 條件에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四百乃至五百「마일」上層 或은 外部에 있는 眞正한 宇宙로 進出할 것이다. 大氣圈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空軍은 高度 十〇萬「피트」以下에 介在하는 大氣의 九十九「퍼센트」를 通過할 것이며 大氣圈內에 存在하는 五個의 氣層을 通過할 것이다.



對流圈

高度 十哩 以下에 存在하는 가장 낮은 氣層으로 오늘날 在來式 航空機가 가장 손쉽게 飛行하는 層이다. 이 層의 上部는 赤道에서 五萬四千「피트」上空氣이며 極地에서 二萬八千「피트」이고, 中緯度에서 三萬六千「피트」上空氣이다. 이와 같이 高度의 差異는 地球가 橢圓型이기 때문이다. 對流圈의 二十「피트」가 酸素이며 나머지는 窒素이다.

成層圈

十哩에서 十六哩 上空氣를 말한다. 이곳에서 絕對壓力가 每平方「피트」마다 二二「파운드」로 떨어질 때 어떤 往復機關의 出力은 零點으로 減少될 수 있는 것이다. 成層圈으로 가는 中途인 約六萬三千「피트」上空氣에서 人間의 피는 들끓어 오를 것이다. 操縱室은 密閉되어야 한다. 外部의 氣溫은 華氏 零下 七十度이다.

中間層

成層圈에서 二十五萬「피트」約 五十哩上空氣이를 말한다. 이곳에서는 太陽에서 輻射하는 大部分의 紫外線을 吸收하는 「오존」이 集結되어 있으며 溫度는 增加되고 地球로 向하는 宇宙線에 對

하여 障壁을 이루고 있다. 美空軍의 「메이비드」시몬즈少領은 昨年 이곳에서 氣球을 타고 三十二時間이나 滯留한 바 있었으나 外部氣溫이 華氏 五十度나 되는 가장 따뜻한 곳인 十五萬「피트」上空氣까지는 못 올라갔다. 그런데 中間層上部의 約五十哩 上空氣에서 水銀柱는 勿驚 零下 百四度까지 내려간다.

電離層

二十五萬「피트」인 約四十 八哩 上空氣에서 二百乃至 三百哩 上空氣까지 퍼져 있으나 科學者들 間에 一定한 意見이 없다. 이곳에서 氣溫은 急上昇하여 三百哩 上空氣에서 二千二百度가 된다. 이곳에서는 雷響이 없다. 一名 「이온」層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電離層에서는 激甚한 電離作用이 일어난다. 이 層에서 原子와 分子가 強力한 電磁波의 爆風을 맞고 帶電하거나 電離된다. 이 電離層은 電離된 分子로 構成된 四個의 相異하는 層을 이루고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層을 「D」層 다음이 「E」, 「F」, 그리고 最上의 「F-2」層이다. 電離層은 電波의 傳播에 커다란 影響을 끼친다.

外氣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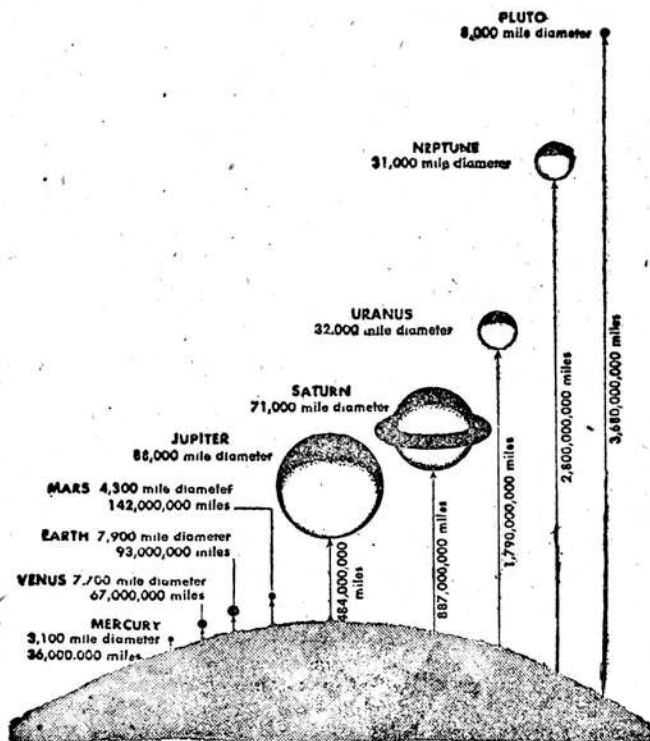
이 層의 上部限界는 定論

이 없고 約 一千哩이라는 것이 支配的인 意見이다. 어떤 專門家들은 地球의 氣體가 이보다도 더 먼곳에서 까지 浮動한다고 믿고 있다.

科學者들의 議論과 이따금씩 科學的으로 根據인 科學小說家들의 幻想을 떠나서 空間을 通過하여 時間과 距離를 征服하려는 人類의 努力은 宇宙의 가장자리까지 不可避하게 이끌어 갔다. 더 멀리 더 빨리 날르고 싶은 그들의 野望은 그들 空氣가 稀薄하여 引力이 적은, 더욱 높은 곳을 날게 하였다.

여기에서 人間은 身體上으로나 機械的으로 하나의 頂點인 制限을 發見하게 된 것이다. 人間과 機械는 作用을 繼續하기 위하여 呼吸을 해야 한다. 一萬五千「피트」以上 上空氣의 操縱士는 酸素補給을 받지 않고 作用을 할 수 없으며 二萬五千「피트」以上 上空氣에서 「엔진」亦是 「슈파」 차저」를 要한다.

그러나 上昇度는 漸次 增加되고 있다. 第二次大戰 當時 空軍은 高度 一萬五千乃至 三萬五千「피트」에서 싸웠으나 韓國戰亂時 「MIG」通路에서의 空中戰은 高度



<廣大한 太陽界>

四萬五千「피트」에서 展開되었다. 오늘날
美空軍의 「線航空機」는 高度 七萬「피
트」를 上昇하는 것이 있게 되었다.

實驗分野에서 音의 障壁을 越고 速度를
增加시키려는 努力은 마침내 人間이나 機
械나 平 같이 酸素를 補給받아 가면서 눈

一六八六年「아이삭·뉴턴」은 그의 運
動法則中 第三法則에서 『모든 運動은 作
用과 反作用이 있다』라고 宣言하였다. 이
것이 바로 「푸르켈라」이던, 「젯트」이던 或
은 「로켓트」이던 모든 推進裝置의 基本原
理가 된 것이다. 航空力學的으로 推進機는
「엔진」의 「에너지」를 空氣에게 傳達한다.

推進力의 問題

이러나 이와같이 猛
烈한 有人, 無人的 實驗은 眞正한 宇宙飛
行에 앞서는 前奏曲에 지나지 않았다. 大
氣圈內에서의 飛行과 마찬가지로 宇宙飛行
의 原理도 物理學的 法則에 依存되는 것
이다. 航空學이 飛行科學인 것과 마찬가지로
로 天文學은 宇宙旅行의 科學인 것이다.

은 高度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一九四七
年 十月 처음으로 七萬三千「피트」의 高空
에서 音速을 突破하였고 「아서·킵트·미
레이」는 「X-A」를 타고 九萬四千「피트」
高空을 飛行하였고 最近 實驗飛行中 狗職
한 「키켈로」大尉는 「X-2」를 타고 十二
萬六千二百「피트」를 上昇하여 世界記錄을
을 썼다. 이들의 理想과 目標은 한결같이
宇宙征服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猛
烈한 有人, 無人的 實驗은 眞正한 宇宙飛
行에 앞서는 前奏曲에 지나지 않았다. 大
氣圈內에서의 飛行과 마찬가지로 宇宙飛行
의 原理도 物理學的 法則에 依存되는 것
이다. 航空學이 飛行科學인 것과 마찬가지로
로 天文學은 宇宙旅行의 科學인 것이다.

「젯트」나 「프로펠라」는 어느 것이나 空氣를 後方으로 밀어 내면서 前進推력을 얻는다. 그러나 空氣가 없으며 따라서 媒介物도 없다.

이러한 結果로 宇宙旅行에는 반듯이 原始的인 推進裝置로 알려져 있는 「로켓트」를 使用한다. 「로켓트」는 自身の 힘으로 推進하기 때문에 空氣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로켓트」는 燃料과 酸化劑를 가지고 있다. 「로켓트」는 「뉴튼」의 運動法則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反作用에 의하여 推進력을 얻어 宇宙로 飛行할 수 있다. 美國의 「로켓트」의 先驅者인 「로버트·후다트」博士는 「一九一九年 이미 이事實을 實驗으로 證明하였다.

그러나 比較的 最近까지 이 「로켓트」의 發展狀態는 大氣圈을 벗어날 수 있을 程度까지 前進하지 못하였었다. 地球에서 發射된 「로켓트」는 大氣圈의 引力과 싸워야 하며 相當한 重力을 克服하여야 한다. 한 개의 「로켓트」를 垂直으로 發射하였을 때 重力하나 만으로서 每秒時速 二十哩의 速度로 速度를 遲延시킨다. 航空力學의 引力을 加算하면 速度는 七〇「피센트」가 消耗

된다. 이때문에 한 개의 「로켓트」를 宇宙로 發射하는 데는 巨大한 推進력이 必要한 것이다.

오늘날의 大陸間橫斷 或은 中間距離用 彈道誘導彈은 어떻게 하여 宇宙征服의 발판이 되고 있다. 地球表面의 한쪽에서 五千哩가 넘는 그 反對쪽으로 水素彈頭를 運搬하는 가장 빠른 方法은 宇宙를 通過하는 것이다. 허기 때문에 長距離誘導彈의 軍事的 要請은 宇宙에 向하여 무거운 짐을 充分히 運搬할 수 있는 強力한 「엔진」의 發展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物理的 證據로서 우리는 지금 地球를 回轉하고 있는 「스푸트니크」一、二號가 「엑스플로러」等 人工衛星을 目擊하였다.

事實上 人工衛星을 軌道위에 올리는 것은 必要한 推進力만 얻으면 比較的 簡單한 일이다. 地球의 反對쪽의 指定된 場所에 水素彈頭를 投下하는 것보다도 더욱 簡單한 일이다. 誘導問題 亦是 重大한 것이 아니다.

原則적으로 人工衛星은 時速 一萬八千「마일」을 超過하는 速度로 二萬五千「마일」을 超過하지 않은 速度로 發射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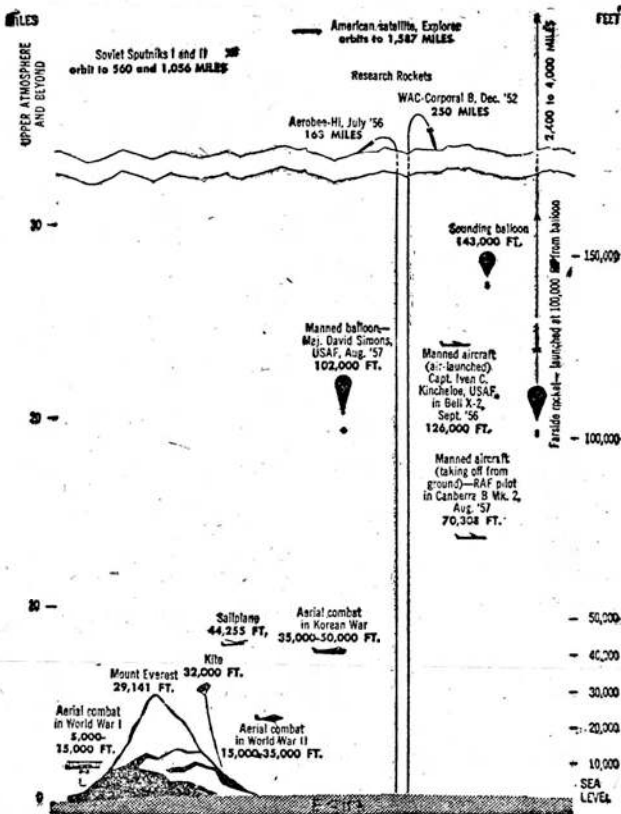
71

다. 이 範圍의 速度는 軌道速度라고 알려져 있다. 이 速度보다야 地球의 引力이 「로켓트」를 後退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地球의 脫出速度는 時速 二萬五千哩이다. 이 速度에서 宇宙船은 地球의 重力을 克服할 수 있는 것이다.

地球를 通過함에 있어 「스푸트니크」나 「엑스플로러」의 橢圓型 軌道는 誘導의 不正確에서 招來되는 結果이다. 하나의 完全한 軌道는 大端히 圓型에 接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軌道를 取할 때 人工衛星은 永久的으로 回轉하게 되는 것이다. 橢圓型의 軌道로서는 早晚間 大氣圈으로 落下하여 「스푸트니크」一號처럼 溶解되어 버리는 것이다.

美國空軍의 有人 人工衛星은 月世界에 永久的인 基地를 設置하므로써 觀測과 偵察을 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데 嚮矢가 될 것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隣)은 不過 二十三萬九千哩 內外이다. 이곳에 가는 旅行은 五乃至 七日만이면 될 것이다.

月世界의 戰略的 價値에 對하여 많은 貴重한 提案이 提起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人間의 宇宙侵透過程>

달을支配하는 것은 바로地球를支配하는 것이며 더욱이나 이렇게 되면 月世界에 軍事力을蓄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美國空軍의 研究發展局 次長으로 있는 「호마·브세이」准將은 『달은 軍事家들의

이른바 高地를重要視하는데 關한 完全한 實例가 될것이다』고 말한바 있다. 달에서 地球를俯瞰할때 달은 最高의 偵察地域이 될수 있으며 月表面에서 보는 地球는空氣 없는 宇宙를隔하고 있느니 마치 實로鮮

72

明하게 보일 것이다. 달에서 地球를向하여 誘導彈으로報復의 攻撃을加하는境遇에는 地球에서 달로向하여 發射하는推進力의 不過 二割밖에는 必要치 않을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誘導彈이 發射된다면 人工衛星을使用한 宇宙停車場에서有効하게 操作 誘導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地球에서 發射된 誘導彈의 境遇는大氣의 抵抗、氣象 그밖에 許多한 障害로 操作이 不可한 것이다.

이곳 月世界에서는 地球에서 느끼는 重力의 六分之一의 重量으로 무거운 荷物도 손쉽게 移動하여 軍事施設을 建築할 수 있을 것이고 地球에서는 絶對로 보이지 않는 달의 裏面에 武器를 安全하게 隠匿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던 戰鬪 및 着陸部隊는 月表面에 布陣하고 報復의 攻撃力은 月裏面에 積載할 수 있을 것이다.

地球로부터 달로가는 길은 정말 神秘로운 宇宙旅行이다. 宇宙의 L點에 到着하면 먼저 一定한 速度 一定한 時間에 宇宙船을 타고 月世界로 가는 中斷까지 오랜 그곳에는 다른 軌道로 달리던 다른 宇宙船이 通過할 것이므로 그쪽 宇宙船으로

變換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음 月 世界로 向하는 것이다. 宇宙船이 地球의 引力圈을 벗어나서 달의 引力圈에 들어오면 再次 速度는 增加될 것이므로 月 世界의 表面에 衝突을 免하기 위하여서 宇宙船의 速度를 늦추는 制動裝置가 必要할 것이다. 이것을 爲하여 「로켓트」의 反噴射裝置가 操作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問題는 무엇보다도 宇宙船의 進路上的 角度問題일 것이다. 一分一秒의 角度도 正確히 하기만 하여도 幾何 若干의 誤差도 數萬哩의 誤差로 擴大되기 때문이다. 勿論 正確한 計算器가 大部分은 解決해 준다고 하지만 計算器는 어디까지나 紙面上的의 計算에 끝나는 것이며 實地에 부딪치면 許多한 難點이 있을 것이다.

地球로부터 엄청난 遠距離에 있는 太陽系의 一行星을 占領하려면 全面的으로 새로운 型態의 推進裝置가 必要하게 된다. 可恐할 速度로 太陽系로 날라가려면 大量의 化學燃料을 運搬할 수는 없는 것이다. 二萬五千哩의 脫出速度로 地球에서 月 世界로 旅行하자면 數日을 要한다면 火星까지

는 八個月을 要하는데 여기에 必要한 燃料은 어떻게 運搬할 것인가? 太陽에 가까운 水星에로 가기 위하여는 重量과 速度보다도 더욱 燃料의 實問題가 될 것이다.

宇宙의 國際的 管理

人工衛星이 차츰차츰로 宇宙로 發射되는 最近에 이르러 或種의 國際的 管理制度設置나 軍備縮小에 對한 輿論이 盛頭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아이젠하워」大統領도 일찍이 이와같은 提議를 한 바 있었으며 政府나 議員들도 公같이 生覺하고 있다. 그中 各個의 提議는 國際聯合으로 하여금 宇宙를 管理하는 特別委員會를 組織케 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은 組織體의 價値나 窮極의 必要性을 不拘하고 하나의 甚刻한 問題는 主權과 國際法에 關聯된 問題일 것이다.

論理的으로 말하면 國際地球物理學觀測年度는 國際法上 새로운 世代를 創造하였다. 外界는 어느 一國의 領空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나다」의 空中法律學者이며 國際空聯聯合會의 法律顧問인 「존-윅-쿠르」氏는 美國이나 蘇聯이 國際地球物理學

73

觀測年度計劃을 發表할 때 어느정도 人衛星 發射에 對한 許諾을 要請한 일이 다고 말하였다. 어느 國家도 相對方의 人衛星이 自國上空을 通過한 事實을 領空侵犯이라고 抗議한 일이 없다는 事實은 宇宙는 어느 누구의 所有도 아니라는 原則을 規定한 것과 마찬가지로 指摘하였다. 「쿠르」氏는 現情勢를 다음과 같이 解折할 수 있다.

첫째 現在까지 國家 領空의 限界는 飛行機나 氣球가 떠오를 수 있는 程度까지의 大氣圈까지다. 둘째 引力을 가지고 있으며 飛行에 影響을 미치는 大氣가 稀薄한 上空의 一點부터 外界는 世界의 어느 國家나 政府의 主權에도 屬하지 않는다.

셋째 이와같은 空間을 規定할 或種의 國際的 協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한가지 말해줄 것은 美國이 비록 蘇聯의 獨占을 防止하기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한 것이지만 宇宙自體가 戰場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結局地球보다도 높은 位置에 있으므로 해서 絶好의 偵察 및 誘導彈 基地로 될 可能性만은 充分한 것이다.

△航空教育試案 V



航空知識普及의 길

金澤辰

여기 드리는 航空教育試案은 檀紀

四二八五年에 立案되었으나 事情이 있어서 發表되지 않은채 오늘날까지 冊子에 載되지 未어 있었는 것이 이번 「코메트」航空日 特輯號에 실리게 되므로서 겨우 하늘빛을 보게 되었다. 立案하는 때와 지금과의 時間的距離는 겨우 六年밖에 隔되나 그동안의 科學의 發達 特히 航空界의 發展은 적지 않은것이 있어서 이 試案을 그대로 發表하기에는 열감이 뜨거워지는 것이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全的으로 再檢討하여서

Up-TO-DATE 한 것으로 만드려 내기에는 너무도 주어진 時間이 없으므로 하는수 없이 一部修正만 하는 程度로서 여러분 앞에 보여 드림을 寬容하기 바란다.

序論

有史以來 長久한 時間을 두고 새와 같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라 보고저 하는 欲求는 우리 人類의 最大宿望의 하나이었다. 이 어려운 課題를 둘러싸고 Leonard Da Vinci, Otto Lilienthal, Octave Chanuts 等 말

74

할 수 없는 많은 生覺先輩들이 努力과 犧牲을 아끼지 아니 하였으나 그것은 그리 쉽사리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아니 하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十九世紀末에 와서 그 禁斷의 人類飛行도 드디어 이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 人類飛行의 成就가 이제 같은때도 不拘하고 벌써 오늘날의 航空機는 눈부신 脫皮와 變態를 거듭하여 昔日의 그림자를 찾기에 어려울 만치 지금은 非常한 發展을 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 航空機는 爛熟한 現代文明의 代身이라 할 수가 있으며 後世에 있어서는 우리 現代人의 知能을 말하는 Obelisk가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新羅와 高句麗의 빛나는 文化와 雄大한 氣象을 繼承하여서 다시금 祖國을 再建하며 雄飛의 길을 걸어 보려는 이 民族이 어찌 現代文明의 極致이며 科學의 最新尖端의 길을 걷고 있는 航空機의 發展史

上한 Page의 記錄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며 또 우리는 만들이 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의 航空機가 우리의 눈앞에 亂舞하는 꼴을 보고 마음便할 도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難關이 伏在해 있다. 첫째 航空機는 近代科學의 精髓라 할 수 있는 만큼 高度로 洗練되고 精密化되어 있기 때문에 航空機에 對한 偉大한 發明과 놀랄만한 發見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의 科學과 工業力이 이에 隨伴되지 않으면 이 發明이 산것이 되지를 않고 첫되히 埋藏되어 버리는 例를 여러번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航空機를 우리의 利器로 삼아 活用하려면 國家의 科學水準이 높은 同時에 이에 對한 國民 一般의 至大한 關心과 理解協調가 要請되는 바이며 또 優秀한 航空機를 生産하기에는 現下 우리나라 事情으로 보인 距離가 좀 멀러져 있음을 느끼는 바이다.

여기에 있어서 航空教育을 國民教育의 一課題로 삼아 널리 國民의 敎養으로써 航空知識을 普及시키어 科學水準의 向上을 圖謀하는 한편 國力培養을爲한 꾸준한 努力이 必要하다고 느끼는 바이다.

航空教育을 實施함에 있어서는 考慮하여야 할 問題가 두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指導할 수 있는 機會와 組織에 關한 것이고 또 하나는 指導課目에 關한 것이다. 前者에 對하여는 學校 등에서 教育課程으로 取扱指導하는 學校航空敎育과 航空機에 對한 國民의 關心을 集中시키며 民衆을 啓蒙시키는 民間航空敎育의 두가지 方式이 있고 後者에는 設計 生産 組立 整備 操縱의 다섯가지 課目으로 나누어 指導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어느程度 共通된 基礎敎育의 課程을 거치어 終局에 있어서 다섯 課目으로 나누어 選擇하게하여 指導하는 것이니 學校航空敎育에 있어서

는 低級學生에게는 一應 共通된 基礎敎育을 받게하여 高級學生으로 하여금 志望에 依하여 各 課目別로 指導를 받게하는 것이 順序이겠다. 그리하여 以下 指導組織과 敎育課程에 對하여 分類하여 보겠다.

航空敎育

A, 學校 航空敎育

a, 國民學校 航空敎育(正課)

I, 第一學年, 비행기 이야기
종이로 접는 비행기.

II, 第二學年, 두터운 종이로 만든「글라이더」, 팔랑개비.

III, 第三學年, 두터운 종이와 나무로 만든「글라이더」.

IV, 第四學年, 봄철(氣象觀測) 기압(기압계, 大氣의 壓力, 晴, 雨, 氣流, 氣壓과 天氣), 여름철(氣象觀測), 가을철(自然, 氣象觀測, 晝夜의 長短), 공기(空氣의 實在), 겨울철(氣象觀測, 風向, 여름과 눈), 대와 나무로 만드는 模型「글라이더」

V、第五學年、연과 비행기(空氣浮力、仰角과 揚力、飛行機)、바다

(波濤、바다와 氣象)、여름하늘(여름 氣象、구름、장마)、연장과 힘(지레、비탈、重力、重心、物體의 놓임)、石油發動機(內燃機關)、프로펠러、대와 나무로 만든 動力 飛行機。

b、中學校 航空教育(正課와 特別教育 活動)

I、第一學年

α、一般科學(正課)、空氣의 實存、空氣의 空間占有、空氣의 무게、空氣의 熱影響) 空氣의 壓力(大氣의 壓力、氣壓計、大氣壓力의 變化) 氣象(大氣의 狀況、雲의 生成、風、暴風雨、氣象臺)、힘과 에너지를(密度、流體의 壓力、浮力、物體의 運動、힘의 定義、에너지를)、물(물의 沸騰과 氷結、아이스크림、水分과 地溫)。

β、特別教育活動、模型「그라이더」라이더—「관통기、模型」「그라이더」

性能研究。

III、第二學年

α、特別教育活動、模型飛行機 만들기、模型飛行機 性能研究。

III、第三學年

α、一般科學(正課)、電氣(電氣의 發生、電氣의 種類、避雷針) 音(音의 發生、聽音器官과 音의 傳達)、簡單한 機械(지레、물레、큰

기계(流體의 動壓力、飛行機、內燃機關)、動物界(鳥類、型態、鳥類와 人生)。

β、特別教育活動、高性能模型飛行機 만들기、高性能 模型飛行機 性能研究、

c、高等學校 航空教育(工業高等學校 物理系統科 學生을 除外)。

I、第一學年

α、科學科物理(正課) 計量과 單位(重量、天秤、密度、壓力、氣壓計)、物性(液體의 壓力、浮力、比重)、熱(熱量、比熱、熱의 移動、熱

膨脹、融解、固體化、融熱、蒸發、液化、沸騰點、溫度)

β、特別教育活動、高性能模型 航空機 空氣力學的 性能研究、「그라이더」初級 同乘訓練、「그라이더」整備。

II、第二學年

α、科學科物理(正課) 힘과 運動(作用、反作用、反作用의 法則

힘의 비전(釣合)、힘의 三要素、힘의 合成分解、작힘(偶力)、힘의 能率、物體의 重心과 놓임、直線運動、速力、速力의 變化와 힘、落下運動、힘과 加速度、運動의 第二法則、慣性、運動量과 力積、萬有引力과 重力、回轉運動、機械와 일、지레、일、일의 단위、)

β、特別教育 活動、高性能

模型 航空機材料力學的 性能 研究、高性能 模型 航空機 設計、中級「그라이더」單獨 滑空訓練、滑空機整備、Gasolin Engine 模型 飛行機 研究。

III、第三學年

α、科學科 物理(選擇科目)

運動과 힘(慣性、流體의 摩擦、流體의 壓力、流體中の 物體와 받는 抵抗)、일과 에네르기(位置 에네르기、熱에네르기) 電動機와 動力(熱機關、內燃機關) 動力의 機械的 傳達(일의 損失率、여러가지 傳動法)

β、特別教育活動 高性能模

型 航空機 研究、Gasolin Engine 模型 飛行機 設計、Rocket Engine 和 Jet Engine 模型 飛行機 研究、中級「글라이더」同乘 帆走訓練、「글라이더」整備。

d、工業 高等學校 航空教育(物理系統의 學生)

I、第一學年

α、科學科物理(正課)(一般

高等學校와 同)

β、特別教育活動、高性能模

型 航空機 性能 研究、高性能 模型 航空機設計、Gasolin Engine 模型 飛行

機 研究、「글라이더」同乘訓練、「글라이더」製作과 整備。

II、第二學年

α、科學科物理(正課)(一般

高等學校와 同)

β、特別教育活動、高性能

模型 航空機 性能 研究、Gasolin Engine 模型 航空機設計、Rocket 和 Jet Engine 模型 航空機 研究「글라이더」單獨 滑空 及 同乘 帆走訓練、滑空機製作과 整備、飛行機 操縱訓練、飛行機 整備。

III、第三學年

α、科學科物理(正課)(一般

高等學校와 同)

β、特別 教育活動、高性能

模型 航空機 性能 研究、「中級글라이더」單獨帆走訓練、滑空機製作과 整備、飛行機 操縱訓練、飛行機 整備、飛行機 組立과 分解、Rocket 和 Jet Engine 模型 航空機 設計와 研究。

e、大學 航空教育

I、模型 航空機 研究 Club 活動、高性能 模型 航空機 研究와 設計、Gasolin, Jet, Rocket Engine 模型 航空機 研究와 設計、模型 航空機 研究와 設計指導、航空思想 普及運動 參與。

II「글라이더」Club 活動、中級「글라이더」帆走訓練、高級「글라이더」帆走訓練、「글라이더」組立整備、「글라이더」設計와 製作、「글라이더」飛行場管理運營과 參與「글라이더」Club 運營「글라이더」訓練指導、航空思想 普及運動에 參與。

III、飛行 Club 活動、飛行機 操縱訓練、飛行機 組立 敷備修理、航空思想 普及運動에 參與、飛行場 管理의 助力。

IV、Rocket 研究 Club、Rocket 和 Jet Engine 研究、設計、Rocket 和 Jet Engine 航空機와 誘導彈 研究設計。

B、國民 航空教育

a、技術指導

I、技術者養成

α、講習會

- 1、模型航空機 製作講習會

- 2、[글라이더] 製作 整備講習會

- 3、[글라이더] 操縱講習會

β、技術 Club

- 1、模型航空機研究 Club
- 2、[글라이더] Club
- 3、飛行機 操縱 Club
- γ、技術學校

- 1、[글라이더] 製作學校
- 2、[글라이더] 操縱士養成所

- 3、飛行機 整備學校

- 4、飛行機 操縱學校

II、指導者養成

- α、模型 航空機 指導者養成所

β、滑空教士養成所

γ、飛行機 操縱指導者養成所

b、航空知識普及獎勵

I、航空講演會開催

- II、宣傳映畫 撮影과 影寫會開催

- III、宣傳國語 及 Poster 募集及街頭貼付 宣傳

- IV、各種 航空 競技會開催

- V、宣傳 公開 飛行會開催

- VI、同乘 及 遊覽飛行

- VII、航空展示會開催

- Ⅷ、航空紀念行事開催及週間設定

- IX 航空事業 獎勵金補助

- X、功勞表彰

- XI、航空團體組織、助成

- XII、航空紀念建築建立

以上 指導事項과 方法의 概略을提示하였는데 이 가운데 國民學校와 中等學校의 것은 이 試案을 立案할 때

에 쓰이고 있는 教科課程에 맞추어 만든 것이므로 現在에 있어서는 얼마쯤 教科課程이 달라졌으나 이 試案을 適用할 수 없을 程度의 改正은 없다.
그러면 다음 本論에서 前記한 바의 施行方法을 세보겠다.

本 論

學校航空教育

一、主 旨

Humanist인 Humboldt가 말하기를「너이들의 青年을 보여다오」그러면 너의 나라를 알수가 있다」고果然 그렇다! 青年은 未熟하고 思慮分別이 完全하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氣力과 正義에 불타는 理想 그들의 果斷性있는 行動들은 能히 무슨일을 맞기어도 成就시키코야 말것이고 大過는 없을 것이다. 今世紀에 있어서 航空發展史에 많은 記錄을 남긴 獨逸 特히 滑空史의 前半에 있어서

의 獨舞臺의 活躍을 한 獨逸의 業績은 그대로가 獨逸青年이 쌓은 業績이었다. 피와 땀으로 물들어진 滑空機의 記錄과 發展은 青年이 아니면 그 記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하늘이 부르는 魅力이 없었더라면 獨逸 青年들의 脾肉의 歎을 吐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비록 「히틀러」 같은 指導者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獨逸의 青年들은 結局에 그릇된 길로 引導되고 말았고 나라는 敗亡하였을지언정 그들의 祖國을 爲한 盡忠의 精誠은 기리 靑史에 빛날 것이다. 이렇게 青年이 航空界에 功獻한 것은 獨逸 青年뿐이 아니겠고 美國이나 다른 나라도 그 예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獨逸의 青年은 특히 Versaille條約이란 環境이 그리 만듦였고 또 青年들의 몸부림치는 것을 그리 轉換시킨 偉大한 先覺者와 指導者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런 環境과 指導者에 對하여 論義할 必

要는 없는 것이다. 다만 青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魅力있는 하늘로 모라 넘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力說하고자 하는 것이다. 곧 그것이 國家에 큰 도움이 되리라 고 믿는 바이다. 그리하면 이나라의 青年들도 人類文化의 燦爛한 業績을 남길때가 또다시 돌아오지를 앞겠는가? 大韓의 青年들이여! 하늘은 그대들을 부른다. 그 푸르고도 맑고無限한 包容力있는 하늘로 활개치고 마음대로 활활 날라 보라. 여기 한가지條件이 있나니 너의 타는 航空機를 너의 自身이 만들어 타라. 決코 남의 것만은 타지 말아라 곧 여기에 學校 航空教育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二、國民學校 航空教育

第一項 指導方針

國民學校 兒童에게 航空教育을 함에 있어서는 直接 航空機의 實物을 取扱하지는 않으나 다음에 依하여 指

導할 일

1、各敎課에서는 機會있는데로 兒童에게 航空機에 關連된 敎材를 擇하여 航空機에 對한 關心을 잃지 않도록 할 일.

2、航空機란 것은 現在 우리의 눈앞에 展開되어 보이는 바와 같이 戰鬪 人命殺傷用具로만 使用되는 것이 아니고 平和的 運輸機關으로 使用하는 것이 더 크고 重要的 使命이라는 것을 認識하게 할 것.

3、航空機는 現代科學의 結晶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研究함은 現代人의 必需敎養이라는 것을 認識하게 할 것.

4、理科時間에 學習한 學科를 模型 航空機로써 實驗하여 理科學習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5、緻密한 工作技術을 習得하게 하는 同時에 好奇心 있고 끈기 있게 일을 完遂하는 習性을 가지게 할 것.

6、材料의 使用法 工作法等 模型

航空機製作에 있어서 設計圖에 依하여 正確히 工作하고 튼튼히 만들되 조금이라도 材料를 헛되히 쓰지않고 가법게 만들도록 하며 또 兒童들이 相互協調하여 共同으로 製作하므로써 團體的 協調精神을 가지게하여 個人別 各自가 따로 따로 製作하는 것보다 勞力과 時間의 節約이 되며 또 正確한 工作品을 產出할수 있다 함을 認識하게 할일.

7、恒常 創意 改善하는 研究的態度로서 工作에 任하도록 할일.

8、兒童이 義務的으로 正課時間에만 工作을 하지않고 課外에도 製作 研究하도록 激勵 指導하여 兒童의 才能을 伸張 發展하게하며 切差 琢磨 勞作하는 習性을 가지게하고 競技會等을 開催하여 競爭心을 助長 勇氣를 養成하도록 留意 할일.

第二項 第一學年

1、비행기 이야기(美術科)

要旨、指導함에 있어 다음 事項을

中心으로 指導함.

7、航空機의 姿態의 아름다운 點이것이 곧 機構的으로도 優秀함을 나타낸다는 點을 強調 곧 아름다운 航空機는 性能이 좋은 航空機라는 點을 強調 初創期の 航空機의 形態는 매우 Grotesque 하였으나 次次 航空機가 進歩함에 따라 매우 아름답아워졌다는 點을 強調하여 이 航空機에 있어서도 眞、善、美、三位一體說을 어릴때부터 認識케 할일.

80

8、人類飛行이란 우리 人類의 憧憬의 하나여서 많은 사람이 가진苦難을 겪어 가며 努力하였으나 最近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만치 航空機는 此와 눈물의 結晶이라는 點을 強調.

9、航空機의 種類를 提示 할것.

2、종이로 접는 비행기(工作科)

要旨、普通 쓰는 종이로 접어 날리어 보되 그 날르는 狀態를 잘觀察하도록 하며 날르는 物體에 對한 興味를 가지게 하는 同時에 研究觀察하는 態度를 가지게 함.

指導方法

7、종이를 접을때에 처음부터 操心하여서 접도록 하며 여러번 다시 접든지 구기지 않도록 正確하게 접도록 할것.

8、접은것이 前後 左右 上下 어느쪽으로 보아도 均衡이 取하여 지도록 접게 할것.

9、날릴때 세게 던져 보았다 못하게 던져 보았다 위로 쳐다보고 던져 보았다 내려보고 던져 보았다 하여 그 날르는 狀態를 잘 觀察研究하도록 할것.

10、結局 여러가지 날리는 狀態 가운데 變化없이 같은 狀態를 오래 繼續하여 날을수 있게 날리는 것이 第一 좋은 方法이라는 것을 認識하게 할것. 왜냐하면 종이로 접는 비행기도 航空機의 一種인데 이런 信賴性없고 不安定한 航空機에는 사람이 탈수 없다는 것을 認識하게 할일.

11、여러가지 종이로 접는 비행기가 다 잘 날을라면 模樣이 均衡이 取하여져야 되는 同時에 뒤보다 比較的 앞이 무거워야 安全한 正常飛行을 할수 있다는 點을 發見하게 할일.

(繼續)

나그 이 령 계

共産主義者에게 反問한다

金 昌 順

一、어째서 終着驛인가?

人間社會의 最善의 政治組織 및 社會經濟制度는 果然 무엇가?

이점에 關하여 公산주의자들의 信條하는 바는 「共産主義社會」라고 한다. 그리하여 「共産主義社會」에 도달하면人間은 더바라다 볼것이 없다고 그들은 信念하는 모양이다.

만일 公산주의자들의 信條대로 「共産主義社會」란 것이 人間社會의 終着驛이란다면 우리人間은 보잘것 없는 宿命論에 빠지고 만다. 왜냐면 人間社會의 進歩는 「共産主義社會」에 도달하면서 마침내 停止狀態에 들어가고 만다는 것이 되니까.

太古時代로부터 우리人間은 좀더 잘 살수 있는 政治

組織과 社會經濟制度를 꾸준히 探究하여 現在를 繼承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또來日の 進歩를 위하여 價値創造의 온갖 勞力活動을 不斷히 持續하여 왔고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進歩를 追求하는 人間의 價値 創造慾은 人間의 主體性인 것이며 그것은 또한 人間의 存在와 더부러 永久不滅한 것이겠다. 人間이 自然界의 屬物이면 서도 普通物質과 區別되는 까닭과 또는 人間이 動物이면 서도 普通動物과 區別되는 까닭은 人間特有의 主體性 때문이다. 그것은 즉 進歩를 追求하는 人間의 價値 創造慾을 말함이다.

公산주의자들의 信條하는 대로 「共産主義社會」에 도달하면 人間世界로서는 終着驛이 되고 만다고 하는 그런

假定이 成立될 수 있을라던 우선 人間의 主體性부터 無視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여 進步를 위한 人間의 價值創造慾은 停止、死滅한다는 論法이 되고 말지 않는가。 이것은 人間能力의 有限性을 否定하고 그것의 無限性을 主張하는 그네들에 哲學과는 어떤 關係가 있는가 다시 말하여 人間勞働力만이 價值를 創造하고 牛馬의 勞働力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네들의 所見과 또 人間의 價值創造慾은 한 자리에 停滯하거나 死滅할 줄을 몰으므로 人間社會는 그에 따라 끊임없이 進步、發展하고 있을 뿐 退步와 循環—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네들의 信條는 드디어 허무맹랑한 것이 되고 말지 않는가。

여기에 이르러 人間能力의 無限大와 社會進步의 無窮을 主張하면서도 「共產主義社會」가 人間世界의 終着驛이라고 信條하는 公산주의자들의 理念世界는 마침내 二律背反의 自家矛盾에 撞着하고 말지 않는가。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假使 「共產主義社會」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人間은 거기서도 새로운 倦怠를 發見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不滿과 反抗을 갖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새로운 飛躍의 出口을 探究하여 나설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사실이었는가?

先行社會의 政治哲學者들이 여러가지 構想으로 人間世

界의 「理想郷」을 設計해 본 것이 이루어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人間은 또한 生活上으로 그런 것들을 體驗의 世界로 實踐하면서 오늘에 이르르고 있는 것도 事實이지만 그 어느 하나도 萬代를 두고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없다는 最善의 「理想郷」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公산주의란 것도 요컨대 舊形資本主義가 보여준 그 自體의 缺陷을 發見한 사람들의 그들로서의 社會改造를 위한 새로운 試圖였다면 또 모르되 오직 公산주의만이 모든 사람의 信條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法則」은 도대체 누구의 立法이란 말인가?

歷史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舊形資本主義가 自己修正을 거듭하는 過程에서 現世의 資本主義란 것이 往年의 舊形資本主義 그대로가 아니라는 事實을 곧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舊形資本主義의 缺陷을 攻擊하던 公산주의자들의 目標物이 消失되었다는 事失도 公正하게 認定하게 되리라。

이것은 最善의 政治組織 및 社會經濟制度를 追究하는 人間世界의 指向이 公산주의자들의 獨斷과 假定대로는 되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立證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

「公산주의 思潮」란 것이 한때 一世를 風靡했다는 것은

우리도 明哲하게 認定하는 바이다. 同時에 그것은 벌써 지난날의 일이었다는 것도 不得已로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공산주의는 기껏해야 하나의 時代的 遺物로 밖에 는 더 評價할 道理가 없다. 이것은 누구의 故意가 아니라 공산주의 스스로의 運命일줄 안다.

檢屍가 끝나면 송장은 무덤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運命인 것처럼 時代的 遺物은 博物館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의 運命이다.

II. 왜 하나이오야 하나?

「노서아」에서 실천된 공산주의만이唯一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論理는 또 누구의 定說인가?

傳統이 다르고 現實도 다른데 「노서아」에서 실천된 공산주의만이 모든 곳에 適用되어 잘못이 없는唯一한 「革命理論」이라고 固執하는 그네들의主張에는 반듯이 불순한 動機가 內包되어 있다고 본다. 「레닌」은 「맑스」의 遺産을 獨占하기 위하여 自己만이 「맑스」의 唯一한 弟子라고 僭稱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네들도 구지 反對하지는 않을 것이겠지. 그렇지만 「맑스主義」가 그대로 「레닌主義」가 아닌 것만도 사실이 아닌가. 「맑스主義」의 주요한 부분을 歪曲한 것이 「레닌」인데, 그러해도 불구하고 「맑스主義」를 가장 正確하게 時代變遷에 알맞게 발전

시킨 것이 「레닌主義」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슨 曲折이 숨어있는 것 같다. 「맑스主義」가 벌여놓은 同調者들을 「레닌」이 獨占하기 위해서 그렇게한 것이 아닌가. 「맑스主義」의 權威를 뒤집어 쓰고 「노서아」에서 暴力革命을 遂行하자는 것이 「레닌主義」이길래, 「레닌」의 畏反

인 「지노비예프」까지도 뒤라고 말했던가?

「지노비예프」는 그의 著者 「레닌」의 追憶 가운데서 「레닌主義」를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레닌主義」란 별 것이 아니다. 農業이 支配的인 後進國家에서 未熟한 勞働者와 農民을 宣傳煽動하여 暴力革命을 일으키는 戰略戰術에 不過하다.

오늘날 그네들이 자랑삼아 말하고 있는 「맑스·레닌主義」란 것은 「지노비예프」가 말하는 바로 그 「레닌主義」를 말함이다. 그러한 「레닌主義」를 그들로서 「맑스·레닌主義」라고 불으는 까닭은 「레닌主義」의 本質을 음폐하자는 것이 아닌가?

世界政治史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虐政史를 가지고 있는 「노서아」에서 暴力手段이 아니고서는 舊秩序를 뒤집어 엎을 수 없다고 본 것이 「레닌」徒黨이었다는 것은 史家の 公論만이 아니라 「쏘련共產黨史」까지도 不得已로 認定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所謂 「맑스·레닌主義」란

것은 「노서아」에서의 暴力革命을 指導한 戰略戰術임에 틀림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어찌서 그런 것이 모든 곳에 適用되어 하나도 잘못이 없는 唯一한 「革命理論」으로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노서아」의 過去 및 現實과 事情을 꼭 같이 하는 곳이라면 또 물으되 어디 그럴 수가 있는 일인가? 그래서 「맑스·레닌主義」란 것은 「노서아」式 暴力革命을 역지로 輸出하고 煽動하므로서 世界征服을 탐내는 共產帝國主義의 裝身具로 되어진 것이다. 東歐羅巴와 亞細亞地域에 「노서아」式 暴力革命이 역지로 輸出된 結果는 近代 「노서아」帝國의 植民地 에 속圈을 그만치 擴大시킨 것이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以上の 사실을 是認하지 아느려 한다면 그들은 各自 個人으로서 自由로 위야 하고 民族으로서 獨立해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가 君臨하고 있는 그 어느地域에 個人의 自由와 民族의 獨立이 있는가?

더우기 寒心한것은 소련 共產黨의 支配를 받지 않으려 하는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의 탄압을 받아야 하니 이렇게 되면 그네들 社會에서는 소련 공산당의 帝國主義만이 모든 것을 支配하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소련 공산당은 왜 「유고」 공산당을 공격하고 있는가? 누가 남의 獨自性을 強壓하고 있으며 抹殺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소련 帝國主義가 아니란다면 「맑스·레닌主義」라고 할판인데 오늘의 「맑스·레닌主義」가 소련 帝國主義인 데야 어찌 하나. 結局이 높이며 그 높이고 그 높이는 높이며 후추나 꼬추나 맴기는 每一般인 데야 또 어찌 하나.

오직 하나 이기를 強要하는 者가 누구냐. 왜 오직 하나 이기를 強要하느냐. 공산주의는 그대야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信條하는 것이 그네들인 지는 몰라도 사실은 소련 帝國主義로써의 「맑스·레닌主義」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三、氷炭은 不相容인데 왜 共存하자느냐?

그네들은 우리더러 共存하자고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는 우리를 敵으로 몰아대고 있는 것이 그들의 課業이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은 自己以外的 모든것을 征服해야만 된다는 惡意한 野心의 主人들이다. 그네들의 概念에 依하면 공산주의만이 最高의 民主主義이고 그밖의 民主主義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하물며 공산주의와 自由民主主義는 氷炭不相容의 關係에 있다고 信條하는 것이, 그네들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때로는 自由民主主義를 向하여

和롭게 共存하자고도 하니 어느것이 果然 眞心인가?

우리가 알기에 공산주의와 自由民主主義는 氷炭不相容의 敵對關係에 있다고 信條하는 것이 그네들의 本心임을 疑心치 않는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그네들이 主張한다면 그런 主張은 畢竟 거짓이거나 또는 그렇게 主張하는 그들 自身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어느 句節에도 「공산주의와 自由民主主義는 親舊」라고 써여있지 않을뿐더러 가는 곳마다 「그것은 氷炭不相容의 敵對關係에 있다」고 구지 強調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自由民主主義는 누가 죽고 사는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選擇해 놓은 길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란 말인가?

歷史의 經驗에 依據하여 判斷할때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言行이 一致하지 않다는 것을 不得已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의 言行이 一致하다는 點도 不得已是認하게 된다.

前者의 경우는 공산주의가 自由民主主義를 向하여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嬌態를 보여 주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實踐上の 行動은 언제던지 自由民主主義의 목을 졸라매려

고 한다는 사실을 指摘함이요.

後者の 경우는 自己네 끼리는 自由民主主義를 죽여버려야만 공산주의가 살수 있다고 「宗旨」를 廣播하면서 行動上으로도 그 「宗旨」를 實踐하고 있다는 바로 그 點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남에게 正直하지 못하고 不誠實하다는 것이다. 아니 正直할수도 없고 誠實할수도 없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운명인 것이다.

공산주의가 自由民主主義를 向하여 共存하자고 提請하는 것은 額面 그대로의 眞心이 아닌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면 무슨 必要가 있어서 그네들은 우리더러 共存하자고 손을 내미는가?

공산주의자들의 힘이 壓倒的으로 強하다고 假定하고 우리의 힘이 그것보다 尙청나게 弱하다고 假定해 보자. 그때에 있어서도 그네들은 우리더러 共存하자고 손을 내밀관인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것도 마보요 그러리라는 것을 바라는 것도 마보일 수 밖에 없다.

지난 歷史의 四十年 동안을 더듬어 볼때 공산주의는 自己의 힘이 相對方의 그것보다 尙청나게 弱했거나 伯仲하다고 斷定했을때 그들의 表情과 言行은 그때마다 달라졌다. 自己의 힘이 弱할때는 相對方으로부터 일어맞지 않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곱게 보이자라는 것이 그들의 外形이었으

며 彼我間에 힘의關係가 伯仲하다고 믿어질때는 남의 弱한 고리(環)를 찾아다니면 먼저 先手로 攻擊을 取하는 것이 그들의 行動이었다. 하물며 不幸히도 우리의 힘이 弱하고 그들의 힘이 强해졌다고 斷定되었을때 그들의 行動이 어떠한지라는 것은 不問可知의事實이다. 우리가 이런줄을 물으고 사는 사람이라면 公산주의자들은 크게 기뻐할 일이겠지만.....

四、누가 平和를 虐待하나?

平和를 虐待하는者 누구냐?

公산주의자들의 입으로는 平和의 出血을 哀惜해하는 여러가지 「貴重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平和五原則、「平和協商」「무엇이던지 平和手段」로 解決하자!」等等이다. 그렇지만 公산주의자들의 信條하는 平和의 概念은 이와는 判然히 別하여 어찌하나.

그네들의 信條하는 平和란것은 公산주의以外的 모든 것이 消滅되고 抹殺된 然後에 오직 公산주의만이 殘存하는 社會이라야만 비로서 平和가 있을수 있다고 하니 그러한 平和는 現存하는 平和를 모조리 殺戮하지 않으면 成立할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公산주의以外的 모든것은 消滅되고 抹殺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部類의 사람들에게 어찌 平和를 사랑하는

觀念이 있을수 있겠는가? 「消滅」과 「抹殺」의 過程이 벌써 平和가 아니라는 것은 自明한 理致가 아니겠는가? 「消滅」과 「抹殺」은 죽음과 破壞를 同伴하게 되니까 이는 곧 當場에 平和의 出血을 强要함이다.

人間은 平和의 動物이어야 한다는 平凡한 眞理가 그들에게 虐待을 받아야 할 까닭은 없다. 우리는 既成의 平和속에서 새로운 平和를 育成할줄 알아야 하며 그 過程에 있어서 平和의 出血을 무릅써서는 않된다. 이것이 民主主義에 있어서의 平和問題이다. 이에 대하여 公산주의는 어떠한가?

于先 分裂, 于先 破壞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만이 남는 社會가 아니라면 平和는 根本的으로 있지도 않다는 것이 그들의 平和問題가 아닌가. 이래서 公산주의는 分裂을 조작하고 破壞를 敢行한다고 하지만 其實 이것은 侵略의 行程인 것이다.

侵略의 行程을 平和의 行程인 것처럼 꾸며대자는 것이 要컨데 公산주의자들의 偽裝된 平和問題인 것이다. 이런 줄을 물으고 해매는 사람들이 어수룩한 골짜기마다 꼭차 있으면 그들에게는 有利할는지 몰으나 開明한 天下에 어찌 그런 「僥倖」이 公산주의의 門앞으로 끌어 들수 있는 일이겠는가?

現在로서 平和五原則、平和協商、平和手段第一主義를 假飾的으로 출몰 標榜해야 하는 그들에게는 果然 어떤 事情이 있는가? 아마도 그것은 「공산주의의 侵略危脅은 存在하지도 안는데 軍備는 무엇하리 必要한가」의 懷疑와 緊張의 解弛를 造成하고 助長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만 侵略의 機會는 到來할 것이라고 打算하고 있는 것이 그네들의 心情이 아니겠는가?

平和는 人間社會에 있어 다시없이 貴重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네들은 平和의 이름을 팔아서 侵略의 野慾을 채우려 하니 痛憤할 者는 平和의 神만이 아니라 참답게 平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란 것을 인제는 그들도 알고 있을 일이었다.

우리가 격고난 공산주의 六、二五 不法南侵은 「우리나라에 대한 공산주의 南北統一方式」이었다. 이것이 공산주의 平和統一을 표방하는 보자기 속에서 튀어나왔다는 事實을 생각할때 그들에게는 平和와 侵略의 距離가 멀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體驗上으로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우리가 이 事實을 그네들에게 구태어 通告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이나라 江山의 말없는 山川草木까지도 죄다 알고 있을 것이니 지금쯤은 그네들도 天地神明이 無心치 아니라는 것을足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五、그것은 間接 侵略인가?

干戈의 싸움에서 敗하고난 北韓의 共產黨은 또 무엇하리 平和統一 標榜인가? 六、二五 不法南侵은 그들로 하여금 政治、軍事、道德上의 慘敗를 自招하였건만 그들의 侵略意慾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表示인가? 우리가 平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것을 寄貨로하여 平和의 毒藥을 팔자는 셈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네들의 平和統一 標榜은 現時에 있어서 어떤 意義를 賦與하고 있는 셈인가?

南北의 民心이 다같이 統一을 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로되 그것은 기어이 反共民主統一이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어느 한사람 한政黨의 主張이 아니라 우리 民族의 舉族의 意志이며 生存的 慾求이다. 實로 이러한 統一이 戰爭에 依하지 않고 平和手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야 그以上 더 좋은일이 또 어디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겨레의 南北동포가 지금 이러한 心理狀態에 놓여있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도 모르는 체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러한 마당에서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을 입밖에 내다가는 三尺童子 앞에서 뺨을 얻어맞아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形便이고 보니 그들로서 또한번 平和統一

의看板을 내걸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民族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그 누구 물은다 할소나.

條理는 이러함에도不拘하고 그네들은 또한 平和統一을 標榜하여 北韓同胞들을 欺瞞하며 南韓을 間接적으로 侵略하는 方便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 南北同胞들이 모두 政治群盲이 아닌바에야 하두 보잘것 없고 남아빠진 그러한 手法이 무슨 所用있는 일이겠는가?

그네들은 正氣 强慾하고도 饑餓한 少年군이 空中 높이 날아가는 비둘기떼를 보고 내뿜으로 찾아들라고 고래고래 高喊을 지르는 場面을 聯想해 본적이 있는가? (끝)

네번째의 原子潜水艦 「스」號

來十五日에 正式就役

美海軍은 十二日 그의 네번째의 原子潜水艦 「스」워 드릿치號가 十五日 「뉴·햄프셔」州 「포츠마우스」港에서 就役했다고 發表하였다.

「샤논·D·크래머」中領을 艦長으로 할 同 「스」號는 二千百九十噸의 排水量을 가졌으며 길이는 二百六十七「피트」이다.

이미 就役中인 美原子潜水艦은 「노틸다스」號 「씨울프」號 및 「스케이트」號 등이다.

(四十五頁에서 계속)

는데 後援하기 爲하여 歐羅巴內에서 大韓重石販路開拓에 積極 協力할것.

二、現在重石時價로서는 그들의 唯一한 生産業者인 大韓重石의 事業維支가 困難하니 國際時勢를 無視하고라도 大韓重石會社가 生産業을 지탱할 수 있는 程度로 重石買入價格을 下리출것.

三、蘇聯이 自由陣營의 産業을 破壞하기 爲하여 歐羅巴內에 重石을 「담핑」하고 있으나 歐羅巴內 重石消費業者들은 結束하여 大韓重石을 使用하고 共產圈內 生産品을 使用하지 아니할것.

以上 會議에서 于先 珍우운 所得은 우리 大韓重石을 通하여 歐羅巴各國二十餘名の 代表를 一堂에 모았고 그들은 모두 나에게 一面이 如舊하게 好意的이고 親密하게 將來的의 相互援助를 굳이 約束하였다. 이會議을 通하여 大韓重石의 存在가 歐羅巴各地에 깊이 認識되었고 따라서 이 重石을 通하여 우리 大韓民國의 國威가 歐羅巴에 다시한번 宣傳되어 가는 것은 國際外交上 至大한 成果를 珍우운 것으로 믿으며 기뻐하는 바이다.

하늘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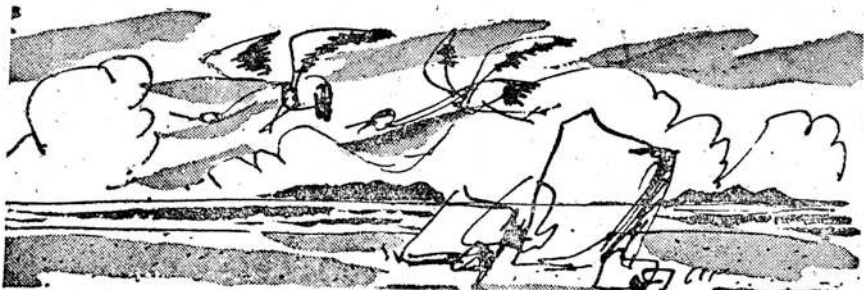
(徐廷柱의 鶴에 부쳐)

申
石
艸

새파란 젊음의 물결이
일렁이는 그대 모습에
멋진 우습이 흐르고,

그대 손에 넘노는 갈매의 나래!
쪽빛으로 열리는 쪽빛으로 열리는
하늘을 간다.

(출렁이는 물살도 없이
고운 江물이 흐르듯)
千年 시름의 鶴이 나르노나.



발밑에 감도는 임자없는 구름!
발밑에 감도는 임자없는 안개!
구름으로 솟은 山봉두리를 간다.
집 같은 절편한 江위를 간다.

가—없는 天體의 푸름으로
그대, 한번 맞부딪혀 보노나.
그래도, 저, 思想으로 나뉘
한 線을 넘지 못한다.

忿怒하여야 할 臨津江을.
草木도 울어야 할 斷髮嶺을.

아쉽게 가로놓인 一線을
그대는 지킨다, 조용히,
매를 기다리며,
祖國을 爲하여.....



拋物線

— 어느飛行士에게 —

金 容 浩

다음에, 다음에, 다음 다음에
連結하는

線。

線의 舞蹈。

空間위로, 空間아래로

躍動하는

點。

點의 青春。

速力속에, 速力을 忘却한 安定된 位置에서 날개는 水平을 저



을 하고, 다시 不動의 姿勢가 噴水인양 솟구쳐 拋物線이 그려진다. 그건 무지개 같은 것. 황홀히 피어 오른 무지개 같은 것.

차레로, 차레로, 차레, 차레로

자랑하는
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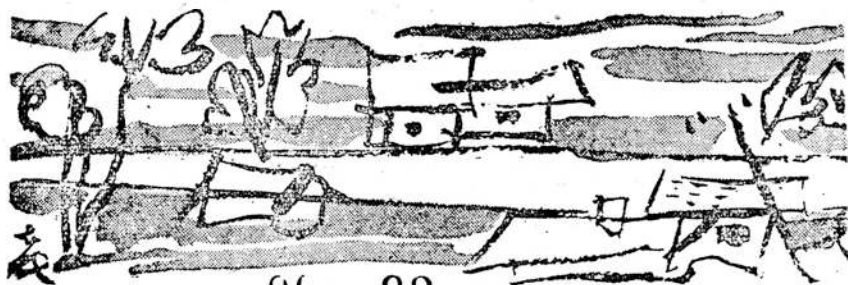
詩의 力學。

壓縮되는 地球의 上層으로

떨어가는
巨木。

꿈의 美學。

그속엔 童話가 아기자기하게 꽃피었다. 無限에서 無限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 날개는 한결 가볍고, 無限의 한地點에서
한幅의 繪畫로 形象되는 그 童話, 그건 네가 創造하는 拋物
線이다.



機上吟

朴
木
月

구두는
길다랗고, 검은티티한 얼굴에
無表情의
깊은 表情을 하고,
C·46 輸送機에 얹아 있다.
구두는
무슨 思想에 잠겼을가.
실은 밀창이 두군데
빵그가나 있다.
그 구두를 신고
나는 地上을 걸어본다.
上空 三〇〇〇 피이트의
너무나
황홀한 位置.
江은 한자락 허릿때,



尊敬과 憧憬의 눈을 들어
 朝夕으로 우러러 본
 峻嶺은 또한 다소곳이 엮드린 侍從.
 高度를 下降하면,
 마을은 이미 잘 整頓한
 하나의 모자이크.
 日常의 젖은 꿈을 가셔버린
 清潔한 彩色무늬.
 이만한 位置에서
 地上을 굽어보신 분들을 생각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분을.....
 이미 愛憐의 雲層을
 벗어나와, 機首는 여전한 上昇姿勢.
 그안에 앉아
 구두는 孤獨했다.
 무뚝뚝한 얼굴에
 눈물을 먹음고,
 江陵九百리를
 四十五분에 천천히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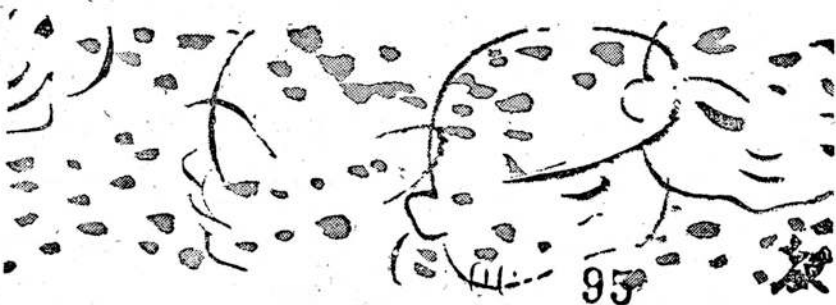
아가와 엄마의 낮잠

金
南
祚

아가 손 쥐고
아가 함께 엄마도 단잠 자는
눈여린 대낮

아가 열굴이사
물에 뜬 미끈한 달덩이지
눈이야 잠전 말전
천히 비치는 걸

조랑조랑 꽃이 많은 꽃뭉치나
잘 익은 과일들의 과일바구니 모양
연방 흘러우는



단 내 나는 살냄새

아가의 향기

꿈결에도 오가는니

아가 마음과 엄마 마음

금수레에 올라 탄 메아리라 부르랴

사락사락 입맞추는 봄바람이라 부르랴

아가 한번 눈떠 보면

엄마도 잠시 깨고

아가 벋긋 웃어주면

엄마 가슴은 해맞이

창호지 한장 너메

누가 오고 누가 가건

우리애기 옆자리는 엄마의 낙원



〈隨想(에세이)〉



韓國女性의 特質

金 東 里

滿洲에 오래 있다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다. 「하르빈」의 賣春市場에는 한국 여성을 비롯하여 日本 中國 滿洲 러시아 등 다섯나라 여성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강한 것이 한국여성이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있는 여성들은 대개가 병(특히 성병)으로 인하여 쓸어지는데, 다섯나라 여성들 가운데서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도 한국여성이요, 병에 걸리더라도 병을 극복하고 가장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한국여성이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만한 통

계학적 근거를 가진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이상 우리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로 믿어야 좋을지 그것도 모를 일이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와는 별도로, 한국여성의 특질(特質)이란 것을 생각해보았다. 한국 여성의 특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한국여성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실상 한국여성에게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 대해서거나 한국 여성에게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천자

는 한국여성인 것이 아니라 한국 남성에게도 공통될 수 있는 점이며, 후자는, 한국여성인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여성에도 통할 수 있는 점인 것이다. 이런것을 한국여성의 특질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참된 의미에 있어서 한국여성의 특질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史實)에서 귀납(歸納)해 보기로 하자.

삼국시대의 대표적 여성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하다. 新羅만 두고 보더라도 德(德)은 閔英(朴赫居世妃), 智(智)는 德曼善德女王(이 있고, 이 밖에 才色貞節에 뛰어난 女性이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부인으로서 대표적 여성을 들면 金庾信家의 두고부(姑婦)를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유신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는 여기서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김유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 먼 그것은 제일 먼저 그 어머니였던 萬明夫人을 꼽아야 할 것이다. 유신이 젊어서 女色에 빠졌을 때, 간곡하고도 준렬(峻烈)한 훈계로써 그로 하여금 드디어 말머리를 빼게 한 무섭게 현명하고 대찬 부인이었다.

그리고 김유신의 부인 김씨(智昭夫人) — 太宗武烈王의 세째 딸(萬明夫人) — 그 시어머니인 萬明夫人과 그 남편인 김유신의 엄격하고도 준렬한 가풍(家風)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둘째아들 元述로 하여금 千秋에 통곡을 남기게 한 강철같이 굳센 부인이었다.

高句麗史記에도 유명한 여성이 많지만, 가운데서도 특히 뛰어난 여성은 平岡王의 따님으로써 溫達의 부인이 된 여성일 것이다. 이 여성의 天才의 賢明과 義俠은 父王을 무색케 하고, 바보를 英雄으로 만들어 놓았다.

百濟史에 나타난 여성으로는 도미(都彌)의 아내의 貞節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여성이 君王의 權威 앞에서도 한몸의 정조를 지켰대서가 아니라 땅끝까지 홀려가 남편을 지켜낸 그 무서운 意志는 과연 특출했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高麗朝의 대표적 여성으로는 鄭圃隱의 어머니가 알려져 있고, 漢陽朝(李朝)의 여성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로는 春香 沈清 論介 黃眞伊들이다.

가마귀 싸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 흰빛을 새우나니 창과에 조히 씻음을 더러힐가 하노라.

이것은 圃隱의 어머니인 奸臣들의

무리 속에서 圃隱의 忠節을 기루어낸 노대(時調)라 하여 특히 유명한 거니와, 春香의 丹心, 沈清의 至誠, 論介의 志操, 黃眞의 賢明, 모두 八弱

한 女性 V 들과 하소연이 아니고 강한 女性의 所行을 인 것이다. 百折不屈하는 意志의 女性을 인 것이다. 이것은 三國時代의 萬明夫人도 그렇고 智昭夫人도 그렇고, 溫達妻도 그렇고, 都彌妻도 그렇다. 그녀들은 모다 눈물의 主人公이 기도다는 意志의 主人公들이요, 八바람에 불리는 갈대 V 이기보다도 白雲이 滿乾坤 V 한 가운데도 獨也靑靑 V 하리라던 松竹 V 에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 위에 나타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여성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으로써 굳센과 八의지 V 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수일 수 없는 八한국 여성의 특질 V 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惡婦 毒婦 妖婦 悍婦 淫婦들이란 어느 시대 어느 社會에나 다 있다. 烈女 貞女 美女 佳女 孝女 淑女들도

어느時代 어느社會에나 다 있을수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아서多情하고親切한 것이 여성인 것도 사실이다. 意志의 이기 보다는 感情的인 것이 女性이요, 따라서 弱한 것이 女性이란 말도 있다. 또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는 少女의 이야기는 여러나라 史實에서 보는 바이다. 그 어버이나 그 지아비를 위하여 한몸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더욱 많으며 특히 愛人이나 約婚者를 따라서 죽음을 택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도 매일 같이 들는 바이다.

그럼으로 아무리 놀랍고 장하고 가혹한 일이나, 또는 아무리 알뜰고 패설하고 악랄한 일이라도 그것이 어디서나 다 그만큼 있는 것이 常例라면 그것을 따로 내세워 누구의 특질로 삼을 수는 없다.

내가 위에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귀납함에 있어 다른 유명한 여성들을 — 善惡美醜간에 — 다 두고

김유신집의 두 고추와, 溫達妻, 都彌妻, 團隱母堂, 春香 沈清 論介 黃眞를 때어낸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 밖의 다른 유명한 여성들은 다른 나라의 같은 條件의 유명한 여성들과 상쇄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가 우리의 역사적 사실에서 귀납하여 얻은, △한국 여성의 특질 V로서의 결론은 △군셈 V라 △의 지적 V이요, 이것은 우연일지도 모르겠으나 내가 서두에 기록한 △ 어떤 사람의 이야기 V와 합쳐 되기도 하는 것이다.

△隨 筆 V



꿈

나는 인생을 세가지 모양으로 맛보며 살아간다. 그 하나는 남들처럼

웃음이나 몸을 팔아야 하는 여성은 불행한 여성이다. 그러나 △불행 V이란 아무에게도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은 다 행복을 원하나, 또한 어느 여성에게나 불행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불행한 여성 V을 도외시 할 수도 없고 여성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미 불행한 가운데서도 역시 강할 수 있다는 한국 여성은 소위 △불행중 다행 V이라고나 할까.

趙 欣 坡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쓰는 작품세계 속에서,

남은 한가지는 잠을 자는 동안에 꿈 속에서 재미를 보며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꾸는 꿈은 천연색이 아니라 노상 흑백(黑白)영화 같다. 또 나 자신을 띄워 놓고 내가 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다. 꿈 속에서 활약하는 나는 언제나 용감하고 자유로워 구속이 없다. 미운놈을 때려 주고 아무리 욕설을 퍼붓는 대도 잠만 깨면 책임도 후환(後患)도 없으니 후련하고 시원하다. 생시에는 만날 기약 없는 남은 임도 꿈 속에서 만은 차츰한편 들이지 않고 만나볼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임과 화촉동방(花燭洞房)에서 단꿈을 꿀 수도 있다. 이것이 생시이며 보라. 정신적인 부담, 물질적인 회생, 마누라의 강박, 자녀들로 부터의 불신(不信)도의적인 책임: 등등의 골치 아픈 일들을 작오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귀찮

은 일을 겪지 않고도 열마든지 또 하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 꿈이란 진정 고마운 물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한가지 있으니 이른바 잠고대다. 이놈을 잘못 지켜들다가는 꿈 속의 비밀이 노현(露現)되기 쉽다.

『영자씨,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 하고는 이혼하고 당신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룩합니다. 네? 영자씨.....』

어찌고 했다가는 자다가 마누라에게 일어났기 청경이다. 그러므로 잠꼬대는 되도록이면 어물어물, 웅얼웅얼해 치우는 것이 상책이다.

『웅얼웅얼, 웅얼웅얼, 쫘얼쫘얼... 음... 음... 음야...!』

이럴라 치면 아내는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면서,

『원고 쓰기에 열마나 고달랐으면 어떻게 잠꼬덜 다 하실까?』

하며 동정을 마지 않는다. 남의 속도 모르고——. 좀더 대접을 받고 싶으면 전성 잠고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보...: 당신과 결혼 한지가 벌써 몇해요? 그동안 고생만 시켰구려.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당신을 호강시켜 줄테니 당분간 이대로 참아 주우. ...드르렁...: 드르렁...:』

설마 꿈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리라 고는 생각지 못하는 아내인지라 이틀날 조반상에는 계란찌개 한보시기가 오르고, 덤벼드는 애들의 짓가락을 물리치느라 눈총을 쏟 것이다.

『애들아, 아버지 좀 잡수시게 너희들은 콩자반하구나 밤을 먹어라.』

몽매(夢寐)에도 잊지 않고 자기의 고생을 걱정해 주는 남편이 하도 대견해서 그렇기도 할 게다. — 이것은 최근에 내가 구상해본 소설의 소재(素材)이고 나라는 사람이 이치

럼 교활하고 엉큼하지는 못하다.

어쨌건 나는 잠을 잘 때면 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오늘 저녁엔 어떤 꿈을 꾸려나)
하는 기대는

(다음번엔 X X 구장에 무슨 영화가 드려오려나)

하는 기대보다 훨씬 앞서도록 나를 자릿자릿하게 만들어 준다.

옛날, 조(趙)나라 서울 한단(邯鄲)의 소년 노생(盧生)이 여옹(呂翁)을 만나

가난한 불평을 하였던바 노인이 소년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

주머니에서 사기 베개 하나를 꺼내더니, 이것을 베고 잠을 자보라 했

다. 이때 주막 주인은 술에 수수팔을 삶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소

년은 잠이 들었다.

그후 소년은 마인 최씨의 말을 아

내로 맞고 이듬해 진사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차츰 벼슬이 높아져서 중서령(中書令)이 되고 연국공(燕國

公)에 봉함을 받은 동안 다섯 아들

을 낳아 손자 십여명을 두게 되었다. 나이 팔십을 넘도록에 호강을

하다가 드디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최후의 하품을 하며 문득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었고 옆에 여

옹이 앉아 있었으며 수수팔은 아직 도다 익지 않았었다.

비슷한 꿈 이야기로 춘우분(淳于夢)의 남가지몽(南柯之夢)이 있고 국

산품으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이는 조신(調信)의 꿈이 있다. 간

단히 소개하면 이러하다. 세류사(世遼寺)의 젊은 중 조신은, 태수 김흔공(金昕公)의 말을 사모하게 되어

나산사 대비에게 발원을 하였다. 그러나 뜻이 이루어 지지 않은채 처녀

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 이 일을 못내 슬퍼한 조신이 대비전에 원

망하며 눈물을 흘릴 적에 범당 문이 열리더니 그 규수가 나타나 혼가를

파져나왔다 하며 평소에 조신을 사

모해 왔다고 이른다. 이에 두사람은

멀리 달아나 같이 살기를 四十여년, 그 사이에 자식도 다섯이나 생겼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에 쫓기어 이리 저리 걸식을 하는중 자식 하나가 굶

어 죽었다. 다시 十여년, 부부는 함 고 살림은 나날이 조들리어 추위와

주립을 막을 길 없어 마침내 부부는 자식 둘씩을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

고 말았다.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걷던 조신이 돌뿌리에 채이어 잠잠 놀

라니 한마당의 꿈이다. 꿈에서 五十여년을 지냈건만도 아직 범당 안의

향불은 다 꺼지지 않고 벌렁거린다. 그는 전비를 뒤우치고 잠념을 버려서

도통한 중이 되었다는 이야기——。

내가 바라는 꿈은 이런 것이 다

아니어도 좋다. 악몽(惡夢)이라도 무방하다. 그것을 깨인 뒤의 시원스런 맛을 버리기 아까워서다. 꿈도 먹어가는 나이를 따라 차츰 그 내용을 달리하는 양하다. 어릴 때는 공

증을 펼칠 나르고 남떠터지에서 굴
기도 하며 악몽이라야 기껏 수하선
생에게 진담을 뽑는 정도가 고작이
더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어지터워
진 신변과 함께 꿈의 스토리도 점점
복잡해 가고 있다.

나이四十을 예로부터 불혹(不惑)
이라 이르거니와 나는四十이 넘으
면서부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난데 없는 행운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꿈을
가지고 그날의 일수(日數)를 점치려
는 미신에로 나를 이끌어 간다. 길몽
(吉夢)을 꾸는 것은 마음이 호뭇하고
흉몽(凶夢)을 본 아침에는 공연히
불안하다. 그러나 어느 것이 길이고
흉인지는 알 수가 없다. 허지만 길
몽은 반드시 있나보다. 노름판에서
는 패지 꿈을 돈 주고 팔고 산다고
한다. 꿈을 매매한 기록은 멀리 신
라 시절, 김유신의 누이 문희(文姬)
가 그 언니 보희(寶姬)에게서 비단

치마 한장을 주고, 오줌싼 꿈을 사
서 후일 왕후가 된 것이 옛날 채에
적혀 있거니와 속담에는 또「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지 아니한가. 어
쨌든 내가 흉몽을 꾸었을 때는 늘
원성(元聖)대왕의 흉몽을 길몽으로
해석한 여삼(餘三)이와, 이태조의
서까래 꿈을 해몽한 무학대사를 생
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웬일이냐. 잠이
들지 않고도 곧잘 꿈을 꾸다. 덤덤
히 앉아서 눈만 감으면 어렴풋한 꿈
이 눈꺼풀 안에 떠오르곤 한다. 고

△隨 筆▽



장터 근처

李 鍾 桓

「세모들이—— 네모들이——, 세
모들이—— 네모들이——」

향당 무주공산(無主公山)에 있는 어
머니의 무덤, 팔순이다 되신 늙은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고국산천의
모양들이다.

모란봉과 대동강변으로 굽주린 이
리때모양 할때벌떡 돌아다니는 괴뢰
군들의 행악도 눈 앞에 선하고 그리
고 정말 꿈에서는 이들을 무찌르고
복진하는 국군의 모습을 본다.

이 꿈이 실현 되는 날, 나는 죽어
도 한이 없을 것 같다. 꿈속에 아주
물려버려도 좋을 것만 같다. △끝▽

요녀석들이 또 물려 왔다.
만년필 잠은 손에 맥이 탁 풀어지

는 것을 느끼며 나는 등을 의자 등
에다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오늘난 해도 벌써 두번이나 나가
서 호통을 쳤건만, 내가 내려가는
기색만 보면 쪼루루 달아났다가는
어느새 또 물러 와서 약을 올려 주
곤 하니 요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좋단 말인가. 어느 한 놈 붙잡기만
하면 따구라도 한대 갈겨 주고 싶지
만 대부분 국민학교 사오륙 학년 정
도라 날씨가 다람쥐 같다.

하기는 별명이란 묘한 것이기는 하
다. 전에 통의동 살 때부터 민우는
세모들이고 혼우는 네모들이었다.
고바우 김성환씨가 「새벗」에 그리
는 연재만화의 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이다. 한 녀석은 얼룩이 세모
꼴이고 한 녀석은 네모꼴인 것이다.
판은 두 아이를 나란히 세워 놓고
보면 민우란 놈은 턱이 꼭 빠르고,
혼우란 놈 역시 모는 지저 앉았지만
등글넉적한 얼룩이 무슨 팔에 속하

느냐고 묻는다면 네모꼴에 가깝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연년생이라 꼭
같이 학교에 다니고 꼭 같이 나가
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별명이
붙어진 모양이었다. 그것이 이리로
이사를 와서 도꼭 누가 가르쳐 주
나 한 듯 세모들이. 네모들이가 되
고 만 것이다.

한번 김성환씨 한테 그 얘기를 하
면서 집에 데려와 아이들 얼굴을 하
나씩 그려 받은 적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명동에서 만났더니 대뜸 「얘기
들 사진 한장씩 주십시오」하는 것이
였다. 어디다 쓰려느냐고 물으니까,
그수집은 처녀 같은 말 솜씨로, 이
번에 「세모들이 네모들이」가 단행본
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선생께 얘
기들 사진을 맨 앞에 넣었으면 모델
같이 재미 있겠는냐는 것이었다. 나
는 쾌락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아
이들이 거이 종일 놀림을 받고 울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 책에 사진까지

냈다가는 아주 정말 「세모들이 네모
들이」가 되겠으니 말이다. 집에 와
서 아내 보고 말했더니,

「지금은 그렇지만 애들이 커서 보
면 재미 있겠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미 있
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른 본위의
얘기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재미있
어 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적어도 오
륙년 동안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심할 것이냐 말이다.

며칠 전, 깨끗하게 만들어진 단행
본 「세모들이 네모들이」가 보내져
왔다. 책을 받고 보니, 역시 사진을
줄 것을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
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별명이 그
렇게 붙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별명이란 그야말로 어느 모로
는 재미 있기조차 한 것이다.

그보다도, 도시 시끄러워서 건널

수가 없는 것이다. 이층이란 아랫층보다도 더 잘 행길의 말 소리나 소음이 들리는 법이다. 밤중에는 길한 집에서 아무렇게나 자는 구두탁기 아이들의 코고는 소리조차 요란스럽다. 작년 가을 애기를 하면 알만하다.

인사동에서 낙원동 시장골목으로 돌아 들어서서 골목길이라, 짐장거리가 나기 시작해서 없어질 때까지는, 이 이층은 바로 시장한복판인 것이다. 신경질이 나다 못해 나는 이층에서 글 쓰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 김장 때가 아니더라도 원종일엿장수, 사과장수, 채권장수, 변소치요장수, 변아벌 장수들이 목청을 뽐고는 지나간다.

이런데다가 아이들까지 와서 왁실거리는 데는 질색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자니, 울고 불고 매리고 싸우고 법석이 그칠새 없고.....

행길이지마는, 병원이랍시고 비

교적 깨끗이 비질을 해 둔 패넉은 공간이라 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의 놀이터인 셈이다. 빨리개 하나나 했으면 싶었다. 나는 소파로 내려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저녁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내지 않으면 안될, 급한 것인데 원고는 통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빠고다 공원에서 와아 함성이 들려 왔다. 씨름을 하는 모양이다. 빠고다 공원은 왜 엉터리 판상쟁이, 약장수 따위나 늑맹이들한테 맡겨둬 두고 있는지 잘 모를 노릇이다. 넓지도 않은 공원을 아이들 놀이터로 그것 하나 제공 못할게 어디 있단 말인가. 하기가 미끄럽고 있고 풀울도 맨들어 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찌다가 아이들 손을 잡고 기웃해 볼라치면 발하나 들여 놓을 데가 없이 득실득실 어른들만 깔고 있다. 나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화가 치밀었다. 누구에게도 아니게 신경

질이 빨까닥 일어난 것이다. 갑자기 뻘! 하고 민우 울음 소리가 났다.

나는 화닥닥 그만 일어서고 말았다. 칭칭대를 쓴살 같이 뛰어 내려갔다. 아무놈이나 닥치는 대로 오늘은 기어히 혼을 내 주고야 말리라 생각했다. 칭칭대를 뛰어나리는 내 발소리에 조무라기 녀석들은 포탄이 작렬해 퍼지듯 달아나고 말았다.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또 놀렀어!」

그러자 민우 옆에 섰던 훈우가, 「재, 재가 칼로, 생철로 맨은 칼로 언니를 막 찌를려고 했어! 막, 죽인다구!」

재라고 가리켜 진 오학년쯤 돼 보이는 런닝셔츠입은 늑한테로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내 몸이 불편한 것도, 웃겨코리는 파자마를 걸친채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뛰었다. 그러나 그놈은 나보다 더 빨

왔다.

내가 얼마 안가, 숨을 쉴 틈 몰아
쉬고 서자, 그 녀석도 발을 멈추고
돌아서서 되려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어쨌다고 그래요. 내가 언
제 그랬어요. 그지? 내가 안 그
랬지?」

같이 달아나던 옆의 놈 보고 동의를
구하니까, 응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 이 놈은 더 신이나서 툼터선
길가던 사람들을 돌아보며, 목에 핏
대를 세우고 고향을 지르는 것이었
다.

「내가 안 그랬는데 괜히 알지도
못하고 지랄이야!」

나는 기가 질리고 말았다. 나 보
고 욕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이
녀석들이 거짓말을 해도 이제 는 아
주 지능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다. 옆
놈에게 말하자면 허위 증언을 시
켜가며 딱 잡아 매는 것이었다.
할일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내 얼굴만 벌개져 있었다.

이층으로 올라와, 원고는 다들 뒀
다 생각하고 담배를 다시 한대 피어
불고 앉았는데 홀우가 올라와서 가
만히 이르는 것이었다.

「아빠, 개, 또 왔어. 바로 우리 집
문 앞에 있어!」

분을 잘아 앉히지 못하고 있던 참
이라 나는 곧 발 소리를 죽여서 살
금살금 내려갔다.

다짜고짜로 달려드는 데는 그 녀석
도 꿈쩍 못했다. 상대방에게 이쪽 전
투태세를 알리지 않고 기습을 하는
것은 비집한 방법에 틀림 없었으나
수단 방법을 가릴 겨를이 내게 있을
리 없었다.

목덜미를 바짝 닦아 붙잡고.

「너희 집으로 가자!」
옹서 없이 잡아 끌었다.

제가 한 것이 있고, 또 내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을 알아 채되자, 녀
석은 조금 반항을 해 보다가 단념한

모양으로 눈물을 찔끔거리며 시장
뒤통으로 앞장서 갔다.

기둥이 비스듬한 조그마한 기와집
아랫방 뒷마루에 앉았던 여인 하나
가 밀으로 불이 붙은 듯이 튀어 일어
서 나오면서, 소리소리 질렀다.

「아니 명수야 이게 웬일이니, 어
떻게 된 셈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보니 그때까지 나는 그 녀
석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놓았다가는 놓쳐버릴 것이 틀림 없
었기 때문이다.

여인의 서슬에 놀라며 나는 그때
사 목덜미에서 손을 내렸다. 아닌 게
아니라 좀 우안스러웠다.

「글쎄, 내가 안 그랬는데 두 자꾸
나 보구 그랬다잖아. 잉, 잉,
잉……」

아이 녀석은 떠나갈 듯이 울음을
터뜨린다.
나는 간단히 설명을 했다.

날에 날마다 꼭 우리집 앞에 와서 머드는 통에 병원을 해 먹을 수가 없다고 했다. 글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는 통할 것 같지가 않아 병원만 팔았다. 실상 아랫청에서는 아랫청 대로 시끄러워 죽겠다고 야단이니 까.

그래, 시끄러워 못 견디겠기도 하지만, 칼로 조그만 놈들을 찔러 죽인다고 하며 들볶으니 좀 주의시켜 달라고 심상치 않은 어조로 설파했다.

그러자, 유난히 회개 분침을 한 여인은 땀국이 흐르는 행주치마에 바람이 일 듯이 필명대며 찢어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그래 그일로 남의 귀한 자식 목덜미를 졸라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난, 원, 무슨 도둑질

이나 했는줄 알았네! 그래 그만 일로 이려고 끌고 오느냐 말이에요! 애들이 행길에서 떠돌고 놀기 예사지, 시끄러우면 전간에 가 증질이나 하면 될거지, 왜 남의 아이 가지고 이 야단이에요. 원서 이 모양이야!」

악을 쓰며 후려 보는 눈살 앞에는 완전히 질리고 말았다. 더뎡 구할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다시 둘러선 사람들 앞에 얼굴이 벌개져 돌아 설 수 밖에 없었다.

이를날 아침 일찍이었다. 아직 자리 속에 있는데, 민우 혼우가 들어 와서 잡아 흔들었다.

「아빠, 아빠, 내려 가봐, 우리 간 판 있잖아?」

두놈은 서로 다투어 보고를 하는

것이였다.

「아빠가 어제 흰 팽키칠 해둔대 말이야.」

한글로 간판을 갈아야 한다는 바람에 병원 진료종목 쓰는 간판에도 오늘이라도 마르면 한글로 고쳐 쓰려고 흰 칠만 해 두었던 것이다.

「거기다 새까만 절루, 누가 세모 돌이 네모돌이를 그러 놓고, 그 옆에 대머리를 하나 크게 그러 놓았어.」

나는 아랫배 계가 뭉켜 내려 앉는 것을 느꼈다. 보나 마나 어제 그녀석이 한 짓에 틀림 없었다.

나는 잠이 깨지 않아 잘 못 알아들은 시늉으로 그냥, 응, ...응... 대답도 아닌 중얼거림으로 손짓을 해서 아이들을 내 보내고 말았다.

〈끝〉



나의 공군 시절

박 병 래

오년 육개월 군인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인상깊은 일이 많았다.

내가 평생 군인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입대한것은 아니었지만 더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나게 된다.

그것은 군대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회생활보다 단순하고 순박하고 명량한 까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계급으로나 직책으로나 자기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면 그것에 따라 결과나 계되고 다른 사회와 달라 주위 환경에 특별한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군대생활이다. 노병(늙은병)은

로 입대하여 젊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되니 기분이 항상 젊어(약이십년 젊은 사람)진것 같아서 활기 있는 생활을 하였다.

추울때 행진 훈련 짧은 여름밤에 비상소집 훈련을 썩썩한 정신으로 지지 않으려고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출장을 갈때 또는 돌아와서 젊은 상관에게 군대식 신고를 할때 늙은 태를 내지 않고 젊은 사람의 흥내를 내려고 노력한 것이 나의 생활을 젊게 만드는 데 훈련이 된것 같다. 내가 입대 할때에는 소령으로 임명되어 일개 과원으로 근무하다가 차차 바뀌어 과장으로 또는 부장으로

로 또는 분원장으로, 부원장으로 원장으로 특별 참모로 순조롭게 꼭지 구슬 귀뚜라미 직책이 바뀌고 중령, 대령으로 승진되어 또는 은성 금성 훈장까지 타게된 것을 생각하면 행운의 길을 걸은 것 같다.

그간에 하기 어려운 외국 출장도 여러번 하였고 세계 일주도 하여 나의 생애 중 군대생활의 부분이 있을 수 없는 행복된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오십 고개 넘는 늙은 병정은 최장군을 위시해서 본인까지 어릴때 이 가끔 노병의 모임을 열여 유쾌하게 산이고 들에서 논 적도 있었고, 대단장 회의를 소집 당하여 뽕뽕한 회의에도 참석하였고 부대장 회의를 소집하여 익숙치 못한 지지도 하여, 앞날의 발전을 노력한 것도 다 인상깊은 일들이었다.

외부 상관을 맞이하여 군대 예절을 몰라 절절 멘 적도 있었고 내부

상관을 영접하며 어리둥절한척도 있었다. 내가 학교를 마치고 연구실에 십여년, 교회병원(성모병원)에 십오년, 병자의 치료에만 종사하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치료 이외의 행정의 경험을 얻었고 다수 인원을 통솔하여 보았고 매 주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연설도 하여 보았다. 이로써 병자를 치료하는 이외에 여러가지 나의 능력을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행정에는 수완이 있어야 되고 통솔에는 위험이 있어야 되고 연설에는 구변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점에 별로 자랑할 점이 없는 것 같았다.

또 단체생활(군대 역시 큰 단체)에는 전체 인심의 동향을 파악하여 인기를 얻으면 무슨 일이든지 순조롭게 되는 것인데 나는 이런 점에도 역시 성과를 얻을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내가 순조롭게 승진이 되고 몇개의 훈장도 받게 된 것은 수십

년간 연구하여 길렀고 자신을 가질 수 있었던 나의 전문 영역인 의술에 전심했던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우둔하나마 자기 직책과 분(分)을 지키기에 노력한 것이 상관과 선배의 특별한 이해와 돌봄으로써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대하여 처음에는 있는 살림사리를 더더 처분해서 생활에 도움을 하였으나 피난 중이라 팔아서 쓸 물건도 차차 떨어지고 나중에는 나의 아내가 학창시절에 배운 재주로 부인들을 모아 요리강습회를 열어 그 강습회비로써 부족한 지출을 충당하기에 힘썼던 것이었다.

병원의 책임을 맡았을 때는 많은 사병의 치료를 위하여 타군 부대에 연락을 하여 부산까지 출장을 간적도 있었고, 가짜 병으로 제대를 하려고 갖은 증세를 내어 진단하는데 고심한 적도 많았다. 어떤 자는 간질병, 흉내를 내고 어떤 자는 위장

병 흉내를 내어 일주일씩 먹지 않는 자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자는 병이 심한데도 전우의 노고를 돌렸다고 진심으로 속히 퇴원하기를 원하는 수도 있고 또는 병원 자처 행정이 바쁠 때는 자진해서 일을 도와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출장을 갔다가 제날에 자기의 말은 임무를 완수하고 어김없이 돌아와 신고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대의 출장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불일만 다 보고 늦게 돌아와서는 앞뒤를 꾸며 뻔뻔하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 개성이 모인 단체생활

에 있어서 좋은 자도 있고 좋지 못한 자도 어찌 없으랴. 그러나 군대 이외의 사회보다는 단순하고 모략성이 적고 특별한 악의 없는 일시적인 그릇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꼭 어린애가 순박꼭질할 때 머리만 숨기고 궁둥이는 내놓고 나

를 찾으라는 따위였다.

부대를 이끌고 야외에 놀러 갈 때
규율있게 시간을 엄격히 하면 훈련
이 되고 규율 없이 무분별하게 지나
면 야유회(野遊會)가 아니라 야유회
(挪揄會)가 되는 것도 알았다.

부하의 고가표를 만들때 또는 진
급을 추천할때 전속을 명령할때 공
정하게 양심있게 하였어도 환경과
시기를 잘못 타면 오해를 사는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제대를 추천하
였어도 군비(軍秘)를 지키느라고 엄
하게 태도를 갖다가 도리혀 오해를
산적도 있었다.

이런것이 내가 군대생활에서 얻은
요모조모의 경험이었다.

군대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
은 관계로 군 예절에 익숙지 못해
실패한 몇가지도 생각난다.

한번은 최장군이 목욕탕에 계실때
모르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몰라 땀이 절절 났으나

더운 목욕탕속이라 그땀이 그땀인지
스스로 모르게 되었고 보초를 서는
사병에게 나갔다 오겠읍니다 하고 모
자를 벗고 인사하고 나가다가 동료
에게 놀림을 당한 일도 있었다.

그 밖에 군대생활에서 얻은 점도
많다. 신체의 단련도 되었으나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좋은 선배 좋은
친지를 많이 얻은 것이 큰 소득이라
고 생각한다. 제대한지 이년 반이
가까워도 내가 지나온 사회의 고향

☆ 創軍第十週年을 맞는



『젠티』操縱士의 隨感

푸른 하늘에 고(孤)를 그리며 볼,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날아다니는

젠티 그것은 오직 모질게 약동하
는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민 경 수

같은 애착감이 스스로 사라지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 새로
부대가 증설이 되고 혹은 친지가 승
진을 하게 되면 유달리 남보다 기뻐
고 비행 사고가 있는지 불미한일이
신문에 나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내
가 공군에 애착있는 연고라고 할 것
이다. 약진하는 공군! 발전하여 우
리의 국토 공중방위 힘차게 하세.

(筆者 성 누가 병원 원장, 의화박사)

때로는 해돋는 바닷가 마을
몽게 검붉게 물들어 오는 아침 안개



<사진=필자>

를 뚫고, 때로는 나조와 더불어 잠들
어가는 대지를 멀리 별과 벗하며 속
삭이 드시 하늘을 나르는 우리 젊은
젯트 조종사는 인제나 자연의 웅대
한 서정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
처럼 아름다운 한복의 회화(繪畵) 같
은 생활속에 우리의 전력은 배양되
고 저 무서운 과학의 최첨단을 가는

신예병기들은 우리의 조종사들의 손
에 의해서 지극히 순조롭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운용되어 가는 것이다.

무기의 발달은 참으로 팔복이상의
것으로서 오늘의 신무기가 내일에는
이미 구식화 되어가는 이 지음은 그
저를 탐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다.

한국 전쟁의 용장 F-86F 제이버
1 젯트기도 이미 구식화 되었고 한
때 최신을 자랑하던 세계 최초의 실
용 초음속 전투기 F-100A 슈1퍼
1 제이버1도 F-104A 스타1 화이
타1의 출현으로 북미대륙방공의 전
렬로부터 점차 제거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이의 전투 폭격기형인
F-100D가 출현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발달하는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 우리 공군도 무척 발달하였다.
4282년 10월 1일에 창립된 우
리 공군은 불과 22대의 연습기들 가
지고 6·25 동란 초기를 겪었으나 그

후 1개의 F-51D 무스탕 전투비행
단을 가지고 동란전기를 통해서 역
전 했으며 4288년 6월에는 젯
트 비행단으로서 개편하게 된 것이다.

이 동안 우리는 모자라는 비행기와
인원으로 다른 모든 나라의 공군이
그 조창기에 겪은 것과는 색다른 고
난을 겪어 온 것이며 이러한 모든
고난이 성공의 싹이 되어 우리는 이
미 두개의 젯트 전투비행단을 보유하
게 된 것이다.

도리켜 보면 오늘날까지만 십년간
그것은 오직 우리 어린 공군에게 지
나친 그러나 지극히 유익 했던 시련
의 기간이었었다. 옛부터 십년이면
장산도 변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장산 아닌 훌륭한 공군을 이룩한 것
이다.

모든 큰 일에 허다한 희생이 동반
하듯이 그간 우리는 다시 없는 훌륭한
한 공중지휘관이시던 군신 고 이근석
준장과 고 김영환준장 그 밖에 여러

선배 동료들이 건설도상의 우리공군을 위하여 초석으로 희생되신 것은 우리들 모든 조종사의 뺏속 깊이 사겨져 언제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듯 변천 발달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들 자신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시속 불과 100 마일 미만의 초창기로부터 600 마일 이상의 현재에 이르렀고 행동고도 역시 불과 3,000 휘이트정도로부터 40,000 휘이트 이상의 성층권으로 옮겨져 왔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초음속과 50,000 휘이트이상으로 전환되어 가려는 참나에 있는 것이다.

근대 공군의 이상은 높게, 빠르게 그리고 멀리까지 나르자는 것이다.

이것은 즉 우리로 하여금 공기가 희박하고 몹시 추운 곳을 무죄도 녹아 버릴 듯한 빠른 속도로 나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40,000 휘이트라고 하여도 이것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은 그리 짐작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불과 수미리의 두께 밖에 얇되나 PIA TIC의 CANOPY(조종석의 문)밖에는 기온이 섭씨 영하 55도 기압은 지표면의 표준대기압(760미리)의 18.5%에 불과한 10.7미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만일 비행기에 고장이 생겨서 조종석 밖으로 튀어나간다면 아무리 전강한 사람이라도 30초를 넘기지 못하고 의식을 잃거나 혹은 죽어 버리고 마는 무서운 세제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이 신비한 대공간에 무서운 것만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지상에 앉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가지 가지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구름위를 비행할 때에는 구름위에 던져진 내 비행기에 그림자를 오색찬란한 등근무지개가 감싸서 언제나 지

나 정답게 따라 다니고 30,000 휘이트 이상의 고공을 나를 때에는 저아름다운 비행운이 꼬리로부터 길게 드리진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날씨가 몹시 좋은 가을날이면 완연히 동글게 보이는 먼 수평선, 물계 단풍이 짓는 강산, 잡담한 속세와는 지나치게 다른 정상들을 우리는 이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낮에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밤에는 밤대로 또다른 정경이 깃드린다.

고공의 일몰은 지표면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늦다.

땅에서 이미 어둠의 장막이 내려진 비행장을 박차고 고공에 오르면 아직 도그 곳에서는 짐 붉은 저녁노을과 더부러 지면보다 한결 더 장엄한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철석날이면 의례히 오작교를 가려 버리기가 일수인 구름도 우리에게

전우 지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배
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이런 것들만이 하늘에의 동
경을 자아내는 하늘의 매혹이여서는
안된다.

거기에는 좀 더 섹섹하고 사내다
운 모습이 있다.

실전(實戰)에 있어서 적기를 가상
하는 표적에 대하여 여섯문의 기관
포가 일제히 불을 뿜을 때 땅덩어
리와 하늘이 제멋대로 뒤섞여 움지
이는 장쾌한 특수 비행.

예전엔 불가능이라고만 알려졌던
음(音)의 장벽을 과학의 힘과 내 정
력으로 정복했을 때.

애기(愛機)를 잡아 채올려 중천에
쏘아오르며 고개를 돌려투하한 폭탄
의 명중을 음미하는 쾌감. 이들은 오
직 하늘의 용사인 우리 젊은 전투조
종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맛볼 수
없는 색다른 청춘의 향연인 것이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우방인 미국

공군과 합동작전훈련을 한다.

때로는 어깨를 나란히 같이 날으
고 때로는 서로 적이 되어 상호간의
전투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평가한
다.

그럴적마다 그들은 우리의 공군을
가르켜 이구동성으로 세계 어느 나
라에도 못지 않은 아니 한층더 우수
한 공군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어느 때이고 그들이 이렇
게 평할적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
고 착실한 그들의 전우가 되고 우리
의 전력을 한층더 열마하는 것을 잊
지 않았다.

6. 25 동안 중의 일이다.

UN군이 GOO 회이상이나 출격해서
도 끊지 못하였던 철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저 유명한 평양의
「송호리」철교이었던 것이다.

UN군 합동작전사령부(JOC)에
있던 전과 확인과 평가를 맡아 보던
한 장교가 연일 놀라운 전과를 거듭

올리는 한국 공군을 그의 시야로 부
터 놓쳐버릴리가 없었다. 그는 합동
작전회의에서 한국 공군에게 이 철
교 절단의 임무를 부여하자고 주장
하였다.

단기 4285년 1월 15일 우리
공군은 불과 12대의 F-51무스탕전
투기로서 이 철교의 5개소를 폭뢰
절단 함으로서 온 세계를 놀라게 하
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4289년 첫여름 한미합동방공
작전이 수행되던 중의 일이다.

미국공군과 우리공군이 서로가 상
적(假想敵)이 되어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30경보전대가 당시 장비하
였던 이미 구식화된 교육용 레이다
(RADAR)와 10전투 비행단의 F-
86F 전투기간의 훌륭한 협동으로가
상적기(미국 공군전투기)의 진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살히 찾아내

어 요격하였다.

그러는 동안 하루는 알게 처들어 오는 이들 가상적기를 비행장 근방에서 요격한 때가 있었다. 이때의 요격 공중전에서 우리 공군이 어찌 홀륭하게 싸웠던지 이 작전을 감독하던 미국공군의 한 심판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벽을치고 「원더풀」을 연발하는 그의 입에서는 가는 한숨까지 새어나왔다.

이 반면에 우리의 적비행장공격은 거의 전부가 성공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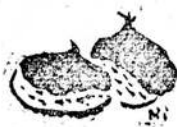
이 작전이 끝난 후 그들은 우리공군을 높이 평가하고 그 눈부신 발달을 극구 찬양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하늘은 순전히 우리 손으로 지켜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의 전투 능력이 결실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미제 5공군의 총전술 능력

에 해당하는 538대의 전투기와 13대의 폭격기 30대의 전술정찰기를 포함하는 총대수 870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주와 연해주에는 중공과 싸이베리아 공군이 더욱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괴뢰에 대한 BACK-UP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는 병력장비를 더욱 증강

△隨 筆▽



『파이롯트』의 辯

金 東 皓

가을 하늘 맑고 높다드니 今年엔

늦바람난 「활량」인양 모진 장마에被害가 크다. 장마철 하면 누구나가 그렇게지만 계절 生理에 맞지 않는게 아마도 鳥人 Pilot들이라 하겠

할 것은 물론 새로운 초음속 공군전설을 하루바삐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젊은 전투조종사의 피땀 어린 노력과 백절 불굴의 꾸준한 정력이 필요하며 마음속에서 초음속을 성충현에서 대공간(SPACE)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의욕만이 이를 해결하는 관전인 것이다.

△끝▽

우선 빠른한 사지에 허황한 感情을 수습 못하고 하품만 하면서 時間을 낭비하더니 대간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非單 그런것

뿐만 아니고 滑走路 Concrete 면을 세차게 빗발이 내리치면 視程이 30 糧(좀 때렸나?) 앞이형 편없이 보이지 않드라도 그들의 人民軍 아저씨들이 가끔 우리 休戰線을 넘실 거리는 痛의 Radar 감의 걸려 Scramble



<필 자>

命令이 떨어지면 何時라도 떠야 하겠기에 명칭하니 꼬리진 F-86(세이버) 座席에 앉아서 4.5 時間 지내려면 낮밤의 공속을 헤메이기도 하고 Alert room 계선 「장오야, 공이 야」 또는 후백의 熾裂한 鬭爭이 제

속적으로 버려지고.....學者는 못되지만 딱딱한 法理論이나 論理、經濟文化等 專問家的 讀書을 아끼는 사람도 있고.....如何間에 平日이나 休日이나 間에 그것은 第三者의 入場에서 이지 결코 本人들의 生理에 는 역시 부합되지 않는다. 좌우간에 비행이 없으면 필요 없는 神經質도 피우고 소화도 안되고.....하늘을 날으는데 別般目的이 있는게 아니고 되다보니 鳥人이 된거요 하늘을 날으는 習性이 붙었다는게 妥當하겠으나 그래서 일종의 Sports로 생각되기가 일수다. 論理上으로야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로써 굳세게 하늘을 지키고 조국을 守護하는 것이겠으나 自己의 能力을 向上하고 기강을 닦아야만 대적해서 살 수 있고 한대라도 더 머트릴 수 있고 하는데서 理論이 성립됨으로 演譯의 이치 취미적인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實在的이라거나 할까? 人生無常이

라 한다. 明日의 運命을 모르고 한가닥 희망과 目的의 야망과 抱負를 가지고 사는게 人生이요 그를 爲해서 노력을 하는게 青年이라 한다. 누구나 目的 達成 經始一貫이란 名目을 가지고 險한 가지 말 길을 헤맨다고 하나甚할때 一週日마다 禮服으로 갈아 입고 장례식에 서서 故人들의 모습을 말없는 사진에서만 찾을때엔 명목의 분향속에 幽明의 世界를 像想해 보기도 한다. 遺家族의 哀切한 痛哭엔 錯雜한 感情속에서나 自身을 發見할라치면서 글쓸때도 間或 있는게다. 하늘은 確實히 鬼物이다. 아마도 五十年이란 半世紀 동안에 大衆의 이고 광범위하게 發達된 과학으로서 우주 과학과 航空學外엔 比肩할 아무런 존재도 없을게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하지만 特히나 光復 十年間의 軌跡을 더듬어서 空軍 만큼 現著한 發展을 보인 規模와 實體를 찾아볼 수

없다 해도 반박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손으로 韓國國話의 音壁을
突破한 것은 불과 二年前 10月 1日
이라면 그렇던가 할런지 모른다. Z
機장이 왔으니 말이지 지금 우리
Pilot들 중에 Z機導入을 얼마나
갈망 했으며 맑고 아름다운 韓國의
하늘을 太極旗 鮮명한 Z機로 날아
보겠다고願 했었던가?

事實 陸上 웬만한 구름 山岳 海보
았겠자 팔간 산으로 한번 폭우에 흘
터 내려가는 河川의 적갈색에는 이
젠 진저리가 나고 몸서리가 치겠지만
「아침해 고을서고 아롱지는 노을」에
는 感銘을 느끼니까 말이다.

4288年初 처음으로 空軍三個年
計劃에 依하여 T-33이 導入되면
서 國內에 美國基地에서 직접 그네
들과 비교한 訓練을 받은 여러 선배
들의 뒤를 이어 續續 Z機의 모습이
高空을 裝飾하게 되었을 때엔 누구
나가 다 일곱살 난 어린이가 동물원에

가는듯이 雀躍 했던 것이다. 勿論
그間の 高貴한 犧牲이 말할 수 없이
많았고 巨大한 國家 財産의 損失을
보았다. 最初 犧牲者로선 故 李載國
少領의 殉職으로 F-51의 용자요
事變當時에 입은 全身의 火傷임에도
不拘하고 勇躍 志願受訓다가 鳥山
基地에서 散華하였고 異域地 美國에
서의 故 李基俠 大領의 高貴한 犧牲
은 非單 空軍 뿐만이 아니고 全軍의
悲痛한 消息이 있었다. Z機하면 複
雜하다. 우선 舊式「프로페라」型機
와 根本의 差異 있는 燃料, 燃料, 內
燃機關이며 速度다. 高性能 航空
機이므로 좌석내의 與壓裝置와 飛
行服의 特殊性은 一般人으로선 좀
納得키 어려운 點이 多分하다. 高空
飛行하면 곧 Contrail을 豫想한다
만 이는 氣溫-37°인 空氣의 高度
34,000~40,000ft에서 보인다. 地上
에서 볼때엔 飛行機 뒤에 바짝 붙은
것 같지만 實際엔 約三機長 뒤에서

부터 일어난다. 왜냐 하면 急激히
約 300°C의 排氣 GAS가 37°C라는
溫度와 衝突하여 飽和狀態를 만들고
凝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飛行구
름이니 飛行雲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바
로 Contrail이라는 것이다. 보통 高
空飛行하면 身體에 어떤 副作用이 일
어나는가? 하는 것은 흔히 質問만
는 일이다. 機械 힘과 其原理는 枯捨
하고 첫째는 酸素이다. 만일 酸素가
缺乏되면 銘酞狀態에서 깨듯이 돌아
가지기 때문이다. 좋은 例로는 Z機
導入을 目前에 두고 高空飛行 訓練
을 猛烈히 하다가 F-51로 殉職한
故 金達輝 少領 같은 本의 境遇가
酸素缺乏症이라 하겠다.

F-86 F의 산소 탑재량이 450lbs
350lbs 以上이면 飛行可能이고 100
lbs이면 저공으로 飛行하여야 한
다. 實際 Z機로서 酸素缺乏症으로
飛行失敗한 例는 없는 것으로 記憶되
나 器壓裝置의 不作動으로 苦生한 사

람들은 많다. 南韓一週所要時間이 一時間 30分이라면 London-New York 間 7時間에 비해 느리다고 할런지 모르겠으나 如何間에 韓國에선 가장 빠른利器임엔 틀림없다. 지난 光復十週年記念式에 參與飛行한 Z機編隊를 水原에서 觀望한 某高級將校婦人曰「이거若干 늦지 않아요?」왜냐 하면 中繼放送에서 空軍軍樂隊가 通過할을 放送하고 있을때 水原上空을 通過하고 서울로 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部隊軍旗가 지남과 同時에 一秒一刻을 어김없이 查閱台上空通過를 確認한 後에야 「果然따르군요」地上에서 쳐다보기엔 정말 보기 좋고 깨끗해서 누구나가 타보았으면 한다. 젊은이라면 憧憬의 對象으로서 充分한 慾求가 되기 때문에 危險을 豫想하는 冒險이란 人間本然의 征服慾이 앞서니까 하는 것이라 보겠지만 아무리 熟達된 [Pilot]라 할지라도 大編隊群의 한 member로

서 飛行할 뎨 눈코 뜰 사이도 없을뿐 더러 여름철엔 말할것도 없이 겨울철에도 온 神經을 集中하고 긴장을 흘린다. 不過한 時間 남짓한 時間內에 消費되는 視神經 및 全末梢神經을 動員하기란 山間幽谷에 걸린 의나 무다리 건너는 만큼에 比較하고도 남음이 있다. 複雜한 機械에 對한 說明이야 省略하고 서라도 三十餘個의 計器와 二十餘個의 各種 [Switch]를 한눈으로 確認하여야 함은 勿論 危險時에 모든 措置를 致密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暫時동안의 判斷錯誤로 一身의 生命도 버리고 高價한 國家財産도 損失할 憂慮가 恒常있기 때문이다. [Engine]에서 排出되는 熱이 最高 300°C 라면 거짓말이라 할는지? 「세이버」操縱士 한사람 養成하는데 推算的 數字는 一千八百萬圓이라 하며 F-86 1臺 無慮 1億 2千萬圓의 Pilot 養成期間이 10年半이다. 그러니 國家的 至寶라

고 認定해 주기를 願한다고 나쁜 것은 없지 않겠는가? Pilot와 攝取榮養價를 論議할 專問家的 知識이 없기 때문에 具體的인言及을 할 수 없으나 現在 平均을 大略 4200cal로 統計數字上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調理法 및 食性等에 附合되도록 質的인 需要狀態는 말이 아니어서 自然히 마땅히 取해야 할 榮養價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航空糧食等亦是 研究되어야 할 重大事라 본다. Pilot들의 生活感情 特히 Z戰鬪機 Pilot들의 頭腦는 二重的인 湖膜이 있음을 要求한다. 누구에게나 適用되는 말이겠으나 飛行만이 온 生活의 全體는 아니니까 말이다. 一但 off duty 하면 人間 本然의 生活속으로 돌아서서 인제 數分前에 높은 하늘 大氣의 鬼物들과 싸웠던가? 하는 狀態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即 生活의 斷面을 銳利하게 割讓

할 수 있는 차아징·스윅치(Charging Switch)를 機敏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와서 自己의 안사람이나 어린애들이 웅성이는 家庭에 呼吸을 맞출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Pilot들의 口號가 恒常 On the day tiger, in the night gentleman이라 한다. Be Smart, Be Smile, Be Sharp라 해서 3S를 motto로 하고 있다.

꽤 單純하다 하겠으나 이것이 飛行士들의 一面이기도 한 것이다.

臨機應變 臨戰必勝의 要訣은 언제나 瞬間的인 現況判斷이 生死를 決定하는 것인데 긴 담뱃대를 들고 「여봐라」하는 式으로 무엇을 解決하겠는가? 말이다. 「하늘은」 넓은 곳 「하늘은」 우리의 活動舞臺, 하늘 있는

곳에 우리는 산다」하는게 退役하신 崔用德 將軍의 日常銘言이지만 얼마나 單調하면서 深奧한 말이겠는가? 그 곳에 幽明을 달이한 先輩同僚 戰友가 恒常 凝視하고 故魂이 되드리고 있으니까 그네들의 安寧을爲해서라도 不徹晝夜 날으고 날아서 그리고 살리고 한다. 끊임 없는 生靈의 명복과 또 其間 運命線上에서 恒常 變化無常한 搖盪鏡地를 開拓하고 갈 것이다.

F-86의 燃料搭載量은 888Galone이고 一時間半乃至 2時間半이면 완전히 消耗하는 「날들」이니까 17Dram이나 되는 量을 消耗하는 것을 보면 날날일이 아니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休戰線 近方에 模擬出擊을 많이 한다. 地型地物만 가지고 그 境界線을 判斷하고 來往하는 勇者들은 確實히 「귀신」들이다. 間或不得已한條

件으로 線을 넘어서 말썽이 많고 하지만 그들의 線을 조금만 넘으면 그놈의 아저씨들 砲火가 땀 개구리 잡아먹는 式으로 온터 氣勢에 있으니가 잡친다. 날씨가 아주 나쁠때가 역시 장마철이라 믿는 것은 地上管制指揮所이다. 相互 協助하여 無事히 目的地에 到着되면 安도의 感에 취잡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電波網은 大空을 꽉 짜고 있으니까 그 電波를 타고 安全하게 귀향 한다고는 하나亦是 잠잠한 방에서 눈에 害로운 Beam 光線을 따라 瞳子를 돌리고 努力해주는 管制士들에게 말 없는 感謝을 언제나 드리고 있다. 앞으로 擴張될 空軍機種의 越等한 發展等을 目前의 課題로 하고 努力과 霸氣를 꾸준히 維持하면서 大韓의 하늘을 凝視하고 平和의 瑞光이 비칠 때까지 언제나 날을 것이다.

海外漫畫選



↑ 군의원 「어떤 녀석이 진짜 환자 인지 알아 보게, 매일 아침 저방을 통해 걸어 오시오」



↑ 『그, 과자 참 맛 좋군, 아……그렇지 참, 내 딸은 몇일전에 결혼해버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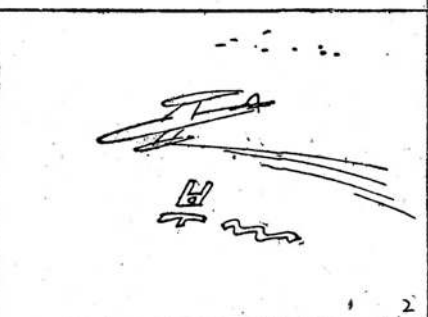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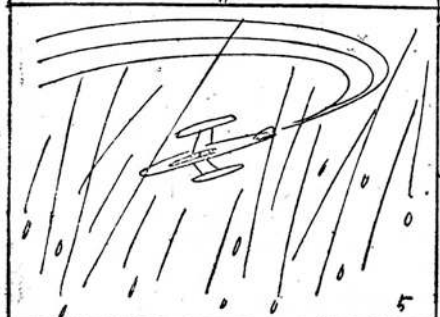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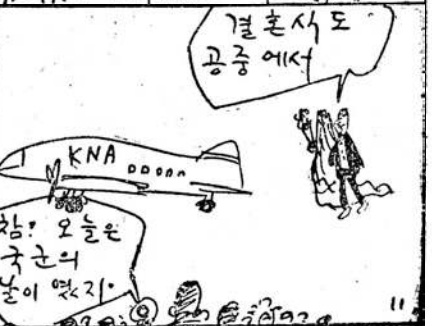
↑ 파이롯트 『아름다운 역사의 발자국이었지』 정비사 『글쎄요, 슬은 역사의 발자취 일지도 모르지요』



蒼空月舞曲

⇒ 金庚孝 ⇐





하늘을 나는 배

〈이 상 호〉



勤務怠漫

「야- 그 참 나이스다」

漂流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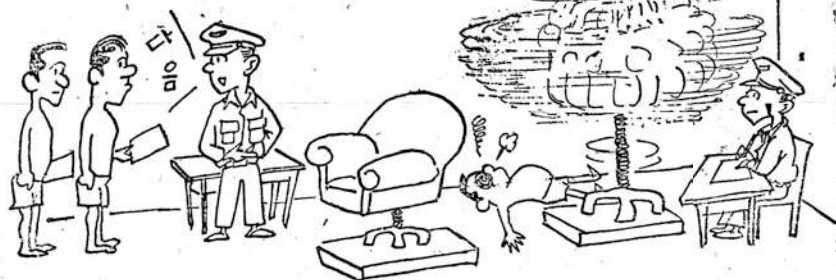
뛰라구요! 에어 개소링
이 없대요...



「國軍21」
航空展示會



空軍募兵「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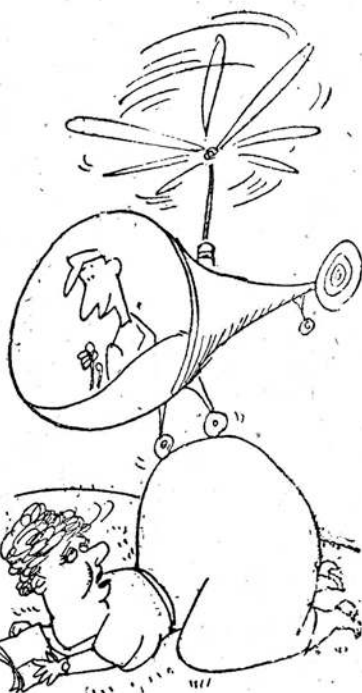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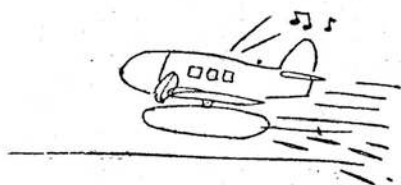
副官 專用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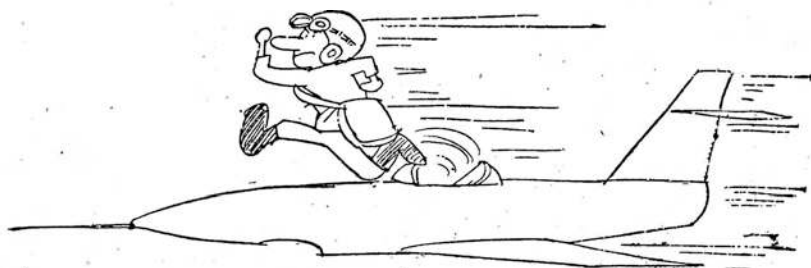
하늘의

天

하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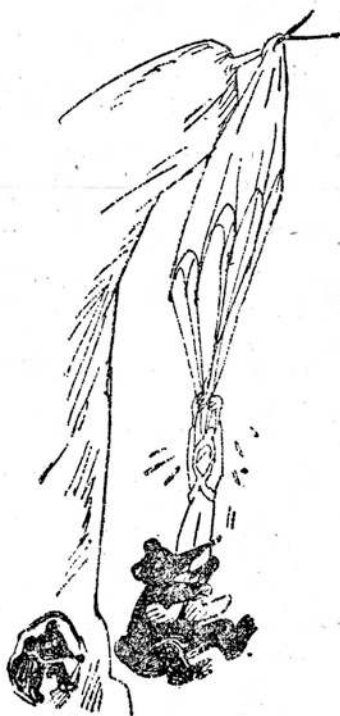
4



2 맛하 의 역주 (力走)



비행운 (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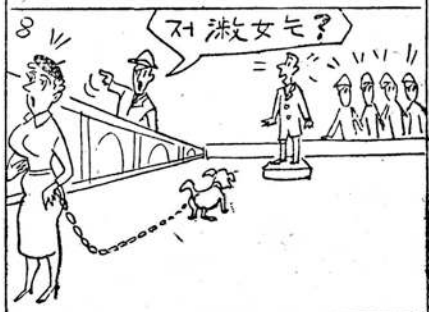


파이롯트는 살아있다



林 倉





19 이것이 雲海요
어마
깜나라 같
에



20 ----- 이번엔
부手を 안 했 오?
안 했 어
요



21 그럼 大成功!
그렇지만
지금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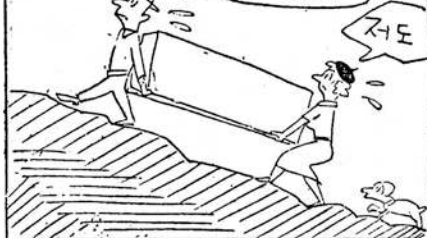
22 그럼 이 雲海에
하시요



15 드디어 P少尉는 格分
하여 民間人 파이롯트로
指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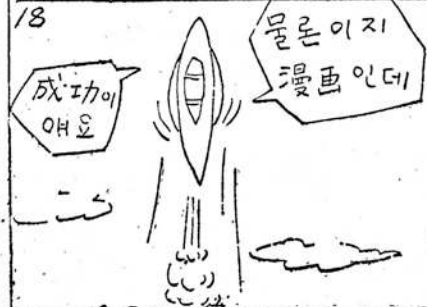
16 누명을 씻기 위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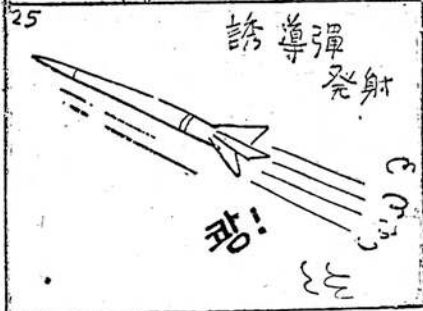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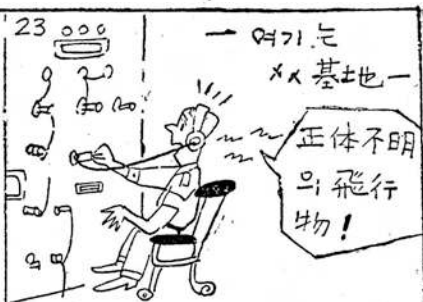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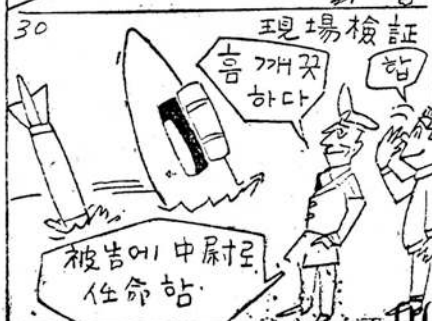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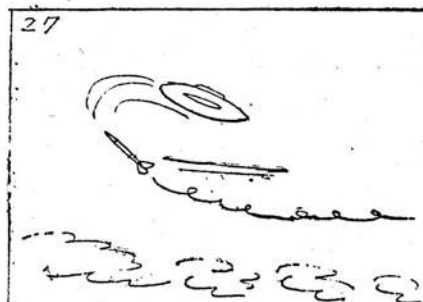


17 発射
準備!



18 물론이지
漫畫인데
成功이
애요





奇計縱橫의 獨逸諜報戰



破壞의 鬼畜과 對決하는 智能派

雨 香

戰鬪・非戰鬪時를 不問하고 諜報活動의 重要性은 예나 지금이나 變함이 없다.

西獨軍이 NATO 內部에서 相當한 比重을 갖게 되자 이에 對한 共產側의 猜忌는 神經質的인 破壞行動으로 露出되어 드디어는 兩個 獨逸間의 諜報戰에 불을 질렀다.

狡猾하기 짝이 없는 온갖 奇計로서 싸워가는 이 第五列戰에 있어서 東西兩獨逸의 諜報陣營을 掌握하고 있는 보스(Boss)를 찾아보면 東獨內相『올웨 1버』와 이에 對抗하는 西獨의『게 1렌』이다.

이들의 各各 다른 特色은, 東獨이「페르」와「싸브라 1유」를 자랑으로 하는 데

反하여, 西獨의 諜報活動은 恒時 智能으로 對抗해 나간다는 데에 있다.

駭怪한 爆發事件

미궁에 빠진 채 해를 넘긴 해괴한 폭발 사건이 작년 四월 초 서독「함부르크」에서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대강 이러하다.

즉, 동시에서 셋방 사리를 하고 있던 부두 노동자(埠頭勞働者)「라인크」와「유 1바브록」이란 두 사나이는, 이날 저녁 들린 그들의 방에서 일어 난, 대 폭발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만큼 가루가 되어 날아 버렸다. 당시

129

서독경찰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보았으나, 오직 그것은 단순한 사고도 아니요 범죄도 아닌, 정치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와같은 결론은 그 부두 노동자가 옛날엔 서독공산당 당원이었으며 또 그들이 三년간에 할당하였다는 사실과 「라인크」의 방 마루 밑에서 약 이십리들 가량의 고성능 화약이 들은 방을 발견한 데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단서에서 이들 두 사람은 얼마전까지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파괴의 귀족(鬼畜)『올웨 1버 1』가 지도하는 파괴・방화・암살단원에 틀림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렇다 면 이 폭발 사건이, 대신에 대한 숙청인가, 또는 그들이 은닉(隱匿)해 두었던 화약의 일부가 우연히 폭발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쨌든 서독경찰의 추정을 수긍한다면 이 사건의 주범인인『올웨 1버 1』란 대체 어떤 자일까?

동독「페르린」의 도심부로부터 동쪽으

로 약간 떨어져진 「칼스홀스트」가에 있는 그의 본거—— 그곳에서 부하에 대한 지령을 함여처럼 잘진다.

『원할것지, 신중히 해야 돼. 오란다정 부라고 해서 틀대가리는 아니니깐.

Rotterdam에 있는 자재를 감쪽같이 들어다가 A3 부에 인계하는 거다. A3 부에서는 그 사용법을 알고 있을테니까... 인제가 끝나면 우리들은 Lisbon에서 만나자. 알겠지』

언젠가 이런 지령이 있었지 나폴레옹은 날 전 세계의 각신문에서는 영국의 「한파이야」호가 대만으로 보낼 석유를 운반



하는 도중 인도양에서 기괴한 폭발을 일으키고 석유는 물론 20명의 승무원이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와같이 제5열전에 있어서 「사보타주」와 「테로」전문의 공산주의자, 독일태생으로 쓰련 시민권을 가졌으며 국제경찰의 Black-List(要注意人物票)에 제일 첫째로 얹혀있는 냉혹하기 비할데 없고, 파괴엔 세기적인 기록 보유자 그가 바로 「올웨이 1버1」인 것이다.

이자의 손가락이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파괴와 죽음과 눈물, 그리고 피의 수라장이 출현되는 것이다. 옛날 독일전함 「마1위그렙」호의 일개 수병이었던 그가 지금은 쓰련이 자랑하는 A스파이V조적의 제1인자로서 민주진영을 교란시키고 있다.

<10年前的「제1번」>

『올웨이 1버1』가 음흉한 잔침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18년 독일혁명 당시의 대혼란기였다. 그는 가까이 지나던 제집들 집으로 잠복하면서 공산당 잔부들과 접근하고 잔침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후에 「크라라우」란 여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청년조수(助手) 「막스. 켈프」를 소개받았다.

『켈프』란 청년은 당시 장도방화죄로서 종신형을 받았으나 때마침 일어난 혁명의 대혼란기에 요행이 형무소를 벗어나자 그는 곧 「올웨이 1버1」의 수족으로서 별장이나 공장이나 할 것없이 모조리 불살라 버리기 시작했다.

130

그런 동안 「올웨이 1버1」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그는 「스웨덴」주재 쓰련대사관으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모스코바」로 향하였다. 그리고 「모스코바」에서 다시금 잔침교육을 받고 나자 이후 유1렬 각처에서는 해괴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불란스 「세이느」강구의 Le Havre 항에서는 시한폭탄으로 기선이 분쇄되었고 동시에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로이나」공장은 기묘한 폭발로 날아 버렸다. 이어서 불가리아의 수도 София에 있는 대연초창고(大煙草倉庫)가 불났고, 영국의 어떤 항구에서는 해군 연습선에 불이 났으며, 독일의 Kiel 근항과 「비젠」강

류의 Bremen 항에서도 수개소의 공장에
서 의혹의 폭발사고를 일으켜 수척의 때
가 파괴 또는 침몰 되었다.

그런이 아니다. 덴마크의 Copenhagen
에서는 거대한 동공장이 폭발하였고, 스
페인과 Barcelona · Saint-Sebastian ·
Madrid 등의 각 도시에서는 경찰서가 각
각 폭탄을 얻어 맞고 연소되었다. 이러한
공포는 삼시간에 전 유력으로 퍼졌고 국
제 경찰은 총력으로 그 범인 추사에 당하
였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버렸다.

祖國을 粉碎하는 者

一九三三年 正月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스의 기만이 굳어져자 「올웨이
버」는 다시금 독일비밀경찰의 Black-
List 에 제 1인자로 앉히어 민란한 나치
스 「스파의」의 필사적인 추적을 받았다.
그 결과 수많은 부하들이 제거되기는 하
였으나 「올웨이버」만은 체포망을 벗어
나고 있었다. 한때는 Copenhagen 의 경
찰들이 그의 귀를 밟는데 성공하여 체
포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불행이도 노처
버렸다. 이때 위기를 모면한 「올웨이버」

는 대답하지도 곧 동시로 도라 왔으며
정부 「울스트롬」의 아파 1로에 잠복하고
여전히 「사보타 1유」와 「테로」활동을 제
속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작전
기지를 스웨 1 덴으로 옮겼다. 즉 Stock-
holm 에 있는 「코른다」의 쏘련대사가 영장
한 저택을 제공하였다.

얼마동안 그곳에서 전세를 보고 있는
그는 독일군이 불란서를 제압할 무렵 독
일 비밀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독일본국으
로 잠입하여 그곳의 당원들과 접선하고,
직시 행동을 개시하여 항동기지 항만 기
타 군사공장에 대하여 무지망직한 「사보
타 1유」를 전개했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
자의 지하조직체인 소위 「붉은 악단」을
만들어 독일병을 선동하였다. 후에는 점
령된 불란서 지구에도 손을 뻗쳐 그곳의
저항운동을 최면으로 원조한 일도 있다.
그리고 특 · 쏘련이 시작되자 「올웨이버」
의 활동은 더욱 맹렬하게 전개되어 독일
군사공장의 기술자들을 피어 「사보타 1
유」를 전개하였다. 공산주의자에게 조국
이 있을 리 없었다.

131

유명한 제국의 「스코다」 병기공장에서
만들어진 대포의 탄환은, 그속에 장전되
어 있어야 할 화약 대신에 톱밥이 채워져
있었고 탱크의 「모터」는 三十키로만 달
리고 나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전이 끝나자 「올웨이버」는 동독 피
정부에서 중요한 지위를 찾았다. 표
면으로는 선박공장이라고 하나 실제로 있
어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테로」와 「사보
타 1유」활동을 계속하여 서구 자유진영
을 교란시켰다.

어떤 때는, 영국의 四발 군용기가 이륙
직시로 추락하여 십여명의 파다슈 1트가
고스란이 없어졌고, 또 그런 사고가 있는
지 불과 八일째에는 미국에도 착한 二척의
대 수송선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
였다.

영국의 첩보기관 Secret Service 의 수
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박 사고
는 보통 그 선박 적재시에 인부로 가장한
「테로리스트」가 시한폭탄을 선박고에 장
치하였던 까닭이나, 하수인은 알지 못한 채
오직 그 배후에는 만드시 「올웨이버」가
군입하고 있다는 점만은 의심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파괴의 귀족이 지금은 공산동족의 대상(內相)으로 승진되어 서독과 정면으로 스파이전을 전개하였다.

智能派의第一人者

이와 같은 파괴의 귀족과 맞서는 서독의 첩보기관 제1인자는 누구일까?

거기 一 주일에 한번씩 München 교회의 「루르타트」로부터 호와스리운 고급택시가 수도 「본」시의 「Adenauer」 수상 관저로 향하여 질주한다.

이 차의 주인공을 환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민완한 카메라멘일찌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심지어는 막대한 상금까지 붙어 있으나 오늘날까지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 소위 「일물없는 장군」이라는 별명이 있는 탓이다.

그래서 「본」시 주재의 불란서 석간지「레·몬드」독파원 「폴유」의 말을 빌리면 「이 서독 비밀기관의 전능자는 몹시 불패한 얼굴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일종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뜰어서 말하면 — 젊은 입술에 정숙히 파진 눈그리고 그 위로 부풀어 오른 눈다란 이마 땀뿜히 선 커…… 대강 이런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제1련」의 인상이다.

그는 「부테스라우」 출판국 지배인의 아들로서 十八세때 군대로 들어가 참모본부에서 근무하였다. 얼마후 그는 스파이적 재간을 인정받게 되자 제12파(對東歐諜報課)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두·쑨전정때 그는, 수집한 정보자료에 입각하여 쑨전군은 십사리 굴복치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나 「히틀러1」는 「이러한 정보는, 정기스강 이래 처음 보는 위협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제1련」의 이러한 전력도 이제 는 끝났다. 그의 정확한 자료로 「나치스」의 패배가 역연함을 알았다.

제3 제국의 붕괴, 그 다음에 일어난 동서의 대립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상세하였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고야 말 미·소의 알력에 대비하여 쑨전에 관한 모든 지도와 문헌 그리고 정보들 각각 3 통씩 복사하여 따로 따로 은닉해 두었다. 드디어, 「나치스」가 붕괴하는 날 「제1련」은 「대 동구첩보부」를 3분한 다음 「너이들이 포로가 되는 날일찌라도 절대로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누설하지 말라」고 엄명하고 후에 하산하여 미군

부대로 출두하였다.

그리고 일등은, 은닉해 두었던 정보문헌을 들고 「위싱턴」으로 건너가 국방성의 심문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여기서 「제1련」기관을 설치케 된 것이다. 여기에는 「페테스」장관의 지원이 많았다.

오늘날 「제1련」기관에는 약 五백명의 첩보전문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이 전유1련으로부터 중근동에 이르기까지 파견되어 있는 정보원들로부터 매일 같이 들어 오는 수많은 정보를 앞େ 다 두고 과학적 검토를 가하고 있다.

132

년간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이 기관은 거개가 구 독일군에 있던 첩보원이며 그의에도 경제학 기술학 자연과학 정치학등의 권위자들이 모여있으며 또 무전 기사 잉크연구가 가짜 여권이나 가짜 증명서의 노련가 등등도 섞여 있어 수집자료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유1련 제1로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제1련」기관에 속하는 수천의 남녀 첩보원은, 수에 있어서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동독의 「올제1버1」군을 상대로 오늘날도, 또 내일도, 은갓 기계공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포라리스」彈道彈



洪

小

宇

第二次世界大戰이 끝났을때에 全世界의 人類는 또다시 悲慘한 戰禍를 再次 反復 치 않았다고 生覺하고 世界의 平和를 念 願하여 이것을 保障하기爲하여 UN機構를 設置하였고 그憲章에 依할것같은 機 爭은 地球上에서 永遠히 消滅되야 할것 이었다. 그러나 科學技術의 發達은 人類가 阻呢하는 다음戰爭을 對備할인지 第二次大戰後에 작트기 始作한 武器인 原子爆 彈、誘導彈、젯트航空機等을 發展시켜서 水素彈의 完成 中距離彈導彈 및 大陸間彈 導彈의 實驗成功 超音速젯트機의 製造에 拍車를 加하여오고 있었다.

이러한 武器들은 大體로 다음의 戰爭에 서 主要한 役割을 하게 될것이며 그중에 서 特히 노틸라스號가 北極橫斷航行에 成功함으로써 노틸라스號에 裝備可能한 POLARIS 中距離彈導彈은 그意義가 大 變하나라 戰略的으로 價値가 큰것이다.

POLARIS는 美陸軍이 一九五五年 一 月에 같은 中距離彈導彈 JUPITER를 計 劃할 무렵 美海軍은 이것을 조금만 變形 하면 艦上 發射用으로 POLARIS를 製作 하게 될것이라고 生覺하였다. 그러나 海 軍이 實際로 이問題를 檢討한 結果、陸軍 의 JUPITER가 性質上、海軍의 艦上用

에 不適當하다는것을 確認하게되었다. 그 렴으로 陸軍과 海軍의 順調을지 못했던 合同研究는 그다음해인 一九五六年 一二月 一日 終止符를 찍고 서로 헤어지고 말 았다.

이날부터 海軍側은 FBMS이라고 世上 에 알려진 即 艦隊用 彈導彈體制(FLEET BALLASTIC MISSILE SYSTEM) 計劃에 熱中해 왔는것이다. 이 FBMS는 當時 世界各國의 海軍이 試圖한 武裝體制 中에서도 가장 強力하고 獨自的인 것이었 다. 그러므로 이 武器의 威力에 對한 이 야기가 世上에 널리 알려졌다. 이 武器는 장차 世上에서 가장 攻擊力이 강한 武器 의 하나가 될것임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 것이 바로 POLARIS라는 이름을 가진 中距離彈導彈이다. 이 FBMS의 管理責任 은 全的으로 海軍 兵器廠 特殊企劃局에 있는데 그의 責任者로 있는 海軍少將 윌 리엄 베른지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國 防部の 그 有名한 業務 分擔 指示의 意圖 는 空軍에게 地上基地에 있는 모든 中距 離彈導彈을 주라는 것인데 現在 陸軍이 保有하고 있으며 液體力推進式인 JUPITER

TER 代身의 海軍은 이보다 더 적고 새로운 固體燃料推進式 彈導彈研究에 集中하려는 것이다. 海軍의 攻擊力의 立場에서 보아 經濟的으로 低廉하고 安全하고 더 優秀한 武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陸海軍의 合同計劃의 費用보다 約五億弗이나 節約될 것이며 制限된 費用으로 彈導彈生産、潛水艦의 原子力彈導彈 그리고 必要한 支援裝置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海軍은 現在까지 容易한 段階에서 行하여져 왔지만 豫算額의 不足하기 때문에 不得已로 방대한 FBMS 計劃에 慎重을期하는 손을 대지 않았던 안의였다. FBMS의 研究 및 發展契約는 會計年度인 一九五七年七月末 不過約 一個月後에 進行하기 始作하였고 그後부터 조금씩 이 契約는 擴大되어 갔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主要 構成部門에 對한 充分한 援助計劃이 없었기 때문에 離隔의 豫測되어 있었다. 그러나 昨年の 年頭에 몇개 分野의 研究가 着手되었다. 특히 彈導彈을 艦艇에 積載하고 出航하는 問題 海底에서 準備發射하는 問題、正確한 航海와 彈導彈

自體에 對한 問題等에 着手하였다.

海軍은 後者인 彈導彈을 調節하기 위하여 航空會社中の 하나인 LOCKHEED 會社內 航空機誘導彈 SYSTEM 部에 갔다. 이 部에서 海軍의 援助로써 北緯로 아시아에 있는 특히 『파로알로』와 『세니베일』에 있는 POLARIS 研究施設에 三千萬弗을 投入하였다. POLARIS 機體設計는 最初『세니베일』에서 始作하였으나 現在는 『세니베일』에 集結되고 있으며 最初의 工場은 指導와 下請負計劃에 集中되고 있다.

ROCKHEED 會社は 『세니베일』의 三 四萬六千方 Ft.의 地地를 가지고 있으며 五六年度の 六〇〇〇〇名 從業員은 今年末까지에는 一〇〇〇〇〇名으로 増員될 豫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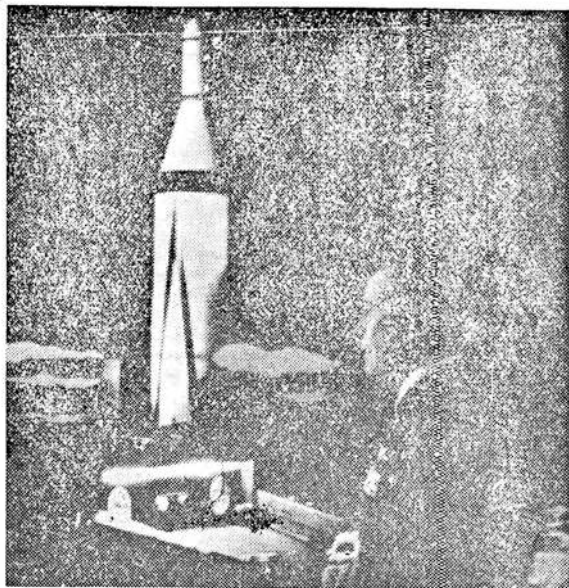
POLARIS의 機體의 기리가 짧고 부피가 통통하고 高度의 製作技術 構成體라는 點을 除하고는 論議할 餘地가 없다. ROCKHEED 會社가 그들의 X-17 實驗用機械로써 前面이 통통하게 생긴 試驗場에서 試驗한 結果 貴重한 經驗을 얻었으므로 이 經驗은 昨年 一월에 委託된 40Ft 推進

134

管에서 行하여진 實驗을 通하여 補強되었다. 이 미 說明한 바와 같이 POLARIS는 固體燃料로된 로켓트모터의 作用으로 推進되는 것이다. 이것은 POLARIS의 長點으로 되어 있는 固體燃料로 使用하는 것인데 彈導彈自體內에 貯藏할 수 있기 때문에 發射準備가 매우 簡單하다. 또한 固體燃料의 使用은 彈導彈 設計에 있어서 자리가 덜먹게 됨으로써 POLARIS가 中距離 彈導彈 중에서 第一작이며 본래부터 戰艦이나 潛水艦의 데크에서 發射하도록 設計되었는 것이다.

美國內에서 發射된 大型 固體燃料誘導彈이 많이 있었으나 POLARIS가 모든 것을 凌駕하고 있다. 主要한 契約者는 『아에로렛트 제비탈』會社이며 그뒤에 『씨오콜』會社가 POLARIS 計劃의 助力하여 實驗用機械을 만든 事實은 附言할 價値가 있다. 『부리한』市에 있는 『씨오콜』會社所屬의 세 유-1라 工場과 POLARIS 號는 比較하면 훨씬 큰 直徑 12Ft 重量 二百萬 LBS까지의 推進機를 試驗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에로렛트 제비탈』會社는 가장 큰 液體燃料 推進모터라 製作責任을 主張하

여왔었는데 그會社가發表하기를 昨年五月에 美國에서 지금까지製作된 固體燃料로 使用하는 推進로켓트에서 第一 큰 것을 『싸크라멘트』에서 成功的으로 靜力學的實驗을 했다고 것이다. 이것의 바로 POLARIS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現在 海軍兵器局



〈「미본」少將과 樣型 Polaris〉

用으로 製作되고 있다.

POLARIS

推進力 系統

은 모1은 固

體燃料로켓트

와 같이 基本

的으로 簡單

하나 最大의

效力을 發揮

하면서 도 여

러가지의 效

能을 내지 된

것이다. 『프

라스티씨저』

와 酸化劑의

구거운 負擔

으로부터 重은

은 110,000LBS까지의 燃料까지 裝填

하면 總重量은 12.7 ton 까지 된다. 外形

은 圓筒形으로 直徑은 4.5Ft 全長은 28.5

Ft 이 되는데 先端에는 1메카논級 原子

135

Ft 이나 되게 나와서 마치 人工衛星을 쏘아 올린 JUPITER와 同一한 形을 이루고 있다. POLARIS는 以上과 같이 潛水艦內의 難點을 緩和하기 爲하여 全長을 最少限으로 저게 하고저 가진 努力을 해왔다. 그리고 燃燒되는 排氣가스를 四個의 噴出口를 通하여 壓縮시킨 小室에서 밖으로 發散시킨다. 機體에는 火藥裝填이 不可缺한 것은 아니다. 即 『싸크라멘트』의 實驗臺에서 한個의 胴體에서 靜力學的으로 여러번 發火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重要한 要因의 하나인 閉閉裝置는 大槓의 液體燃料 모1라보다 固體小粒子推進이 十倍나 正確하다는 點이다.

POLARIS의 誘導裝置에 對한 詳細한 點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라디오에 依한 慣性運動 即 正確한 慣性運動임이 分明하며 이 誘導裝置에 對한 全的인 責任은 매시츄세츠 工科大学이 지고 있는 것으로 艦艇發射 誘導裝置를 말한다. 慣性誘導裝置는 航空機나 船舶 또는 誘導彈等을 無人自力으로 航行시키는 一連의 誘導裝置中에서 가장 새로운 것으로 평이나 鍾의 原理를 利用한 것인데 主로 中距離彈導彈

이나大陸間彈導彈의裝置한다.

POLARIS의完成된慣性誘導裝置는五七年 여름 차이나湖에 있는『쓰노트』實驗場에서實驗되었다.

一九五八年的會計年度豫算에서海軍은POLARIS와 이와關聯되는設備資金으로六千八百萬弗을配定하였는데 이것은FBMS全般에對한것은아니지만이中에서一千五百萬弗이 새로운支援用設備資金으로要請되어 있었다. ROCKHED會社가『산타 구루즈』山脈의 있는二四〇『레이카』의地地를POLARIS R4D型用으로轉換시켰으며大規模的인POLARIS研究擴張事業의『자크라멘』의 있는『유트로켓』제鐵廠會社『파트릭』에 있는空軍基地, 그리고『메리덴』의『하이트오크』에 있는『부오즈』實驗室에서進行的고 있다.

POLARIS가 그동안數次에 걸쳐서實驗하여 왔지만世上에 그의頭角을 나타내기에는昨年九月十七日美海軍省의中距離飛行機型誘導彈『트라이온』의研究를中止하고POLARIS研究를集中한다고發表하고 그翌日인十九日밤美海軍

作戰部長『켈』提督이『美國은가가운將來에海面下의潛水艦에서POLARIS(水中對地上)의發射實驗을行한것이다.』라고發表하든 때부터이다. 今年에 들어서四月十一日最初の潛水艦『SS호넨트』號를進水한五八週年을祝賀하기爲하여一〇〇〇名以上の사람의와선동『S. 파이크』호텔의모두들있는데여기에선海軍艦隊用의彈導彈POLARIS를公開하는것이가장큰關心事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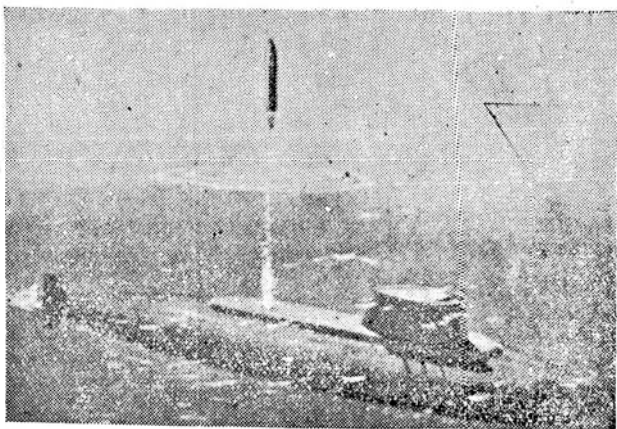
宴會途中에美海軍兵器廠의W. F. 피슨少將은다음과같이말하였다.『우리는一九六〇년에는實質的으로作戰用誘導彈을保有하게된것을確信하는바입니다.』POLARIS發展計劃의劃紀的인成功과더부터이彈導彈은成功的으로發展示키는것보다이彈導彈을生産하여最初로潛水艦에裝置하는데必要한時間이이와같은境遇에制限된要素가된다. 이것은分明한것같다. 그날의實物程度의크기를가진POLARIS模型의호텔의舞踏場의舞臺위에陳列되었다. 또海軍은當日一五〇〇哩射程의POLARIS彈導彈을水中에서潛水艦으로부터發射하

136

는問題를解決하였다고發表하고記者들이그전에模擬誘導彈實驗을한記錄필름을피슨少將에게提示하자그는同發射裝置가製作完了되었으며每日實驗이繼續되고있다고말하였다. 이같이模擬實驗하는동안美海軍은五月八日『케이프 케나베탈』實驗場에서POLARIS의實驗을行하였는데POLARIS가發射二十秒後空中에서爆破되어失敗하였다. 그러나海軍當局은爆發은 처음부터豫定되어있던것으로試驗은正常的인것으로生覺한다고發表하였다.

六月十九日『칼리포니아』洲『산. 크레멘트』島에서POLARIS의發射過程을示絶하였다. 이彈導彈은潛行中の潛水艦으로부터發射하겠음設計된것이지만이날의示範에서는水中에架設된管筒으로부터發射되었다.

發射된것은實物크기의模型으로水中의發射筒으로부터壓縮空氣로내몰아水面上100 Ft 程度上昇하였다가落下하는데不過하였지만이成功은潛水艦이潛水하여發射되는大型彈導彈의完成에希望性을가진것으로큰反響을일으키었다



△潛水艦에서發射된「폴라리스」誘導彈▽

그날의實驗에서 模型 POLARIS 이지만 壓縮空氣로부터 水面上 100 Ft 까지上昇한 實物의 POLARIS 가 100 Ft 높이에서

固體燃料로켓트에 點火되어 普通的誘導彈과 同一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되면 POLARIS 는 水中에서 爆發하여 潛水艦을 破損시킬 念慮도 없고 固體燃料로켓트이기 때문에 取扱하기에도 簡便한 것이다. 固體燃料로켓트가 이와같은 大型彈導彈에 使用된것도 西方側으로서는 처음이고 이런 意味에서도 劃期的인 것이다.

POLARIS 는 模擬水中發射實驗과 더불어 實物을 地上實驗發射를 行하고 있는데 이것을 潛水艦에 裝備함으로써 보다 큰 戰略的要素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核力推進擔當責任者 補佐官인 海軍少將 H·G·리크버氏로써 그는 昨年末頃에 다음과같이發表하였다. 卽『POLARIS 의 理想的인 移動發射臺로 豫見되는 가장 가까운것은 原子力潛水艦이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을 裝置하는 때에는 原子力潛水艦(N·P·S)는 바다 밑에서 人工衛星이 될 것이다. 이 潛水艦은 中距離彈導彈을 積載하고 發射할수 있는 充分한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곳에나 또 어느때나를 莫論하고 安全하게 潛水하여 移動할수 있는 能力을 가지게 될 것이

137

다』 그는 繼續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每一弗防禦上의 價値로 따지르면 이 FBMS 는 地上基地 中距離彈導彈系統보다 훨씬 有利하다. 이 原子艦의 한가지 長點은 燃料 TANK 가 없음으로 多量의 POLARIS 를 積載할 空間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結實을 맺기爲한 拍車로써 美國은 지난 八月八日 美國의 原子力潛水艦 노리타스號가 歷史上 最初로 地球의 맨 꼭대기인 北極의 海底를 通過하는 北極橫斷航行에 完全히 成功하였다고 發表한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大統領 自身이 直接列席하여 同潛水艦의 艦장이나 副艦長 同乘務員들에 對한 表彰狀을 授與하고 난 뒤에 있었던 白聖館의 記者會見席上에서 劇적으로 發表되었다. 大統領은 同表彰狀을 通하여 北極海의 水상을 무릅쓰고 東西半球間의 海底航路를 開拓한 功을 讚揚하면서 『이는 더욱더 劃期的인 海底探險의 指針이 되는 것이며 앞으로 世界의 主要海洋間 通商航路의 新分野로써 輸送潛水艦이 登場할 海底通商航路를 發展시키는 데 貢獻할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當年 不過三七歲的 W·R 앤디슨海軍中領을 艦長으로 하는 前記의 原子力潜水艦 노티라스號는 極秘密裡에 지난 七月二日 上午二時 하와이를 出發하여 八月五日 「아이스랜드」에 到着함으로써 北極橫斷航行에 完全히 成功하였다. 同潜水艦은 都合 八、〇〇〇哩의 長치는 北極橫斷航行을 하였는데 그中 九八%가 水中航行이었으며 「아라스카」의 「페로우」地點에서 大西洋의 「그린랜드」海의 「스핏쓰베르겐」海까지 미치는 一八三〇哩의 氷山地帶를 水中으로 通過하는데 九六時間 걸렸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東京에서 런던까지 海上航路를 하자면 一一、二〇〇哩를 航行하여야 하지만 北極을 通過하여 海底航行을 한다면 航行距離가 六、三〇〇哩밖에 안되며 하와이의 眞珠灣으로부터 英國本土까지 海上航路의 距離가 九、五〇〇哩인데 反하여 北極橫斷海底航路의 距離는 六、七〇〇哩에 不過한 것이다.

미국 原子力潜水艦이 完成되어 北極橫斷航行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고 POLARIS의 發射成功을 하였다는 치즈라트 「FBS」 및 개의 研究部門에서 가장 큰 難

點은 POLARIS를 積藏한 潜水艦의 航海問題이다.

誘導彈을 어떤 距離에 있는 目標物에 命中시킬 수 있자면는 우선 어느地點에서 POLARIS를 發射해야 되는지를 正確하게 알아야 된다. 이問題에 對한 解決策은 SINS (SHIPS INERTIAL NAVIGATION SYSTEM) 即慣性의 依한 艦艇航行體制로 遂行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페쉬유셋트」工科大学의 「트레이과」博士에 依하여 原理上으로 發展되었다. 이 解答은 海軍當局의 滿足할만한 것으로서 決定的인 正確性을 立證하였다.

138

SINS가 一箇月을 前後하여 地球表面上의 어떤地點에서도 發見당하지 않고 水中에서 活用될수 있는 것이다. 이 SINS는 EAG-153 羅針針(船名)에 依하여 成功의 인것으로 評價되었으며 이 때문에 充分한 FBMS를 運搬하고 또 安全을 期할 充分한 艦裝을 갖추고 있었는데 四分의 一哩以上の 誤差를 내지 않았던 記錄을 세웠다. 또 여러가지 艦裝實驗을 通하여 바다 밑에서 彈導彈을 發射하는 大部分의 問題들은 解決되었음으로 海軍當局은 POL-

ARIS를 바다속의 潜水艦에서 發射할 수 있다는 自信을 表明하였다. POLARIS에 對한 試驗의 인 遠洋航海運營 및 發射體制를 爲하여 「웨슬링하우스」와 이미 一千萬弗의 契約을 締結하였는데 이 意圖는 正確한 原子力潜水艦體制를 確立하는데 있었다.

海軍의 彈頭彈이 地球表面에 있는 目標에 到着되기 前에 大洋의 海流가 이 彈導彈에 미치는 正確한 影響을 探知하기 爲하여 또 하나의 實驗이 昨年 十月에 있었다. 機械的인 積藏과 發射問題는 「페이몬드로위」水力會社가 沙漠속에서 航行하는 艦艇과 비슷한 模型을 만들어서 이問題를 解決을 試驗해 보았다.

海軍當局은 分明히 潜水艦의 將來에 對하여 冒險을 甚하게 하고 있다. 이事實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 그러나 海軍은 一九五五年以來 潜水艦에서 誘導彈을 發射하는데 對한 實驗을 해오고 있었다. 더욱이 海軍은 POLARIS의 計劃을 猛烈的히 推進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POLARIS는 原子力潜水艦內의 箱子같은 곳에 二列로 十六個를 積藏할수있을 뿐 아니라 앞서 말한바와 같이 核彈頭 一메가톤級의 原子爆彈을 裝着하고 이 圓錐形의 頭部는 後部에서 點火되는 동안에 SOAFR 彈의 正確한 照準射擊으로 爆破될 것이므로써 一、五〇〇哩 遠距離에 있는 敵의

諸都市를 二次大戰中 日本廣島를 原爆이 半徑 1.6km로 破壞시킨것 보다 큰 威力으로 破壞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三次大戰을 對備하여 敵의 目標을 中心으로 太平洋을 비롯하여 各大洋 바다속에 潛水하면서 發射하라는 命令이 發할때까지 準備을 怠하지 않는다.

노티라스號의 엔드슨艦長이 記者들의 質問으로 소련의 노티라스號의 北極橫斷航行을 探知할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微笑를 띠우면서 「글세 그네들이 그렇게 優秀할수 있을 까요」하며 答辯한 마와 같이 水中에 있는 潛水艦을 거의 探知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潛水艦에서 發射되어오는 彈導彈을 反擊할만한 武器는 아직 없는 것이다.

海軍은 一九五九년에 代表的인 形態를 가진 POLARIS를 發射할 豫定이라고 聲明하였는데 昨年初에 發表한바에 依하면 今後 五年以內의 FBMS를 作戰用으로 使用할 것이라고 했다. 上院議員 제크슨氏는 이 武器體制에 對하여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昨年여름에 말한바에 依하면 POLARIS 製作을 長期計劃으로 進行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繼續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誘導彈 防禦力研究에 있어서 量子飛躍을 期待할수 있는 어떤 誘導彈 體制의 無關心하고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바이다라」고 하였다. 제크슨少將은 거의 다

음날 一線誘導彈兵器廠에 可及的 拍車를 可할것을 聲明하였다. 最近에 밝혀진 바로는 LOCKHEED 會社製의 誘導彈은 一九六〇년까지에는 準備될것이며 六二年度까지에는 充分히 作戰用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海軍은 더욱 높은 率로 原子力 潛水艦을 進水시켜서 就航시킬것이다. 노티라스號, 제넬프號, 그리고 「스케이프」號는 이미 任務을 맡고 있지만 이밖에 「사그」號 「스키프」號 「스워드피쉬」號 그리고 「제 드레이프」號는 마지막 裝裝을 하기 위하여 進水되었다. 지난週(九月一日 現在) 세계에서 가장 큰 潛水艦이며 同時의 原子 RADAR 探知機를 裝置한 潛水艦 「트리톤」號가 「카네티켓」洲의 「그론」港에서 進水될 것이다. 二十餘個의 潛水艦(經費는 每隻 一億千萬弗)들이 建造中에 있거나 그 裁可를 받고 있으며 그中 九隻은 POLARIS를 發射할수 있도록 設計되었다.

共産側은 이에 對備하여 어떻게 進歩하고 있나? 現在 알고 있는 限에 있어서는 小聯은 아직 原子力 潛水艦을 保有하고 있지 않다. 또 小聯은 潛水艦의 POLARIS와 같이 彈導彈을 保有하고 있다는 確證은 없으며 다만 艦隊用으로써 速度가 音速八倍程度이나 射程이 不過 六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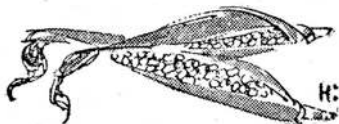
139

五哩밖에 안되는 COMET II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美國의 「바베르」號에 裝備한 것과 마찬가지로 在來式 潛水艦에 誘導彈을 裝備하고 있는 것이다. 原子 潛水艦에 있어서는 美國側의 優秀性이 大端한 것은 確實하다. 事實 이와같은 優秀性은 敵을 防禦하고 美國을 리드할 唯一하고도 가장 強力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美海軍은 技術의 成功에 있어서 岐路에 서있음을 잘 알고 있다. 即 相對方도 亦是 이것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地上基地誘導彈에 있어서 小聯이 發展하고 있음으로 原子力 潛水艦의 POLARIS와 같은 艦艇用彈導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暗示해준다. 더욱 이밖에 小聯은 美國防禦에 直接關係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在來式 潛水艦으로 構成된 가장 큰 艦隊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事實이다.

그러나 結論의 으로 말해서 原子力 潛水艦 노티라스號의 北極橫斷航行의 成功은 地球를 短縮시킨것과 같은 平和의 貢獻과 더불어 中距離彈導彈 POLARIS를 裝備하고 北極水山下에서 發射可能하다는데 그意義가 實로 큰 것이다. (끝)

美國 軍事力의 位置

—美蘇의 軍備를 比較하면서—



한 손 · 불 드 윈

李 仁 燮 譯

蘇聯이 突然이 最初의 人工衛星을 發射
하므로서 世界의 一部 人民들에게 蘇聯의
技術的·軍事的으로 自由陣營을 凌駕하고
있지나 않을가라는 誤信을 傳播한 以來 美
國의 科學者들은 비로소 刺戟을 받은 것
같다. 그當時 少數의 輕率한 美國人들은
蘇聯이 人工衛星을 먼저 發射하므로서 東
西兩陣營의 軍事上 均衡이 기우려 졌다고
까지 極言하였다. 또 어떠한 美國人들은
이제야말로 「뉴욕」, 「워싱턴」이나 그밖에
美國의 主要都市가 이미 發射準備가 되어
있는 蘇聯製 「로켓트」彈의 攻擊目標下에
들어갔다고 畏懼하였다.

140

이와같은 理由로 하여 蘇聯이 밤사이에
이룩한 特殊한 宣傳效果는 우리들의 精通
한 指導者들의 이른바 軍事力으로나, 產
業·基本工業面에서 또는 科學的 技術的
能力上으로나 蘇聯을 徹底히 凌駕하고 있
다는 思慮있는 判斷을 無力하게 만드는데
같이 느껴졌다. 合同參謀本部議長 「나탄.
F. 트와이닝」大將은 今年 봄 上院 準備分
科委員會에서 「蘇聯이 現在나 오늘 이時
刻事實上 美國의 現有 軍事力보다도 앞
서고 있다」라는 思考方式은 實로 「危險千

萬」의 亡國之 憂患이라고 警告한바 있었
다. 「트와이닝」大將은 그날 要旨 다음과
같은 證言을 한바 있었다.

『이와같은 誤解는 窮極의으로 우리自
身의 安全을 侵奪하게될 屈辱的인 妥協이
나 그밖에 退步的인 行動을 誘發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같은 三個의 點
에서 蘇聯을 不斷히 警戒하여야 할것이다.
첫째 資本商品 生産工業의 擴張, 一般
的 技術上의 知識水準의 向上과 軍事力의
強化 및 現代化에 있어서의 蘇聯의 二次大
戰以後의 發展相은 美國보다도 더욱 前
進하고 있다.

둘째 우리들의 軍事力의 優秀性은 다만
核武器를 輸送할 能力이 있는 有人航空機
와 같은 缺少한 基礎위에 根據하고 있다.
셋째 近代武器의 警異的인 速度와 火力
은 美國의 地理的인 安全性을 破壞하
고 있다.』

여기에 美、蘇兩國의 軍事力을 簡略하
게 比較해보기로 한다.

戰略上의 差異

美國戰略은 美國은 戰爭의 防衛手段으로

로서 蘇聯이 어떻게 하는가에 不拘하고 蘇聯의 心臟部에 對하여 核武器로 大學報復할 수 있는 軍事力을 保有한다는 概念에 基礎하고 있다. 이와 같은 概念은 原則적으로 陸地、海上乃至 空中에서 離着或은 發射된 航空機나 誘導彈의 型式으로 表示되는 空中力 및 核武器能力과 連結되어 있다. 우리들은 오늘날 核武器能力을 增加시키는 方便 在來式武器體制를 弱화시키고 있다.

한편 蘇聯의 戰略概念은 軍事、政治、經濟 및 心理戰 力量等 모든 型態의 國家力이 相互依存、結束되는 데에 基礎하고 있다. 十年前에 核武器가 아닌 在來式戰爭武器로서 다만 하나의 戰爭을 遂行하기에도 어려울 程度의 軍事力을 保有하였던 蘇聯은 오늘날에 와서 在來式 軍事體制에變動을 加하지 않고 그위에 強力한 核武器能力을 「플러스」하였다. 蘇聯은 現在나將來에 있어서 어떠한 型態의 制限없는或은 制限된 核武器戰爭 또는 在來式戰爭을 遂行할 能力을 가지고 있다.

「로켓트」 및 誘導彈 比較

蘇聯이 人工衛星을 먼저 發射하고 또 무거운 衛星을 發射하였다는 事實은 表面上으로는 적어도 宇宙競爭에 先發하였을 뿐 아니라 一千五百哩 距離의 中距離誘導彈과 一千五百哩에서 五千五百哩 距離의 大陸間彈道誘導彈 그밖에 巨大한 「로켓트」發展에 相當한 成果를 보았다는 것을 實證하는 것이다.

美國의 誘導彈 競爭에 뒤떨어졌다는 그릇된 認識은 이제야 健全한 判斷에 依하여 糾正되고 있다. 專門家들의 見解는 各樣各色이지만 蘇聯은 겨우 「ICBM」에 있어서若干 앞서고 있다는 데는 異이 없는 것 같다. 一千哩 以上距離의 核武器 輸送能力이 있는 「로켓트」의 生産에 있어서는 約一年 앞서고 있다.

蘇聯은 美國보다는 더 많은 數量的 長距離彈道誘導彈을 發射하였지만 大多數가 三百哩에서 一千哩 距離의 「로켓트」에 지나지 않는다. 官邊側은 또한 蘇聯이 七百哩距離의 「로켓트」彈을 大量生産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誘導彈

의 發射基地가 東歐羅巴 諸國內에나 西部 蘇聯地域에 建設된 徵兆는 없으며 또한 千대이 巨大한 發射場을 建設할 必要조차도 없을 것이다. 獨逸의 「V-2」號와 같이 그들은 道路上의 一點이나 平地에서 能히 發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大陸間橫斷 彈道誘導彈의 範疇內에서는 蘇聯이 一九五七年 여름 三千五百哩 距離의 二個의 巨大한 「로켓트」를 發射한 以來 相當期間의 中止期間이 있었던 것 같다. 第三次의 一頓級 人工衛星을 發射하려는 努力은 相當한 期間을 두고 進

步되었으며 마침내 今年 五月十五日 發射되었던 것이다. 蘇聯이라고 우리와 다른 實驗上의 差異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들 亦是 數 많은 實驗上의 失敗를 거듭하면서 이와 같이 一頓級의 衛星을 發射시켰다는 事實로 미루어 볼 때 誘導彈競爭에 있어 그들이 先手를 얻어서 宣傳效果를 노리며 科學者를 酷使하며 經濟力을 蕩盡해가면서 人工衛星 研究에 얼마나 注力하고 있는가를 分明히 알 수 있는 데이다. 그러므로 長距離誘導彈에서의 蘇聯은 決코 믿을 것이 못된다. 美國은 早晚間 海

外各基地에 中距離誘導彈 基地를 建設한 것이다. 美國과 蘇聯은 各같이 一九五九年과 一九六一年間에 作戰用 五千五百哩距離의 大陸間橫斷 彈道誘導彈을 保有하게 될 것으로 期待된다. 今年末에 이르러 兩國이 모두 數個의 「ICBM」을 保有할 수는 있겠지만 現用 「모텔」은 正確度나, 信度에 있어서 滿足할 만한 것이 못되며 또 完成된다고 해도 全軍事力이 核體制化될 程度는 못 될 것으로 본다.

美國은 現在 短距離 空中對空中 誘導彈이나 對航空機 誘導彈, 地對地 誘導彈 또는 空中對地上 誘導彈에 있어서 蘇聯을 훨씬 凌駕하고 있다.

空軍力の 差異

蘇聯空軍의 爆撃力을 再評價해볼때 『비손』과 『비아』等 長距離 爆撃機의 生産現況은 二年前에 豫期하였던 바와는 많은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美國은 蘇聯의 『비손』爆撃機 保有量보다도 더욱 많은 『B-52』『갯트』爆撃機를 保有하고 있다. 『타보』·『프로프』의 蘇聯製 『비아』爆撃機는 極少數이 生産되고 있다.

오늘날 蘇聯의 有人操縱爆撃機의 効果는 原則적으로 中距離 「갯트」爆撃機인 『파자』型에 依存하고 있으며 다음은 短距離 輕爆撃機에 依存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有人操縱의 中距離 및 長距離爆撃機等에 있어서 量的으로나 質적으로 優秀하다는 것이 共通된 意見이다. 如何間 美國은 來會計年度內에 重爆撃機, 中 및 輕爆撃機, 輸送機, 攻擊機나 戰術爆撃機等約四千乃至五千台를 가지게 될 것이며 또 두가 「에가」·「온」級 (TNT 百噸의 爆發力과 比較된)의 爆發力을 가진 核武器를 積載할 것이다.

美 戰略空軍司令部는 各各 四十五機의 航空機로 構成된 三十九個의 爆撃師團을 保有하고 있으며 偵察機를 包含하여 二千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蘇聯의 長距離 爆撃空軍과는 比較되 지 않을만큼 強大한 能力과 訓練, 實驗施設과 經驗을 가지고 있다.

海上의 移動基地에서 蘇聯基地 近く히 侵襲할 能力을 가진 美海軍 航空隊들은 航空母艦을 가지고 있지 않은 蘇聯과는 比較할 수 없이 強하다. 그런데 蘇聯은 戰

142

術用 輕爆撃機, 戰術爆撃機와 地上部隊 支援航空機類에 있어서 數의 으로 美國보다도 優勢하다.

그러나 美國은 疑問의 餘地없이 蘇聯보다도 더욱 大量的의 核武器를 貯藏하고 있다.

空中防衛力の 比較

有人航空機 特히 高度度航空機의 侵攻에 對한 美國의 空中防衛는 最近에 와서 水素彈頭를 裝置한 新式航空機, 對空砲 및 空中對空中 誘導彈의 發展으로 엄청나게 強化되었다. 그러나 核武器攻擊을 비롯하여 艦上基地나 潛水艦에서 發射되는 誘導彈等을 防衛할만한 能力이나 長距離彈道 誘導彈에 對한 防衛力은 適當하다고 볼 수 없다.

蘇聯亦是 우리와 같이 彈道誘導彈에 對한 防衛能力이라곤 없다. 그러나 有人航空機에 對한 空中防衛體制는 매우 優秀하며 더욱 強化되고 있다. 어떠한 情報消息通은 蘇聯이 美國보다도 十배나 많은 「메이다」網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美國의 戰略空軍은 이와 같은 事實에도 不拘

하고 蘇聯을 擊滅할 수 있다고 確信하고 있다.

最近에 入手된 作戰情報評價에 依하면 美國 戰略空軍이 蘇聯을 爆擊하러면 水素彈을 積載한 百台以上の 爆擊機가 必要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蘇聯의 對空砲網이 強化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爆擊機를 有効하게 使用하기 위하여 空中對地上誘導彈、敵機誘導電子裝置等 온갖 手段을 強化시켜야 할 것이다. 三百哩距離의 水素彈頭 超音速誘導彈을 裝備한 「B-52」 爆擊機는 이렇게 하여 敵對空砲의 彈着距離 밖에서 作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使用된 「노즈·아메리칸·GAM-77」 誘導彈은 이미 發注되고 最優先의 製造되고 있다.

海軍力の 比較

美國은 蘇聯에 比하여 絶對 優秀하며 大量의 海軍力을 保有하고 있다. 世界의 어느 海軍보다도 老練한 海上經驗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第二次大戰以後로 蘇聯의 海軍力 亦是 無視 못할 程度로 發展強化되었다.

最近의 蘇聯 海軍力建設計劃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顯著한 變化가 窺 보이고 있다.

첫째 約二年前 巡洋艦의 建造計劃이 中斷되었으며 建造中에 있는 艦船은 誘導彈發射用으로 改造되었다. 對空誘導彈과 水素彈頭를 裝置한 地上對地上 長距離誘導彈等을 裝備한 二十七隻의 蘇聯巡洋艦은 有事時 直刻의 美國의 海岸地帶을 奇襲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過去에 있어서 蘇聯의 潛水艦 建設計劃은 顯著히 遲延되었다. 이러한 現狀에서 그들은 潛水艦을 原子力으로나 誘導彈裝備 潛水艦으로 改造하고 있는 듯하였다. 事實上 蘇聯은 四七五台의 大潛水艦隊를 保有하고 있다. 그中 三分之一以上은 長距離 潛水艦이다.

現在 進水되고 있는 潛水艦에는 原子力 潛水艦이 없는 듯하며 一萬噸隻이 있다고 하더라도 作戰用 誘導彈을 裝備한 것은 別로 없을 것이다. 한편 美國은 現在 三隻의 原子潛水艦이 있으며 十六隻은 建造中 또는 建造許可를 받아 造船에 着手하고 있다. 또한 美海軍은 「베구터스」 誘導彈을

發射할 수 있는 二隻의 潛水艦이 있으며 數隻이 建造되고 있다.

地上軍의 比較

第二次大戰 當時 馬車와 牛車를 끌고 伯林攻擊에 參加한 蘇聯陸軍은 戰後 必死의 人 增強을 繼續하여 名實共に 侵略軍으로서의 規模를 가르게 되었다. 蘇聯陸軍은 二萬「아드」에서 七百里距離의 長距離砲(大多數가 水素彈頭를 裝置)와 各種의 「트럭」, 巨大한 迫擊砲와 「켓트」式 水陸兩用戰車를 保有하고 있다.

143

第二次大戰 以來 처음으로 蘇聯의 陸軍力이 美國을 따라오고 있다.

蘇聯陸軍은 機甲、機械化 및 小銃等 三個部隊로 區分되어 있으며 最近에 와서 再編되어 美陸軍의 「펜트릭」師團 兵力과 近似한 一萬三千乃至 一萬六千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蘇聯陸軍은 最近 數의 若干 干增強되었다. 그러나 美陸軍은 若干 減軍된 것이 事實이다. 이와같은 事實로서 第一次大戰부터 第二次世界大戰 그리고 韓國戰爭에 이르기까지 美陸軍 一個師團의 火力은 蘇聯陸軍의 一個半乃至 三個

師團과 比等하다는 낮은 尺度는 옳은 것이 못된다고 볼 수 있다.

蘇聯陸軍은 充分히 武裝한 一七個師團을 平時 保有하고 있으며 有事時 三〇日 內에 三百個師團을 動員시킬 수 있다고 한다.

蘇聯은 陸軍力의 減縮을 累次 聲明하였다. 勿論 그들이 減軍을 할런지는 모르나 減縮된 軍人이 軍服을 벗는 程度일것이고 最小限 三百八〇萬名에서 最大限 四百二十萬名까지는 언제나 維持할 것으로 推測된다. 美國이 韓國戰爭 以後 二百六十萬八千名으로 (一九五七年十一月三十日 現在) 減縮한데 對하여 蘇聯은 決코 그들의 軍事力을 激減하지는 않을것 같다.

大體의 으로 美·蘇 兩兵力을 比較하는데는 一長一短이 있다. 美國軍이 舊인 前進 優勢한 點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點도 많다.

美國軍은 앞으로 世界平和를 維持하기 위하여 보다 더 積極的인 增強計劃에 着手하여야 할것이다. 軍事力의 各個要素가 좀더 均衡있게 展開되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侵略者에 對한 巨大한 集團報復能力

을 保有하고 있으나 小規模의 在來式、非原子戰爭에 卽刻의 으로 應할 수 있는 機動力을 缺하고 있다.

蘇聯이 人工衛星을 發射하기 以前의 美國政府 官吏들은 過去와도 같이 制限없는 武器를 使用하지 않는 制限戰爭을 더욱 重視하였다. 이터는 中에 蘇聯이 美國에 앞서 宇宙를 向하여 人工衛星을 發射하게 되었으며 美國官吏들은 다시한번 蘇聯에 對한 警覺心を 높이게 된것이다.

美國은 지금 軍事力 增強에 있어서 均衡問題와 速度問題를 充分히 考慮할 必要가 있다. 努力、精力과 資金은만 아니라 建實한 判斷이 必要할 것이다.

美國의 防衛力

在歐聯合軍 最高司令官 「로리스·노스」大將은 蘇聯이 如何한 形態의 攻擊을 取하더라도 卽刻의 으로 무게를 수 있는 絶對的인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다고 宣明한바 있다. 「노스」大將의 이와같은 意見의 基礎는 매우 重要한 事實위에 基礎하고 있다.

그 첫째 根據는 하늘에는 水素武器를

144

積載한 美國爆擊機가 恒常巡航하며 海上이나 分散 散在하는 多數의 軍港에는 언제나 美國 海軍의 航空母艦 그 밖에 艦船과 潜水艦等이 誘導彈을 裝備하고 待期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이 적어도 自由陣營에 對한 攻擊을 開始하더라도 이와같은 事實을 計算에 넣어야 할 것이다.

世界 各處에 散在하여 連鎖를 이루는 美國의 海外基地는 蘇聯의 中心部와 大端히 密接하여 있으나 蘇聯基地는 美國의 中心部와 相當한 距離가 있다. 正當的인 境遇에 있어서 武器의 到達距離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正確數는 더욱 커진다. 이와같이 보다면 海外諸基地에 配置된 中距離彈道誘導彈을 蘇聯 中心部에 發射할 때의 正確度는 蘇聯이 美國을 向하여 大陸間橫斷誘導彈을 發射할 때의 그것보다도 더욱 正確하며 有利한 것이다. 특히 이와같은 海外基地는 爆擊機의 駐屯에 커다란 利點을 提供하고 있다.

이와같이 美國軍은 全世界의 三六〇度 周圍에서 蘇聯에 向하여 攻擊을 加할 수 있는 基地를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局地戰爭의 危險

大規模의 戰爭이 勃發되는 境遇는 이와 같이 美國의 集團의 大規模의 報復力이 動員될 것이지만, 亞細亞 中東과 「아프리카」等地에서 小規模의 局地的 侵略戰에 遭 遇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局地戰에 相應한 能力도 어느 程度 準備 되어 있다. 美國이 活用하는 十四個의 陸軍師團中 八個師團과 三個의 海兵師團中 一個師團이 特定한 海外基地에 駐屯하고 있다. 勿論이 八個師團中 三個師團이 訓練師團이지만 世界의 어느 地域에서 非常事態가 벌어져도 優秀한 戰鬪經驗과 警異의 火力을 使用하여 即刻의 으로 行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兵力은 比較的 적은 편이다. 萬一 重武裝한 一、二個의 陸軍師團이 더 增加된다면 機動力은 더욱 強化될 것이다. 輕戰車, 迫擊砲, 野砲等을 비롯하여 戰術用誘導彈에 있어서 蘇聯의 實力도 無視할 수는 못된다. 美國은 앞으로 戰略的 陸軍과 海兵隊의 機動力을 速度와 量의 으로 增強시켜야 할 것이다. 海軍에 있어서도 高速度의 水陸兩用 艦艇이 切實히 要求되며 또한 水素武器를 裝備하여야 할 것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誌에서)

美國에서 新生活繼續

亡命中國人 43名 向發

中國本土를 脫出한 中國人亡命者 四三名이 美國에서 新生活를 享有하기 爲하여 今十四日 아침 當地를 出發하였다.

中國의 暴政과 壓迫에서 自由를 渴望한 나머지 香港에서 定住하기를 希望하던 同中國人亡命者中에는 科學教育部面에 從事하는 知識人들이 包含되어 있다.

中國知識人亡命者 救護機構인 美國民間慈善機構의 後援下에 二十五世帶로 構成된 一團이 昨十三日 下午 美國領을 出發하여 日本經由 美國으로 向發하였다.

日光으로서 電力을 生産

美、月世界發電所設計公開

日光으로서 電力을 生産하기 爲한

月世界發電所의 設計가 九月十日 「월스팅·하우스」電氣會社에 依해 公開되었다.

이 電氣會社內에 新設된 天體航空學研究所의 所長인 「페이더·카스트릭초」博士는 前記計劃이 이 問題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 聯邦軍當局 및 外氣圈關係者들에게 提示되었다고 말하였다.

日光發電所는 基本構成要素로서 鐵網糸와 化學藥品을 加工한 「프라스틱」판을 使用한다고 하며 日光이 「프라스틱」板에 加熱하게 됨으로써 거기 加工된 化學藥品을 通하여 電氣가 생기기 되며 이리하여 생기는 電子는 鐵網糸에 依하여 收集된다는 것이다.

「카스트릭초」博士에 依하면 이와 같은 發電裝置를 通하여 約一萬二百「키로와트」의 生産할 수 있는 바 이 電力은 「테레비존」一萬臺의 需要量에 相當하는 것이라 한다.

氣魄論



鷺山

李

殷

相

一

사람의 생활이란 본질적으로 투쟁의 성격을 벗어나
못하는 것이다. 나면서부터 모든 외부적 조건과 더불어
투쟁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추위와도 싸워야 하고, 더위와도 싸워야 하고, 먹어야
한다는 현실적 조건에서부터 상상해야 한다는 정신적문
제에 이르기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아니
산다는 사실과 투쟁은 둘이 아니요 하나이기도 한 것
이다.

이같이 산다는 사실이 이미 투쟁이요, 또 투쟁이란

근본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
이라면 곧 그대로 이기는 것이 삶이요, 지는 것은 주
검일 다름이다.

다시 말하면 산다는 일은 곧 승리한다는 말과 조금
도 다름이 없고, 그리고 또 패배와 주검이 같은 말이
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승리해야 한다는 조건뿐인 것
이다.

그러므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아니 중대하다고 보다는 오히려 결정적인 조건은 실로
다른 것 아닌 승리한다는 그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승
리의 요소 그것이 곧 인간생활, 다시 말하면 살아야 하
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요소인 것이다.

그러면 승리의 가장 중대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못가집이 곧 우리들 인간생활에 있어서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그 요소를 가지면 승리와 삶이 있고, 그것을 못가지면 패배와 죽음이 있을 뿐이라면 과연 그 요소처럼 중대한 것이 어디 있을 것이라.

그것이야말로 다른 것 아닌 「기백」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백」이란 것은 결코 절대성적으로 하는 말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백」이라고 한대서 과학적 사실이냐 또는 현실적인 모든 조건을 전연 무시해버리고 오직 유심론적으로 정신작용의 어느 일면만을 가지고서 이른바 승리한다는 요소의 전체로 내세우려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것이다.

개인과 개인과의 투쟁에 있어서나 더 크게 국가 민족끼리의 투쟁에 있어서나. 또 혹은 현실적 투쟁이든 사상적 투쟁이든지를 막론하고, 「기백」이란, 모든 조건 이전에 갖추어야 하는 투쟁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인 동시에 다시 그대로 과학적, 현실적, 내지 물질적인 모든 요소를 구사하는 주인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첫 마리에 꼽을 수밖에 없고, 또 그때서 모든 요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심지어는 승리라는 요소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를 저 임진란 때 「충무공과 거북선」, 「원균과 거북선」과의 관계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그 당시 육전에 있어서 우리가 여지없이 패배한 것이 오직 저 일본군의 조총(鳥銃)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전에 있어서 충무공이 백전 백승한 까닭은 오직 저 거북선 때문이었다고 해서, 승리의 중대한 요소를 오히려 저 거북선과 같은 과학적 무기 그것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없지 않을뿐더러 또 거기에 일면의 이치가 없는 바도 아니다.

왜 그런고하니 전쟁은 물론, 일체 생활의 전면에 있어서까지 결코 정신과 기제만으로 운영 또는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표면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는 한다면 과학적 현실적 조건이 훨씬 더 뚜렷하게 승리의 요소가 되어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같은 거북선을 가지고서도 충무공이 그것을 거느렸을 때에는 승리를 가져 오는 귀중한 요소가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원균이 가지고 뒀을 때에는 왜 적에게 산산이 부서지고, 깨졌기고, 또 전쟁 전면에 있어서 덜덜떨떨한 하등의 효과도 내지 못했던 것이니, 이처럼 꼭 같은 과학적 현실적 조건을 가지고서도 하나는 승리하는데 다른 하나는 패배했다는 것이 그 속에

중대한 다른 무슨 결정적인 조건 한가지가 더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과학적 무기는 지 또 현실적 조건이든지 그것이 온전히 제 가치를 발휘 하고 제 효과를 내자고 하면 오직 한가지 위대한 정신 력의 소유자가 그것을 구사한 연후에라야 되는 것임을 여실히 증거한 것이다.

또한번 이것을 분석해 말하면 아무리 위대한 정신력 이라 할지라도 정신력만 가지고서는 과학과 현실을 제 압하지 못하지마는, 그반면 과학과 현실의 주인공이 정신을 소유한 인간이기 때문에 필경은 정신력이 그 것의 앞을 그을지 않으면 그것은 다만 사공 없는 빈 배와 마찬가지로 무용의 존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조건 이전에 위대한 정신력을 먼저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결코 무기가 승패를 좌우하지 못하고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구사할수 있는 정신력의 소유자 인 인간이 승패를 규정짓는 것인 줄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정신력이 결여된 단순한 과학적 현실적 조건이란 것 은 마치 주인 없는 사나운 말과도 같다. 사나운 말만

이 나가서 전쟁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 은 그 아무것도 다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정신력이라 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를 느끼거니와, 그것이 바로 다 른것 아닌 「기백」인것을 말하고자 하는 하는 것이다.

二

나는 일찍 우리 역사를 읽다가, 비록 한조각 조그마 한 일화에 지나지 않지만는 惟政대사와 加藤清正과의 문답 한구절에 이르러 머리가 쭈뼛하면서 저도 몰래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감탄 격찬함을 금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임진란 중간에 일본과 서로 강화담판이 행해지던 한 때, 蔚山에 있더 왜장 加藤清正의 진중으로 찾아 들어 간 우리 惟政대사와 加藤과의 대담은 실로 역사적인 장면이 었다.

서로의 대화 중에 加藤이 문득 묻는말

「귀국에 어떤 보배가 있는가」

惟政대사 주저 없이 받아 하는말

「그대 머리가 보배다」

이말에 加藤이 물을 마주하면서 마주앉은 惟政대사 의 기개에 억눌려서, 감히 얼굴을 바로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 그것이 곧 「기백」의 한 좋은 뽀플이다. 기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꺾을 수 없는 기운이다. 누를 수 없는 기운이다. 정신력이 가장 강력하게 압축된 것이다. 그

러므로 그 압축된 힘이 터뜨려지는 때는 결코 저 탄환이나 칼따위로 는 비길 수 없는 무서운 작용을 하는 것이다. 惟政과 加藤의 회담은 비록 한가지 외교적 성격을 띤 것 뿐이요, 탄환과 화살로써 서로 죽고 살을 겨누는 파문은 열전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느 의미에서는 오히려 전쟁이상으로 승패를 결하는, 아니 뿐만 아니라 열전 그것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을 가진 점에서 실로 중대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던바, 거기서 우리는 보기 좋게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惟政대사의 별칭을 「說寶和尙」이라고 까지 하거니와, 그 당시 우리를 여지없이 짓밟던 왜적의 진속으로 혼자 들어가 그들의 최고지휘관인 加藤과의 대담에서 아무런 주저도 없이 「그대 자신의 머리가 우리 보배라」고 망언하던 惟政의 기백은 그것이 곧 우리들의 민족혼을 대변한 점에서, 그리고 또 당면한 적을 억눌러 진물케 한 점에서 절대한 효과를 거둔 승리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백은 결코 허장성세들의 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어떤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과장적 허세를 일러 기백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속 없는 허풍이라거나 또는 외교적 방편론적으로 하는 일종의 선전공세 따위를 일러 기백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열과 신념에서 솟아나는 막을 수 없는 「속」-「힘」의 발로인 것이다. 짐짓 뽀내기 위해서가 아니요, 저절로 나타나 지는 가장 자연적 필연적인 정신력의 발양인 것을 말함이다.

아무런 힘도 나를 누르거나 꺾을 수는 없다는 선언인 동시에 만일 나를 해하고 정의를 거슬리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될 때에는 단연히 나아가 그것을 제압하고 말살해 버리고야 말겠다는 포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야 한다는 정열과, 의욕과 또 투쟁에는 이겨야 한다는, 아니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다는 무서운 신념에서 터져 나오는 기운의 발양이 「기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자기안전, 자기보장, 자기방위 자기확립을 의미함인 동시에 투쟁단계로 돌입해서는 오직 승리만이 유일한 명제인 이상 상대자의 불의를 꺾고 무찌르고 말살함으로써 승리해야 한다는 지상의 목적을 달성함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선언을 내포한 것이다.

그러한 기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대전에서 있어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요청에 아무런 감격이나 정열이나 의욕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함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의 안위를 운명에 내어 던진 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이 된다. 모든 패배와 굴욕과 죽음에 무감각한 태도가 아니라면 이것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기백」이란 것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에는 아무것 보다도 절대방위와 절대공벌의 양면을 겸유한 껌을 수 없는 기운, 당적할 수 없는 기운인 「기백」 그것이 유일한 선행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三

충무공이 조정에 올린 장제 중에 그 당시 일반 국민들의 성격을 여실히 폭로한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쟁이가 열에 여덟 아홉이요, 용감한 자라고는 열에 한둘밖에 아니온바, 그나마 보통대는 분간할 수 없이 서로 섞여서, 무슨 소문만 들리면 그쳐 도망갈 생각만 내어 놀래며, 허둥대며

있지라 자빠지라 다투어 달아나니, 실사 그 속에 용감한 자가 있다한들 혼자 어찌 칼날을 무릎쓰며 죽자고 돌전할 수 있사오리까.」

(我國之人、憊者十居八九、勇者十中一二、而平時不爲分辦、混雜相聚、故風聲之來、輒生逃潰之心、驚動無常、顛倒爭奔、雖有勇者、其獨能冒白刃、殊死突戰乎)

이 한구절에서 우리는 진실로 깊은 반성과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겁쟁이가 열에 여덟 아홉이요, 용감한 자라고는 열에 한둘밖에 아니라는 지적이 이미 三百六十여년 전인 진란 그 당시 충무공의 말이 었던만큼, 틀림 없는 사실이 었을 것이므로, 오늘 우리들 국민성의 집약한 일면이 그만큼 오래 내려온 고맙지 아니한 일종의 전통이 었던 것을 생각해볼 때, 어찌 때 아픈 자국이 없이 이 말을 쉽게 잊어버리고 말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 겁쟁이와 용감한 자의 구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분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곧 다른것 아닌 「기백」의 유무인 것이다.

왕성한 투지와 을 죽임무론은 돌진과 아울러 최후승리의 획득이 오직 이 「기백」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가진 당시의 국민성을 지적한 것은 곧 그대로 전쟁 첫머리에 우리가 여지 없이 패배하였던 가장 중대한 원인과 요소를 폭로했던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부하들에게 신칙하여 무엇보다도 「기백」을 잃지 말기를 강조했었고, 또 그 기백을 발휘하는 한,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움직임수 없는 신념으로 가졌던 것이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예증은 충무공의 사적중에서

「신에게 전선이 아직도 열두척이 있사옵니다. 신이 죽지 않는한 적이 우리를 업수이 여기지 못하리이다。」

(臣戰船尙有十三、微臣不死、則敵不敢侮我矣)

한 한마디이다. 이것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元均이 해군 전부를 망쳐버리고, 배란 배는 모조리 다 없

애 버린 뒤, 충무공이 다시 나서 휩쓸린 전국을 바로 잡을 적에, 전라도 연해안을 돌며 도망해 남은 배, 겨우 十二척을 겨두어 거느리고 수백척, 적의 함대를 상대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너무도 빈약한 형세인것을 걱정하여 새삼스리 충무공을 동정하는 생각에서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 싸우라고 명령했을 적에 충무공이 그 같은 대답을 했던 것이다.

「내가 아직도 열두척이 있다」

이 말을 몇번이나 되 읽어보며 분석 음미해보라. 얼마나 천지 귀신을 울리는 한마디냐. 그 말 전부가 기백으로 찼다.

그 한마디는 열두척을 마치 일만 이천척이나 되는것 같이 생각하는 무서운 정열과 신념에서 터져 나온, 그러므로 아무런 힘도 감히 그를 억누를수 없고 꺾을수 없는, 그야말로 불사혼의 절규였던 것이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 적이 나를 업수이 여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말은 그대로 내가 살았다는 말이요, 내가 살았다는 말은 다시 그대로 내가 이겼다.

이긴다. 또 이길것이란 것을 약속 선언하는 말이다.

「아무도 나를 업수이 여기지 못한다」는 것과 또 「아무런 힘도 나를 꺾지 못한다」는 그것이 곧 그의 기백이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충무공은 그 기백의 힘을 가지고 그 기백 위에 든든한 신념을 세우고 그 굳은 신념을 애국의 불같은 정열로써 발양하여 마침내 무적의 간성노릇을 했던 것이요, 또 나아가 역사의 전환자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어느 면에 있어서든지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승패를 결하는 태세로 살아야 한다. 그만한 긴장으로써 생활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내가 여기 말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점에서나 또는 먹고 산다는 실현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민족의 중대한 역사적 단계가 조국의 진정한 통일과 자주를 가질수 있는나 없는나, 그리고 또 민주이념과 인간적 자유를 확보하는나 못하는나의 위태로운 교차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논리가 오직 민족적인 각도에서 전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디까지나 살아야 한다. 바로 살아야 한다. 힘차게 살아야 한다. 사는 것이 투쟁이요. 또 그것이 이미 투쟁일진대 이겨야 한다. 깨끗이 이겨야 한다. 여지없이 이겨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시대 이 민족에게 부여된 가장 뚜렷한 제목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우리 민족의 역사정신을 「피의 항쟁」에서만 찾을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또 거기에서 앞날의 전개도 있을 것이라 보거니와, 여기에 가장 진수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야말로 「기백」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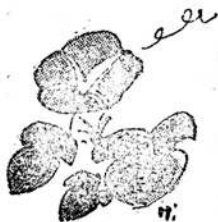
이긴다는 신념과 정열, 그것의 압축된 기운인 「기백」 그것이 필경은 승패와 생사를 결정 짓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다.

— (一九五八년 국치일) —

現代政治의 解明

金 敬 洙

153



I

民主政治의 定義는 觀點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人民에 의한 人民을爲한 人民의」政治라고 한 「린컨」의 定義는 自古로 民主政治의 本質을 가장 잘說명한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이것은 同時에 民主政治의 理念이었던 것이다.

周知되고 있는 바와 같이 民主主義運動은 佛蘭西革命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린컨」이 定義한 바와 같은 民主政治의 成立은 佛蘭西革命에서가 아니라 一〇世紀에 들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시작과 成立과의 사이는 長久한 歲月을 隔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그간의 經濟的 社會的 情勢의 變遷이 不可避하였으며 이

로 말미암아 民主政治의 初期의 理念이 一〇世紀에 이르러까지에는 變質을 겪게되었다. 이와 같은 事態에 對한 認識없이 二〇世紀에 成立한 民主政治—大衆民主主義—를 十八世紀의 理念에서 다루었을 때에는 現實的으로 提起되는 問題를 解決할 道理가 있을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過誤를 犯하게 되었던 西歐後進國家에서는 그 結果 共產主義 또는 「파시즘」이란 反動的인 政治秩序의 擡頭를 招來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면 佛蘭西革命에서 시작된 初期 民主政治는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變質은 또한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보기로 하자.

II

民主主義의 政治秩序의 成立以前的 歐羅巴의 共通된 舊

秩序는 特權階級과 結托한 強力한 君主政治로서 中央集權의 絶對君主政治 또는 絶對主義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었다. 이時機에 있어서 政治의 權力은 身分과 結付된 것으로서 所謂 特權階級은 免稅의 特權을 가지면서 스스로는 課稅權을 享有하고 國民大衆은 이러한 各種의 貢納과 封建的義務에 허덕이며 貧困에 呻吟하였다. 이러한 舊秩序를 打倒하고 新秩序를 樹立하려는 運動이 佛蘭西革命이었던 것이다. 舊秩序下에서의 當時의 佛蘭西의 狀態를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佛蘭西의 專制政治는 「내가 바로 國家」라고 豪言한 國王 루이十四世때부터 強力하게 成立되어 루이十六世에 이르렀다. 루이十六世는 「王權은 내手중에 있고 모든 命令은 나로부터 나가며 王은 最高執行者이다. 國民과 나눈 同一하며 따라서 國民의 權利와 利害를 나의 權利와 利害와 같으며 모두 나의 掌中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當時가 짐작될 수 있다. 王은 恣意로 支拂命令書를 發하면 國民은 오직 이에 順應納付할 따름이며 이에 對한 質疑가 許容되지 않는다. 王室費와 國庫가 區別되지 않고 있다. 王은 徵收된 돈의 額數와 用途를 國民은 알 길이 없다. 國王의 奢侈와 浪費는 國民의 負擔을 말할 수 없이 過重케 하였다. 國民의 財産에 對한 王의 權限이 이러하였지만 國民의 身體에 對한 王權도 이에 못지 않았

다. 逮捕는 王의 恣意에서 行해졌다. 裁判形式이 없으니 投獄된 者를 王이 想起하거나 또는 그 누가 救命運動을 하기 前에는 出獄이 不可能하다. 또 이러한 逮捕狀을 入手하는 것은 國王側近者에게는 容易한 일이니 이것이 敵을 해 치우는 가장 效果的인 手段으로 利用되었다. 有名한 政治家 「미라보」는 青年時代의 그의 放蕩을 阻止하려는 그의 父親과 문에 이러한 逮捕狀에 依하여 數次 投獄되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當時의 國民의 存在는 身分의 存在로서 이 身分은 出生과 同時에 固定되는 것이었다. 爲先 第一階級으로서 僧侶階級이 있었다. 敎會奉職者인 이들은 佛蘭西의 全土地의 五分의 一을 所有하면서 그들의 土地는 神에 獻納되었다는 理由에서 祈禱로써 納稅할뿐이며 免稅의 特權을 가졌었다. 한편 敎會는 國民으로부터 十分의 一稅를 徵收하여 莫大한 致富를 하였다. 그들중의 高級僧侶는 宮廷出入者이며 王의 側近이었다.

第二階級인 貴族階級도 廣大한 土地를 所有하고 있으나 免稅의 特權을 가지고 있는 한편 百姓의 收入의 一部를 徵收하고 있었다. 邸宅안을 지나가는 家畜에 對한 課稅, 製粉設備을 設置하고 農民의 利用에 對한 課稅, 또는 百姓과 隣接하고 있다고 하여 그 販賣價格의 五分의 一을 強取하는 등의 過重한 貢納을 百姓에게 負擔케 하고 있었

다. 또 그들이 가지는 狩獵의 獨占權으로 말미암아 百姓은 農作物에 害로운 獵獸를 追스릴 수 없고 또 그들의 領地에는 塔모양으로 된 비둘기집에는 數千의 비둘기가 있어 播種한 씨를 먹어버리지만 어찌할 道理가 없었다.

第三階級인 國民大衆은 無權의 存在이며 그들의 大部分은 農耕에 從事하는 農民이었다. 이를 農民以外的 都市에서 살면서 商工業에 從事하는 所謂 市民階級이 있었다. 그들은 商工業의 發展으로 말미암아 漸次 經濟的實力을 增大해 갔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當時의 社會的 政治的 權利는 돈이 아니라 身分을 基礎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비록 經濟的으로는 強力해져 가고 있었지만 亦是 社會的 政治的으로는 無權狀態에 있었다.

III

經濟的으로 實力을 增大한 市民階級이 舊秩序를 打倒하고 새로운 秩序를 樹立하려는 運動이 佛蘭西革命이었다. 다만 이곳에서 注意해야 할 것은 革命的 擔當者는 비록 市民階級이었지만 그것이 市民階級の 運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民運動으로 展開되었다는 點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特權的 異邦人의이며 異質的인 第一 第二階級을 除去한다면 나머지는 同質的인 第三階級만이 남게 되

며 이 第三階級이 「國民의 全部」라고 생각 되었기 때문이다.

佛蘭西革命을 國民運動으로 展開시킨데 큰 役割을 한 것으로서 所謂 啓蒙思想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啓蒙思想은 한결 같이 舊秩序의 矛盾과 缺陷을 暴露하고 새로운 秩序를 設計하는 한편 萬人에게 共通된 自由와 平等을 主唱하였다. 이제 新秩序를 建設하려는 佛蘭西革命은 市民階級の 經濟活動의 自由保障 또는 國庫에 對한 債權者로서의 市民階級の 國政參與의 主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啓蒙思想을 基礎로 하는 萬人의 自由와 平等을 마련하는 運動으로 믿었고 또 그러한 理念과 宣傳으로써 展開되었기 때문에 國民運動化할 수 있었던 것이다. 革命後 宣布된 「人權宣言」과 佛蘭西最初の 「一七九一年憲法」은 이러한 事情에서 나온 것이었다. 即 前者는 上述한 佛蘭西革命의 理念을 具現한 것이며 「憲法」은 革命의 具體的 目標였으니 國民의 身體과 財産에 對한 支配者의 恣意的 支配와 侵犯을 막는 手段으로서 憲法과 議會를 가지자는 것이었다.

IV

佛蘭西革命의 成功으로써 이제 立憲政治, 法에 依한 支

配의 原則이 確立되었고 또 舊特權階級이 打倒되었으니 國民社會의 構造는 同質的인 것이며 이러한 國民社會에 있어서의 利害關係는 對立的의 아니라 調和된 것이라고 기대되었고 國民은 다 같이 自由와 平等을 享有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現實은 이러한 理想에서 먼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革命의 果實로서 얻어진 議會의 選舉가 財産條件이 붙어있는 「制限選舉制」라는 點에서 端的으로 表示되었다. 이하하여 이제 政治的參與은 「身分」代身「財産」을 그 基礎로 하게 되었다. 이것은 革命의 主導的擔當者가 市民階級이었다는 것을 反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革命後의 國民大衆의 生活도 別로 改善된바가 없었다. 이로부터 大衆은 一七九一年憲法에 滿足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生活을爲하여 새로운 運動을 展開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다름아니라 革命의 理念인 萬人의 自由와 平等의 獲得이었다. 이러한 運動은 「普通選舉制」을 얻자는 것이다. 普通選舉制의 確立으로써 佛蘭西革命의 理念은 完成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身分」대신 登場한 「財産」을 打破하려는 運動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러한 運動은 過激한 運動으로 危險視되었으며 따라서 이를爲한 長久한 歲月에 걸친 鬭爭이 展開되었다. 民主主義의 歷史는 普選制의

歷史와 一致한다고도 할 수 있을만큼 이 運動은 英佛을 비롯한 各國에서 꾸준히 이루어졌었다. 民主主義的 先進國인 英國에서도 이러한 普選制運動이 成功한 것은 一九二〇年頃이었으니 이것으로 새로 그간의 情勢가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二〇世紀後半期에 이르기까지는 西歐諸國에서는 大體로 普選制의 成立을 보았으며 이로써 佛革命當時부터 展開된 民主化運動은 成功을 거두어 民主主義는 制度的으로 完成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第三階級이었던 國民은 同質的構造와 調和的 利害關係를 가진 國民社會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는가? 第一次大戰後의 國民生活은 그와는 反對의 것이었다. 普選制를 가져오는 目的은 단순한 民主政治의 制度的完成이 아니라 그것을 通한 人間다운 生活의 確保이었다. 普選制는 確立되었지만 生活의 改善이란 事態의 進展이 없으니 이것은 어찌된 것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

V

이러한 問題가 提起된 것은 普選制가 確立된 一九二〇年代를 佛革命當時로 溯及해서 생각한 차가에서 惹起된 것이다. 卽佛革命當時의 社會的經濟的 情勢가 그대로

一九二〇年代까지繼續되어 있는 것으로 前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實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第一第二階級만 打倒하면 第三階級은 同質的이라고 생각했던當時와는 判異한 國民社會가 成立되어 있다는 事實을 計算에 넣지 않고 있는 것이다.

周知되고 있는 바와같이 産業革命의 進行은 機械導入에 依한 工場生産으로써 産業의 發展을 促進하는 한편 所謂 資本家와 勞動者라는 階級을 擡頭케 하였다. 이 두 階級の 利害關係는 相反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따라서 이것을 社會的으로 본다면 第三階級으로부터 第四階級の 發生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勞資의 對立이 激化되던 될수록 國民社會의 同質的 構造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異質的 社會構造를 土臺로 하여 普選制에 依한 議會가 構成되더라도 그 議會는 尖銳한 利害關係의 對立으로 말미암아 問題의 解決을 期待하기는 困難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第三第四階級の 對立이란 事態에 對한 認識없이 普選制의 確立에 問題解決의 길을 求한다면 結局議會는 無力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議會를 버리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實例가 바로 共產主義와 파시즘이었다. 卽前者는 勞動階級の 議會를 떠나서 暴力으로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것이며 後者 亦是 이에 對備하여 資本家の 後援下에 實力으로써 하자는 것으로서 모두

破壞와 暴力을 爲主로 하는 反動的 傾向을 띤 것이다. 이러한 解決方法이 올바른 것이 못될뿐더러 오히려 人間의 큰 不幸을 招來하였음을 우리는 史例에서 體驗하여 왔다. 그렇다면 眞正한 解決方法은 어디서 求해질 것인가?

VI

普選制의 確立은 위의 說明에서 十八世紀的 民主主義의 完成이 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普選制의 成立은 實로 새로운 政治秩序의 成立이었다. 그러므로 새로 成立된 이 政治秩序에 適合한 새로운 政治制度가 마련 되었어야만 하였다. 새로 成立된 大衆民主主義에 對한 認識이 없어서 悲運을 겪은 獨伊와는 달리 英美에 있어서는 大衆民主主義에 對한 認識이 正確했고 그 對策도 成功的인 것이었다. 이點에 關하여 英國의 경우를 概觀해 보자.

普選制가 成立하자 英國保守黨은 從來의 有產者的 立場을 떠나 建設的 政策을 樹立하였다. 「勞動大衆의 보다 좋은 環境」을 爲한 努力과 所謂 Mass Bribery 라고 불리워지는 政策—失業, 住宅 養老年金等—을 세워 保守黨이 特殊利益의 代辯이 아니라 英國人을 爲한 것으로 改

알아야 한다.

런킨이 말한 민주政治의 定義는 大衆民主主義의 成立으로써 實現되었다. 大衆은 政治의 主體이며 또 그目的이기도 하다. 大衆民主主義의 成立은 새로운 政治秩序이며 따라서 十八世紀의 民主政治의 概念과 制度는 修正을 받지 않고서는 올바른 認識과 問題의 解決이 不可能함을

VII

造되어 갔다. 卽對立되는 勢力과의 決死的 鬭爭이 아니라 大衆을爲한 修正主義의 福祉政策을 採用하였던 것이다. 政治制度의 으로는 執行權을 強大化하여 國家의 自由放任을 止揚하고 福祉政策의 強力한 遂行이 있었다. 한편 社會主義의 立場에서 는 英國勞動黨은 個人의 黨員資格을 認定함으로써 從來의 黨員資格이 勞動團體에 局限됨으로써 階級政黨의 色彩을 버리고 國民政黨 大衆政黨으로 方向으로 轉換하였으며 社會主義를 표방하면서도 英國의 傳統인 自由主義의 遺産을 繼承하고 또 福祉政策住宅 失業 老年 年金을 採用하였다. 이와 같이 保守勞動의 兩黨은 對立하면서도 서로 接近해 갔으며 다 같이 「大衆으로 가는 길」을 擇하였던 것이다.

十八世紀의 民主政治에 있어서의 政治的 原則의 代表的인 것은 三權分立이었다. 市民階級の 自由로운 經濟活動과 財産의 自由를 爲해서는 執行權의 強大化가 阻止되어야만 했기때문이었다. 또 議會는 이러한 目的을 爲해서 存在하는 것이며 敎養과 財産있는 사람들의 愉快한 社交이며 그들에게 負擔되는 負擔을 輕減하도록 하고 그들의 自由를 保障하려는 機關에 그치는 것이었다. 選舉는 財産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代表를 뽑는 行爲이며 따라서 이는 從來 國家機關을 選出해 내는 行爲라고 하는 定義에 그치는 것이었다. 政黨도 市民階級內에서의 政派的인 存在에 不過했으며 國民의 利害에 關한 政策을 내세운 것은 選舉權擴大를 主張한 一八三〇年代의 英國自由黨이 처음인 것 같다.

그러나 大衆民主政治下에서는 이러한 政治的 原則과 制度는 그內容이 變質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政治의 原則은 三權分立이 아니라 二大政黨主義인 것이다. 三權分立은 自由의 保障이란 使命을 다 하더라도 그것은 消極的인 것에 不過하다. 大衆民主主義下에서는 自由의 保障을 넘어서 大衆의 福祉가 目的으로 되었으니 大衆의 보다는 福祉의 政綱과 強力한 그 實現을 서로 다루는 二大政黨의 對立主義가 積極的인 原則으로 登場하였다. 따라서 議會는 이러한 福祉政策의 實現을 爲한 機構으로 되

는 새로운 意味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國家機關의 選出을 넘어서 實로 權力의 認證(sanction)의 役割을 하게 되었다. 選舉는 누구를 權力擔當者로 할 것인가를 決定하고 또 그 交替의 變更을 平和的으로 이룩하는 手段으로 되었다. 古代에는 神이 中世에는 身分이 近代에는 財産이 政治的 權力의 基礎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權力은 人民으로부터」로 되었다. 그러므로 政黨은 國民과 密接한 聯關을 國民의 政黨으로 되고 福祉政策의 立案과 實現에 努力하는 團體로 되었다.

이와 같은 政治的原則과 政治制度 및 그 運用을 通하여 大衆의 福祉가 綜合的으로 向上될 것이며 大衆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方向으로 發展해 갈 것이 期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國際的 共產陣營과의 對立에서 前世紀의 인 尖銳의 對立이 아직도 殘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對立의 解決도 結局 어느 陣營의 制度가 大衆의 幸福한 生活을 보다 더 確保해 주는 가에서 求해 질 것이다. 卽 權力和 政治는 人民을 떠나서는 無意味한 것이므로 人民이 選擇하는 制度和 秩序가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있으니 議會가 會期를 無視한 常設的 機關으로 되었고 그 權限도 從來에 比하여 廣汎한 것으로 되었다. 特히 選舉

그렇다면 人民은 果然 兩陣營의 어느 쪽의 制度를 擇할 것인가? 이에 對한 答은 얼마나 많은 數交의 人民이 每日 같이 鐵의 帳幕을 넘어오고 있는 가를 생각해 보면 自明한 것이다.

(筆者 高麗大學 教授)

쥐 먹은 代身에

實驗臺에 오른 고양이

미국「오—구릿치」에 있는 어떤 原子力研究所의 「호렌더」博士는 放射能實驗에 쥐를 使用하고 있다.

어느날 實驗員이 여섯마리의 쥐를 넣은 容器를 복도에 둔채 잊어 버렸더니 다음날 아침 빈 容器 옆에 한마리의 고양이 滿腹이 되어 줄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고양이君 쥐를 먹은 代價로서 放射能實驗臺에 오르게 되었다고 「유네브」國際原子力會議에서 「호렌더」博士는 報告하였다.

最近의 世界地圖



최 북 현 160

一、서론

二차대전이 끝난지 벌써 十三年이 지난 오늘이지만 복잡한 국제정세(國際情勢)에 따르는 지도(地圖)의 변천(變遷)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즉 한편에는 통일아랍 공화국이 생기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랍연방이 형성되어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도 반년이 못된 오늘에는 벌써 아랍연방이 해체되어 이미 끊어졌던 국토의 경계선(境界線)은 또다시 옛 그대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같이 역사(歷史)의 흐름은 수시로 국가들의 경계선을 변경시키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정치판도(政治版圖)를 표시하는 지도의 색채(色彩)와 국경선의

위치(位置)를 달리 나타내게 하고 있다. 이제 필자(筆者)는 제二차 대전을 전후(前後)하여서 변천된 이들 국가경계선들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二、二차대전 전후(前後)의 지도변천의 경과

二차대전을 전후하여 세계각국가들의 정치구역을 달리하게 된 동기(動機)는 첫째 대전직전에 있어서의 나치스 독일과 팻쇼 이탈리아, 그리고 군국주의(軍國主義)일본 등의 침략(侵略)에 의한 국토변경과 둘째는 二차대전중에서 전쟁직후에 걸쳐 국토팽창(國土膨脹)에 여념(餘念)이 없었던 공산주의 소련의 영토확장, 그밖에 셋째로는

새로이 일어난 민족국가(民族國家)들의 등장들이 주요한 지도변천의 동기가 되고 있다.

1. 군주주의 논가들의 침략

대체로 1차대전이 끝난후 한동안은 국제적 안정이 되려는듯 그 기세가 보이는 하였으나 一九三〇년이 지나면서 점차로 새로운 국제적 불안(不安)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차대전에 패망하였던 독일의 급속적인 성장과 이에 뒤이은 이탈리아 그리고 동양에서의 일본의

독일의 국경변천



해의 진출(海外進出)들이다. 즉, 유럽에서는 독일이 一九三三년에 인민투표(人民投票)라는 구실로 국제관리지구(國際管理地區)였던 자르(Saar)지방을 점령하고 一九三六년에는 군비금지구역(軍備禁止區域)인 라인랜드(Rheinland)에 진주하여 재무장(再武裝)하는 한편 계속 一九三八년부터는 오스트리아(Austria)·메멜(Memel)·즈데텐(Sudeten)·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의 전국토를, 그리고 단치히(Danzig)자유시를 강점하고 드디어 一九三九年九月말에는 폴란드(Poland)에 침입하여 소련과 국토를 양분(兩分)하였다.

한편 이탈리아는 一九三五년이후 해외로 진출하여 에티오피아(Ethiopia)·알바니아(Albania)·소말리랜드(Somaliand)의 일부들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극동(極東)의 일본은 이들보다 조금 일찍이 一九三〇년경부터 대륙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는데 一九三二년에는 그들의 괴뢰정권인 만주제국(滿洲帝國)을 세웠고 계속 상해사변(上海事變)을, 一九三七년에는 중일전쟁(中日戰爭)을, 뒤이어 내몽고(內蒙古)의 자치연합정부(自治聯合政府)를 세우는 등 그 침략적 행동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동서양에서의 침략적 행위는 그대로 정치구역을 일변시키게 되었으며 2차대전이 일어난 一九三九年 가을까지 계속하였다.

폴란드의 국토분할(1939)



二. 소련의 국토팽창(國土膨脹)

이상에서 말한바와같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등의 영토침략은 직접 二차대전을 일으키게된것인데 이와때를 같이하여 여태까지의 해양진출(海洋進出)을 꿈꾸던 소련은 속망을 달성코자 침략을 개시하였다. 즉, 一九三九년의 폴란드 국토의 동부를 차지하게 된 소련은 계속하여 一九四〇년에는 발틱(Baltic)해 연안에 있는 에스토니아(Estonia),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등 세나라를 침략하였다. 그밖에도 서북쪽에 있는 핀란드(Fin land)의 영토인 페칭가(Pechenga), 쿨랴르비(Kuolajarvi)지방, 라도가호(Ladoga L.) 서북연안을 차지하여 국경선을 서쪽으로 이동시켰고 二차대전이끝난 오늘에 있어서도 계속 국토의 확장에 고심하고 있다. 즉, 대전직전, 헝가리(Hungary)의 보호렝이던 루테니아(Ruthenia)와 루마니아(Rumania) 동북쪽에 있는 베사라비아(Bessarabia)지방을 강점하였고 멀리 극동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사할린(Sakhalin), 쿠릴열도(Kuril Is)등을 빼앗았다.

三. 새로운 민족국가들의 등장

이상과같이 열강국가들의 국토팽창정책에 의하여 지도가 변천되는 동기도 되고 있지만 이밖에도 二차대전의 결과 새로운 민족국가들이 등장하여 많은 지도를 변천시키고 있음을 볼수 있다. 즉 짧은기간이지만 침략당하였던 약소국가들이 다시 독립된 나라와 여태까지의 열강국들의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오랜동안의 민족운동의 결과로 독립된 나라들이있다. 대체로 다시 생성된 국가로서는, 한국,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에타오파아 등이 있고 새로이 독립된 나라는 베트남(Viet Nam), 라오스(Laos), 캄보디아(Cambodia), 버마(Burma), 인

— 도연방(India Union) 파키스탄(Pakistan) 세일론(Ceylon) 말라야(Malaya) 싱가포르(Singapore) 필리핀(Philippine) 인도네시아(Indonesia) 시리아(Syria) 레바논(Lebanon) 이스라엘(Israel) 약르단(Jordan) 리비아(Libya) 가나(Ghana) 등을 들을 수 있다.

三、지역별(地域別)로 본 지도변천

이제 二차대전을 전후하여 변천된 최근의 지역별변경은 다음과 같다.

1. 유럽(Europe) 지역

가, 대전후 없어진 나라 또는 지방.

대전전에는 지도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 대전이후 없어진

전(戰)의 결과로 생긴 지역



1948년 현재
1938년 현재
1913년 현재

나라 또는 지방을 든다면 발틱해 연안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들과 동루터시아지방인데 그 중 발틱 세나라들은 모두 소련의 가맹공화국(加盟共和國)으로 강제병합 당하였다. 이 나라들은 모두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나 一八세기에 이르러 러시아 영토로 되었고 그후 一九一八년에 다시 독립하였으나 一九三九년에 폴란드 동부를 점령한 소련은 一九四〇년에 이 지역을 보호한다는 기만아래 합병하였다. 한편 동루터시아지역도 남반부는 폴란드에 양도하고 북반부는 소련이 차지하였다. 대체로 이들의 발틱해 연안지역은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을뿐더러 빙식지형(氷蝕地形)이므로 토양이 나쁘며 기후도 한랭하고 지하자원도 매우 빈약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은 바다에 연한 위치이므로 해양예의 진출을 갈망하고 있는 소련에게 마침내 점령당하고 만 것이다.

나, 대전후 회복된 나라.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二차대전 직전에 없어졌던 나라들이 대전후 다시 생성된 것이 있다. 이는 즉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등인데 그중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두나라는 대전 직전인 一九三八년三월에 서 一九三九年三월까지의 一년간에 나치스 독일에게 강제통합당하였다. 즉, 영토 침략에 불타는 독일은 켈만민족의 통일을 구실로 一九三八년三월에 오스트리아를 침략

하였고 같은해 九월에는 뮌헨(Munchen) 회담의 결과로 마침내 一차대전후 공화국으로 출발한 이 나라는 독일 침략자들에게 유린 당하고 말았다. 대전후 이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주의 위성국가(衛星國家)의 하나로 등장하였는데 一九三九년 이전의 국토를 찾았으나 헝가리에게 빼앗겼던 루테니아(Ruthenia) 땅은 오늘날까지 소련에 빼앗긴 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다뉴브(Danube, R) 유역지대와 알프스(Alps) 산지로 된 나라인데 대전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등의 네 나라들에게 점령 당하고 있었으나 一九五五년 十一월에 이르러 옛 국토를 그대로 회복하여 중립국가(中立國家)로 독립하였다. 또한 폴란드는 一九三九년 九월에 독소 양국에게 분할되었던 나라로 대전후 다시 회복하였으나 그 국경선은 많은 변동을하였다. 즉, 동쪽의 소련과는 옛 국경선까지 찾지 못하고 一九三九년 당시의 소련이 강점하였던 국경선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으나 겨우 동북지방에 있는 발리스톡(Bialystok)지방이 아니라에 돌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서쪽의 독일과의 국경선은 오데르 나이세 라인(Oder-Neisse Line)이 되고 있다. 역시 소련의 위성국가인 이 나라는 위치, 기후(氣候), 인종, 정치적인 여러 면에서 볼때에 북부와 중부, 서부와 남부 유류들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점이지대(漸

移地帶)를 이루고 있다.

다, 대전후 국경이 변경된 나라.

대전후 국토의 경계선이 변경된 나라로는 루마니아, 헝가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소련의 위성국가들이고 국토는 소련의 침략에 의하여 축소되었다. 즉, 루마니아의 동북쪽에 있는 베사라비아(Bessarabia)지방은 동쪽의 우크라이나(Ukraine)혹토대에 계속되는 기름진 지역이며 대부분의 지형이 三〇〇미터 이하의 낮은 평원이므로 전면적의 七〇% 이상이 경작지화(耕作地化)되고 있다. 따



二차대전후 독립한 나라 (一)

라서 이곳은 그 독립적의의가 크므로, 소련은 주민의 반수 이상이 루마니아족계통임을 무시하고 농민의 대부분이 러시아말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땅을 강제 약탈하였다. 또한 항가리도 역시 대전전에 차지하였던 다뉴강이 북연안의 체코슬로바키아땅을 그대로 반환하였고 보호링으로 점령하였던 루테니아는 소련에 할양하였으므로 대전전의 국경선과는 크게 달리 나타나고 있다. 원래 루테니아 땅은 삼림이 무성한 산지지역으로 사암지대(砂岩地帶)를 이루어 농사에는 부적당하나 옛부터 목재자원이 풍부하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때에 그 자연환경이 항



二차대전후 독립한나라 (二)

가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대전후 이 땅은 아직까지 소련이 강탈한채 돌려주지 않고 있다.

II. 아시아 (Asia) 지역

가, 대전후 없어진 나라.

대전후 아시아에서 없어진 나라라는 지금의 만주지방(滿洲地方)에 군국주의 일본이 세웠던 만주제국(滿州帝國)이다. 물론 이 나라는 열강국들이 승인하지 않았던 관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겠으나 우리들이 여태까지 사용해온 지도에서 많이 볼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보겠다. 원래 이 지방은 옛부터 중국본토의 한족(漢族)과 다른 만주족(滿洲族)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일제(日帝)가 청(淸)나라의 후에(後裔)로 내세워 괴뢰정권을 일으키고 일본의 대륙침략기지로 하여온것인데 二차대전후에 없어졌다. 이곳은 석탄 철들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농산자원도 많아서 그 경제적의의가 큰 지역이 되고 있다.

나, 대전후 독립한 여러 나라.

아시아 대륙은 유류보다는 물질문명(物質文明)의 발달이 늦었으므로 일찍부터 유류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로 되어왔다.

따라서 오랜동안의 식민지 생활에 시달린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는 치열한 민족자주독립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같은 꾸준한 투쟁은 마침내 二차대전 이후에 우방제국가들의 도움으로 뜻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있다. 즉 인도지나반도(印度支那半島)에서는 영국인도의 한지방으로 있던 버마(Burma)가 一九四八년에 이와 전후하여 불령인도지나에서는 베트남(Viet Nam) 라오스(寮邦) 등이 각각 일어났고, 영국말레이는 一九五七년에 말라야, 싱가포르 등의 자치국가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오랜동안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여온 필리핀은 一九四六년에, 란령동인도(蘭領東印度)는 一九四九년에 인도네시아의 이름으로 생겨났으며 종교분쟁(宗教紛爭)으로 일삼던 인도반도는 드디어 一九四七년에 회교도(回教徒)의 파키스탄과 인도교도(印度教徒)의 인도연방으로 나누어 독립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은 그 교도(教徒)의 분포관계로 부득히 서부와 동부의 二개지역으로 분할독립되었다. 이듬해 一九四八년에는 세일론도 자치령으로 독립하여 여태까지의 식민지 지역은 점차 그 면모를 달리하게 되었다.

또한 아라비아(Arabia)반도에서는 프랑스영토였던 시리아땅에 一九四一年에 시리아와 레바논이 독립하였고 영국의 위임통치지역(委任統治地域)이었던 요르단이 一九

四六년에 같은 팔레스타인(Palestine)지역의 一九四九년에 유대교도들의 이스라엘에 등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나라들의 새로운 등장은 여태까지의 지도에 많은 변동을 가져온 것이다. 더우기 一九五八년에는 에집트(Egypt)와 시리아(Syria)가 합방하여 통

일아랍공화국을 이루자 이에 대립하기 위한 국가로 이라크(Iraq)과 요르단(Jordan)이 합하여 아랍연방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후 반년도 못된 오늘에 와서 이라크국내의 혁명으로 전제국가제도(專制國家制度)가 붕괴되자 드디어 아랍연방은 해체(解體)하는 운명을 당하게 되었다.

다, 대전후 소속(所屬)이 변동된 지역.

대체로 대전이후에 그 관할권(管轄權)이 이양됨에 따라 변경된 지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一九〇五년의 로일전쟁(露日戰爭)의 결과로 일본이 차지하였던 사할린

청군스트라키아의 분고



(Sakhalin)과 쿠릴열도(Kuril Is)를 그리고 일제가 피륙 정권인 만주제국을 세워 대륙침략의 기지가 되었던 관동주(關東州)、이밖에 一차대전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있던 남양제도(南洋諸島)、대전후 미국이 맡고 있는 류큐(琉球)제도들이다. 즉 일본이 二차대전에서 패망하자 여태까지 점령하였던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소련에 반환되었고 중국, 만주지방 서남쪽에 들출한 관동주는 오랜동안 조차지(租借地)로서 사용해온 땅이 있으나 이것도 역시 중국에게 반환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위임통치지(委任統治地)였던 남양제도인 카롤린(Caroline) 마리아나(Mariana)제도들은 모두 미국의 신탁통치(信託統治)하에 들어갔다.

이밖에 아직도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류큐제도가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그 귀속(歸屬)이 결정될 것이다.

III. 아프리카(Africa)의 분

가, 대전후 독립한 나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직까지 민족적 자주독립운동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독립을 이룬 나라는 매우 적다. 二차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로는 오랜동안 터키 또는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一九五二年에야 겨우 독립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Libya)와, 十五세기말에 발

견된 이후 포르투갈, 네델란드, 영국의 식민지를 겪은 황금해안(黃金海岸)이 一九五七년에 독립한 가나(Ghana)들이 있다. 그밖에 앞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대전전 一九三五年에 이탈리아대가 침입하였다가 그후 一九四一年에 다시 회복된 에티오피아(Ethiopia)가 있는데 이 나라가 소생한것은 二차대전이 계속되고 있을무렵이었다. 이에 티오피아는 해안선을 갖지않는 북동 아프리카의 내륙국(內陸國)으로 十九세기 말경부터 이탈리아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다시 독립한것인데 一九三五年 재차 침략을 받고 이웃에 계속되는 이령 소말리랜드(Somaland)와 합하여 이령 동아프리카를 형성하였었다. 그러나 그후 영국의 무력에 의하여 다시 독립을 찾을수 있었다.

나, 새로운 신탁통치 영토들.

한편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식민지중에서 최근 二차대전 이후에 신탁통치 지역으로 정치체제(政治體制)가 변동된 지역을 들면 다음과 같다. 즉 기네아만(Gulf of Guinea)연안과 있는 토고랜드(Togo land)와 카메룬(Cameroons) 그리고 한때 에티오피아와 같이 이령 동아프리카(Italian East Africa)를 이루었던 소말리랜드, 동아프리카 연안지역에 있는 탕가니카(Tanganyika)들이다. 먼저 토고랜드는 十九세기말에 독일에게 점령되었다가 一九二二年 영국의 위임통치지역이 되었으며 최근

二차대전이 끝난 一九四六년에 영국의 신탁통치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카메룬 지방도 역시 원래가 독일 보호령이었던 것이 그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지로 나누어졌었다. 그러나 이곳도 一九四六년부터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탕가니카도 역시 十九세기 중엽에 독일이 점령하였던 것을 그후 一차대전후 영국영토가 되고 二차대전후에는 一九四五년부터 국제연합 관리하에 있다.

四、결 론

요컨대 오늘날의 세계의 지도는, 二차대전 이 일어나기 이전에 비하여,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많은 민족국가들이 나타났으므로 세계의 국제정세는 점차로 미묘화하고 있다. 여태까지 자주독립을 얻지 못한 지역에서는 민족적 자주독립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장래에는 계속하여 새로운 민족국가 지도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미 독립된 민족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국가세력의 주변에서 위협주는 열강국가들의 세력에 대해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들 국가는 합병(合併) 또는 유기적(有機的)인 결합(結合)의 형태로서 지도의 변천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이외에도 국제적인 협약(協約) 밑에서 잠정적(暫定的)인 지역의 구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

다. 즉 우리나라의 국토는 북한(北韓)의 전체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소유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시적이나마 휴전선(休戰線)의 이북땅을 공산괴뢰정권이 점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점된 사실이다. 이와같은 경우로서 一七度三〇分N 위선(緯線)을 경계로 베트남의 국토가 양분된 것이라든가, 유류의 독일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는 현상, 그밖에 도아지도 갈려져 싸우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현 실들을 보게 된다.

필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지도의 변천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국토, 국민의 주권(主權)이 대한민국을 비록하여 베트남, 독일, 자유중국에 각각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 국내정세를 올바르게 이해(理解)하기 위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세계지도의 세밀한 관찰(觀察)을 게을리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그들 변천되고 있는 지도를 통하여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지도를 변천시킨 직접적(直接的) 또는 간접적(間接的) 동기들을 서로 관련시켜서 인과적(因果的)으로 분석하여야 하겠다. 어디까지나 가장 새롭고 가장 정밀한 세계지도들 을바르게 이용하여 국가들간의 정치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유의(留意)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들의 전략적(戰略的)의의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겠다.

(筆者 서울대학교 教授)

軍

人

과

讀

書

— 글 읽는 즐거움 —



梁 柱 東

169

중국 의 名將 關羽가 陣中에서 노상 밤에 등불을 두르고 「春秋」를 耽讀하였다는 이야기, 「나폴레옹」이 「에집트」遠征 때에 軍務 倥傯한 장막 안에서 틈을 타 종종히 「피테」의 「베르테르」의 詩을 애독하였다는 「에피소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에도 저 曠世의 聖將 李舜臣 장군은 민족과 국가의 存亡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大會戰을 앞두고 우리 詩歌문화 最高의 작품인 저 「閒山 散記」의 名時調를 읊었을까 아니라, 散文으로 도 걸작인 「亂中日記」를 유유히 草하였으니, 그도 當 軍務의 여가에 「浩然의 氣」와 「不動의 자세」를 가르켜자 옛글을 종종 念讀하였으리라 상상된다. 또한 저 新羅花 郎徒들의 장렬한 滅身, 殉國의 의기는 독서를 통한 明 소

의 인격의 鍊磨가 그 뒷받침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근년 慶州에서 발견된 젊은 花郎들의 「맹세」를 들에 새긴 「王 誓記石」에는 다음과 같은 한 節이 있어, 그들이 얼마나 독서의 수양(당시의 學問대로 儒家의 經典)을 필수의 「課業」으로 삼았던가를 알 수 있다.

「別先 辛未年七月廿二日 大誓、詩·尙書·禮·傳·倫 得誓。」

◇ ◇

「軍人과 독서」— 예로부터 「文武兼全」이란 말이 있다. 군인에게 독서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軍人이라야 참으로 글을 읽을 줄 알 것이요, 「읽은 글」을 참으로 실지로 「살

린」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참다운「글」이란 단순한 文字의 羅列이 아니라, 「우리가 생을 어떻게 충실히 할가?」「남아가 어떻게 목숨을 뜻있게 사용할가?」를 가르치는「생명의敎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第一義의인 목표를 머리에 두고 글을 읽는다면, 군인의 독서의「理想」은 이미 달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 밖의 문제—이를테면 독서의「요령」에 있어서는 군인의 독서가 보통사람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以下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독서의 요령」 몇가지를 적어 보려 한다.



독서의 즐거움! 이에 대하여는 이미 東·西 前輩들의 무수한 언급이 있으니, 다시 무엇을 덧붙이랴? 좀 과장하여 말한다면 그야말로 孟子의 인생「三樂」에 모를지「독서·勉學」의 제 四樂을 追加할 것이다. 진부한 引文이나 만인周知의 逸話 따위는 일체 그만두고, 端的으로 나의 實感 하나를 피력키로 하자.

열살 전후때에「論語」를 처음 보고 그 첫머리에 나오는「學而時習之、不亦悅乎。」

云云이 大聖賢의 글의 허두로 너무나 평범한 데 놀랐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씀이면 孔子 아닌 小·中 학생이라도 넉넉히 말합적 하겠었다. 첫출에서의 나의 실망은 그 밑의 程子인가의 약간 街學的인 주석에 의하여 다소 그 度를 완화하였으나, 「論語」의 허두가 너무나 평범하다는 인상은 오래 가지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후 배우고 익히고 또 무엇을 남에게 가르친다는 생활이 어느덧 二三十年, 그 동안에 비록 아무런 성취는 없었으나, 몸에 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다시금 평범한 그 말의 진리이다.

—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程氏의 註는 위낙 군소리요, 孔子의 당초 소박한 표현이 그대로 고마운 말씀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名利와 虛華의 渦中을 뒀수 있는 한 超脫하여 하루의 단 몇시, 몇분이라도 오로지 진리와 求道에 고요히 沉潛하는 여유를 가질수 있음이 浮生百년, 더구나 현대인에게 얼마나 행복된 일인가! 하물며 난후 수복의 구차한 생활 속에서 그래도 나에게 三尺案頭가 마련되어 있고, 一穗의 靑燈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일천 어느 門生이 나의 著書에 題字를 청하기로, 나는 孔氏의 이 고마운 말을 실감으로 書贈하였다.



독서란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持說이다. 세상에는 실제적 목적을 가진 實利、實得을 위한 독서를 주장할 이가 많겠지마는, 아무리 그것을 위한 독서라도, 기쁨 없이는 애초에 실효를 거둘수 없다. 독서의 효과를 가지는 방법은 요컨대 그 즐거움을 양성함이다. 선천적으로 그 즐거움에 민감한 이야 그야말로 多性的 宿因으로 다복한 사람이겠지마는, 어렸을 적부터 독서에 재미를 붙여 그 습관을 잘 길러놓은 이도 그만 못지 않은 행복한 족속이다.

독서의 즐거움은 現實과에게나 理想家에게나 다 공통히 「발견의 기쁨」에 누워있다. 「컬립버스」적인 새로운 사람과 지식의 영역의 발견도 좋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식의 「위어즈워드」적인 영감·정건의 발견도 좋고, 더구나 나와 같이 「에메손」의 말에 따라 「천재의 작품에서 내버려뒀던 自我를 발견함」은 더 좋은 일이다. 요컨대 부단의 즐거움은 맨처음 「驚異感」에서 發源되어 진리의 바다에 흘러갈 것이다. 주지하는 대로 「프래맨의 호오머를 처음 보았을 때」에 「킷츠」는 이미 우리의 느끼는 바를 대변하였다 —

그때 나는 마치 어떤 天體의 監視者가 視界 안에 한 개 遊星이 헤엄칠을 본듯, 또는 壯大한 「코데스트」가 독수리 같은 눈으로 태양을 응시하고 — 모든 그 부하들은 미친듯 놀라 피차에 바라보는 듯 — 말없이 「다

리엔」의 한 봉우리를.



혹은 이미 定評있는 古典을 읽으라, 혹은 가장 새로운 세대를 호소한 新書를 읽으라. 자인은 각양의 견해와 자의 勸說이 있다. 전자는 가로되 — 「溫古而知新」、후자는 말한다 — 「生動하는 세대를 호소하라.」 그러나 아무래도一邊倒는 할수없는 일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지식인으로서는 東西의 대표적인 古典은 필경 섭렵하여야 할 터이요, 문화인으로서는 超현대적인 교양에 한 걸음이라도 나 오릴수는 없다. 문제는 각자의 취미와 성격과 목적과 교양에 의한 비율 뿐인데, 그것 역시 장요하거나一律로 규정할 것은 못된다. 누구나 古七·現三 制를 취하는 버릇이나, 그도 오히려 치우친 생각이고, 中庸이 좋다고나 할가.

多讀이나, 精讀이나가 또한 물음의 대상이 된다. 「男兒須讀五車書」는 전자의 주장이나 「博而不精」이 그 통폐요, 「眼光이 紙背를 徹함」이 후자의 持論이로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함」이 또한 그 약점이다. 아무튼 독서의 목적이 「미래를 헤쳐 금을 나타냄」에 있다면 필경 「多」와 「精」을 겸하지 않을수 없으니, 이도 역시 평범하나마 「博而精」三字를 표어로 삼아야 하겠다. 「博」과 「精」은

차라리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아니, 우리는 兩者의 개념을 궁극적으로 超克하여야 할 것이다. 宋人の 다음句는 勉學에 대하여도 그대로 알맞는 경계이다——

平蕪盡處是青山、行人更在青山外



나는 이 一文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시종 역설하여 왔거
니와, 그 즐거움의 흐름은 汪洋한 深衷의 바다에 도달하
기전에 우선 기구·간난 七顛·八倒의 괴로움의 峽谷을
수없이 경과함을 요함이 물론이다. 깊다 깊은 진리의 탐
구나 求道적인 독서는 말할 것도 없으나, 심상한 學習에
서도 서늘한 즐거움은 항상 「애씀의 밤」을 씻은 뒤에 倍
加된다. 비근한 一例로——요새는 그래도 스승도 많고 서
적도 흔하여 勉學의 초보적인 애는 적으니, 지금의 학생
들은 나의 소년시절보다는 덜 애쓰다고 본다. 나는 어렸
을 때에 그야말로 漢籍 수백권을 모조리 남에게서 빌어
다가 읽자·종일 베껴서 읽었고, 한문은 워낙 無師 독학
數學 조차도 혼자 깨쳐서 깨쳤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172

하였을가만는, 독서·研眞의 취미와 즐거움은 그 속에서
터득·양성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끝으로 笑話 한 토막——내가 十二·三세 때이니 지금
四十여년 전 일이다. 영어를 독학하는데, 그 즐거움이야
말로 한문만 日課로 삼던 나에게 「칼라일」의 이른바
[New Heaven and Earth] (新天地) 이었다. 그런데 그 獨
學書의 문법 설명에 「三人稱 單數」란 말의 뜻을 나는 물
라 「讀書百遍義自見」이란 古語만 믿고 밤낮 며칠을 그 項
目만 자꾸 念讀하였으나 종시 「義自見」이 안되어, 마침
내 어느 겨울날 아침 눈길 三十리를 걸어 읍내에 들어가
소학교장을 찾아 물어 보았으나, 그분 역시 모르겠노라
한다. 다행히 젊은 신임 교원에게 그말 뜻을 설명받아 알
았을 때의 기쁨이란! 나는 그날 왕복 六十리의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하도 기뻐서 저녁도 안먹고 밤새도
룩 책상에 마주앉아 적어 가지고 온 그 말뜻의 「메모」를
「독서」하였다. 가로되,
「내가 一人칭, 너는 二人칭, 나와 너 외엔 牛溲·馬渤
(쇠 오줌·말 오줌)이다 三人稱也라」

人工降雨의 理論

鄭 昌 熙



1. 緒 論

純粹한 意味에서 人工降雨라고 하면 人工的으로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비를 오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太陽을 動力源으로 하는 大氣現象으로서의 구름과 비의 Energy는 人間이 所有하고 있는 動力源과 比較할때 너무나 莫大하다. 따라서 人間이 所有하고 있는 動力을 利用하여 물을 蒸發시켜 구름을 만들고 비를 오게 함으로서 이를 利用한다는 것은 實로 어리석은 일이다. 現在 人工降雨라고 말하는 것은 以上 말한 것과 全然 다른 것이며 大氣中の 水蒸氣가 雲滴으로 나타나 있거나 또는 어떤 特殊한 狀態에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2. 雲滴의 生成

구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는 오지 않으며 이것을 人工的으로 오게 하는 것이 現在 말하고 있는 人工降雨이다. 人工降雨의 始初는 自然雨의 說明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自然雨의 說明은 氣象學에서 가장 어려운 問題이며 只今도 完全히 說明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困難하다. 따라서 自然雨를 考察하고 다음에 人工降雨의 可能性을 생각하기로 한다.

어떻게 하여 구름이 生成되는가는 問題는 오래前부터 說明되어 있으며 比較的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다. 水蒸氣를 包含하고 있는 大氣가 露點濕度以下로 冷却되면 極히 작은 雲滴이 空中에 浮游하고 있는 吸濕性的인 塵埃、煙氣、鹽粒等의 小粒子를 核으로 해서 凝結한다. 이러한 小粒子를 凝結核이라 하고 大氣中에는 凝結하는데 支障이 없을 정도로 豊富하게 包含되어 있다. 凝結核의 平均直徑은 $1 \sim 2 \mu\text{m}$ 이며 雲滴의 平均直徑은 $30 \mu\text{m}$ 이다. 그러면 凝結核이 없으면 凝結은 할 수 없는가? 또는 凝結核이 있어야만 반드시 凝結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生覺하여 보자. 英國의 物理學者 Kelvin 卿의 理論에

의하면 水滴은 表面張力 때문에 半徑이 작을수록 表面의 飽和 水蒸氣壓은 增加한다고 한다. 卽 平平한 水面에 對해서 飽和狀態(氣體가 液體나 固體와 接觸하고 있어서 分子의 出入이 없는 狀態)에 있는 濕潤空氣(水蒸氣를 包含하고 있는 空氣)도 작은 水滴에 對해서는 飽和狀態에 到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작은 水滴일수록 蒸發이 容易하고 凝結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水滴의 半徑 (cm)	8	10^{-2}	10^{-3}	10^{-5}	10^{-6}	3×10^{-7}
飽和相對濕度 (%)	100	100,001	100,001	101,2	115,7	301.

表: (水滴의 半徑과 飽和相對濕度와의 關係)

水蒸氣의 分子의 크기는 10^{-8} cm 程度이니까 大氣中에서 水蒸氣의 分子가 集中하여 雲滴을 形成하려면 大氣는 위의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00% 以上으로 過飽和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實際大氣에서 이러한 過飽和狀態는 생가지 않고 100%을 若干 超過해서 雲滴을 形成한다. 따라서 大氣中의 水蒸氣는 凝結核 없이도 凝結할 수 있으나 그러기 爲해서는 적어도 300~500%의 過飽和狀態라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實際大氣中에 이러한 過飽和狀態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은 凝結核이 豊富하다는 것을 말한다. 實際 以上에 말한 過飽和狀態는 現

在 原子核物理實驗에서 有名な Wilson의 霧函(cloud Chamber)에 의해서 細密히 實驗되고 있다.

3. 雨滴生成의 必要性

雲滴의 生成은 以上과 같이 理論上으로나 實驗上으로 說明할 수 있다. 그러나 雲滴 그 自體는 雨滴이 될 수 없다. 雲滴이나 雨滴은 다 같은 水滴이지만은 그 크기가 相違하고 따라서 落下速度도 相違하다. 雨滴의 平均直徑은 數 mm 인데 雲滴의 平均直徑은 0.03 mm 程度이니까 雨滴이 되기 爲해서 雲滴은 直徑이 100 倍로 增加하여야 하며 體積은 10^6 程度로 되어야 한다. Schmidt의 實驗式에 의하면 水滴의 直徑과 落下速度와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아래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雲滴은 거의 浮游狀態에 있고 雨滴과 같이 落下하지 않으며 가장 큰

直徑 (cm)	落下速度 (cm/sec)	雲滴의 數
0.0001	0.0029	雲滴의 數
0.002	1.3	雲滴의 數
0.02	78	가장 큰
0.2	596	비

表: (水滴의 直徑과 落下速度와의 關係)

雲滴이라 할지라도 地面에 到達하기까지는 거의 다 蒸發

하여 없지는 것이 普通이다. 따라서 降雨가 있으려면 여러개의 雲滴이 뭉쳐서 한개한개의 雨滴을 生成하여야만 한다. 勿論 한개의 凝結核을 中心으로 雨滴의 크기의 水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Houghton의 擴散方程式을 써서 計算한 結果에 의하면 작은 水滴은 큰 水滴보다 더 急速히 生成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雲滴은 같은 크기에 到達하는 傾向이 있다고 한다. 하나의 凝結核 周邊에 雲滴을 生成하려면 100秒를 要하는데 雨滴을 生成하려면 작어도 24時間을 要한다고 한다. 雨滴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水滴이 이러한 長期間 空間에 浮游할 수도 없고 또 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積亂雲에서 오는 驟雨를 說明하기는 大端히 困難하다. 따라서 하나 하나의 雨滴은多數의 雲滴이 急速적으로 뭉친 것이라고 說明하여야만 한다.

4. 雲滴에서 雨滴으로의 生成過程

獨逸의 氣象學者 Schmauss와 Wigand가 大氣中에서 雲滴이 Collid의인 分散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根據로 하여 雲滴이 colloid의인 不安定하게 될 때 急速히 雨滴이 生成된다고 말했다. Colloid의인 不安定이라는 말은 雲滴이 微粒子로서 大氣中에 存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雲滴의 Colloid의인 安定하면 雨滴은

生成되지 않고 구름은 있어도 비는 오지 않는다. 雲滴이 Colloid의인 安定한 條件은 다음과 같다.

1. 雲滴의 電荷가 同符號 同量일 것.
2. 雲滴의 크기가 같은 것.
3. 雲滴의 溫度가 같은 것.
4. 雲滴의 運動이 같은 것.

第1條件의 檢討——雲滴이 異符號의 電氣量을 가지고 있으면 相互引力이 생겨 Colloid의인 不安定을 招來할 傾向이 있다. 事實 雲滴은 雲氣量을 가지고 있으며 電氣의 符號도 相違할 수 있으나 이의 雲氣量은 너무나 적어서 雲滴을 結合시킬만한 힘이 생기지 않는다.

第2條件의 檢討——작은 水滴과 큰 水滴이 共存하고 있으며 큰 水滴은 작은 水滴보다 飽和 水蒸氣張力이 작으므로 큰 雲滴에서 凝結이 일어나고 작은 水滴에서 蒸發이 일어나 雨滴生成이 可能한 傾向이 있으나 計算에 依하면 이 影響은 無視할 程度이며 Colloid의인 不安定을 招來하지 못한다고 한다. 큰 水滴의 落下速度가 크니까 작은 水滴과 衝突하여 漸次 커져서 雨滴生成이 可能할 것 같으나 衝突하여도 작은 水滴의 全部가 큰 水滴에 附着되지는 않는다고 하며 따라서 雨滴生成의 原因이 될 수 없다고 한다.

第3條件의 檢討——高温의 水滴은 低温의 水滴보다 飽

和水蒸氣張力이 크다. 따라서 高温의 水滴에서 蒸發이 일어나고 低温의 水滴에서 凝結이 일어난다. 이 效果는 實驗 結果에 의하면 10°C 以上의 大氣에 있어서는 顯著하게 나타나며 雨滴生成을 招來할 수 있으나 氷点 以下の 溫度에 있어서는 無視할 程度라고 한다. 따라서 熱帶地域의 雲滴에 있어서는 비를 오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我國上空과 같이 寒冷한 곳에 있는 雲滴의 Colloid 的인 不安定을 說明할 수는 없다.

第4條件의 檢討——亂流의 作用으로 雲滴의 運動이 規則하게 되므로 衝突에 의해서 雨滴이 生成될 것 같으나 觀測에 의하면 甚한 亂流에 있어서는 降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Colloid 的인 不安全을 招來할 條件은 안된다.

以上 檢討한 結果에 의하면 4條件 다 寒冷한 民國上空의 雨滴生成의 過程 卽 降雨過程을 說明하기 困難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Bergeron의 學說

위에서 말한 4條件에 의해서는 中緯度地域의 雨滴生成을 說明할 수가 없으므로 1931年 諾威의 氣象學者 Bergeron이 Colloid 的인 不安定은 氷晶과 過冷却水滴이 混合되어 있는 구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過冷却水滴이라는 것은 氷点 以下の 溫度에 있어서는 結하지 않는 水滴을 말하며 飛行機의 氷着은 過冷却水滴이 機體에 氷結한 것이다. 따라서 雲中에 過冷却水滴과 氷晶의 共存을 假定한다는 것은 正當하다. 飽和水蒸氣壓이 相異한 過冷却水滴과 氷晶이 共存한다는 것은 매우 滋味있는 事實이다. 直經이 相異한 水滴의 飽和水蒸氣壓이 相異함으로써 큰 水滴이 成長한다고 생각한 것과 같이 飽和水蒸氣壓이 큰 過冷却水滴에서 蒸發이 일어나고 飽和蒸氣壓이 작은 氷晶에서 昇華(氣體가 直接 固體로 되는 現象, 또는 固體가 直接 氣體로 되는 現象)가 일어난으로써 氷晶이 成長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表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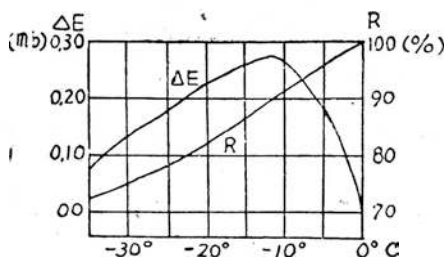


表 (ΔE : 물과 얼음의 飽和水蒸氣張力의 差)
(R: 얼음에서 飽和되고 있는 空氣의 相對濕度)

이와 같이昇華의 核心이 되는 物質을 昇華核 또는 氷結核이라 한다。獨逸의 Findeisen의 研究에 의하면 昇華核도 凝結核과 같은 役割을 하는데 昇華核이 없으면 大氣中の 水蒸氣는 -40°C 까지는 氷結하지 않으며 昇華核이 있으면 이것 보다 高溫度에서 氷結을 한다고 한다。Bergeron의 의하면 一般的으로 大氣中에 凝結核은 豊富히 存在하나 昇華液의 數는 大端이 적다。따라서 雲中の 過冷却水滴은 많고 氷晶의 數는 적으므로 多數의 過冷却水滴이 犧牲되어 小數의 氷晶이 成長한다 8個의 過冷却水滴에 對해서 1個程度의 氷晶이 共存하고 있다고 假定하면 氷晶이 落下할 수 있는 程度의 크기로 成長하려면 10~20分의 時間이 必要하다고 한다。이와 같이 Bergeron의 理論에서 塔狀積雲(水滴으로 되어 있는 구름)에서는 비가 잘 오지 않으나 積亂雲(上部는 氷晶으로 되어 있음)에서는驟雨が 내리는 理由를 잘 理解할 수 있다。한편 高緯度地方에서는 冬節 얇은 구름에서 눈이 오는 것도 理解할 수 있다。그러나 熱帶地方에서는 0°C 이상의 구름에서 도 비가 오는 데 이와 Bergeron의 理論으로서는 說明할 수 없다。그 理由는 0°C 이상에서는 氷晶과 過冷却水滴이 共存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Langmuir의 理論

0°C 이상의 구름에서 오는 降雨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水滴의 溫度差異 때문에 나타나는 飽和 水蒸氣張力의 差異로서 說明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Langmuir는 連鎖反應論(核物理의 連鎖反應과 恰似한 現象)을 樹立하였다。이 學說은 다음과 같다。積型雲中の 上昇氣流에 의해서 空中에 떠 있는 比較的 큰 水滴이 雲滴과 衝突하기 때문에 漸次 成長한다。이 水滴이 相當한 크기에 到達하면 不安定하게 되어 數個의 水滴으로 分裂된다。이 數個의 水滴은 다시 衝突現象에 의해서 成長되고 分裂된다。이러한 連鎖反應에 의해서 雲滴은 雨滴으로 變하며 上昇氣流가 弱하게 되면 落下하여 비가 된다。따라서 Langmuir의 說에 의하면 少數의 水滴을 雲中에 撒布시킴으로써 비를 오게 할 수 있다。實際로 여러 地方에서 이를 實驗한 結果 成功의 이었다고 한다。

7. 人工降雨의 可能性

以上 說明에서 두 가지 型의 비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溫暖雨이며 또 하나는 寒冷雨이다。氷點 이상의 구름에서 오는 비를 溫暖雨라고 하면 氷點以下の 구름에서 오는 비는 寒冷雨라고 할 수 있다。寒冷雨는 Bergeron의

理論에 의해서說明할수 있고 溫暖雨는 Langmuir의 理論에 의해서說明할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方法에 의해서 人工降雨을 可能하게 할수 있다는 結論에 到達한다.

1. 不足한 氷結核의 補充

2. 比較的 큰 水滴의 補充 (월수, 雲滴과 溫度差異가 있을 것)

現在 以上 두 가지 方法에 의해서 구름만 있으면 降雨을 招來시킬수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最初로 人工降雨의 可能性을 指摘한 사람은 獨逸人 Findeisen이다. 一九三八年 Findeisen은『未久에 科學的인 方法에 의해서 비를 오게 할수도 있고 雷雨를 防止할수 있을것이다.』라고 豫言했다.

3. Schaefer의 乾冰 Dry Ice의 使用

Find eisen의 豫言은 一九四六年 Vincent J. Schaefer와 Irving Langmuir의 過冷却水滴雲의 研究實驗에 의해서 實現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 두 사람은 第二次大戰中 飛行機의 氷着에 關한 問題를 研究하고 있었다. New Hampshire의 Washington山에서 實驗中 두 사람은 過冷却水滴雲中에서 生成되어 있는 氷晶에 큰 疑問을 가졌다. Bereron의 氷晶에 對해서가 이렇게 하여

過冷却水와 共存하게 되었는데에 對해서는 何等說明을 하지 않았다. 戰爭後 Schaefer는 家庭用 冷藏庫에 임금을 불어 넣음으로써 大氣中에 있는 過冷却水滴을 形成할수 있다는 것을 發見하였다. -18°C 附近에서 模型飛行機를 飛行시켰더니 翼前緣에 氷着이 생겼으나 過冷却水滴雲中에 氷晶은 生成하지 않았다. Schaefer는 冷藏庫內壁에 黑色 Velvet幕을 치고 光線을 비쳐 봄으로써 이를 確認하였다. 다시 氷結核이라고 생각해오던 煙氣塵埃等の 微粒子를 過冷却水滴中에 注入하여 보았으나 亦是 氷晶은 生成하지 않았다. 一九四六年七月 어느 더운날 冷藏庫의 溫度를 降下시키기爲해서 Dry Ice를 한 덩어리씩 넣어었다. 이 瞬間 Schaefer는 全 過冷却水滴이 倏然 사라지고 無數한 氷晶으로 變換한 것을 發見하였다. 이 氷晶을 顯微鏡下에서 본 結果 六角型의 雪片이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氷晶의 구름속에 임금을 다시 불어 넣었더니 生成된 過冷却水滴雲은 곧 蒸發되어 氷晶의 昇華하는 附着된으로서 Bereron의 理論과 完全히 一致하였다. 氷晶이 生成되는 理由로서 Schaefer가 Dry Ice(水點, -56.0°C)가 大端히 低溫度라는 것을 注目하였다. 如何한 過冷却水滴이라 할지라도 -40°C 보다 低溫度에서는 存在할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와 같다. 計算에 의하면 1gm의 Dry Ice가 10^{14} 개의 氷晶을 生成

할수 있다. 이러한 莫大한 數字는 少量의 Dry Ice를 廣範圍한 過冷却水滴雲에 撒布하여 降雨을 招來시킬수 있다는 可能性을 말한다. Langmuir와 Schaefer가 飛行機로 구름의 Dry Ice를 撒布할 計劃을 樹立했다. 一九四六年 11月 13日 Schaefer가 飛行機에서 Dry Ice를 뿌리고 Langmuir가 地上(Schecktady)에서 觀測하가 最初の 實驗을 했다. 西部 Massachusetts 에 있는 Grey-rock 山上 約 14000 feet 高度에서 數千 feet 의 두께와 約 4哩 기리의 過冷却水滴雲을 發見하고 Schaefer는 1哩에 對해서 1 pound 의 率로 Dry Ice를 撒布하였다. 撒布한後에 全體 구름의 模樣이 顯著하게 變化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한편 이곳에서 四〇哩 떨어져 있는 Schecktady에서 觀測하고 있는 Langmuir는 구름의昇華하여 생긴 降雪의 흐름을 볼수 있었다. 이 작은 구름에서 내리는 눈은 地上까지 到達하지는 못하고 다 蒸發해 버렸지만 큰 成果라고 할수 있다. 이 實驗은 低廉하고 簡單한 方法으로 小規模이나마 天氣를 人爲的으로 變化시킬수 있다는 것을 證明한 것이 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Schaefer와 Langmuir의 實驗은 氣象學의 새로운 分野를 開發하였다고 할수 있다.

6. Bernard Vonnegut의 沃化銀(AgI)의 使用

Schaefer와 前을 같이 한 Bernard Vonnegut가 過冷却水滴雲에서 눈을 生成시키는 別途의 方法을 探究中에 있었다. Bernard Vonnegut는 水晶과 恰似한 結晶을 다른 物質中에서 發見한 한다면 이는 氷結核의 役割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生覺했다. 一九〇〇種의 結晶에 對해서 結晶構造를 檢討한 結果, 水晶라지의 恰似한 結晶 AgI가 發見하였다. AgI의 結晶의 原子配置와 原子間의 거리가 거의 水晶과 같다. AgI의 微粒子를 冷藏庫에 撒布하였더니 亦是 過冷却水滴은 無數한 水晶으로 變했으며 實驗은 매우 成功的이 었다.

10. 氷 結 核

AgI가 人工降雨의 第二方法을 滿足하지 못하고 比較的低溫의 雲滴에만 效果的이므로 氷結核으로서 Dry Ice, 만큼 優秀하다고 할수 없으나 實際使用上 利點을 많이 가지고 있다. Dry Ice가 氷點下 如何한 溫度에 있어서도 氷結核의 役割을 하나 AgI가 -3°C 정도의 溫度에서만 氷結核의 役割을 한다. AgI의 가장 큰 利點은 煙氣로서 撒布할수 있다는 것이며 매우 低廉하다는 것이다. 1 gr

의 AgI과 100圖(五〇〇對1)程度이며 -18°C 의 구름에
撒布한 10^{16} 의 雪片을 만들수 있다고 한다. 過冷却水滴
雲의 AgI의 煙氣를 撒布시키면 全 AgI는 瞬間의으로
다 氷晶을 形成시키는 것이 아니고 放射能物質에 있어서
의 崩壞와 같이 徐徐히 核作用이 進行한다. 따라서 어느
原子가 崩壞하느냐 하는 것을 알수 없는 것과 같이 어느
AgI의 粒子가 氷晶을 形成시키느냐 하는 것도 알수 없
다. 이와 같은 理由로서 放射能物質에 있어서와 같이
AgI의 折半의 氷晶을 形成시키는데 要하는 時間을 半減
期라고 한다. AgI의 半減期가 煙氣의 粒子의 크기와 主
로 溫度의 關係된다. 卽 -18°C 에서의 AgI 煙氣의 半減
期가 四秒인 데 -10°C 에 있어서의 半減期가 約一週일이
다. 한편 AgI가 Dry Ice와 달라서 普通의 大氣狀態의
서도 溶解하기 쉽기 때문에 直接 구름위에서 撒布할
必要가 없다. 地上에서 AgI 煙氣發生機만 設置하면 大氣
中の 氷結核을 일만든지 增加시킬수 있다. 實驗結果에
의하면 1 gr의 AgI의 煙氣가 100~1000 立方哩의 氷晶
生成에 可能하다고 한다. 한편 Dry Ice가 半減期가 생
각할수 없을 정도로 짧은 것은 溶解 蒸發하는 것에서
容易하게 理解할수 있으며 이 物質을 取扱하기가 困難하
다. 그 것만 잘 알수 있다. 이외의 氷晶核의 對해서 研究
한 結果 Schaefer가 天然의 氷晶核은 -12°C 이하

에서 氷結核의 役割을 하며 이 粒子들이 自然界에 存在
하여 天氣에 큰 影響을 주고 있다는 것을 發見하였다. 以
上 말한 氷結核은 寒冷雨를 招來하는 方法이나 溫暖雨에
있어서는 連鎖反應을 일으킬수 있는 水滴만 補充하면 되
므로 雲滴위에서 撒水하면 된다. 特히 물의 溫度를 雲滴
의 溫度와 相違하게 하면 더욱 雨滴生成이 促進된다는 것
은 Colloid 的인 不安定條件 三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11. 結 論

雲滴에서 雨滴을 生成시키기 爲해서 여러가지 物質을
撒布하는 것을 "Cloud seeding"이라 하고 人工降雨라고
말하면 cloud seeding을 意味한다. 一九四七年 美陸海
軍의 Project Cirrus (cloud seeding 研究를 爲한 計劃)
에 依한 實驗은 이하의 cloud seeding의 의해서 구름을
消滅시킬수도 있었고 積雲에서 降雨을 招來시킬수도 있
었으며 어떠한 狀態(大氣가 過冷却水에 對해서 不飽和
되어 있고 氷晶에 對해서 過飽되어 있는 狀態)에서는 거
의 푸른 하늘인데도不拘하고 氷晶雲을 生成시킬수 있다
고 한다. 一九四九年의 Project Cirrus의 의한 實驗은
山谷에 따라 地上에서 AgI의 seeding하였다. 이의 結
果 山頂의 積型雲은 普通에 보다 일층 降雨을 보였으며
Langmuir의 降雨分布의 分析 結果 Seeding의 分布하

一致함을發見하였다. 同時에 一立方哩에 對해서 1mg의 AgI면 充分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Seeding을 每週 火、水、木曜日 三日만 하고 그 외의 曜日에는 中斷하였더니 Seeding한場所뿐만 아니라 廣範圍한 區域까지 降雨의 週期性이 나타났다고 한다. Langmuir는 氣壓과 氣溫 週期的變化를 하고 있다는 것을 分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이 週期性의 漸次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하며 이는 여러 곳에서 AgI의 發生을 實驗하고 있기 때문이다. AgI의 半減期가 比較的 길기 때문에 大氣中에 氷結核으로서 作用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또 Seeding은 飛行機의 視程과 氷着을 防止하고 雷雨를 消滅시키는 데 使用할 수 있도록 研究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實際應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隘路가 많으며 Seeding과 各氣象要素와의 關聯性이 明白하지 않으므로 計劃적인 利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eeding의 効果도 充分히 利用 못하고 있다. Seeding에 의한 各氣象要素의 關聯性이 究明되면 直接人間은 大氣環流에 關與하여 人爲的으로 天氣를 完全히 變化시킬 수 있다고 말하게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筆者 中央觀象臺豫告課——

最初の蘇聯人「 뉴욕」觀光旅行

摩天樓 보고 精神 나간 듯

——가장 求景하고 싶은 것은 「월」街——

美國最大の 都市인 「뉴욕」이 처음으로 美國을 觀光旅行次 訪問한 「蘇聯」人의 눈에 어떻게 비치었을까? 이번엔 美國을 訪問한 十四名의 蘇聯人의 「뉴욕」行脚記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라임스·스케이」를 조용히 지나갈 때 그들中的 한 젊은 技師가 말했다.

『저것이 美國式 廣告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豪華로운 「네온·싸인」과 商店看板들 속에 쉬어 있는 어떤 煙草會社의 廣告板이다. 그 看板에는 男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의 담배에서는 정말로 煙氣가 나오며 파퀴를 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페스」가 繁華한 商街를 지나갈 때 어떤 商店앞에 한 罷業中の 勞動者가 罷業을 알리는 看板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一行中 建築家라고 하는 「마르그·오르토프」가 「저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質問하였다.

그는 그사람이 그의 雇傭主와 雇傭條件에 關해서 意見이 맞지 않아서 罷業中에 있는 것을 一般에 알리고 있는 것이라는 說明을 듣자 「그러면 아무도 저사람을 逮捕하지 않는가?」라고 質問하였다.

「페스」가 第五番街로 드러가니 百二層의 「엘과이어·스케이트·빌딩」앞을 지날 때 그들 蘇聯人들은 모두 精神나간 사람처럼 하늘 높이 솟아 있는 摩天樓를 쳐다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011面으로 繼續)

飛擊震天雷와 狒狼機



— 國史上에 나타난 兵器 이야기 —

洪 曉 民

머릿말

비상한때에는 비상한 인물과 또는 비상한 물건이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라는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 놓여있으면서도 군비(軍備)를 충실히 하지 않아 상비군(常備軍)이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불과 오천칠백칠십이명이란 숫자이었다. 이런 군사를 가지고 팔년간이란 전쟁을 하였다면 다들 놀래일것이다. 그러나 팔년간을 잘 싸우고 일본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손병절장(損兵折將)만을 하고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 이런때에 대개 무슨 무기로써 삼십만의 대병을 물리쳤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전쟁이란 처음에 군사가 없더라도 막기위하여는 우리나라의 전토(全土)의 국민이 모두 군사이었던 것이다. 이런때에는 비상한 인물과 비상한

무기가 나와 드디어 일본을 물리치게 한것이니 비상한 인물은 말할것도 없이 충무공(忠武公)이순신(李舜臣)장군을 비롯하여 권물(權栗)대장, 또는 망우당(忘憂堂)파재우(郭在祐)의 병장(義兵將)등의 많은 인물이 있는가하면 무기는 철갑선(鐵甲船)이란 구선(龜船)과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와 불랑기(佛狼機)등의 많은 무기가 쏟아져 나왔다. 오늘은 옛날의 우리나라에 있던 특히 임진왜란때에 썼다는 무기들을 역사상에 나타난 그대로 적어서 또는 그것을 나의 의견 을 붙쳐서 설명해 볼까 한다.

나는 원래 이런 무기에 대하여는 문외한(門外漢)이다. 그러나 국사(國史)를 공부하였다는것이 이런것까지 알것이라하여 편집자가 주문한 듯하다. 따라서 이것을 거칠한다면 역시 우정(友情)의 서어함을 나타내게 될것이란 생각이 앞을 서게 되어 무기지식(武器知識)이 전혀 백지(白

紙)이면서도 붓을 들게 되었다. 또

한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에 대하여 전문지식(專門知識)을 가진 분이 있다면 웃어달라는 말이다.

요컨대 이 글은 야화(野話)를 또는 민담(民譚) 더나가서는 전설(傳說)에 가까운 그런 글이란 것을 말해두는 바이다. 내 말은 약은 생각에 이런 말을 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못하는 것을 썼다는 비난(非難)을 다소 면해보자는 데서 이 머릿말을 쓰게 된 고충(苦衷)을 알아 주기바란다.

후(后)과 노(弩)

우리나라의 고대(古代)의 무기는 활(弓)이다. 그래서 중국(中國)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르쳐 동이(東夷)라 하였다. 이(夷)자를 파자(破字)를 하면 대구(大弓)이다. 큰 활을 썼다는 것이 또는 큰 활을 쓰는 것을 본 중국 사람이 있어 드디어 우리나라를 가르

쳐 동이라 하였던 것이다. 오랑캐라는 글자가 여러개 있는 중에 가장 나쁘지 않은 것이 이 『오랑캐』이다.

『오랑캐』강(羌)은 대개 서강(西羌)에 쓰고 있으니 이것은 양(羊)의 머리를 만들어 놓아 말하자면 양의 자손이란 속이오 『오랑캐적』(狄)은 개가 불을 든 것으로 이것은 북쪽에 쓰나니 가로대 『북적』(北狄)이다. 동쪽만을 큰 활을 쓰는 것으로 그대로 사람대우는 하였던 모양이다. 하여간 중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어떻게 혹하던가는 말할 것이 아니니 그만 두기로 하거니와 그러면 활은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났는가 하면 그것은 먼 고대(古代)의 석기시대(石器時代)에 나왔던 것이다. 물을 뿜듯하게 잘라 그것을 나무 끝에 붙들어 매서 쏘는 것이 비로소 창(槍)이 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대개는 물진너에서 맹수(猛獸)에게 던지었던 것이다. 어느 나라의 문화사(文化史)를 뒤져도 마찬가지

다. 왜 물진너에서 그런 창을 쏘는가 하면 맹수는 물을 진너오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물을 진너오는 시간을 이용을 하여 다라나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발달되어 활이 생기었으니 이것은 창을 쳐게 만들어 가지고 멀리 보내자는 데 있는 것이다. 창은 사람이 던지면 그것이 불과 백보(百步) 이내에서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활은 처음에 대(竹)를 휘여 뽕겨 본데서 이것을 휘여가지고 그 탄력(彈力)을 시험해보니 그것이 사람이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멀리 감으로 인하여 이것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처음에 사용한 것이 기록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활은 대를 휘여서 하던 것이 이제에는 여러가지의 경목(梗木)을 휘여 쓰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이 중국까지 알게지게 된 것은 당태종(唐太宗)이 고구려(高句麗)를 치러왔을 때 안시성주(安市城主) 양만춘(楊萬春)이

활을 쏘아 당대종의 원편 눈을 마친 것으로 우리나라의 활은 유명해졌다.

활이 유명해진 것은 이때부터로 당대종은 큰나라로서 적은 고구려에게 또는 안시성주양만춘에게 원편 눈을 맞은 것이 분하기가 짝이 없지마는 이것을 세상에 발표하기는 창피하여 그대로 회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일이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일은 이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활이란 것이 고구려의 유명한 무기이요 그시대의 또 한 새로운 무기로 되게 되었다. 중국에도 활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거리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활뿐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때 궁외(弓弩)라고 하여 대포와 같이 쓰던 시대이지만 성벽을 높이 싸울려고 그곳에서 내리 쏘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의 활이 가장 멀리 갔던 것이다. 이로써 보아 우리나라의 활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그때 세상에 있어 자랑거리이

던 것이다. 중국같은 데에서는 육예(六藝)에 활이 들어있는 것이다.

육예는 말하자면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라는 것으로 사가 곧 활 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활만 잘 쏘아도 이때는 장군 행세를 하던 때이니 한(漢)나라적에 이광(李廣)이라는 장군은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해졌으니 그는 어떤 날 대낮에 풀밭에 호랑이가 었드려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활을 연설어 세 번 쏘니 호랑이가 넘어지는 듯하였다. 이광장군은 호랑이를 잘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보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큰 바위(大巖)이었다. 그러나 화살은 모두 바위위에서 깊이 들어가 박이었고 역시 바위가 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일마름 움직였던 것이다. 이광장군은 신기하게 여겨 그 화살을 다시 뽑아 가지고 같은 거리에서 또 다시 화살을 쏘아 보았다. 그러나 이번은 화살이 들어박

키지 않고 튀어 나왔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나중에 결론지은 것이 만약에 호랑이에 게 물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 힘껏 쏘았다고 하는 데 있다. 말하자면 죽지 않으려 하여 전정신력을 여기에 다 쏘아 호랑이라고 생각한 것에 쏘았던 것이다. 지금도 이일에 대하여는 모두 이런 해석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궁외는 대개 북병전(伏兵戰)에 쓰이니 옛날 열국시대(列國時代)에 손빈(孫臏)이 그의 적수 방언(龐涓)을 때려 부실때에 마능도(馬陵道)에 방언이 도착할 것을 알고 그곳에다 『방언이 사차수하』(龐涓死此樹下)라 하여 써 놓고 밤중에 이 나무에 불이 비치거던 일제히 궁외를 쏘아 방언을 죽게 하라 하였더니 과연 그날밤에 방언이 이곳에 다달아 하얀 나무가 서 있으므로 불을 켜서 본 것이 채 마치기도 전에 화살이 비 쏟아지듯 내려와 방언은 그곳에서 죽고 『드디어 더방미

리자식의 명예를 높이엿도다!』하는
손님을 욕하는 소리를 남기었다는 역
사가 있다. 이 무기의 조직은 지금 같
으면 기관총같은 것으로 화살이 일제
히 몇십발씩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라
고 보아진다. 고대의 무기는 이 두
가지가 그 대표이었던 것으로 원거
리에서는 이것을 항상 사용하였고
삼국지(三國志)같은 데에서 노장(老
將) 황충(黃忠)은 활의 명수(名手)
로서 언제든지 교전하다가 달아나는
척하면 그 장수는 그를 딸았다. 잡
으려고 딸은 것은 말할나위가 없는 일
이나. 이때 황충은 재바르게 활을
꺼내 오는 장수를 마쳐어 죽이는 것
으로 유명하여 오호대장(五虎大將)에
끼워졌으니 그때 촉한(蜀漢)의 오호
대장은 관우(關羽), 장비(張飛), 조
운(趙雲), 마초(馬超), 황충이었던
것이다. 위(魏)나라의 명장(名將)
이라는 하후연(夏後淵)이 황충의 화
살에 맞아 죽은 것은 역시 역사상에 유

명하다. 활이나 궁궐에 대하여 역사
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런 일의 예
도 상당히 많거니와 한양조(漢陽朝)
에 와서는 태조대왕(太祖大王)이 활
을 잘 쏘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예
전대 활 한번에 새(鳥)를 두 마리 나
세 마리를 마쳐어 떨어뜨린 것은 말할
것없이 적의 투구의 상모를 마친 것
이 역사에 나와있다. 양령대군(讓寧
大君)도 활을 잘 쏘아 태종대왕(天
宗大王)을 기쁘게 하였다는 것이 역
사에 있다. 우리나라의 활은 나중에
편전(便箭)이라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
이다. 지금도 궁술대회(弓術大會)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것은 역시 편전
이라고 하는 적은 활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 명(明)나라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을 불러다가 활 쏘는 것
을 가르친 일이 있으니 상당히 우리
나라 사람이 활을 잘 쏘는 것은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불러간 사람
은 소문이 나기를 활을 한번 쏘면 천

보(千步)이상 간다고 하여 불려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팔백
보는 갔다고 하였건마는 활을 교습
해보니 사백보밖에 가지 아니하여 의
심을 받고 명나라의 황제의 노여움
을 샀으나 대답을 잘하여 모면한 일
이 있다. 그것은 중국에서 나는 제
로가 조선에서 나는 재료만 못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조
선에서 또 다시 재료까지 가져다가 해
보았더니 간신히 육백보까지 나가게
되었다. 이때도 답변을 잘하였으니
말하기를 재료를 급히 구해드리라는
바람에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
다. 실상 그렇게 되었는데도 물론
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활에 대하
여 그다지 산용을 하지 않게 되었고
활을 이용할 것을 단념한 일도 있다고
역사에 적혀 있다. 궁궐은 나중에
불랑기(狒狼機)로 변해갔으니 다음
에 적기로 한다.

구 선(龜船)

비상시에는 비상한 병기 또는 무기가 나는 법이어서 임진왜란때에 충무공(忠武公)이순신(李舜臣) 장군이 구선(龜船)을 만들었다. 이 구선에 대하여는 너무나 잘 아는 터임으로 말할 것이 없으나 문자에 기록된 한문(漢文) 그대로를 적으면 이러하다.

創作龜船、上覆以板釘、以錐刀、使敵人、不得登蹋、藏兵其底、八面放銃、燒撞賊船、常以取勝、

너무나 간단하게 쓰여진 글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구선』이라는데 눈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활이나 궁포는 모두 그 근원이 중국에서 나왔지만 구선만이 우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구선을 가지고는 한반도 충무공이 패한 일이 없

어 있었다. 요컨대 병기, 또는 무기가 세로히 발명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기필할 수 없는 일이어늘 우리의 충무공은 이것을 만들때에 자신있게 만들었고 또한 이것을 쓸때에도 자신있게 쓴 것이다. 최초에는 이것이 몇개가 못되었지만 종에는 여러개가 되었고 이것은 언제나 바다에서 싸움이 벌어질때에는 기어코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막물판에 가서 보면 그다지 신통할 것도 없는 뚜껑이 덮인 배이자마는 이때쯤은 이것을 만들 수가 없는 일본이었던 것이다. 싸움이 더 오래걸리었다면 일본에서도 이런것을 만들어서 대항 했을는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도 소규모의 해전에는 이런것이 필요할는지 몰른다. 이 배의 특질은 전복(顛覆)이 전혀 없는 데있는 것이다. 막아지 같이 된 것임으로 물에 가 잠기더라도 그대로 떠 있게 된다. 중국에 『창크』가 우리나라의 나막신

같이 된배로서 이것이 전복이 없다고 하는 터이지마는 이것도 때로는 전복이 있으나 완전한 전복이 잘 되지 않는다. 거북선은 그 이상이다.

뚜껑이 있는 배이니만치 무거울것 같으나 그다지 무겁지가 않게 만든 것이 충무공의 재조다. 그리고 그위에 다 못(釘)이 뽀족 뽀족하게 나와 그위에 올라설 수 없게 된것은 이치음『탱크』보다도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탱크』는 지상전(地上戰)에 있어서는 이만한 것이 없으나 역시 『탱크』위에 올라가 폭탄으로 이것을 바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탱크』는 반드시 굴을 지 않으면 아니된다. 『탱크』가 굴로는 동안에 좌우에 칼날 같은 것이 돌아 적병이 뛰어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이것이 일단 쉬는 경우에는 칼날도 쉬고 있으므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탱크』속에는 십인 이상이 탈 수 없고 『탱크』속이 너무 뜨거워서

전디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나 거북선은 어느 곳이나 구멍을 많히 뚫어 놓아 총알이 가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능에 있어서 『탱크』만 못한 것은 『탱크』는 대포에 가까운 탄환이지 마는 거북선은 소총탄이라는데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충무공이 돌아간 후에는 다시 이 거북선을 만들지도 아니하였고 일본에 대하여 복수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일본이 되느라고 청(淸)나라가 일어나 일본을 돌아다볼 여유가 없었다고 하겠지 마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운(海運)에 대하여 등한한 것은 속일 수 없는 일이다.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이용할 줄 모르는 민족이 우리 민족같이 되어 있다. 바다를 이렇게 이용할 줄 모르나. 이 나라가 난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조롱하는 외국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

는 알아야 할 일이다. 거북선은 충무공이 만들어 충무공 재세시에 쓰고 그 이후에는 아주 쓰인 일이 없다. 지금은 이것이 한 개의 골동품(骨董品)으로 취급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지금은 잠수함(潛水艦)이 난때이니 이런 거북선이 전쟁에는 필요없을지 모르나 파도가 많고 태풍이 있는 곳에는 이런 선박이 절대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거북선은 충무공 재세시에도 자랑거리였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거북선이 아니더면 우리 민족의 면목이 없을 뻔 하였다. 이때에 적어도 팔년씩이나 일본과 싸우면서 새로운 병기, 또는 무기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의 무능을 너무나 들어내는 것이 되고 말 뻔했다. 충무공이 이 거북선을 발명하였고 해전에 있어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결과물 가지고 와서 그때도

약간의 민족의 체면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모두들 보고 있는 터이다. 또 한 이 거북선이 근거가 되어 고종황제(高宗皇帝) 시절에 대원군(大院君)이 근대식 군함(軍艦)을 만들어 본 일이 있다. 친종(千總) 양현수(梁憲洙) 장군을 시켜 군함을 만들어 가지고 수를 피어 이것을 발동한 일이 있다. 이때는 벌써 서양에서 군함이 발명되어 쓰던 때이었으므로 이것을 끌어치우고 그대로 사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만들어 수물로 발동해 보았다는 것은 역시 한 개의 발명이 아니된다. 이것도 말하자면 거북선에서 『윈트』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동기는 병인양요(丙寅洋擾)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거북선은 우리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북선이 잠수함보다 경비와 노고가 덜 들고 그 효과에 있어 잠수함보다 낫게 된다고 하

면 누가 이것을 싫다고 할 것인가?
거북선은 지금도 일마던지 연구의 대
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날 (飛機)

비행기가 고대에 있어 우리나라에
서 났다고 하는 것이 모두 정평이지
마는 이것을 발달시키지 않고 말았
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 먼저 발명하였다고 하면 모두들
코웃음을 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것은
다시 말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때 발명이 되었는가 하면 역시 임
진왜란때에 이것이 발명된 것이다.
나에게는 이런 참고문서가 없어 자
세히 적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거나 하
그 발명자는 정평구(鄭平九)로 알
려져 있다. 임진왜란때에 가장 처
참한 격전을 이룬 곳은 진주성(晉州
城)이다. 이 진주성이 함락되기까
지에는 적군과 상당한 시일을 싸우

고 결국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진
주성이 함락이 되고 만 것이다. 이
때에 기록을 보면 정사(正史)는 『진
천뢰』(震天雷)만을 쓴 것이 나와
있고 정평구의 『날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다. 말하자면 정평구는
진주성이 함락되게 되니 분전적투하
다가 드디어 빠져나갈 것을 생각하여
『날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가족과
우인(友人)들을 이십리밖에 나가게 하
여 살리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정사에 있지 않고 야사(野史)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급하지 않는 사람
이 많다. 그때에는 폭탄이 발명되
지 않은 때이므로 『날틀』위에서 폭
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곱하
게 되었으므로 어찌 할바없어 정평
구는 『날틀』을 발전하여 자기 가족을
데리고 먼저 탈출을 하고 나중에는 우
인을 데리고 탈출하였다는 사실이
다. 그래서 문적으로는 다만 『비기』
(飛機)로 쓰여져 있어 이것을 번역

하면 『날틀』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날틀』을 어떻게 발명하였을까?
하는 것이 상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 이것은 웬만한 머리면
되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비행기
가 『연』(鸞)에서 발명이 된 것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실상은 황에서 된 것이다. 『연』은
날려서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속력이 없다. 정
평구는 활의 속력을 이용하는 방법
으로 활과 같이 나무를 휘여서 그것
이 통기어 지는 바람에 공중으로 날
르고 그것은 성박으로 휘어. 나갔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비
행기를 타기 전에 『그라이더』를 타보
는 것 같이 활을 휘어 그것이 통기는
바람에 밀려가는 것이다. 『그라이더』
를 타본 사람은 알리지마는 『그라
이더』는 밀고가면 저절로 탄력이 생
기어 공중으로 날르고 천보, 또는

그 이상에 가서 저절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평구의 『날들』이란 것도 『그라이더』라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문적으로는 이십티박이라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과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개는 활이나 궁포의 이치에서 그 『천트』를 잡아가지고 이십명에 가까운 사람을 구한 것이라고 보아지고 있다. 요컨대 『그라이더』가 정평구의 발명으로 되어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또한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라이더』는 지금도 각 대학에서 이것을 장려하면서 저절로 될 일이다. 그러나 경비관제로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그라이더』는 그 실체에 있어서는 경비가 그다지 드는 것도 아니다. 작국에서는 대학에서 운동경기에 이 『그라이더』를 넣어 이다음에 비행기를 타도 두려움이 없게 되어 있다. 『그라이더』를 타본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비행

기에 대하여 그다지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 이제 나의 보는 바로하면 정평구의 발명은 『그라이더』가 아니었던가 한다. 그렇다면 그다지 귀중한 발명도 아니다. 지금도 웬만한 사람이면 『그라이더』쯤은 문제없이 발명하리라고 생각이 된다.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일찌기 발명한 것은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다. 이 기계는 화포공(火砲工) 이장손(李長孫)이 만들어낸 것으로 여기에 대하여 이익(李瀾)이란 분이 쓴 『성호세설』(『星湖僞說』)에 의하면 이러하다. 또는 유성룡(柳成龍)이란 분이 쓴 『징비록』(『懲毖錄』)에 의하면 이러하다.

第六日黃昏、諸陣之賊、咸聚一處、城中人、放震天雷三度、落於賊中、衆賊觀其體樣之際、

拆裂觸死者、不可勝數、賊不敢戰、還退。

『비격진천뢰』는 상당히 효과물 내었던 것으로 지금에 대포(大砲)가 그것인 것이 아닐까 한다. 『비격진천뢰』의 조치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비격진천뢰』속에 화약과 철편(鐵片)과 진천뢰(電信管)를 교묘히 장치하고 전으로는 철로써 박과 같이 등글게 찢작열탄(炸裂彈)이니 이것을 위의 완구(碗口)에 이용하여 목적지에 쏘아 떨어져 작열하게 하는 거의 지금에 있어 현대적으로 된 신에 무기(新銳武器)와 다를 없는 것으로 된 듯하다. 이것이 한번 떨어지기만 하면 적어도 이 포탄에 의하여 삼십명 이상의 사상이 나는 것은 보통이라 하였다. 여기에 있어 진주성 싸움에 가장 효과를 올린 것은 이 『비격진천뢰』라고 어느 곳이나 모두 적혀 있다. 이 『비격진천뢰』가 이때 발견되어 진주성 싸움에

많은 활약을 하였으나 진주성이
여코 적군에게 넘어가고 만것은 무
기의 탓이 아니오 종과부적으로 물
밑듯 들어오는 적군을 막아내는 수
가 없었던 것이다. 『장비록』에 의하
면 상당히 고전(苦戰)한 것이 들어
나 있다.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진
주성이 적어도 십여일을 저항한 것이
다. 지금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없
고 이런 무기 이상의 것이 난때 이
지마는 그때는 자타가 모두 신병기
(新兵器)로 놀라웠던 것이다. 이런
신병기가 그때 많이만 있었더라면 문
제없이 진주성도 지키어졌을 것이나
문적에 보면 불과 두대인가, 또는
셋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병
기라 하더라도 두대나 세대를 가지고
물밑터 오듯하는 적군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화차(火車)

병기에 있어 화차(火車)는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병기에 있어

지금까지도 도두 화기(火器)다. 이
제 천기한 『성호새설』에 의하면 불로
쓰는 화기가 열세개라고 적혀있다.

蓋兵器之利、莫如火具、屠隆
云、其屬有十三、火筒、火銃、
火炮、火櫃、火匣、火牌、火
車、火弓、火弩、火彈、火箭、
火磚、火槍也。

『화차』는 이곳에 적힌 것으로 보면
일곱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기로는 가장 오래인 것으로 어느
문적이나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발
명되기는 우리나라에는 정지(鄭地)
란 분이 신라(新羅)때에 『화포』(火
砲)와 같이 만들었다. 이것이 고려
(高麗)를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역시 천기
『성호새설』에 또 나와 있으니 그것을
적어보면 이러하다.

我國火炮、自麗末始、是時倭
尙不知此術也、羅世、鄭地、

190

以火炮、焚船倭大勝、然謂之
焚船、則與今鳥此角銃別也、

이것으로써 보면 일본에서는 우리
보다 뒤늦게 화포와 화차를 써 왔던
것이다. 요컨대는 『화차』는 지금의
『탱크』를 나오게 한것의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탱크』보다도 그 세
력은 세웠던 듯하다. 기록에 의하면
『화차』속에서 화포가 쏟아져 나올수
있게 한것이 사실여군대까지 있는 구
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
도 불에다 심지를 대이기만 하면 연
이어 불이 쏟아져 적군에게로 갔다
는 것이다. 그런데 『화차』와 『비계
진천뢰』는 연세던지 가지 이때 사용
된 것으로 쓰여있으나 그실은 『화차』
는 가장 많이 사용한 장수 도원수(都
元帥) 권물(權慄)이란분이 행주(幸
州)싸움에 많이 사용하여 적군을 놀
래이게 하였고 『비계진천뢰』는 경상
좌병사(慶尙左兵使) 박진(朴晉)이 나
중에 경주탈환전(慶州奪還戰)에 많이

졌던 것이다. 요컨대 『비적진천』은 진주성싸움에서 발명이 되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란데서 그후에 이것을 급속도로 만들어서 경주탈환전에 써서 큰 효과를 올린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화차』는 이것이 고대에 우리나라의 무기, 또는 병기로 써 왔으나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고안(考案)하여 새로이 쓴 듯하다. 전쟁에는 언제나 화공(火攻)이 가장 앞을 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근대전(近代戰), 또는 현대전(現代戰)에 있어 변함이 없다. 화공에 있어서는 『화차』와 대포가 가장 앞을 서고 있는 고대에도 그러하였던 듯하다. 역시 전기 『성호세설』에 의하면 무서운 무기로 『동포』(銅炮)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啓禎野乘、有薄珥者、淑意造銅砲、藥發三十里、鐵丸所過、三軍糜爛、若此器尙在、良平失其智、實育失其勇、士卒之

精、城池之固、不足恃也、

구리로 만든 대포이었으니 지금도 대포가 곧 이 『동포』인 듯도 하다. 이것이 지금도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효과적이란 것은 대포라고 일러 오고 있다. 이때에는 『화리국』(火里國)이란 나라에서 『화경』(火鏡)을 전쟁에 써서 선박(船舶)을 태웠다는 기록이 있다.

西方志、火里國、鑄巨鏡、映日注射賊艘、光焰火發、數百艘一時燒盡、以火鏡推之、意亦巧矣。

이로써 보면 지금의 『살리광선』(殺人光線)의 무기가 있다는 것도 또한 피이치 얄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전쟁이란 것을 기피하게 되는데 까닭은 이런 무기나, 또는 병기가 모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은

나가면 죽는 것이라 보는 것이 세상 사람의 관념이 아닐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근대에 이르러 전쟁에 있어 전투력(戰鬪力)을 빼앗는 것으로 바꾸어진 것도 이런데서 오지 않았는가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랑기(狒狼機)

191

임진왜란 때에는 『불랑기』(狒狼機)라는 병기가 있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적계광(戚繼光)의 발명으로 되어 있다. 그 실상인즉 적계광 이전에 된 것으로 이것은 일본군도 썼던 것이다. 지금의 대포와 같은 것으로 가장 빨리 나가는 것이 특장인 듯하다.

戚繼光云、嘗發地窖所藏狒狼機、永樂所蓄衛庫烏髯銃、乃倭變未作時所有、即倭人從中國得之者也、我國士衆疲弱、無以禦敵、惟火具爲可時、而

昧於製造、初不知有許多在也、亦可歎。

이런글로 보면 이때에도 기관총(機關銃)같은것이 쓰여져 있던 모양이다. 이것을 모두 대포와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모양이나 나의 생각은 기관총인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탱크』의 불어있는 대포와 같은 적은 대포인듯하다. 우리가 또한 병기에 대하여는 이때에 적제광이 판을쳤고 그의 저서(著書)로써 『기효신서』(紀效新書)는 귀중한 문적으로 알려져 있음을 지금도 알수있다.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때에 무기와 병기가 상당히 좋은것이 많이 나왔던 것이다. 이 『불랑기』만 하더라도 임진왜란때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내었던것이다. 이외에도 『홍이포』(紅夷砲)라는 병기가 기록에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기효신서』가 없는한 이것의 성능을 적을질이 없다. 전쟁에는 신병기가 언제나 발명

되는터로 이런것은 대개 큰 효과를 올리고 또한 적군이 놀라는일이 많아 전쟁이나면 가장 효과적은 무기와 병기를 찾은것도 몇몇한 사람의 마음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옛날에도 열세가 지나 되는 화공에 쓰는 병기가 있었으니 오늘날에 있어 전쟁에 쓰는 화기로된 무기, 또는 병기가 얼마던지 있을것은 필연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쟁에는 무엇보다도 근대에 이르러서 전술(戰術)과 전략(戰略)을 중시하게 되었고 그에따라 근대전(近代戰)은 전투력(戰鬪力)을 뺀것이 가장 전략에 있어 중시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전에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것을 자랑으로 하였지만 지금에는 전략을 써서 전군(全軍)을 포위하는것이 근대전의 특색이 되어있다. 오늘날은 무기, 또는 병기에대하여 이 야기는 하는 마당이니 그것은 그만 두거니와 지금에있어 탄도탄(彈道彈)

이니, 유도탄(誘導彈)이니, 또는 원자탄(原子彈)이니 하는때에 있어서 는 호랑이 담배먹던 이야기같이 되고 있다. 전쟁은 문명과 문화와 함께 진 전하는니만큼 살인리기(殺人利器)로써 사용이 되고있는것보다는 국방무기(國防武器)、또는 국방병기(國防兵器)로 이용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오늘에있어서는 적군을 쳐, 들어 가는것을 절대로 자랑으로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가만히 앉아서 칠만대 병을 막어내는것이 자랑으로 되어있다. 전쟁에 있어 『이일대로』(以逸對勞)는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전파탐지기(電波探知機)같은 것은 가장 국방무기로 모두 잘 알고 있는터이다. 하여간 복잡한 근대에 이르러 전쟁에 있어 무기, 또는 병기보다도 전군의 전투력을 배양하는 것은 새로운 전쟁학설(戰爭學說)이 아닐 수 없다.

△戰鬪秘史▽

未明의 셋별이 燦爛할 때 까지

॥ 故人을 回想하는 어느 冊子에서 ॥



이다.

이 民族課業은 全國民의 온갖 精神과 物質을 投入해서 그 勝敗를 겨누는 總力戰을 前提로 하고 있다.

오늘날 文明의 最高水準을 具現하고 새로운 戰爭樣相의 關鍵이 되고 있는 것이 原水爆의 核武器와 航空機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航空機의 進歩와 航空機가 擔當하는 國防의 意義에 對한 國民의 理解程度야 말로 總力戰을 이룩하는 基礎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歷史를 돌볼때마다 心襟을 울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金庚信, 乙支文德 李舜臣將軍等의 나라에 이바지한

功勳이나 더욱 哀愴을 게 가슴을 울리는 것은 곧 新羅時代의 花郎 管昌의 殉國史實이다.

사람의 사느 길을 明示한 管昌의 偉大함이다. 天下의 大勢가 不吉하여 軍의 士氣가 低下되있다고 느꼈을때 죽음을 알던 서도 그 길을 擇함으로써 勝利에의 道로 引導한 少年 管昌, 그는 殺身하여 사람이 살아야 할 不滅의 大道를 示範한 爲國의 戰士였다.

只今 筆者는 어느 冊子에서 기록 時代는 變하였으나 管昌에 못지 않는 한명기의 花郎의 後裔가 共產 敵을 擊滅하는 激戰場에서 갓이던 信念의 一端을 읽으며는 시율이 뜨거워지는 感動을 느낀다.

그것은 지난 八五年八月二日 東海岸의 前進基地에서 東海岸 一帶를 휩쓰는 雨天 惡氣流를 무릅쓰고 勇躍出擊을 敢行 愛機와 더불어 二七歲의 若冠을 一期로 散華한 朴斗元中尉가 生前의 戰友인 第一期士官 李喜根少尉(現中領)에게 보낸 故人의 書翰이다.

그 書頭에는 이터한 말이 쓰여져 있다. ॥ 젊음과 生命을 祖國에 바치면서 도

193

두려워 할 줄도 자랑 할 줄도 모르는 채
사라진 착한靈魂이 있으니 그가 戰
友故朴斗元中尉다"

그는 그의 所望대로 無言實行의 한결인
共産軍의 擊滅에서 幽明을 달리했다. 마
지고 보면 故朴中尉가 散華한지 於焉 六
年이란 歲月이 흘렀다. 아는 사람은 알
것이요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努力하지 않
는 限도 틀 일이나, 忘却의 習性에 依支하
여 이 燦爛한 無名의 별, 軍人의 總鑑인
信念의 所有者를 잊을 것이 두려우고 본받
아야 함이 切實하기에 그의 書翰을 그대로
 옮겨 군인뿐만 아니라 온 國民이 課業을
達成하는데 마음과 行動의 指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故朴斗元中尉의 書翰

復啓

親愛하는 나의 喜根이!

君이 보내준 글월은 나에게 기쁨과 글
없는 반가움을 가져다 주었네. 너무 오래
積阻하여 그리우면서도 전지한장 쓰지
못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게.

그간 別故없이 依然 분루하고 있다 하니

무엇보다 다행일세.

나도 아무 緣故없으며 元氣 旺盛하게
專心 致志 敵 共産軍 擊滅에邁進하고 있
으니 安心하여 주게.

多年間의 宿望이 아니 一生을 통하여
자기가 밟아가야 할 길을 걸게 된 자기 자
신을 돌볼때 이 感激을 누구에게 터 놓으
며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지 모르겠
어! 그러나 親愛하는 喜根이! 나의 이
기쁨과 感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오직
자네뿐일세.

喜根이! 나의 이 感激을 자네는 充分
히 理解해 줄 것이며 또 더부러 기뻐해 줄
줄 아네.

멀리 산님이 구름을 헤치고 未明의 曙
별이 燦爛할때까지 이몸이 그리 쉽게 아
사라질 것인가?

多年의 宿望이 이제야 이루어진 나의 생
涯는 셋별의 祝福과 더부러 찬란한 曙를
은 나의 未來를 밝혀 주리!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누구요. 나의
運命을 하늘에 걸고 나의 마음은 하느님
께 맡기고 無言實行의 한결 敵 共産軍 擊
滅밖에는 없는 것일세.

喜根이! 자네와 함께 지내던 教育때의

나의 心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어.

오직 자네만이 내 마음의 벗이었고 자
네 마음은 내 마음의 거울! 인양 反映되
었었지.

그때 내 마음의 거울 그것이 자네고 그
것만이 자네와 나와 맺어진 情이 아니었
던가!

情은 故郷을 뒤로하며 他郷으로 떠나는
나그네와도 같이 그때 그마음이 지금도
이○○基地에서 새롭고 또한 加一層 勇
氣를 百倍해 주네.

194

오늘까지 十一回째의 出擊일세(故朴中
尉의 出擊記錄은 八十七回) 敵君도 待期
하고 있으니 하루에 몇번이고 말리 말리
出擊해서 餘裕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겠
는데 워낙 사람도 不足한데다 飛行機조차
적으니 초조하기만 하야.

敵도 必死的으로 對抗하고 있네. 愛機
가 퍼붓는 爆彈과 「로켓트」에 粉粹되면서
도砲에 대달려서 쓰는 敵對空砲火에 저
서야 되겠다. 敵의 勇氣에 뒤떨어지는 우
리 空軍은 아니겠지만 敵의 鋭공의 힘과
勇氣를 培養해야 할 것일세.

우리들이 日常의 모든 方面을 되도록
세!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네. 戰鬪한
또 하나 勝利의 別名이 아니겠나! 싸움은
勝利를 前提로한 平和와 建設의 한가지
방법이라 할가.

勝利에서 平和를 維持하고 人類共通의
福利을 志向하는 것이 우리들의 至上任務
다만 確實히 우리들도 적으나마 平和의
使徒임에 틀림없을 거야... 이것은 誇大
評價한 나의 自負였지만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矜持는 가져야 하네.

푸른 制服의 矜持! 우리는 이러한 榮
高한 矜持에 살고 矜持에 죽세.

그러나 이기기까지에는 實力이 必要하
이. 그러면 그 實力을 어떻게 養成해야 할
것인가. 자네는 이것을 잘 알을 만네. 一
期士官은 모든 것을 理解할을 믿으며 特別
참다운 軍人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하네.

過去 六·二五動亂 勃發當時를 回顧하
여 보게. 그때 나는 韓國에는 없었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그때 과연 우리에게 戰
爭을 遂行할수 있는 實力이 있었을까...
지금想像만 해도 몹서리치는 危機, 그리
고 北韓에서 이런 危機를 毎日같이 겪고

있는 善良한 同胞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
나 고생을 하고 있나.

親愛하는 喜根이! 두번 다시 이 悲慘
을 되풀이 해서 되겠나. 그러나 우리는
敵이 하나인 試練을 겪으면, 우리는 둘의
試練을 覺悟해야만 되네. 試練없는 意志
란 骨格없는 人形에 不過한 것이니 試練
과 正面으로 格鬪할수 있는 勇氣를 우리
는 갖추어야만 해!

敵의 彈雨를 두려워하는자가 우리 空軍
에는 있을수 없듯이 그것은 우리 푸른 制
服의 矜持가 容許할수 없는 異端者라 하
겠네.

자네들의 無言의 愛國을 바라네. 말없
고 소리 없는 默默한 實踐만이 참다운 愛
國이며 모를지기 우리 空軍에는 이러한
軍人만이 있을줄 만네.

자네는 出擊의 苦待한다고 하
나 그것은 자네의 想像에 맡기겠네. 여하
든 出擊이란 「敵擊滅」일세. 내가 가장
切實하게 느낀것은 날이 가서 出擊의 回數
가 늘어 갈때마다 敵愾心이 가슴속에 타
오른다는 것일세.

一出擊하면 二出擊하고 싶고, 三出擊에
서 돌아오면 四回の 出擊이 안타가울도록
나가고 싶으며 爆彈이 없고 「로켓트」가
없으면 눈아래 보이는 敵高射砲를 짓밟어
버리고 싶은 초조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
네.

195

자네도 敵陣出擊을 해보면 나의 心情을
理解할수 있을 것이며 또 자네도 그런 衝
動을 억제하기에 바를 程度가 될것일세.
마지막으로 「말 없는 愛國者」 「無名의
愛國者」 그리고 出世라는 것을 바라지않는
愛國者가 되기를 希望하네.
또 지금까지 充分히 자네들도 그리 하
었다고 나는 믿네.

그리고 絶對로 輕蔑하지 않도록 自重自
愛하게.

나를 至極히 信賴하고 사랑해주는 자네
를 나는 眞情으로 尊敬하네.

나의 尊敬과 나의 뜨거운 友情을 받아
주게!

그런데 나는 바보야 왜냐고 그것은 물
지 말고 그러만 알아주게.

戰友들一同에게 安否 傳해 주게. 이만
○○에서

編者註
故大尉 朴斗元略歷
(文庫「날개의 聖地」에서)

一、本 籍 慶北迎日郡浦項市島洞

一、生年月日 四二五九年七月五日生

一、學 歷 日本佐賀中學三年修了

一、軍 事 日本太刀洗陸軍飛行學校
空軍二期操縱下士官으로入
隊하여 四二八五年三月一
日任官後戰鬪出擊



베스빅골프(IV)

(Your Best Golf)

로미 — 아 — 머 著

第七章

스윙(Swing)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내가 지금까지 보고 가르친 一般의 아마추어·플러(amateur golfer)는 열사람중 아홉사람은 스윙을 하기 前에 是正하지 않으면 안될 缺點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이 十人中 九人까지의 — 더 많은지도 모른다 — 의 사람들은 自己의 最善을 다할 機會가 없는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出發하기 前에 自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볼을 向해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거의 모르고 있다. 스탠스도 그림프와 똑같이 重要하다. 한쪽이 正確해도 한쪽이 틀려있으면 모두가 틀리게 된다. 나

는 再次 正確하게 適合한 크라브의 重要함을 強調하고자 한다. 그것은 正確한 스탠스를 容易하게 하기 때문이다.

크라브를 볼의 위의 地面에 놓고(勿論規則으로 禁止되어 있는 방커(bunker)에서는 例外로 하고) 양팔을 正하게 내려 드린다. 特히 양팔을 팔꿈치에서 구부리지 말고 딱딱하지 않을 程度로 펴는 것이 좋다. 양팔을 펴는 理由는 스윙의 半徑을 決定하기 爲해서이다. 골스윙의 途中, 左腕을 펴트하지 않게 될 수 있는 限 되고 있으면, 이 半徑은 一定하게 保持할 수 있을 것이다.

사프트의 길이는 사람이 얼마만큼 볼에서 떨어져 서면 좋은가를 決定한다.

볼을 向해서 될 수 있으면 앞·라이트(cup front)로 直立함이 좋다. 이 境遇身體를 팻팻이 하지 말고 양 무릎을若干弛緩시켜 正한 姿勢를 취한다. 스윙의 途中動作이 걸리지 않도록 움직일 수 있으며 身體의 緊張을 풀어 自然 그대로의 姿勢를 취함이 좋다.

普通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缺點은, 아드레스의 境遇, 몸이 너무 앞으로 기울어지는 傾向이다. 다음에 그는 스윙을 함으로써 몸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볼을 들

면 自己의 머리를 올린 것이라고 생각한
다. 勿論 이렇게 된 것은 몸을 그때가 되
어서 일으킨 것으로 最初의 아트레스부터
이 姿勢를 取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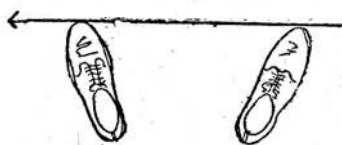
두 발(兩足)의 間隔은 아웃·아웃의 境
遇、大體로 自己 어깨의 넓이만큼 떨어져
서 선다. 아이언·아웃에서는 그 間隔
은 조금 좁으며——크라브의 로프트가 증
加하여 아웃에 힘보다도 正確性이 必要하
게 됨에 따라 점점 좁아진다.

큰 아웃에는 몸은 볼의 飛行線에 並行
으로서는 것보다도若干 볼의 右側을 向
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작은 아웃에서는 몸은 多少 左側、혹은
을 向한다. 이 向方의 程度는 볼을 처내
려는 距離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으로 距
離가 짧으면 그만큼 아트레스의 姿勢는
홀 쪽을 向하게 된다.

아웃의 아트레스에서는 두 손의 位置는
볼과 같은 線上에 있으며, 드라이버의 境
遇는 그것보다若干 뒤에 있을 程度이다.
아이언의 아트레스에서는 두 손은若干
볼의 앞으로 나가고, 샤프트는 크라브位
置보다若干 앞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1) square stance



(2) closed stance



(3) open stance



나는 드라이버나 其他의 아웃에 對해서
크로스트·스탄스(closed stance)를, 물
아이언에 對해서는 스피어·스탄스(square
stance)를 쇼트·아이언에는 오존·
스탄스(open stance)를 가르친다.

스피어, 오존, 크로스트의 各 스탠스
에 關해서 讀者가 아직 確實히 모를 境遇
를 생각해서 說明하면, (그림參照)

(1) 스A이·스탄스(square stance)에
서는 두 발 끝이 飛行線에 並行한 線
상에 있다.

(2) 크로스트·스탄스(closed stance)

에서는 右足を 이 線으로부터 몇치만
뒤로 끌고 발끝을若干 右로 벌린다.
(3) 오존·스탄스(open stance)는
右足を 이 線으로부터若干 앞으로
내놓고 左足を若干 그것의 뒤로 끌
어 同時に 左足 발끝을 左로若干 벌
린다.

오존·스탄스에서는 크라브·웨이
가 飛行線의 外側으로부터 볼을 처서 內
側으로 따질 수 있는 크라브·헤드의 通
路를 助長하기 爲하여 슬라이스(slice)를
誘發하기 쉽다.

Back swing 에서
그릇된 허리의 움직임



Back swing 에서
正確한 허리의 움직임



크로스트·스탄스는 이와 反對의 效果를 내기 위우므로 후크(hook)를 誘發하기 쉽다.
大部分의 사람들은 스피어·스탄스에서부터 슬라이스를 하는데 그 理由는 이루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슬라이스

를 防止하고 距離를 내기 爲해서 굿트는 크로·스탄스로서 即 飛行線에 對해서 右足を 左足보다도 二、三時 위로 躬 位置에서 踞 것을 가르친다.
能 變換 사람은 굿트를 若干 크로스트·스탄스해서 친다. 크로스트·스탄스로서

친 것 같으면 허리(腰)나 몸을 轉하게 될 수가 있다.
스탄스와 몸의 움직임에 關해서 于先 생각해야 할 것은 몸을 두 팔과 손의動作으로서 가장 效果的으로 칠 수 있는 姿勢를 取하는 것이다.

허리가 固定되어서 움직이지 않키 때문에 몸全體가 硬直하다. 이 姿勢대로 백크·스윙(Back swing)을 할 것 같으면 머리는 거의 必然의으로 뒤로 뻗겨져 움직이게 된다.

柔軟하고 餘裕가 있는 몸가짐으로서 다운·스윙(down swing)의 姿勢를 取한다. 머리가 뒤로 끌려 있지 않다. 그代身 허리를 滑溜하게 들린 結果로서 어깨가 正確하게 돌아가 있다.

△허리(腰)를 편하게 돌릴 수 있는 姿勢를 取할 必要가 있다. 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硬直해 진다. 試合時의 緊張으로 많은 샷트를 失敗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境遇 몸은 無理없이 型대로 圓滑하게 편히 움직일 수 없게 된다.

大部分 많은 사람들은 어깨(肩)를 돌려놓고는 自己 허리의 움직임이 正確하게 行하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어깨만을 돌릴 수는 있으나, 허리를 돌리면 어깨는 그것에 따라온다는 것은 모른다. V

스탠스에서 右足を 正確하게 놓을 境遇에 반드시 반드시 허리까지 無理함이

몸-아이언 · 샷트의 임팩트(impact)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두 손(兩手)은 팔의 앞으로



“크라브·헤드”가 팔에 닿는다.

體重은 그대로 左足에 (아드레스 위치를 그대로)

“크라브·헤드”가 通過하는 最底線

아이언 · 샷트의 다드레스에서는 반드시 體重을 右足보다도 左足에 많이 놓을 것을 操心하자. (다음 그림 參照)



없이 편하게(진물진물)하는 것이 아니라, 餘裕를 느끼는 것이 必要하다. 그것을怠慢히 하면 바른쪽 허리(右腰)를 固定하는 것이 되고, 스타이스를 助長한다. 이러

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크라브를 아웃사이드·인(outside)으로 후려, 물은 때리게 되기 때문이다.

스탄스에 關係서는 두 발(兩足)에 對한

髀의 位置도 勿論 重要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體重의 配分이라는 것이

더욱 重要하다. 거의 九

割까지는 自己의 體重을

어떻게 配分할 것인가를

생각치 않기 때문에 突

트에 망서리게 된다.

드라이버의 아드레스

에서는 體重의 六割까지

를 右足으로 지탱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其

他的 軸트에서는 髀는

스윙의 弧의 最底部나,

그렇지 않으면 그 以前

에 처져야 하므로 아드

레스에서 體重의 六割이

左足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

이 六割이라는 數字는

大略의 計算이다. 나는 이比重이 어떠한가 한다는 것을 正確하게는 모른다. 그러나 아드레스의 境遇 드라이버일 것 같으면 右足에 體重이 많이 걸리고 만 크라브면 左足에 많은 體重이 걸려야 한다는 것은 確實하다.

스윙의 途中 體重의 配分에 關係서는

正確한 스타스를 取하고 柔軟한 바란스를

保持하고 두 발을 꼭 땅에 붙이고 더욱

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그

以上 念慮할 것 없다.

아이언의 아드레스와 히팅에 있어 體重

을 많이 左足에 옮겨놓아야 한다는 必要

에 關係서는 그것을 잘 理解해 주기 바라

며 더 說明을 하려고 한다.

△아이언을 훌륭하게 치는

데는 크라브의 밑이 스윙의

孤의 最底部에 達하기 前에,

크라브·웨이스를 髀에 대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髀에는 백크·스핀(Back Spin)

이 걸리고 髀의 後方을

때리지 않아도 되며, 또 샷트의
의 瞬間에 두 손(兩手)은 별
보다 앞에 있게 된다. 별을
치려고 할 때, 體重은 右足보
다 左足에 많이 올려 놓는 것
은, 아이언의 크라브·헤드를
正確한 下向線에 保持할 수
있는 方法이다.

아이언으로서 이들 一連의 順序를 正確
하게 行하면 볼을 친 後에 닛츠(Grub)를
맞는다. 크라브·헤드는 볼의 背後보다는
그 밑에서 스윙의 軌道의 最底部를 通過
한다. 大多數의 사람은 크라브를 쳐 내리
고 크라브·헤이스로 볼을 쳐 내트릴가 두
터워서 아이언을 失敗한다. 이 사람들은
體重을 右足에 남기고 볼을 훑어 올리려고
한다. 이것이 아이언을 틀하는 最大의 理
由로서 볼을 때리기 前에 잔디를 파내는
原因이다.

讀者는 80을 때리는 以上の 많은 사
람들이 아이언을 때릴 때 바란스를 잃고 몸
을 뒤로 넘어뜨리는 것을 볼 것이다. 이

것이 지금 말한 過失을 證明하는 좋은 예
이다. 그 사람들은 샷트로서는 몸을 앞으
로 넘어트린다. 어떤 샷트라 할지라도 같
은 바란스를 잃는 것이라 도 이 反對의 過
失은 그다지 重大하지 않다.

나는 相對에게 아이언을 가르치는 데 샷
트보다도 짐짓 많은 時間을 消費한다. 아
이언을 相當히 잘 使用할 줄 알면 샷트의
使用法을 아는 것은 大端히 容易하다.

드라이브는 내가 가르치는 最後의 것
이다. 이것은 槓 中에서도 가장 쉬운 部分
이다. 드라이버로 치는 主眼 目的은 距離
를 내는 것으로 正確性이란 아이언의 境
遇보다는 重要치 않다. 드라이브를 미쓰
해도 그것을 回復할 찬스는 있으나 그릴
을 겨누는 샷트·아이언의 失策은 만드시
완·스트로크(one stroke)의 損을 한다
는 것을 나는 注意하고 싶다.

두 발(兩足)에 대한 볼의 位置에 關해
서인데, 드라이버에서는 볼은 左足の 뒤
꿈치(踵)의 正面에 두어야 할 것이다.

루렛시(brassie), 스푼(spoon), 파
취(batty)에서는 볼은 이보다 一吋가량
뒤에 둔다.

아이언에서는 치 1 프·샷트(chief shot)
에 이르기까지 볼은 두 발(兩足)로부터
同距離에 놓는다. 아이언에서는 兩足の
間隔은 점점 좁아지므로 볼은 實際로는
샷트의 境遇에 比較해서 그다지 뒤로 옮
기는 것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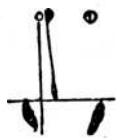
핏치·샷트(pitch shot)는 볼을 右踵의
線으로부터若干 앞에 놓고 친다.

치 1 프·샷트(chip shot)에서는 두 발
(兩足)의 中正面 近處에 볼을 놓는다. 스
윙은 모든 샷트에 있어서 本質의 으로는
共通하며 그 要領은 主로 몸의 回轉量에
依하는 것이나 아이언이나 샷트의 샷트의
여러가지 型을 決定하는 것은 體重의 配
分과 두 발과 볼의 相對的 位置이다.

이것을 留意한다면 아마테 1 지·골퍼 1
는 볼에 덮어 놓고 接近해서 不注意한 打
球을 함이 없이 自己가 치려고 하는 샷트
의 型을 慎重하게 檢討하게 된다.

롱 1·아이언에서는 샷트의 境遇에서 보
다 두 발의 間隔을 좁게한 스퀘어·스탠
스(square stance)를 取할 것을 勸한다.
이 샷트는 若干 후크(hook)거나 直線의
아아 하기 때문이다. 크로스·스탠스

※ 샷트의 距離가 짧을수록 兩足の 間隔은 좁아지며、
도 附近方에 가까이 됨에 注意할 것.



아드레스에 있어 球・足・手의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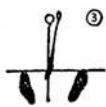
(1) 드라이브(drive)

球은 左足の 線 위에 若干 크로스・스탄스 體重은 若干 右足에 많게 兩手는 若干 球보다 위에



(2) 헤아외이・우드・샷트(fairway wood shot)

球은 左足の 線에서 約 1呎 위로, 스피어・스탄스, 體重은 若干 左足에 많게 兩手는 球의 眞上 又は 若干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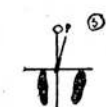
(3) 롱-아이언・샷트(long iron shot)

球은 兩足으로부터 同距離에, 스피어・스탄스, 體重은 若干 左足에 많게, 兩手는 球의 앞으로,



(4) 피치・샷트(pitch shot)

球은 右足の 線 위에, 오-폰・스탄스, 體重은 若干 左足에 많게 兩手는 球의 앞에,



(5) 칩-프・샷트(chip shot)

球은 兩足으로부터 同距離에, 스피어・스탄스, 體重을 若干 左足에 많게 兩手는 球의 앞에

드라이브의 아드레스

右側 어깨를 내린다.

몸은 若干 球의 右側으로 向하고 있다.

兩手는 若干 球의 위로

體重의 約 60%는 右足에



若干의 “크로스・스탄스” 발끝을 若干 벌린다.

球은 左足の 正 面에 充分히 티・업한다.

의 샷트로는 球에는 距離가 伸張하는 큰 幅크가 걸리지만 롱・아이언에서는 그 리틀을 겨누는 것 이며 큰 幅크를 許할 程度로 標的

은 넓지 않다. 쇼트・아이언은 몸의 움직임을 그다 지 必要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탠스는 오-폰으로 할 수 있고 두 발의 間隔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 짧은 샷트는 주로 손과 팔의 일이다. 오-폰・스탄스(open stance)는 크로스・헤드가 아웃사이드・인(outside-in) 다.

회야외이의 웃드·웃트의 아드레스



兩手는 볼의 위나 또는 若干 앞에

體重의 約 60%는 左足에

스피어·스탄스

볼은 左踵의 線으로 부터 1~2吋 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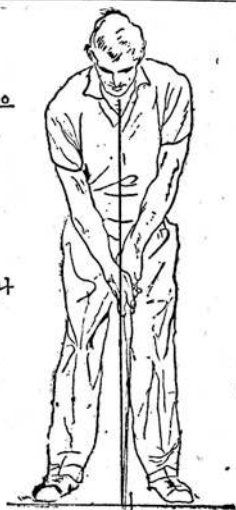
만다는 것이다。V

으로通하는傾向이 있다。 볼에 適當한 左-右의 回轉과 페크·스핀(Back spin)을 주어 그린에 떨어졌을때 잘 停止한다。

△ 모든 웃트에 關한 基本原則은、萬若에 머리를 움직이 身體의 動作은、무너지고

머리는 스탠스를 底邊으로 하는 三角形의 頂點이다。 발의 움직임에 따라 多少動搖가 있으며, 머리도 多少 右側으로 움직일지 모르나, 아드레스에 있어서 두발 위에 三角形의 關係는 決코 허트러서는

롱-아이언의 아드레스



몸을 轉하게 일으킨다。

兩手는 볼의 위나 또는 若干 앞에

두무릎을 若干 平 부린다。

體重은 若干 左足에 많이 둔다。

203

볼은 左踵의 線의 위에 거의 兩 발로부터 同距離

스피어·스탄스 발끝을 若干 벌린다。

안된다。 中級程度의 사람에 있어서 이 三角形의 머리쪽 움직인다는 것은 大端히 危險하다。

머리를 固定한다는 것은 몸을 正確하게 움직이는 데 必要한 바란스를 確保한다。 몸이 正確한 움직임을 하면 그 後에 必要한 動作、即 두 팔과, 두 손으로 크라브

윅치 · 샷트의 아드레스



두 무릎을若干 平
부린다.

오른쪽 · 스탠스

클럽은若干 右踵의 앞
에

兩手는 클럽보다 앞
에

體重은若干 左足
에 많이 둔다.

를 힘있게 후러칠 수도 있다.
아베레 1 지 · 골화 1 가 해야 할 것은 八
割程度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들은 몸을
을 硬直한 팔로 때리고 크라브 · 웨트에
充分한 스피드를 加할 수가 없다. 이것
은 주로 머리를 固定치 않은 結果이다.
· 他人의 말을 곧 믿는 사람들에게 一知

半解하는 사람이 주는 골프의 忠告는 많
으나 其中에서 「눈을 볼에서부터 때지 말
라」고 한 말처럼 그릇된 것은 없다. 몸을
출용하게 될 수 있는 豫側이 없는 사람이
머리를 움직였다고 해도 볼을 보는 일만
은 할 수 있다.

치프 · 샷트의 아드레스



두 발의 間隔은
좁게

스키어 · 스탠스

兩手는 클럽보다 앞
에

體重은若干 左足
에 많이

△ 두 발과 머리를 正確한
位置에 아드레스하고 그 相
對的인 位置를 全스윙이 끝
날때까지 무너뜨려서는 안된
다. 이렇게 하면 讀者는 볼
통한 플프에의 核心에 接觸
하게 된다. V
(次號繼續)



△創作▽

언덕 위에서

金 八 峰

1

205

햇빛이 쪼이는 날이면 그다지 추운줄 모르겠지만 하늘이 흐리고 음산한 바람이나 부는 날이면 저절로 목이 움츠러질만큼 일기가 쌀쌀해 졌다. 겨울철에 접어든 것이다.

옥희엄마는 들창문을 열고서 아침하늘 빛을 보았다. 겨울을 재촉하는 듯 회색구름이 온하늘을 덮어버리고 있다. 들창앞으로 개천이 있고, 개천 건너가 얇은 산이다. 산 위에는 소나무가 없고, 키도 크지 않은 아카시아 나무가 겨우 두어 개 서있을 뿐이다. 옥희엄마는 이때 구공탄을 준비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날이 추워지면

연탄값이 또 오를것이 걱정되었던 까닭인데, 그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언덕위를 바라보노라니까 어떤 여자가 어린애를 업고서 아카시아나무 아래로 서성거리는 모양이 눈에 띄었다. (저 여자는 어제도 나와 있더니……저 언덕 위엔 집도 없는데……그래도 저 근처 살고 있기에, 저기 나와 있겠지?)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옥희엄마가 이 동리로 이사를 온지도 벌써 석달이나 되는데 그동안 저 언덕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가 이상히 여기는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무얼 내다보고 계세요? 안녕 하십니까.』

이때에 들창밑으로 영희엄마가 지나가다가 그의 얼굴을 치켜다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

『네. 안녕하셔요. ……저기 저 언덕위에 누가 하꼬방이라도 지었나? 전혀 안 보이던 젊은여자가 어린애를 업고서 어저께부터 저기 나와 있으니 말예요.』

옥희엄마는 건너편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기 저 여자 말이죠? 그게 미친 여자래요.』

영희엄마의 대답이었다. 옥희엄마의 얼굴에는 놀라운 표정이 흘렀다.

『미친 여자라니요? 어쩌다가 미쳤나? 젊은 여자같은데……여기서 보기엔.』

『점구말구! 스물셋살밖에 더 안되는 여자래. 미군하고 같이 살다가 애를 낳았는데 그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갔다나 보지……그리고 아주 소식이 없어졌다나 봐……그래서 미쳤는지 마야.』

영희엄마는 이렇게 설명하고서 입을 실룩해보이는 것이었다. 옥희엄마는 또한번 놀래는 표정이 되었다.

영희엄마는 이 동리에 수십년이나 살아오고 있는 가장 오랜 주민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동리부인들 가운데서는 영희엄마가 이를테면 장노나 다름없었다. 동리에서 모르는일이 있을때엔 모두들 그일을 영희엄마에게 묻는다.

그럴때면 영희엄마는 곧잘 그런질문에 대답을 내리곤 하는 것이었다.

옥희엄마는 영희엄마가 영희를 업고서 저편 큰길쪽으로 사라진뒤에 벼란간 미친여자가 보고싶었다. 마흔편 언덕위에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시켜보았으면……그여자가 정말 미친여자인지 아닌지 알아보았으면……이같은 궁금증이 생겼다.

『애, 옥희야 아침밥을 빨리 해라. 내 저기출 갔다오마.』

그는 즉시 마당으로 내려와서 부엌을 드러다보고 이같이 옥희에게 부탁한 뒤에 골목밖으로 나왔다. 그는 개천을 건너서 마흔편 언덕으로 향하였다.

『오오 해피……오오 해피……』

젊은 여자는 등에 업고 있던 어린것을 열구리 쪽으로 끌어당기어 가지고 포대기 속에서 어린것의 얼굴이 빠져 나오도록 들추어 가지고, 그 어린것의 얼굴을 뽀뽀히 들여다 보면서 이같이 열르는 것이었다.

『에에, 참말로 잘생겼지, 우리 해피: 에쁘기도 하다. 파파 파파—불러 왔니! 마마 마마—불러 와라. …배가 고파? 오오 가없어라! 그대, 그대, 마마가 젖을 줄게.』 젊은 여자는 포대기채 어린것을 가슴앞으로 끌어 당기더니 가슴을 해치고서 젖꼭지를 어린것의 입에다 물려주는 것이었다. 어린것은 젖꼭지를 쪽쪽 빨기 시작한다.

아까부터 옥희엄마는 언덕위에 올라와서 아카시아나무 밑에서 있는 이여자의 모양을 삼십 메타쯤 떠러진 곳에서 살펴보고 있었다. 옥희엄마가 보전면 이여자는 나이스를 다섯살 밖에는 더 안되어 보였다. 광대뼈는 조금 나왔지만, 얼굴전형이 조금 가름한 얼굴인데, 눈이 크고 어글어글해서 시웬스럼게 보인다. 콧고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라 할지라도 추한 얼굴은 아니었다.

옥희엄마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섰다.

『젖이 잘 나오? 애기가 펴 예쁜데: 돌 지났나?』

그가 이렇게 수작을 부치니까 그여자는 옥희엄마의 얼굴을 흘끔 쳐다본다. 그런데 그 눈속에서는 무엇인가를 경계하는 듯한 무서운 빛깔이 선뜻 비치었다. 그리고는 그여자는 아무말도 대답하지않고 고개를 수구리고 여전히 어린것의 얼굴만 내려다보고 있다.

젖꼭지를 빠는 어린것은 두 볼따구니에 우물자국이 나도록 젖을 빠는 모양이나, 무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았다. 잠간동안 그모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옥희엄마는 측은한 생각이 생겼다.

『아마 젖이 부족한 모양이야……집이 어데요』

옥희엄마가 또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여자는 대답을 안한다.

한참동안 옥희엄마는 그모양만 바라보고 있었다.

『집이 어데요?』

옥희엄마가 또 물었다. 그러나 그여자는 얼굴을 들지도 않고서 고개만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집같은 것: 그런 얘기:…물지말라는 표정인 것 같다.

(아마 집이 없는 여인이지……)

옥희엄마의 머리속에 이같은 느낌이 일어나자, 그는 더한층 가엾게 생각되었다.

『우리집으로 가서 아침밥을 자시우. 아마, 어제 저녁

도 오늘 아침도 안자신 모양인데…… 그래서야 어대 짓이나 오겠어요. 우리 집은 바로 언덕아래 저기 저렇게 보이는 저집이요. 나하고 같이 잡시다.』

옥희엄마는 이렇게 말하고서 그여자의 팔목을 잡았다. 그때 그여자는 얼굴을 쳐들고서 옥희엄마의 눈을 드리다 보는 것 같더니

『이리로 보내주세요. 여기서 먹겠어요.』

이같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옥희엄마는 그소리를 듣고서 반가운 마음으로 다름박질이나 하는 것 처럼 미끄러져 가면서 언덕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자기집으로 돌아와서 아침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과, 김치 한 보기를 쟁반에 바쳐 가지고 그것을 자기 딸 옥희로 하여금 그여자에게 갖다 주도록 했다.

쟁반을 들고서 언덕위로 올라갔던 옥희는 이십분이나 지난 뒤에 빈 그릇을 들고서 돌아왔다.

『애, 잘 먹데?』

옥희엄마는 물었다.

『잘 먹다 뽀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죄다 먹었어요.』

옥희는 쟁반에 있는 빈 그릇을 세 개나 밀바닥이 들여다 보이도록 뒤집어 보이는 것이었다. 밥도 국도 김치도 죄다 한 방울도 남은 것이 없었다.

옥희엄마는 마음이 만족하였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렇게 씻은 듯 부신 듯 먹었겠니……』
『아마 한 사흘 굶었나 봐요, 어머니. 제가요 옆에서 보고 싶었는데도 그저 미친 것 처럼 한 입에 죄다 먹어버릴 것 같던데요.』

옥희는 부엌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여자가 허겁지겁 밥을 쑤서 넣던 흥내를 내는 것이었다.

그때 옥희 아버지 광수가 전너방으로부터 마루로 나오면서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주고서, 그것을 흥보면 못쓰는 거야! 당신 두 저런 때 옥희를 가르쳐야 해.』

이렇게 말한다. 옥희는 꾸중이나 들은 것 처럼 무안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3

그이튿날도 언덕 위에는 어린것을 업은 미친 여자의 모양이 나타났다. 대채, 낮에는 어데가서 하루해물 지내다가 밤에는 어데가서 잠을 자고서, 아침이면 저 언덕위에 나타나는가? 아직은 그다지 추운 겨울이 아니니까 토굴속에서 잠을 자드라도 관계없겠지만, 엄동설한을 당한다면 그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옥희엄마의 가슴 속에는 이여자의 전도에 대한 근심이

구름처럼 뭉개뭉개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 어떻게 된
 자일까? 어쩌다가 미군하고 같이 살기까지 했을까? 저
 어린것이 추운겨울엔 병이 들기쉬운데... 저 여자의 부
 모는 없는가?

옥희엄마는 이런생각을 하다가 오늘날도 여자자에게 아
 침밤을 대접하고 싶었다. 그는 대문밖으로 나가다가 먼
 저 영희엄마를 찾아보고서 미쳤다 는 여자에 대한 소문을
 더 자세히 물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옥희
 엄마는 자기집 뒷물목 안에있는 영희네 집으로 먼저 들
 어갔다.

영희엄마가 지켜리는 대로 미친여자에 대한 소문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다. 명순이. 이것이 언덕위에 있는 미
 친여자의 이름이다. 명순이는 황해도가 그의 고향이라
 한다. 그러나 그의 고향에 그의 부모가 살아 있는지 그
 것은 모른다. 명순이는 해방되던 해 고향에서 자기의 오빠
 와 함께 단 들이서 이남으로 넘어와 가지고 오빠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었고, 명순이는 소학교에 다녔다. 몇해
 후에 명순이는 소학교를 졸업했고, 그해에 그는 흥덕여
 자중고등 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서 그가 이학년에 진
 급하였을때 「옥·이오」 사변이 일어났다. 명순의 오빠는
 그때 서울에서 어느날 피뢰군한테 학살 당했다. 그후 열
 마 지나지 아니해서 국군은 서울을 탈환했지만, 그이들

해 서울시민들은 모두들 피난하여서 부산으로 대구로 내
 터 갔었는데, 명순이는 부산에 가서 있었다. 흥덕여자중
 고등 학교는 부산에서 열은 개학을 하지 못했다. 명순이
 는 중학 동창생되는 동무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가
 모두들 보따리장사를 하는 판국이며 명순이도 장사길로
 나섰다. 피란하던해 여름부터 중공군을 몰아낸 서울에는
 특별한 사람의에도 장사꾼들이 남쪽에서 오르 내리기를
 잘하였다. 명순이도 학교가 개학되기 전부터 부산과 대
 구를 오르 내리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서
 울을 출입하는 장사길을 얻어가지고 한장을 자유로 건너
 다녔다. 명순이는 아무렇게나 지켜리는 영어를 몇마디는
 지겨릴줄 알았던 것이다.

이것이 — 영어가 — 미친이 되었는지, 명순이가 수삼차서
 울에 와서 미군물건을 사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하는
 동안에, 명순이는 미군 추력운전수 한사람과 가까운사이
 가 되고말았다. 인저 명순이는 중학생이 아니었다. 그러
 다가 명순이는 서울에서 방 한칸을 얻어 가지고 살았다.
 미국 군인은 이따금씩 명순이를 찾아와서 자고갔다. 열
 마후에 명순이는 잣난 애기의 예미가 되었다. 그후 몇달
 이 지나지 아니해서 애아버지 되는 그 추력 운전수는 행
 방불명이 되었다. 그 미국군인이 만기제대가 되어서 미
 국으로 돌아갔는지, 혹은 일본으로 전속 되었는지, 그것

은 알수 없다 한다. 하여간 그 미군이 행방불명된 후부터 명순이는 정신이상에 걸렸다. 그리고 셋돈을 내지 못하니 까 집주인 한테서 쫓겨나 있다. 명순이는 어린것을 포대기로 싸가지도 들쳐 업고서 거리로 나왔다. 넓은 천지에 명순이가 어린것과 함께 의탁할 곳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여자가 아주 미쳐버렸다지 머유. 나두 이동리서는 제일먼저 수복해서 올라온 측이니까 이사람 저사람 한테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지: 어데 저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작년 까지는 명물동 근처에 있었다죠. 그리고 그전에는 남대문 근처에 있었다 하고: 어린애는 꼭 잘생겼대요. 그래도 누가 어린애를 불러고만 하면, 명순이는 딱 절절을 해가지고 한사코 어린애를 감춘대요! 못보게! 참 이상하지?』

영희엄마는 미친 여자의 내력을 이렇게 설명 하고서 말을 맺는 것이 었다.

옥희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영희네 집으로부터 나왔다.

4

언덕 위에는 미친여자가 여전히 어린것을 열구리로 끌어당기어 가지고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얼르고 있었다.

옥희엄마도 그 걸으로 왔다.

『여보 씨씨. 오늘도 아침을 안자신것 같구로. 애기가 배고파서 어떡허우?.....우리집으로 잡시다. 나는 씨씨한테 조금도 해롭게 할 사람은 아니니까 안심해요 응.: 그래, 아침밥을 드뚝하게 먹어봐요.이리로 보내달라면 도 보내겠지만.....그보다는 집에 들어가서 자시는 것이 편할거야. 자, 우리 같이 잡시다.』

옥희엄마는 이렇게 말을 건네어 보았다. 그랬더니 미친 여자는 잠간동안 옥희엄마를 바라 보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얼굴에서 사나운 기색이 거처어져 버리고 유수한 표정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리고서 그는 옥희엄마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옥희엄마는 그가 언덕을 내려가겠다는 뜻으로 그의 동작을 해석했다. 그리고서 옥희엄마가 앞을 서서 언덕위로 부터 내려오기 시작하자, 애기를 업은 미친 여자는 그위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다.

옥희엄마는 자기집으로 그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햇빛이 잘 쏘이는 전너방 앞쪽 마루위로 그를 안내하였다. 『여기가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할 것이니 여기서 애기를 내려 놓고, 편히 앉아서 식사를 해요. 응.』

그리고서 옥희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손수 이반에 밥상을 채려 가지고 그 여자앞에 갖다놓았다. 농군이 먹어도 좋을만치 수복하게 담긴 밥그릇이었다. 그리고 국

과 김치외에 오늘은 찌개도 한그릇 더 놓였다.

미친 여자는 그것을 마루위에 놓고서 잠간동안 내려다 보고 있더니 저까락을 찢어 들었다. 그리고서는 어린애를 업고 선채 밥을 퍼서 입으로 가져갔다. 옥희엄마가 어린애를 내려놓고 편안이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두번이나 권고했지만, 그 여자는 그말은 못들은 척하고 먹기만 했다.

(왜 저럴까? 누가 애기를 불까봐서 애기를 못내려놓는 건가?)

옥희엄마는 이렇게 생각되었다. 애기를 누가 집어갈까, 흠쳐갈까 의심해서 내려놓지 않는 것이라면, 구태여 부득부득 애기를 내려놓으라고 권고할 것도 없다고 생각됨으로, 그 이상 더 말도안하고 물끄럼히 바라보기만 했다. 오늘 아침이야말로 옥희 아버지가 정거장에 일찌기 나가볼 일이 생겨서 외출하고 없었는지라, 집안은 조용했다.

이렇게 옥희엄마가 곁에서서 보고 있는 동안, 미친 여자는 심분도 못되는 사이에, 밥한 그릇을 후딱 먹어치웠다. 그리고 국도 찌개도 남기지 아니했다.

『여보시오. 밥과 찌개를 더 갖다 드릴까?』

옥희엄마는 그모양을 보고서 이같이 물었다.

미친 여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나 물 좀 주시오.』

한다. 밥은 더 안먹겠다는 눈치였다. 옥희엄마는 옥희더러 물을 한그릇 떠오라고 하였다. 미친 여자는 숟가락그릇도 죄다 마시었다.

『애기를 좀 물어놓고…… 지금 집안에 사내어른도 안게시니, 마음놓고 좀 쉬었다가 가시오.』

옥희엄마는 또 이렇게 권한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보이고는 입을 꼭 다물고 있더니, 한참 있다,

『나 바지 한개만 주실수 없어요? 보선이 있으면 보선도 두개만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옥희엄마는 이말을 뜻밖엿 말로 들었다. 그리고 생각해보았다 보선은 신던 보선이 있으니까 한켠레를 줄수 있지만, 바지는 자기가 갈아입고 있는 것 외에는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아이고, 바지가 어데 여벌이 있어야지. 보선은 한켠레 드릴 것이 있지만.』

그리고서 옥희엄마는 안방으로 뛰어들어 가서 다락문을 열고 현보선을 한켠레 찾아가지고 나왔다.

『우리도 피난살이를 사년 동안이나 하다가 올라와서 아직 아무것도 장만하지 못했다우. 겨우 입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넉넉한게 없다우.』

옥희 엄마는 변명하느니 이런말을 하면서 현보선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것을 그 여자에게 주었다.

『코마워요. 그런데 바지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여자는 신문지 보통이를 받으면서 천연스럽게 이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때는 조금도 그의 표정에나 말투에 미친여자라는 티가 없어 보인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이왕이면 나도 색색한데 만복을 주고 싶지만……어데 내가 입는 것도 모다 두개밖에 안되니, 하나를 내놓고서야 잘아일을 것이 있어야지? 우리 집 바깥 양반이 돈이나 많이 번다면 나는 새것을 장만하기도 하겠지만……언제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야지!』

옥희 엄마는 진정으로 미안해 하는 표정이었다.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서 금시에 무표정한 얼굴이 되더니, 등에 업힌 어린것을 열구리로 끌어 당기고서 찢꼭지를 물리고 있었다. 그때에 옥희 엄마는 처음으로 똑똑하게 그런애를 볼 수 있었다. 갓난애는 아니고, 아마 한푼은 못된듯시픈데 머리털은 새까맣고, 눈동자는 과탈고, 살빛은 새하얀 어린애였다. 옥희 엄마는 그 어린것이 젖을 탐스럽게 먹고있는 모양을 귀엽게 드러다 보다가.

『애기가……사내? 제집애?』

이같이 물었다.

『사내.』

그 여자는 간단히 무표정한채 대답한다.

『몇살?』

『한살.』

『아빠는 어데갔어?』

『………』

그 여자의 얼굴은 조금씩 조금씩 표정이 바뀌는것 같더니 금시에 깨끗하게 변해 버렸다.

『그만뒤요! 나쁜사람에요! 난 가요!』

그 여자는 빨리빨리 이렇게 세마디를 지꺼리고서, 다시 어린것을 등쪽으로 고쳐 업더니 그만 돌아서서 평하니 대문밖으로 달아나가는 것이었다.

옥희 엄마는 마루앞 뜰에서있다가 멍하니 그 여자의 뒷모양을 바라만 보았다.

(아빠씨, 내가 잘못했다보다……몽연히 애기아버지 야기를 물어보았지……?)

옥희 엄마는 이렇게 뉘우쳤다.

5

그 이튿날도 옥희 엄마는 들창문을 열고서 건너편 언덕위를 바라 보았으나, 그 미친 여자의 그림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가고, 한달이 지

나가도록, 미친여자의 그림자는 언덕위에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런데, 하루는 영희 엄마가 미친여자의 소식을 전해왔다.

『요전에 옥희엄마가 나한테 물던 그 미친 여자말야.

……그 여자가 지금은 미아리에 있구나 봐. ……어린애를 업고서 공동묘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머라드라……오오, 「할로 할로 유나이츠 해피 해피」……이런 소리를 하다가는 또 창가도 하고……그리고는 거울을 꺼내들고서 제얼굴을 비춰보면서 「미쓰 장아이 엠」……이러다가……「아이꼬 투 스쿨」……이러기도 하고……뭐 대충없는 소리를 지껄리고 돌아다니는데요. 나 오늘 돈암동 조카네집에 찾아가다가 그동네서 듣고 왔지.』

영희엄마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옥희엄마는 그말을 듣고서 가슴이 뭉클 하였다. 「정말 미쳤구나! 그여자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옥희엄마는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 보았다. 그랬으나, 거기 대한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아니했다.

그후 삼년이 지나갔다.

옥희엄마는 오늘 아침에도 들창문을 열고서 건너편 언덕위를 바라 보았다. 삼년 전에는 여터날 동안의 레히아 카시아 나무밑에 애기를 업은 젊은 여인을 보았건만, 그

때 자기집에 데리고 와서 아침밥을 대접한 뒤로는 오늘날까지 그 여자를 못보는 것이다.

(오오 해피. 오오 해피.)

(미쓰 장아이 엠……)

(아이 꼬 투 스쿨……)

옥희엄마의 머리 속에서는 이같은 영어 마디가 되생각 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건너편 언덕위로 올라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조금 있다가 옥희엄마는 언덕위 아카시아 나무아래로 올라왔다.

바람이 쐬——불어왔다.

잎사귀 한장도 남아있지 않은 아카시아 나무가지가 흔들거린다.

겨울의 아침해가 조금씩 조금씩 따뜻한 햇빛을 쏘아주기 시작했다.

여기서 삼년 전에는 그 눈동자 새파란 애기를 업고있는 젊은 여자를 보았었는데……지금은 그 여자가 없어졌다. 미아리 공동묘지 가운데서 그여자가 돌아다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것도 벌써 삼년 전이니, 지금엔 그여자가 살아 있는지 혹은 죽어서 없어졌는지, 그것도 알수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벼란간 옥희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순회야!』

육회임마는 이때서야 비로소 「순회」라는 이름을 입박에 내어서 불렀다. 그동안 「육·아오」사변이래 팔년동안 그는 한번도 자기의 큰딸 순회의 이름을 입박에 내어서 부른 일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슬픔을 잊어 버리기 위해서 결심을 굳게 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팔년전에 서울서 괴뢰군한테 합창대원으로 뽑혀서 있다가 「구·이팔」직전에 이복으로 남치되어간 순회생각이 왈작 솟아오른 것이다. 지금 그는 자기 딸 순회가 살아 있는지, 혹은 죽었는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육회임마는 지금은 소문도 못들은 그 미친여자가 이복으로 남치 되어간 자기의 딸인가 같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잃어버린 미친 여자가 혹시 이복으로 남치된 순회의 변신이나 아닌가……하는, 이같은 정신착란(精神錯亂)까지 이르렀다.

『순회야!』

육회임마는 또한 딸의 이름을 이같이 불러보고, 그만 힘없이 언덕위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의 두눈만은 북쪽하늘을 향해 광채있게 쏘아보고 있다.

(一〇七面에서繼續)

그의 質問은 그 「페스」가 中央公園에 이르렀을때 直接로 回答을 얻었다. 그들은 「페스」가 마침내 黑人들의 居住地域인 「하렘」에 이르자 豫想한대로 美國의 裏面을 보았다는 뜻이 一齊히 浮었인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은 十五層으로 되어있는 方今 建設中인 한 巨大한 「아파트」를 보고 좀 못마땅해 하였다.

그 「아파트」는 놀랄만큼 完全한 現代의 設備을 갖추고 있었으며 깨끗한 庭園도 마련되어 있었고 매우 싼값으로 入住할수 있게 되어 있었다.

亦是 技術者라고고는 「아백산더·로보레프」는 「정말 貧民窟은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記者가 그곳을 가리켜주자 그는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훨씬더 醜하고 甚한 곳이 있을터인데 하는 눈치였다. 第三番街에서는 몇名의 주정뱅이들이 전바닥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으나 그들은 손가락질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유유」求景에서 가장 보고싶어한 곳은 「월」街이었다. 그들의 「페스」가 「월」街의 어떤 株式去來所에 到着하였을 때는 한참 바쁜 時間이었다. 그들이 蘇聯人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한 警官이 사람들을 데쳐서 길을 열어주었다.

「오르로프」는 「여제서 여기에 警官이 와 있는가?」를 물었다. 그에 對해서 어떤 記者는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好奇心을 느껴서 모여들기 때문에 警官이 온 것이며 다른 날에는 그렇지 않다고說明해주었다.

또 다른 蘇聯人은 去來所內에서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株價가 떨어질때 心臟麻痺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물었으며 또 그런때 破産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고 質問하였다. 그 去來所의 案內廳이 「그런 사람은 오래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고 明確하게 對答해 주었다.



△創作▽

장가는 잘 갔는데

廉 想 涉

215

1

『삼득이네, 메누리 보느라 구 췌 지위가 진 모양야. 대추나무
에 연 걸리듯 빗 투성이라는구먼.』

『그래두 메누리야 잘 왔지. 그 아들 봐서는.』

『왜? 삼득이는 어떻게 됐어? 그저 벌이 구멍을 못뚫어 걱정이
지.』

동리 여편네들의 지나가는 입담이었다. 삼득이 부모는 아들이
제대(除隊)가 되기전부터 일러오던 혼처(婚處)를 제대가 되자
불이야 살야 옥여대서 장가를 들었던 것이다. 삼득이는 입이
헤벌어졌다. 제대가 돼서 나가면 어떻게 살아 갈꾸? 하는 걱

정보라도, 장가는 언제가 보게 되려나? 하는 은근한 걱정이 앞을 서던 것인데, 이렇게 쉽사리... 이런 고마운 일은 없다. 그나마 색씨가 눈에 안 차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거야 제생각에도 좀 분에 과할 지경이니, 모두가 뜻밖이기도 하였다.

『춘색씨라더니, 아니, 서울 색씨의 딸이지 않겠나...』

『게다가 바누질이 얹전하여 요새 아이들 기특하지! 해가지구 온 저고리가 모두 제 손으로 지은 거라니 말야...!』

아들 가진 동리 아낙네들은 누구나 부러워 하였다. 사실 바누질 솜씨뿐만 아니라, 음식 솜씨도 그만하면 구차한 집 머리로서는 뽐혀다닐만 하겠고, 시아버지까지 친구한데 머누리 본 인사를 받으먼 자랑을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온집안이 뒤떠들고 이웃간에 칭찬이 자자해야, 시누들만은 피—하였다. 뉘집이나, 예네부터 시누는 대개 그런 것이라 하지마는 「누군 저만 못하기에!」 하고 입을 뗫쪽거릴만큼 일에 철철하고, 입도 썩 시누들이기는 하였다. 다만 인물에는 큰 소리를 못쳤다.

시골서 데려온 색씨라해도, 농사를 지어 왔을까, 문밖에서 좀 떠터진 춘경거장거리에서 그래도 명색이 잡화상이라고 벌리고 앉았는 집의 딸이니, 제모밀에서 귀엽게 자라지는 못했을망정 국민학교도 제대로 마쳤고, 원제 살결이 희고 고우니 인물이 귀한 이 바닥에서야 한창

더 돌보일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안 손하니 성깔도 곱고 손재주가 있어서 얹전하다는 칭찬을 들어왔지마는, 제모밀이라 해서가 아니라 장사에 바쁜 집안이니, 어서부터 제웃은 제 손으로 꿰매 입어야 했고 동생들 치닥거리며, 부러움을 만큼 부러먹는 동안에 제 앞가림을 하게 된 것이었다.

『여보, 우리 두 어떻게 키다리영감 메누리만 한 건 일어야 하지 않겠소?』

『딱한 소리는! 하필 키다리영감 메누리가 맞인갑? 먹을 것만 녀녀해 보우. 어떤 메누리감은 없겠기에!』

『허허허... 메누리는 소대상이던가, 과 먹으려만은 답니까?』

이것은 뒷집 높은 내외의 수작이었다.

『얼굴만 해반주 그대하면, 그만이군? 메누리 왔다고, 빗테미에 올라앉았는데!...』

이집 바누라는 삼득이 혼인에, 빗지시를 해서 젖든 만화, 한복을 걸어 대춘 것이, 이때껏 그대로 나자빠져 있기에문에 화가 나서도 그렇지마는, 삼십을 바라보는 삼득이 또래의 아들을 이때껏 짝을 못채워주고 밤낮 베풀고만 있는 처지니, 키다리 영감집이 셈도 나는 것이었다. 키다리 영감이란 삼득이 아버지 말이다. 환갑이 내일 모레라는 데, 싱싱하니 후리후리한 키에 몸집이 우뚝뚝한

은이가, 날마다 저녁때면 왕십리에 나가서 야채를 한 차씩 잔뜩 받아다가는, 이앞 시장에서 저녁 나절과 이틀날 온종일 앉아서 뜯거리로 파는것이 생화다.

이런 살림에 며느리 보기가 아무리 급해도 좀체 염두를 낼 수가 없는 일ियो, 한식구 더 말기가 쉬운일이 아니지마는, 마침 농지기 아까운 자국이 나섰고, 삼득이도 제대만 돼서 나오면야 저먹을거야 못벌랴 하고 턱 민고 서둘러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벌터 놓은일에, 받은날자가 있는 대사라, 어떻게든지 꾸려 대자니, 이덕 저덕 일할 번돈을 쓴것이 육칠만원이나 빚을 지고 앉게 된 것이다. 그래도 며느리 본것만 다행해서 매삭 육천환이 넘는다. 이자만 물기에도 절절, 매면서도 그리 눈쌀은 찌프리지 않았다. 흠은이 내외가 마주 앉으면 맨날 걱정이지마는 그래도 걱정하는 보람은 있거니 싶었다.

삼득이는 장가를 들어서 좋고 날이 갈수록 정이 들어 방속에서 헤어 나지를 못할 지경이나, 어머니의 빚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 송구스러워 못견디겠고, 흠은 아버지가 새벽같이 나서는 것을 보면 따듯한 자리속에 누웠다가 전에 없이 쫓밀 같았다. 저녁때 채소밭에 가는데만이라도 따라가서 거들고 싶지만은, 그것은 부친이 한사코 말리고, 군식구를 먹이고 품삯을 주어가면서도, 전부터 데리고 다니던 아이에게 짐차를 끌러가지고 다니는 것

이었다. 부친의 생각으로는 위의 두자식 다 잃고, 단 하나 삼득이가 남은것이 고마워서라도 그런데에 끌고 다니기가 없어서 그러는것이요, 군대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긴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 그후에도 몇해를 고생하다가 간신히 나온 자식이니 좀 편히 쉬라는 것이었다.

『아버지, 한식구 늘었으니 그대신 한식구 주려야죠. 인젠 제가 나설테니 그앤 보내시죠.』

데리고 다니는 윤성이는, 잠만 제집에서 자고 세끼를 여기서 먹이는 터이니, 삼득이는 그렇게라도 해서 미안한 생각을 덜자는 것이다.

『걱정 마라. 먹으면 얼마나 먹겠니.』

한식구 늘었다해도 새며느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말이다.

『넌 그저 어서 취직자리나 물어 봐. 너 마자 「구루마」를 찢구 장거리에 나서는 꼴을 보라니? 윤성이 늙든내가 내보내면 별안간 어디루 가라고.』

정이 들고 일의 보리를 가르쳐서 쓸만하게 된 윤성이를 내놓기도 아깝지만은, 그보다도 애비의 직업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득이란 늙은 육·이오통에 이복으로 부들터 왔는지, 되지 못하게 팔갱이 물이 들어서 제발로 걸어 왔는지, 온데 간데없이 없어지고 말았고 이득이는 전사해 버렸으니, 태산갈

이 믿는 것이 삼득이 하나다. 이 자식이 나마 출세를 하여 달라는 것이 소원이라, 뒤 열마동안 돌터 두기로 아까울 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형세에 부치는 장가를 빚을 내어가면서 시급히 드린 것도, 키가는 딸자식이, 둘이나 되는 데 무슨 일 손이 부족해서 부려먹자는 생각이 아니라, 두 자식을 장가도 못드리고 없앤 것이 한이 되어서도 그렇지만어서 죽기 전에 손주새끼나 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취직이라는 것이 말과 같이 취위야 말이지, 국민학교만 졸업한 것을 중학교 중퇴(中退)쯤으로 꾸며서 이력서는 두 군데나 들여 왔지 마는, 벌써 몇 달이 되어야 취정이 날 것 같지 않다. 알선(一線)에 있을 때 시름시름 손에 익게 된 토공(土工)이라 하면 조금은 자신이 있지만 그것으로 취직이란 웃으운 말이요, 후방군부로 들어와서는 서무(庶務)도 좀 해본 경험도 있고, 남하는 대로 영어도 한동안 열심히 독습해서 중학교 삼학년 정도는 되었지만, 그 역시 반동 진동이다. 부친이 허덕대고, 출세를 하여 달라고 믿는 것이 딱한 일이지니와 장가를 드려 놓고 보니 몸은 점점 더 달아 가고, 정이 쏠리니 어서 돈을 만지게 돼서 남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삼득이는 제대가 되기 전에는 민간에 나가면, 세상 없어도 영어는 본격적으로 배워 놓고 봐야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였었다. 지금 세상에 영어를 모르면 전세상에

서 일본말을 모르고는 병신구실을 하듯이 영어부터 해 놓아야 생병신 노릇을 안 하겠거니 하는 짐작은 있었다. 그러나 집에만 와서 열마동안 어를어름 하다가 장가를 들고 엄병 덩뎡하는 동안에, 그 결심마저 인제는 늦으려져 버린 것이 후회도 난다. 생각다 못하여 「타이프」라도 우선 배워 볼까? ∴ 그러나 그 까짓 자기의 영어 정도로서는 헛수고만 할 것 같다. 속기(速記)를 배워 볼까? 그것 역시 고등학교라도 나와서 어려운 문자를 취척 받아 써야 할 것 같은데, 제정도름의 상식으로 는 필상 부럽지가 않아서 마음은 썩 내키지를 않았다. 게다가 오류년 동안 거센 일이나 하여 마디가 굵어지고 뻣뻣한 자기 손을 들여다 보면 「타이프」나 속기니 하는 것을 연상삼히 해 볼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줄 알았더라면 군대에 있는 동안에 무어나 민간에 나와서 직업이 될 만한 기술(技術)을 한 가지 배워 두는 걸 ∴ 일선에서야 그럴 틈도 없었지만, 후방군부를 하는 동안에 야학이라도 해 가면서 꼭 하나 배워 뒀더라면 ∴. 그 저 나가면 부모 그늘에 병뎡거리고 놀며 먹고 살 줄로만 알았던 것이, 첫째 장가 잘 생각만 하고 살아갈 도리를 차리려는 요량은 왜 못했는지 후회가 난다.

(그러기로 말하면, 군대에서는 왜 그런 지도 방침이나 시설(施設)이 없었던구? 오랜 군무를 마치고 나와서

가득이나 어려운 취직에 어중된 나이로 갈매가 없거나 오자가 될 지경이니! 그야 이 지경을 일일히 돌봐줄 수 없기야 하겠지마는...)

지나날이지마는 이런 아련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2

『요셋돈, 십만원도 못되는걸 가지구...』

누구나 이렇게 말은 희뽀게 하지마는, 없는 사람이 단 돈 백환은 수월하겠기에! 칠만원 가까이 빛에 키다리영 감 내외는 몇달을 두고 절절 매던 끝에, 이 타개책(打開策)으로 삼들어머니마자 장거리로 나섰다. 처음에는 된장, 고치장을 퍼 내가기 시작하였다. 쌀쌀히 재미가 펜 찻어서 위선 뒷집 마누라가 지시해준 만환 빚부터 꺼내 갈 수가 있었지마는, 잔신히 집안식구나 먹을것을 남기고는 거덜이 나니까, 이번에는 떡장수로 개업(改業)을 하였다. 마침 추석이 다가 올때라, 가진 송편에 시루떡을 해 내가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시루떡을 얹히고 김이 오르는 동안에 시루 올케 셋이 송편을 후딱 빛는 것인데 오라범댁의 빛는 송씨가 이쁘지 않다느니 너무 커서 밀진 다느니 하여 몰아대면, 시어머니는

『애, 좀 큰것두 있어야 섞어두 주구 잘 팔린단다.』

하고 시어머니가 년짓이 새며누리를 좌우는 것이었다. 딸들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송편시루를 써내고 물에 씻고 하려면 오밤중이 지나 동틀 머리까지 걸리기가 일수인데, 모른척하고 오라범댁 한테 딸뉘어 맡겨놓고 썩씩들 자버리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야 늙은이가 종일 장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송편시루까지 얹혀 주고 들어가면 인사정신 모르고 코를 고는 것도 무리가 아니요, 또 날이 새면 어둡더니 나갈 사람이니 아무조록 자게 내버려두어야 하였다.

『어서 들어가 좀 눈을 붙여요.』

삼득이가 한차례 자고 나와서, 교대를 하여 부엌 아궁지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김이 오르는 떡시루를 지키고, 송편을 내외가 마주 앉아 씻고 하는 것이지마는 한두번은 재미가 나다가도,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무어길래 이런 호된 벌을 써야 하는 것인가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였다 하지만 저희들 혼인때문에 늙은 어머니가 떡목판 올이고 나선것을 생각하면 단잠쯤 밀지는 것은 신정지초의 재미로 여겨야 할일이었다.

그러나 오라범댁보다도 오라범이, 더 누이들이 알뜰코 야속하다고 토라졌다. 아직 나이 어리고, 반지빠른때가 돼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오빠 오빠하고 따르고 영등같이 시중을 들던 누이들이 아랫방 두식구를 아주 몰려내

는 눈치를 보면, 인제는 임자가 말아 갔으니 난모른다는
시기 비슷하기도 하고, 내가 벌지를 못하니까 넘보고 그
터는 구나 하는 고까운 생각에 삼득이는 바르를 하며 귀한
색씨를 부러먹으려만 드는가 싶어서 은근히 제집 역성을
드는 것이었다. 누구나 이집에 턱 들어서면 무색웃을 곱
다하게 입은 이른 색씨를 보고 집안이 금시로 환해진 것
같다 하며, 머누리 잘 봤구먼! 집안이 늘겠구먼! 하고
덕담을 하는데 어찌서 집안식구들은 지지구 뉘고 위통뉘
통한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삼득이는 짜증이 나기도
하였다.

어느날인가 울케가 점심을 차려다 놓으니까, 안방에 차
빠져서 조잘대던 두계집애가 마루로 나와서 상에 앉으며
큰아이 길레가

『아이, 반찬두 없는데 난 밥 먹구 싶지 않아. 나물 좀
떠다 주우.』

하고 짜증을 내는데 뒤 달아서, 동생 명례는 김치국을
떠 먹어보고는

『에이, 벌써 시어졌네. 날이 더운데 물에 좀 채놓 일
이지.』

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울케는 물을 떠다가 놓으면서

『어디 오늘은 먹을 물이나 있음디까? 우물물 아니면

채놓기루 될하우.』

하고 변명을 하였다.

『오빠더러 좀 길어다 달래지!』

『오빠 물장수던? 왜, 너 좀 길어다가 네 손으루 채워
놓진 못하니?』

아랫방에서 삼득이가 올라오면서 핀둥이를 주었다.

『우리가 물을 기르면 오빠 현일이 없어 심심해 어찌라
구? 호호호.』

『고맙다! 내사정까지 봐 줘서. 그대 내이 하는 일은 푸
지게 잠이나 자는거냐? 잠귀신에 걸렸니? 웬 잠들은 그
렇게 많으냐?』

삼득이는 쏘아 주었다. 그들의 송편때문에 날마다 잠
이 부족한 내외요, 낮잠도 마음 놓고 자지 못하는 색씨가
가엾어서 하는 말이다. 어머니가 장에 나가게 된 뒤부터
는 부엌일까지, 만만하니 오라벌때에게 쓸어맡겨 놓고 저
이는 입만 놀리고 앉았는 것이 못마땅하였다.

지금도 눈을 좀 붙였다가 고단해 못견디어 하면서도 점
심을 차리려 일어나기에, 저이끼리 차터 먹으라지 하고
더 재우려 하였건만, 아직도 시스러운 조심성으로, 더
구나 뒷말이 무서워서 부엌에 내려가 밥상을 차려다가 바
친 것이다.

『살쥔놈 따라 붓던가? 쏘아지는 잠이나 싫건 자구 봐

‘아지. 잠두 아껴서 절약하면 빚 갚게 되던갑!’

『입은 까서!』

삼득이는 또, 그 빚노래에 더 발끈해서 곧 손이 올라가려는것을 참으며

『홍, 년 몸종이나 하나 데려다 놓구, 열손구락에 물만 튀기면 그만이나? 별안간 그렇게 팔자가 늘어지게 됐는진 모르겠다만, 물을 떠 바쳐라, 김치가 시어져서 못잡숫겠다……. 웬 아니꼬운 수작야?』

쌍였던 울화와 불평이 그에 터지고 말았다.

『이전 더럽게 뭐야? 색씨 역성이나 들구! 어머니가 아셨단 와라……』

『요년, 말이라면 다하는줄 아니? 역성을 들면 어때?』
귀여우니까 역성도 드는것이요, 마음대로 못해주고 고생시키는것이 안됐다는 위로 삼아서도 터놓고 싸고 도는 것이다.

『어렵소. 장가가더니 환장을 했구먼! 저 반했으면 반했지, 뒤게 지다원가?』

점점 철없는 어린 누이의 말버릇은 사나워지고, 길례는 동생 역성을 드느라고 오래비를 흘려 보던눈을 울케에게로 돌린다. 점순이(삼득이처)이는 그 눈길을 피하여 외면을 하였다. 망단은하나 남편의말이 고맙고 속이 시원하였다.

『아나, 웨들 이러니?』

어머니가 목환에 커다란 빈 양재기를 엮어 이고 들어오며 소리를 친다. 오늘은 떡이 후딱 나가서 일찍 들어온것이다.

『패니 우리더러 물안진고 부엌일 안한다구 생트집이라우.』

『그럼, 옳은말이지 뭐냐? 이년들아 에미는 이꼴루 찢절거리구 눈이 뒤집혀 다니는데, 배지껏 처먹구 코빼나 부르며 자빠졌으면 수냐?』

어머니는 한바탕 말들을 모라대고 나서, 치마밑을 움척움척하더니 이쁘다란 그림병 하나를 꺼내서 며누리에게 주며

『이전 좀 저번거보다 좋다더라.』

하고 금시로 신기가 풀린 목소리다. 요새 장사에 한참 재미를 보기도 하거나와, 떡해 내기에 수고했다는 상급이다. 제남편이 못버는 대신에, 용돈을 알겨서 틈틈이 화장을 사다가 주는것이지만, 이런것으로나 마음을 붙이는 것이다.

『아, 언니 벌써 멀어졌어? 크림만 쓰든갑? 우린 한병가지구 둘이 쓰구두 아지 남았는데.』

명태가 또 입싼소리를한다. 언제나 두병 사다가 머누리는 한병을 주고, 형제의 몫으로하나 밖에 차례가 안

오는 것이 불평인데, 이번에는 그나마 빠질 차례니 두 계집애는 눈에 쌍심자가 솟았다.

『위염이 느려졌군!』

길례가 비양난다.

『입 좀 닫치구 있어. 위염이 느려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육간대청에서 스란치마를 느리구 있질 못해 걱정이냐? 넷간년들은 서방 맞어 가면 고만이지! 내가 죽을 때 물이라두 한술 떠넣어줄 사람은 새형 밖에 더 있다던.』
이해타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머누리가 마음에 드니 듣기 좋은 소리만 나오는 것이다.

3

문안 들어온 길에 들렀다고 칭칭어머니가 와서, 집순이의 얼굴이 까맣다고 눈이 거더 질린 것을 보고

『너 웬일이냐? 밥이나 잘 먹니?』

하고 감짝 놀란다. 생각하였더니 보다 살림이 어렵고, 사위가 그저 높고 있으니 밥이나 굶지 않는다는 말을 옆에 사위가 들으니 까 입덧이 났느냐는 듯이 묻는 것이었다.

『아내요. 요새 잠이 부족해서 입맛이 좀 제쳐지긴했지만…….』

『입덧 난 게 아니면 다행이지! 그런데 잠은 왜 못자

니? 그 한참 풍동 풍동하던 얼굴이 어쨌면 저렇게 못됐단 말이냐?』

배가 다른 자식이라 해도 이렇게 남의 집에 내어놓고 보니 기른 정을 알겠다. 따는 혼인 갖 해서 논 토실 토실 더 귀여워서 시집살이 올랐다고들 하였었다. 삼류이는 입덧이 안난 것이 다행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의아하면서, 점순이가 왜 잠을 못 자느냐는 말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남편의 눈치만 보는 듯 싶기에, 자기네끼리 시원히 이야기 하라고 자리를 뜨려니까, 장모는 걱정이냐 해주듯이 『자네두 어서 일을 부들어야지. 저렇게 놀구 있어 어찌나?』

하고 인제는 멀미가 나는 그 듣기 싫은 인사를 꺼내며 얼굴을 찌프린다. 무직이나 실직이 삼류이의 경우에는 사기죄(詐欺罪)만큼은 되기도 하였다. 따는 먹여 살린 언터거리도 재주도 없이, 먹여 살린다고 부도수표(不渡手票)를 때어 준 셈이오, 혼인을 하면 무슨 큰 수나 나는 듯이, 중매 든 사람이 인제 곧 취직한다고 높직한 잠투나 쓸 것 처럼 허풍을 떨어 놓았던 것이다.

『응? 아주 떠먹판을 이구 나섰단 말야? 그런 집안인 줄은 몰랐구나.』

점순이가 잠 못 자는 이야기를 하자니까, 시집 흥 보자는 것은 아니나 자연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머

니는 눈이 동그래지며 눈살을 찌푸려 보인다.

「그런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께서 보셨라, 그러지 않아 두 손아서 혼인했다구 특하면 화를 내시구 데리오라구 야단이신데...」

데리오라고야 했을가! 어머니 말에는 좀 보탬도 있기는 하지마는, 첫째는 고리대금을 써가며 혼인을 하였다는데 놀랐고, 사위가 벌써 반년이 되어도 편둥편둥 노는데 실망을 한 것이요, 그러자니 흥이 자꾸 들어나서, 혼인 이룰때 말이 사돈영감이 동대문시장에서 점포(店舖)는 갖지 않았어도 큼직하게 야채장수를 한 다기에 도매로 넘기는 그런 것러니 하였는데, 알고 본즉 지계를 지고 나서서, 「무드령 서, 배추드령 서」 하지만 앓을 뿐이지 이거야 장물병이 보라도 더하다고, 자기네 보다 지체가 떠러져서 사돈으로서 창피하고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다. 남들이 탐하는 귀한 딸을 줄데가 없어 배추장수 떡장수 집에 주었겠느냐고 분해하는 것이다.

「그리구 보니, 그 특무상사(特務上士)란 것두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혼인 이룰제 신랑의 직업은 특무상사라고 하였던 것이기에 말이다.

점순이는 남편 대신 자기나 수죄(數罪)나 받는 듯이고 개를 속이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 말이 옳기야

하지마는 그렇다고 남편이 놀고 있는 것만 힘이지 무슨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이요, 시어머니도 친어머니보다 더고 맘게 굴고 꾸어워하니 어느새 정이 붙어서 시집쪽을 너무 험어대는 것이 듣기 싫기도 하였다.

「나하구 가자. 사람이 잠이나 편히 제대루 자야지. 자식이 달렸니? 팔려온 종이란 말이야?」

그말에 점순이는 잠짝 놀랐다. 아이 서는 것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하던 어머니 말이 인제야 짐작이 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위해 주는 것은 고맙지마는, 집으로 가는 말이 아주 메롱고 헤어지라는 말 같이 들려서 겁이 났다. 난 어머니(生母)가 아니니 만치, 위해 주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어머니, 가질 어딜 가요. 그런 소리 마세요.」

남편을 두둔하는 것 같고, 서방을 멀리 지기가 싫어서 그러는 게 싫어 할까 보아서 점순이는 고개를 떠러뜨리고 속으로 절어다리는 소리를 한 마디 하였다.

「본가에 좀 쉬러 잔다기루 대수냐?」

「내가 가면 댁은 누가 하세요?」

「아니, 댁 방아꾼 같은 딸들은 두었다가 뭇한다던? 뉘 뉘 종으루 식모루 내어 줬다던?」

어머니는 또 필적 뛰었다. 그것도 점순이에게는 고마운 말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점순이는 남편을 혼자만 쓸

쓸하 내버려 두고 가기가 없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면 시녀들이 일을 다잡아 할것이니 남편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친정애를 며칠 가 있다가 오는 것이 해롭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친정어머니는 사돈마누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안계셔서 자네처럼 데리구 가진 못하지만, 내일이랴두 자네가 데리구 오게. 사람이 잠을 자야지. 하루 이틀아니구, 어린게 그게 할노릇인가?』

하며 사위에게 일러놓고 돌아갔다. 장모의 말이 틀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명스러운 어투가 듣기 싫어서 삼득이는 그저 좋은 낮으로 배웅을 하고나니 어깨가 거뜬하고 시원하였다. (내가 거길 왜 또 잘못 살은구!)

삼득이는 잊었던 분이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지지난달 일이다. 장모 생일이라고 하여, 없는 돈에 민어 에 고기에 술 한병까지 얹어서, 내외가 정경 하며 들고 이른 아침에 인사를 갔더니, 친정조카 사위라는 젊은애가 아랫목에 떠 버티고 앉았는데 첫눈에 틀렸는데, 밥상을 받을때도 그애는 그대로 앉혀두고 정작 이집 사위는 맛점상의 아랫목쪽으로 앉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나이로 보나 부엌으로 보나, 그대 백년 손인 이집 사위를 이렇게 홀대를 하는가 하고 삼득이는 심사가 틀렸지 마는, 건어차고 나설수도 없어 그대로 앉아서 밥술을 돌

렸던 것이다. 저편은 그때 한참 유행이던 「마카오」 양복에 금시계가 팔목에서 번질거리는데, 이편은 혼인때 처가에서 양복한벌도 해 주지 않고 관대 텃짐으로 조선옷한벌만 얻어입고 우물쭈물 지냈기 때문에, 초라하게 군대 바지에 「노-타이」만 입고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삼득이는 장모가 싫었고, 이 쌍놈의 집! 다시는 안오라고 결심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래도 색찌만은 좋으니 이때껏 그땃말은 입밖에도 내지물 않았다. 그야 취직이나 하고, 기를 쓰고 벌어서 팔목시계라도 하나 착만하고 산뜻한 양복을 입게 된다면 별문제이지 마는.

그때도 그이를 낳은 못보냈지 마는, 이틀이틀날 삼득이는 제 처를 때쓰 정류장까지 데리고 나가서 본가로 보냈다. 그것도 본가에서 쉬러 보내 달라는 것을 모른척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시어머니가 서둘러서 보내게 된 것이다. 삼득이어머니 생각에도 며누리를 너무 부러먹은 것 같기도 하거니와, 그동안에 아들을 쉬게 하여 잠을 실컷 자게 하여 두고 싶었던 것이요, 그년의 말쟁만 부리는 딸자식들을 얼마동안 부려먹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며누리가 친정애를 가더니 닳새, 열흘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었다. 영감, 마누라는 패설하느니, 안보내는 어른이 틀린다니 말이 많았지 마는, 삼득이는

의심이 부쩍 들고 보고 싶은 마음 같아서 곧 뛰어가서 끌고 오고 싶은 것을 끌며 참아 버렸다. 모친이 좀 보라고 해도 머리를 내어들었다. 어찌나 끌을 보자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 명례를 보내서 데려왔다. 앓았다는 것이었다. 열흘 넘어나 홀래비로 지내느라고 잔뜩 부화가 낳던 삼득이는, 한참 토라져 보다가 그래도 귀여운 색씨라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래 그동안 뭘 하구 있었어?』

『뭘 하긴 뭘해. 지친 끝에 몸살도 낳지만, 어머니가 자꾸 부를어서……. 우동 가게를 또 낸다나. 나더러 부덕부덕 그걸 거들라는구먼…….』

그말에 삼득이는 선뜻한 불길한 예감(豫感)이 들어 눈이 뚱그래지며

『우동장수라니?』

하고 채쳐 물었다.

『차라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우동장수가 내이(大利)라는데, 자기가 버릴테니 같이 거들면 이익은 반한씩 하자구. 당신 담배값이라두 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야. 좋지 않아? 담배값커녕, 모아서 어머니 빚값아 드리면! 실상은 어머니 빚이 아니라 우리 빚이지 뭐야?』

그말이 고마워서 삼득이는 이런때처럼 점순이가 귀여운 때가 없었다. 가슴은 도리어 잡잡할 지경이었으나, 잡

자코 꼭 끼어 안으니 속이 시원하여지며 전신이 확 풀려 있었다.

또 그러나 의심이 부쩍 나서

『만소리 말어.』

하고 안겼는 색씨의 얼굴을 들여다 보며 눈치를 살폈다.

『그럼 어떻게? 당신 못별던 내라두 벌어야지. 어머니는 너같은데, 서울 가서 약사팔리 놀기만 하면, 한달에 오만환 십만환쯤야 문제 없던데?』

아무리 제모기로 말자식을 꼬여내고 충동이는 말은 하니 아무리 배지 못했기로 그럴법이 있나 하고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그래 그렇게 해볼 작정야?』

『응!』

하고 점순이가 어린애 엉석처럼 열정적으로 힘 있게 도리질을 하는 바람에, 삼득이는 또 한번 안해를 힘 차게 끼어 주면서 행복할 자기를 느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장모가 패심하다.

(저번에 왔을때 가장 말이나 위하는듯이 열탕거리는 것부터 눈치가 다르더라니! 세상이 꺼꾸루 돼두 분수가 있지, 젊은게 허영에 떠서 돈 없는놈 알게 뭐냐고 길어차구 바람이 난대두 말려야 할텐데, 딸자식을 명동

거리로 꼬여 내서 팔아를 먹겠단 말야? 갈보를 만드
는게 소원이란 말야?...

삼득이는 당장 처가로 뛰어가서 한바탕 들싸 놓고 싶
으나, 그랬다가 점순이가 노해서 정만 버드러질가 무서
워서 참아 버렸다. 그전 고사하고 눈의 안경으로 본탕이
지마는, 마는 점순이만 하면야 한다하는 일류 요릿집에 내
놓드라도 당장 어느놈에게든지 휘어 넘어갈것만 같아서
집이 더러웠다. 삼득이는 정말 너 그럴테냐? 고 물어
보듯이, 점순이의 방그래 웃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
다가는, 하 어처구니가 없어 찔찔 헛웃음을 쳐버렸다.

【왜 그래?】

점순이는 오랫동안 남편 무릎에 안긴것만이 좋아서 눈
울 가슴츠레 감으며 생글 웃는다.

4

구월달 들어서 며누리가 입덧이 나는 눈치에, 영감 마
누라는 기다렸는듯이 좋아서 수근거리고, 삼득이도 달아
나는 계집의 발목이나 부른듯이 마음이 터 놓이는듯 싶
었다. 무엇인지 눈에 안보이는 유혹의 손길이 어린 안해
의 몸을 싸고 도는듯한 불안에 시달리던 삼득이였기 때문
이다. 사실 그동안에도 두어차례나 친정어머니가 문안 들

어왔던 길이라고 와서는 수근거리고 가는것이 불쾌하고
의심쩍어서 실없는 말처럼

【아직두 우동장수할 공론야? 명동거리로 진출할 음모
야?】

하고 속을 떠 보면, 점순이는 필적 뛰는것도 아니요,
어정정한 낮빛으로

【객설 말아요.】

하고 신웃음만 치는 것이였었다. 그러던것이 태기가 있
은뒤부터는 본가 불이가 일결 일센도 않게 되었으니, 삼
득이는 인제는 마음이 놓이는 것이였다. 시아버지의 엄
명으로 이후로는 떠에는 손을 내지도 못하게 한것도 또
한가지 다행한일이였다.

그중에도 눈이 번쩍 떨어일은 삼득이가 풀려 나가게 된
것이였다. 큼직하게 창성방직(昌盛紡績)에서 채용한다고
염서 한장이 날라 들어 왔을때, 온집안이 큰 수나 난듯
이 떠들석하고 좋아하던 양이라니! 새댁—— 인제는 배
도 눈에 떠올만치 불렸으니 새태이라기도 서투르지만——
점순이는 남편의 얼굴이 새삼스레 신통한듯이 말끄러미
치어다보는 것이였다.

【그때 무슨일을 맡게 됐니?】

회사에 갔다오던 첫날 부친이 물으니까,

【종무과예요.】

하는 아들의 대답에 영감은 위선 사무원으로 채용되었
다는 것만 해도 큰 출세가 아니냐고 가문에 없던 일이라 고
신바람이 나서 했다. 점순이도 친정에 가서 창성방직회
사 사원이 된 남편 자랑을 하고 시집 간 뒤에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 친정아버지가 사위의 일에 웃어보이는 것도
처음 보았다. 그러나 웬일인지 어머니만은 입으로는 「아
이, 고마워라!」 하고 반기면서도 입귀가 배쪽 일그러졌
었다. 그런데 삼득이가 회사에 나가기 시작한지 불과 열
흘의 못되어서다.

친정어머니가 오랫동안 불이나 케, 오더니 첫인사가, 무
슨 큰일이나 발전한듯이

『애, 사무원이 뭐냐? 수위(守衛)라더라. 문직이래!』
하고 딸에게 소근거리는 것이었다. 점순이는 좀 섬적하
기는 하였으나, 수위거나 문직이거나 하여간에 삼만환 월
급이 들어 올것은 확실하니 그것을 생각해도 느긋해서,
해! 하고 선웃음만 쳤다. 계모는 딸의 얼굴에 아무 반응
(反應)이 없는 것을 보자

『아버지께서는 코웃음을 치시더라. 그러면 그렇지, 제
가 웬 어엿한 사무원 재물이냐 된다면. 그나마 며칠이나
부지할지 누가 아니! 하구 퍼덜 좋아 하시더라.』

하며, 아버지를 팔고서 하는 말인지, 박박 소리가 나도
룩 짝는 것이었다. 남편이 들을까 무섭고, 아들이 문직

이라는 말을 시아버지나 들으면 얼마나 낙심할까 시퍼
밖에 내지도 않았다. 남편에게도 당자가 무안쩍어 할 것
같아서 물어 보지를 못했다. 그러나 어느날 무슨 말
인지 시아버지가

『흥, 고작 그거야? !』

하고 낙심이 된 소리를 하더니

『별 수있니! 배추, 장수 자식이!... 애비를 잘못 만나
그렇지.』

하고 절절 웃는 소리가 안 마루에서 나는 것이었다. 점
순이도 제 팔자에 문직이 남편 밝게 차례에 안오는가 싶
어 별로 불평은 없었다.

그러나 점순이는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딘지, 시아버지
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하였는데, 남편이 회사에 다
니기 시작한지 일주일도 못되어서 친정어머니의 조카사
위가 찾아갔더라 말을 남편에게 나중에 듣고 생각해보니
점작할 수가 있었다. 처가집 장모 생일밥을 먹으러 갔
다가 와서 반지빠른 자식이라고 못먹어하던 외사촌동생
의 남편을 만났다는 것이다. 가서 염탐을 하여보라고 친
정어머니가 시켰던 것인지, 정말 무슨 기밀일이 있어 청
을하러 갔었던지는 모르겠으나, 삼득이는 시퍼런 수위복
(守衛服)에 학생모자같은 모자를 쓰고 문을 지키고 섰다
가 딱 마주치니 창피하여 못견딜 지경이었었다. 그 회사

에는 관청처럼 수위의 정복이 있었던 것이다. 청을 하려
갔던 사람도 수위쯤이면야 어이가 없어서 말도 부쳐보지
않고 돌아갔겠지마는, 대관절 친정어머니는 무엇때문에
그반지빠른 애를 내세워서 뒤를 캐어 보려 들었던지 자다
가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친정 어머니가 불이나 케 찾아
와서, 듣고 싶다는 이야기도 아닌 「문직이래, 문직이래」하
는 소리를 들려준 것만 봐도 분명 그 동안 일테데, 시아버
지가 알게 된 것은, 그때 명례가 창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알려 바친 것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막히는 일이 청천벽력 같이 생겼다.
창성방적에 들어간 자가 겨우 이십일 남짓이나 되었을까?
그날이 마침 삼득이가 숙적이었는데 수가 사나우려니까
밤중도 아닌 초저녁에 도난사건이 생겨서 삼득이는 경찰
서로 불려다니고 한바탕 법석이 났었다. 하필 그날은 중
여회의가 있어서 날이 저물도록 질질 끌었는데, 사창실
로부터 각 종역의 방에 걸여놓은 외투와 모자를 장그리함
어버렸다. 외투가 한두벌도 아니요 십여벌이나 되니, 도
둑은 좀 도둑이라 해도 한 두놈의 것이 아닐 것이요, 물건
은 담념어로 넘겨서 저이끼리 리례식으로 날라갔다 하드
라도 애초에 들어 올제는 앞문으로 들어왔을 것이니, 도
대체 수위는 등신아니면 무엇할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제대병이라 해서 특별히 수위로 채용한 것인데 들어오는

말에 이런 사고를 났으니 총무과장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이었다. 도둑놈들과 대통을 하여 합부로 걸어둘인 것이나
아니냐는 의심까지 뒤집어쓰고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불려 다닌 끝에, 한달치도 못되는 월급만 받아들고 파면이
되어 쫓겨 나고 말았다. 그나마 인정 써서 준 것이요, 유
치장 신세를 지지 않은 것만 다행이었다.

점순이는 며칠을 두고 공공 혼자 앉고 다니던 남편이,
싸가지고 간 점심도 안 먹고 풀이 죽어서 돌아오는 꼴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처음 가게 되었을 제너무
수선들을 떠려서인지, 오랫동안 얼마동안 명랑하여졌던
집안이 또 다시 음울하여지고 맥들이 풀려서 쓸쓸하였다.
친정어머니는 무슨 까닭인지 그거 와라는 낮빛으로 또
달겨들기 시작하였다. 삼득이의 불안에 싸인 얼굴은 으
드름 찌푸러지고 점순이의 눈자위는 친정어머니가 한참,
드나들던 때처럼 허공에 떠서 무엇인지를 곰곰 생각하는
표정으로 얼굴빛이 달라갔다.

☆

☆

☆

☆

☆

☆

☆

☆

☆

☆



△創作▽

終着驛附近

金 利 錫

229

옛날부터 가을은 등화가친(燈火可親)이라하여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물론 나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이 이번 가을에는 부끄러움을 피워 공부를 좀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 줄때면 부럽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요즘 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 집구석에서 책이 나 퍼치고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손해나 보는 것 같은 기분이다. 말하자면 가을과 함께 나의 타성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상 나는 며칠째 짜야 할 원고가 밀리고 있으면서도 원고를 쓴다고 책상에 마주 앉아서는 현 잡지만 뒤적이다가 기어히 무슨 핑계를 찾아내고는 거리로 나온다. 마치도 공부를 못하는 애가 연필만 쥐고 있다가 아버지의 눈을 피하여 빠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와 일을 보고서는

곧 집으로 들어 가는 것도 아니다. 노여난 아이처럼 나도 노여난대로 하겠지요. 없이 혼자서 거리를 싸다니기가 일수다. 때로는 영등포 쪽으로 나가서 영마전을 기웃거리 보기도 하고 때로는 왕십리쪽으로 나가서 맹물같은 커피에 입맛을 다시고서는 뒤떨어진 영화에 눈물을 흘려 보기도 한다. 이렇게도 어이없게 시간을 보내노라면 자연 날도 저물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술집으로 찾아가 낮선 손님들에게 끼워서 대포를 한잔 들이킨다. 한잔이 두잔이 될 수도 있고 석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술기운에 골격이 부드러워지면 공연히 장해진 것이나 같아, 분수 없게도 사치를 부려 보고 싶어진다. 허나 사치를 부려 보고 싶다가야 별 수 없는 노릇이다. 고작 노점에서 포도나 한송이 사는 일이다. 그것을 한알한알 먹으며 돌아 오는라면 입안엔 이상한 촉감이 느껴진다. 약간 마음도 달며지는 듯한 심지 않은 촉감이다.

오늘도 또 나는 거리로 나왔다. 잉크가 떨어졌다는 핑계로서 나온 것이다. 잉크나 사자면 골목 어귀에 있는 구멍가게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척 하고 나는 광화문 네거리까지 나왔다. 그러고는 나도 교통 순경이나 되는 것처럼 그 한 복판에서 서 오르는 어디로나 나가볼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곳은 사통오달 되는 것이므로 어대라고 좀처럼 정해 지지

를 않았다. 그러면서 어느덧 잉크를 산다는 생각은 완전히 잊어 버리고 불광동으로 나가는 뽀스를 탔다.

며칠 전에 어느 친구가

「자네두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만 살겠나, 요새 불광동에 후생주택을 많이 짓는 모양인데, 그 집이나 한채 마련해서 살림을 갖게나」

하고 나를 생각해서 말해 주던 것이 문득 생각 났기 때문이었다.

실상 나는 일사 후퇴 때에 북에서 혼자 나와 지금까지 혼자 살아 왔다.

그동안 나는 하숙이 싫어지면 자취도 하고, 자취가 싫어지면 하숙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개칠 줄 모르는 이불 속에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살아 왔다. 환도 후엔 다행히도 그 대중 잡지나마 쏟아져 나와 나의 무딘 붓끝으로도 나 하나의 입만은 어떻게 먹어나갈 수가 있었다. 피난 나와서 하숙도의 소지부도 되어본 기억이 있는 나로서는 되지 않은 소설이나 내 마음대로 써 가지고서 하여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눈물이 나리만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옷의 대한 신경도 이제는 없어졌고, 사흘 나흘이나 되어 굳어진 빵도 태연스럽게 깨물고 있는 나다. 그렇다고 돈을 굳혀 싸둔 것도 아니다. 내 주머니는 한달 전도 일

년전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가버렸고, 모름지기 한달 후나 일년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버울 것이다. 그러한 내가 불광동으로 후생주택지역을 가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나로서도 정말 알 수 없는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맞아줘 시종을 들어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의 집도 마련할 주변이 있는 것도 아닌 나로서 무엇하자고 집을 보려 갈생각이 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역시 그곳도 나의 가을의 타성으로 끌려간 노릇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불광동에는 수백채의 같은 집들이 줄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들어 차 있었다. 저편 맞은편엔 역시 같은 집을 한참 짓고 있는 것도 보이었다. 아마 내 친구는 그 짓는 집을 얻으라고 일러 준 모양이었다.

나는 후생주택들이 들어 있는 골목길로 들어서서 어느 집을 찾듯이 이집 저집을 기웃거렸다. 길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꼭잡아 보였으나 역시 조금식은 달랐다. 무엇보다도 우선 현관에 달린 문패의 이름이 달랐고, 호수가 달랐다. 율타리를 한 집도 있고 안한 집도 있었다. 뜰도 역시 조금식은 달라 마리아가 된 뜰도 있고 코스모스가 열려진 뜰도 있었다. 장독대를 자랑하는 집도 있고 계사가 눈에 띄우는 집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쌀전

도 이발소도 구멍가게도 그리고 약방과 병원까지도 있었다.

나는 그러한 집을 하나 하나 찾아내는 것이 신기한 발견이나 하는 것 처럼 이끌목 저끌목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가던 길을 멈추고서,

「뗏호를 찾습니까」

하고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대답에 궁한채 서성거리다가

「백삼호가 어디 쯤 되는가요」

하고 입에서 나오는대로 물었다.

「백삼호라면 저 동쪽 옆일 것입니다」

하고 그는 가리켜 줬다. 나는 무슨 잘못에서 벗어난 기분으로 동쪽을 넘어 별로 나왔다.

언덕 아래로는 과밭이 뒤섞인 벌에는 난알들이 벌써 누렇게 익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군데군데 허제비들이 서 있었다. 허제비는 물론 새를 쫓기 위해서 새끼를 짓는다. 그러나 새들은 그것이 서 있진 말건, 떼를 지어 물려와서 난알을 쪼아 먹었다. 그래도 허제비는 한몫 하는 셈으로 바가지를 놀려 쓰고 팔을 잔뜩 벌리고서 있었다. 그것이 우습기도 한 한편 가련한 생각도 들며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 비슷한 생각도 들었다. 나는 물을 던져 새들을 날리면서 아직도 햇볕은 따갑다 해도 전갈만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풀밭에 누어서 그 햇빛을 즐기다가 해가 저물 무렵에야 떠스 종점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여기 어디 술집이 없는가고 찾다가 아직 볼도커 놓지 않은 술집으로 들어가 앉았다.

안주란 마른 복어밖에 없다고 한다. 나는 그것을 찌져가며 대포를 마시고 있을 때,

「하여간 여기들이 한잔 합세」

하면서 오십쯤 난 영감이 삼십쯤 난 키가 짧다 딱한 청년을 끌고 들어 왔다. 말투가 나와 한 고향인 평안도였다. 그들은 내 앞자리에 앉으면서 나와 마찬가지로 소주를 한잔씩 부어 달랬다.

「그래 어떻게 되었어?」

영감은 주인 아주머니가 술잔을 갔다 놓기 전에 그런 말부터 먼저 꺼내었다.

「어떻게 되지요. 정말 난 아주 반일 이런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젊은이는 반가워 서두는 말투였다.

「글쎄 말야 죽지 않으면 다 만날 수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도 우연히 만날 수 있을 줄야」

역시 영감도 보통으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닌 품이 갑은 동네서라도 살던 모양이었다.

그제야 주인 아주머니가 술잔을 갔다 놓고 부어 놓자

「하여튼 독세」

하고 영감이 먼저 술잔을 들었다. 그러나 청년은 지금까지 반가워 하던 얼굴이 시르 뭉뚱해서

「왜 들지 않아」

하고 영감이 술잔을 재촉했다.

「아주반이가 감자장수를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고 청년은 눈물을 머금듯이 다문입술을 오물거렸다.

「먹기 위해서인걸 어찌겠나, 그런 쓸데 없는 생각은 그만하고 어서 술잔이나 들게나」

영감도 말만은 그러면서도 서글픈 빛이 얼굴에 서려졌다. 그것을 감추거나 하려는 듯이

「어서 술잔을 들어 꼭 내라니까」

그제야 청년은 술잔을 들어 절반쯤 마시고 나서 안주로 김치를 집었다.

「그래서 그때 황주에선 어떻게 돼서 떨어져어」

「글쎄 나두 모를 일이지요. 어떻게 된일인지」

하고 청년은 일사후퇴에 돌아선 그 모양으로

「소변을 보느라고는 두령에 돌아선 그 동안에 아주 반이란 나 오던 우리 일행을 잃어버리고 말은걸요」

하고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구만 그걸 모르고 우리들은 남자가 따라 오는 줄만 알고 한참가다 보니 없지 않겠나, 그

「태서 기다리면서 걱정을 하다가 필시 앞선 모양이라고 또 따라가 보지도 않았나.

「위낙 사람이 많았으니 한번 잃고서는 찾을 길이 없었지요.」

「그래 고생이나 하지 않구나 왔나?」

「고생을 하지 않았다니요. 난 해주로 나와 길을 헛들어 가지구서 몇번죽을 고비를 넘고 나왔지요」

「해주로 들어섰다면, 큰 고생을 했겠네」

「그래두 나왔기 말이지요. 못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나 구요.」

「그래 자넌 어디 가 있었기에, 전혀 소식이 없었나?」

「그때 난 원 나중에 피난 나오다가 말해요. 저 뭐 충청도 보은이라는데까지 가서는 주저앉게 되고 말았지요.」

「충청도에 가서 백여 있으니 누가 알맞이 있는 일이라 구 그런걸 가지고 우리들은 이 사람이 필시 어떻게 된 모양이라고 까지 생각하지를 않았나」

하고 절절 웃는 품이 북에서는 피 살던 모양이었다.

「사실 생각하면 정말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 왔지요」
청년은 술잔을 들다가 말고 웃음을 웃어 보이었다.

「거야 다 누구나가 매일반이지, 그래두 임자 몸은 아주 좋아졌는데」

「그래요? 하긴 북에서 받던 그늘들의 성화를 받지 않

고 사니, 마음 편해 좋습데다.」

「그진 나두 그럼습데 그 좋은 파수원다 농고 나와서 구마 장수 노릇을 해도 마음 놓고 사니 씨원하디나 그 래서 충청도 가선 무엇하고 살았나.

「제가 배운게 뭐예요. 농사 밖에 없던 걸요. 거기가 서두 농사로 살았지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 살았다니 농토는 어떻게 얻어서?」

「처음에야 남의 고장에 간 사람이 어떻게 농토를 얻겠어요. 남의 일해주고서 품값으로 살았지요.」

「그것으로서 피 살수가 있던가?」

「아 그럼요 시골에야 손이 발라 맞았지요. 그리고 또 뭐 혼잔데도 먹는 것은 여기 저기 일해주는 집에서 얻어먹게 되니 돈두 좀 모읍디다.」

「아니 그래 돈까지 뭇게 되었어? 거 시골가서 잘 됐네 그러, 그래서 그 돈으로 밭을 샀나?」

「그러는 이어 고향도 돌아 갈것만 같은 생각이므로 땅 사고 싶은 생각은 없던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 동네에 마침한 색시가 생길래 장가를 들었지요.」

「장가를 들었어 이 사람아 거 잘했네그려 고향에서도

돌지 못했던 장가를 피난 나와서 들었다니!

「뭐 그렇다고 잘한 노릇이라고도 할수 없는 일이었
어요.」

「아 이 사람아 거 잘한 일이지, 피난을 맨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장가까지 들었다니 그 이상 더 잘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 색시는 충청도 색신가?」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아 충청도 사람은 모두가 양반이라
는데 자네 집 사람두 양반이 아니겠나」

「양반은 양반이란디다만, 그렇다고 얻어 놓고 다시 생
자해 보니 아내를 아주 색 잘 얻었다고는 생각되지가 않
아요.」

「어째서 뭐 충청도 색신 말이 떠서?」

「그런것도 아니지요」

「그럼 왜?」

「왜라니 보라도 그제:」

「글이 없던가?」

「그런것두 아니지요」

「그럼 왜? 양반이겠다 글두 있겠다. 뭐 눈치가 좀 모
자라던가?」

「눈치같은 것은 너무 있어서 걱정이지요」

「그러면 모름지기 남자하고 나이가 어울리지 않던 모

양이구만, 색시의 나이가 몇살인데

「스물여섯살이 있었어요」

「스물여섯이라면 남자하곤 꼭 좋네그려 그런데 뭐가 글
렀단 말인가?」

그러자 청년은 역시 말하기가 부끄러운듯 웃음부터 웃
고 나서

「실상은 얼굴이 험했어요」

하고 말했다.

「뭐 뭐 곰보야? 곰보라니 누가 말이야 남자 색시가?」
영감은 펄펄 뉘듯이 말했다.

「그렇기 말해요」

「남자 그래 눈을 뜨구서 곰보를 얻었다 말인가?」

「그렇게 말이예요」

「아니 여까지 나와서 곰보색시를 얻다니, 더군다나 요
즘은 남아 도는 것이 색시라는데」

「그렇기 말이예요」

「사람이 아모리 덜 낫으면 일생 한번 얻는 여편네를 곰
보로 얻다니」

「글세 그때는 뭐 곰보두 아니고서야 나같은 것한테
누가 오려니 하는 생각으로 곰보두 심살할 것 같아서 얻
었지요.」

「아 이 사람아 곰보야 언제나 곰보지 그 말 들으니 내

「가분해서 자네하구 말두 하기 싫어지네」

「그래두 꿈보의 마음은 비단결 같다는 말두 있잖아요.

마음은 아주 얹전해요」

「아모리 마음이 얹전해두 그렇지, 사람이란 외양부터

보기 마련인데...」

「그래두 면에서 보면 그렇게 흉하지는 않았어요.」

「에이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해, 어두운데서야 꿈
보두 보이지 않는 다구 하겠구만」

그러자 그 청년은 다시금 주저 주저하다가

「사실은 그 사람이 돈두 좀 있다는 것을 알고서 했지

요」

하고 말했다.

「뭐 뭐 돈? 허 이 사람이 자기 궁리는 다 있었구먼,

그래 얼마나 가져 왔나?」

하고 영장은 지금까지 나물기만 하던 얼굴이 확 달라

졌다.

「화폐 개혁전이니까, 열마였던지 지금 잘 기억나진 않
습니다만, 하여튼 소두어 작은 살 돈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대단한 돈이 아닌가 이 사람아 그러면 장
가 들어서 아주 땅잡았네 그러」

「뭐 그런것두 아니지요」

「이 사람아 땅 잡지 않고 뭐했나, 참, 이제 보니 자네

그 귀가 넓적한게 쳐 덕은 좀 있어 보이네 그래 그 돈으
로 뭇했나?」

「뭇 할게 있음디까, 그 돈으로 뭇할가 하고 생각하던
글에...」

「그래 땅을 샀겠구만, 색지두 얻었으니 이제는 땅두 살
생각을 했겠지」

「저두 처음에는 땅을 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땅을
사는 것 보다두 소를 사는게 더 수입이 많을 것 같습디
다.

「소를 사다가 품삯노리 해서?」

「그렇지요. 육·이오 난리 통에 팔갱이 돌에게 소를 다
잃어 버리고서 소 있는 집이 몇집돼요? 그래서 매일 소
품삯을 놓니까 아주 수입이 좋더군요.」

「그것 참 잘했구만 그래서 그걸루 먹을 걱정은 없었
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돈두 좀 목이 두군요.」

「돈까지 뭇게 됐어? 그래서 그 돈은 뭇했나」

「그 돈으로 또 소를 샀지요.」

「그럼 소가 세말이나 생겼겠네 그러, 그것 잘 뭇네 그
러」

「뭇 잘된것두 없어요」

「이 사람아 소가 늘었는데 안 뭇다는게 무슨 소리야」

「그 사온 소 때문에 집에 있던 소까지 다 죽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소가 다 죽게 되었다니?」

「글세 그놈의 소가 말입니다. 우질이 있던 소인들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집의 소까지 읍은 모양이구만」

「그렇기 말입니다. 우질엔 소가 맥을 쓰지 못하던군요」

「그랬으면 참 안됐어 그러」

「그렇다구 뭐 안될 것두 없었어요」

「아 이 사람아 그게 안된 일이 아니라니 소세필이나 죽여 그 동안에 생겼던 세상 미천을 다 놓게 되었는데 안된일이 아니라니」

「그래두 꽤 참았어요」

「어떻게 꽤 참았어」

「소가 죽게 됐기에 분주히 잡아서 고진 고기대로 팔고, 가죽은 가죽대로 파니까 오히려 소값에서 좀 남던군요」

「그래 하긴 들고보니 그렇기두 하겠구만 더군다나 그대가 죽 시세가 한참 좋았으니까」

「가죽뿐만 아니라, 고기두 없어서 못팔았지요」

「그랬으면 소 죽어 오히려 더 잘된 셈이네 그러」

「그런것두 아니에요」

「뭐 그것이 그래 잘 되지 않았단 말인가」

「하고 영감은 화를 내듯 소리치고 나서」

「소를 죽이고서 못사는 사람이 열마나 많은데 세필이나 죽이고서도 소값을 오히려 더 건졌다니 거야 잘된 것이니구」

「하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은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글세 별루 잘된 것두 아니라니까요」

「하고 자기발을 내세웠다」

「아 그만했으면 잘됐지 그 욕심이 너무하네 정말 난 남자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니」

「하고 영감은 그대로 화가 난 소리였다」

「정말 내가 욕심이 너무한 놈이었어요. 또 소나 사서 샀소나 쥐서 살생각을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글세 누가 부산에 무를 해 가면 큰수가 난다기에 그 돈으로 무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웬 무가 그렇게두 많이 와 있겠수 전라도에서 왔ندا. 경상도에서 왔ندا 그 바람에 무를 펴 내는 샀값도 되나마나 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럼 거기서 풀다 망했네 그러」

「그렇지요. 풀다 망하게 된 판국이였지요. 그러나 사람은 좀처럼 망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무를 싣구 가서 망하구 서두 망하지를 않았다니」

「글세 말이예요. 무값은 말할 수 없게 내렸지만, 무를
씻고 가느라고 샅던 배값은 삼배나 올랐거든요」

「아니 그래서 배값으로 무값을 봉창했나?」

「그렇지요.」

「아무튼 님자 운이 좋았네 그러」

「운이 좋은 것두 없어요」

「이 사람아 그만 했으면 운이 좋은 것이지」

「운이 좋은 게 뭐예요. 그 돈을 빚을 썼었는데 그 사람
이 달아났으니」

「뭇빚을 준 사람이 달아나서 그렇게도 힘들게 살린 돈
을 갖고서?」

「저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썼었는데!」

「아 이 사람아 요즘 세상에 돈 앞에 좋은 놈이 어디 있
어 그렇게두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돈을 떼우게 마. 편이
지 그래 한 푼두 못 건전나」

「그래두 그렇지 않았어요」

「돈 준 사람이 달아났다면서 무슨 재간으로 돈을 받았
다는 거야?」

「그래두 몰랐더니 산판을 하나 가지고 있었더군요. 그
사람이 팔라고 할 땐 작자가 없었는데 마침 작자가 생겨,
그것을 동네 사람들의 승낙을 얻고 팔아서」

「뭇뭇 어떻게 됐어?」

「그 산판을 팔아 이자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사람아 그랬으면 거 참 잘했네 그러」

「뭇 그렇게 잘된 것두 아니예요.」

「잃었던 돈을 이자까지 해서 받았는데 잘 된 것이 없
다니」

「그 돈이 타버렸으니 말이지요」

「아니 돈이 타다니?」

「글세 말입니다. 내가 장에 갔다가와 보니 집에서 불이
나 다 타버리지 않았어요」

「집에 불이 났대도 그 돈이야 못 끄내?」

「글세 말입니다. 집의 사람이 낮잠을 자다가 불이라는
소리에 당황해서 그대로 그만 뛰쳐 나온 모양이더군요,
그러니 계속에 넣었던 돈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다 탔구만」

「그렇기 말입니다.」

「그랬으면 안됐네 그러」

「뭇 안된 것두 없지요.」

「아 이 사람아 돈이 다 타서 재가 돼 버렸는데 안된 것
이 없다니」

「그렇기 말해요 난들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
편네를 타 차버렸으니 말입니다.」

하고 청년은 자기 할 이야기를 다 했다는 듯이 술잔을

풀어 쭉들이키었다. 영감도 그 소리에 가슴이 풀려지는 듯

「그거 참 잘했네, 나두 참 속이 시원하네」

하고 주인아주머니를 불러 술을 한잔씩 더 부라고 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주인 아주머니가 놓는 술잔을 보며 다시 시무룩한 얼굴이 되며

「그래두 생각해보니 잘한것두 없는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영감은 그 말에 다시금 화를 벌떡 내며

「아 이 사람이 쓸모 없는 그런 여편네 차버렸으면 잘했지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하고 고함치듯 말했다.

「그래서 홀몸이 되고 보니 뭐 시원한것이 있어야 말이 지요。」

그래서 남자 장가 못들것 같아서 그런 걱정인가?」

「그래두 살던 정이 그렇지 않던걸요」

「예 그런 못난 소리 하지 말게나」

「그러니 돈두 없이 서울 올라와 보니 뭐 시원한게 있습디까」

「그래서 서울 올라와선 무얼했나?」

「공사판에두 다니보고 음식집에두 있어보았지만 시원한일이 없더군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갈 차비나 생기기애 다시 내려갈 생각을 했어요。」

「예편네까지 버리고 왔다는 사람이 뭐하러 또 시골로 간다는것인가?」

「글세 살던 정을 잊을 수가 없는걸요」

「그곰보 예편네를 못잊었어?」

「아모리 떠돌아 다녀야 그 사람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걸요」

「이 사람이 이제 또 그곳엘 어슬렁 어슬렁 찾아가겠단 말인가?」

「그래두 그 사람은 내가 다시 가두 그렇게 싫어 하진 않을거예요。」

「그런 못난 소리하지 말구 여기서 나와 잠자장사나 하며 같이 삼세나」

「그래두 난 시골로 가야겠어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술잔을 드는 것도 있고 있다가 그만 일어서 나왔다. 맑은 아주 어두워졌다.

나는 전등불을 켜며 스에 울으며, 지금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고 생각해 보았다.



△歷史小說▽

梨園哀史(上)

洪銀杓

239

一 모란꽃 필 무렵

가야금을 처음으로 만들고 수 많은 곡조를 지었다는 우륵(于勒)은 신라 진흥왕 二十三年 一월! 그의 조국인 가야가 망하매 가야금을 둘러메고 적의 나라 신라에 투귀하였던 것이다.

진흥왕은 우륵의 예술을 매우 가목하게 생각하여 그를 국원(國原 지금 忠州)에 안치하고 노래와 춤과 가야금을 가르치게 되었으니 그 우두머리 제자에 계고(階古) 법지(法知) 만덕(萬德)이라 하는 세 사람이 있어 그들은 이웃하여 살며 스승되는 우륵을 받들어 모시고 일을 예능의 길에 매진하였던 것이다.

늑음이 짙어가는 유월 어느날! 만덕이의 집에서 가야금에 으뜸가는 만덕이와 춤으로 오직 하나로 꼽아주는 법지와 주안상을 앞에 놓고 댕커니 자커니 취흥에 겨워 이야기의 꽃이 피었다.

「여보게 만덕이! 뭇란이의 가야금도 이제 제법인걸!」

나그대로 온 법지가 잔을 들고 때마침 들터오는 가야금 소리에 신기스런듯이 귀를 기울리며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만덕이는 법지의 주는 잔을 받으며

「무얼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으니 하고 말하면서 십년 어루만지고 뜰어 온 가야금줄을 마당당 투겨 보는 것이었다.

「천만에 나아지지 않은 게 무슨가? 필란이의 가야금은 일취월장하고 있는 게 역역히 보여지네.」

「자네며 누리 잠이니 간 그저 아리따웁고 신통하게만 보이는 거겠지」

「원 사람두! 내며 누리가 아니라 해도 아리따웁아야 변하겠는가?」

「참여보게 법지! 자네 아들 시열(時烈)이의 가루야 말로 놀랄만큼 숙달하였네나 그러!」

만덕이는 이렇게 말하며 법지의 빈 잔에 술을 부었다.

「거야 자네 사위감이니 잔 갈가마귀 소리 같아도 피끄리처럼 아름답게 들리는 게 아닐까?」

법지는 잔을 받으며 유쾌하게 웃었다.

「이 사람 당장에 오금을 박는가?」

「하하하하 만덕이 어쨌든지 자네 따님 필란이나 집의 아들녀석 시열이나 이제 아주 제법들 이던걸」

「하하하하 우리들이 이렇게 늙었으니 아이들인들 장성하지 않았겠나?」

「세월이 과연 유수처럼 흘러갔지」

우리가 우룩 스승님을 모시고 가야를 떠난 것도 이터구려 벌써 십년전의 일이 아닌가?」

「남해가에서 조개를 잡고 나동강에서 송사리를 잡으며 소꿉질하던 시절! 시열이와 필란이 두 아이를 끝내 해로 동락 시키려고 우리 두 사람은 굳은 언약을 했었겠다.」

만덕이는 이마의 흐르는 땀을 씻고 법지의 빈 잔에 주전자를 기울이며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법지는 지나간 날을 더듬는 듯한 눈매로

「만덕이 그러나 신라 군사가 여섯 가야 고을 고을에 요란스럽게 북을 울렸을 때는 우리들의 무지개 같은 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지!」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만덕이는 잔을 들고 모란꽃이 한창 만발한 창박을 내다 보았다.

「법지! 그렇지만 우리 가야가 망한 뒤 우룩 스승님의 뒤를 따라 이곳 국원까지 와서 우룩 스승님을 바들어 모시고 우리가 우두머리 제자가 되어 가루와 가야금을 못 사람에게 전해 주고 우리들의 예능의 길을 연바하

게 되었는데 그러!

『모두가 우복 스승님의 덕택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틀 말인가! 참 필란이가 가야

금을 들고 시열이가 춤을 추는 것을 볼 때는 마치 선

남선녀가 하강했다는가의 심할 지경이지! 하하하!』

법지도 만덕이의 웃음에 따라 웃었으나 실록에는 어두

운 그림자가 서리었다.

『여보게 만덕이! 그런데 참 우리 마누라는 암만해도

선녀같은 며누리도 보지 못하고 먼저 갈까 보이!』

『아 왜 서라벌에서 명의가 왔다더니 그 사람의 약도

별수가 없는가 보군!』

『별수없어!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허 참! 이것보

게나 저기에 설상 가상으로 집의 시열이의 안질이 암

만해도 심상치 않거든!』

법지는 한숨을 쉬고 부어 놓은 잔을 한숨에 쭉 들어

마셨다.

『시열이의 안질이라니 눈자위는 좀 가라앉았지만 잘

보는 모양인데 무얼 그리 심려하는가?』

『잘 보는게 무언가? 아주 열의 사람도 분별을 못하는

송방일세 송방이야!』

법지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만덕이는 더 약을 쓰면

회복될 터이니 근심말라고 위로하였으나 법지는 모든 것

을 체념한듯이 이제는 근심도 하소연도 안하고 기구한 운
명이나 탓할뿐이라고 말하며 만덕에게 술을 권했다.

『만덕이! 우리 오늘 고추망태가 되도록 취해볼까?』

『좋지 좋아. 자 자네부터 잔 내게.』

주객이 서로 따르고 마시고 마시고 따르고 한창 주홍

이 무르익어갈때 방문이 급히 열리며 십 팔구 세 되어

보이는 처녀가 들어왔다.

처녀는 활짝 활짝 숨이 가쁜듯 조금한 어조로 말하였다.

『시열네 아저씨! 크 큰일 났읍니다.』

『필란아! 걱정마라 네가 아마 시열 어머니의 혼절한

것을 본 모양이구나!』

법지는 태연히 말하며 잔을 들었다.

『아저씨! 혼절이 아니오라 운명하셨습니다. 시열이

도 기절하여 쓰러졌사와요!』

필란은 안타까운듯 울어 버렸다.

『법지! 어서 가보게 급기야 일을 당하고 말았네 그러!』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가여운 생명이 농업을 받

아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갔지. 나무아미타불.』

법지는 엄숙한 태도로 합장하였다.

『아 지머님은 사바세계에서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크셨

지.』

『한 줌 재로 변하여 사리탑 밑에 묻히고 말 인생이 그

다지 모질고도 기구하였는지!

「아저씨! 어서 가세요 시열이가 걱정됩니다。」

처녀는 눈물을 먹음코 법지의 귀택을 재촉하였다.

「필란아! 시열 어머니는 너같이 아리마운 며누리를

거느려 보지 못하고 그만 저승길로 가고 말았구나!

마누라두 딱하지! 전생의 지은 죄가 얼마나 컸길래

부락이란 구경도 못해보고 근심과 고통만을 누렸는지!

「법지! 어서 가세!」

「여보게 사둔! 시어머니도 없는 집에 홀 시아비를 섬

기려 올나의 자부 필란이가 불상하이!」

「이 사람! 큰 일을 당한 자리에 농담만하고 있으니

자네가 미쳤는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일세 미친 사람의 진정일세. 아

가! 필란아! 가엸은 필란아!」

법지는 필란이를 붙잡고 어이어이 소리쳐 울고말았다.

二 밤나무 꽃질 때

법지는 아내의 장사를 지내고 누어 앉기 시작한 것이

달포가 넘도록 일어나기는 커녕 대소변을 받아 뵈 정도

로 병은 맹랑하게 중태에 빠졌다.

나의 젊은 시열은 어찌할바를 몰라 애 태울뿐 향란이

가 약 시중을 비롯하여 법지의 손이 되고 발이 되었다.

그동안 서라벌에 가서 명의를 데려온 것도 향란이다. 향란이는 오십 줄에 든 법지의 집의 이름이니 그는 상전마나님의 오랜 병 치다거리로 지칠대로 지친데다가 장사를 치르고 뒤미처 법지의 병 잔호로 온 몸은 숨처럼 느른해졌으나 상전을 기어코 회춘시키려고 동분 서주 하였던 것이었다.

모란꽃 필 무렵에 어머니를 여이고 밤나무꽃 질 때 그 아버지 마자 사별해야만할 슬픈 운명에 빠진 시열이는 이지음 눈은 더욱 침침해지고 말하는 것조차 더듬고 얼버무렸던 것이다.

시열은 아버지의 잠 든 틈을타서 필란이와 같이 강가로 나갔다.

「시열이! 이리로! 이리로!」

필란은 뒤 멀어져서 혈레벌떡거리고 있는 시열이를

의아한 듯이 소리쳐 불렀다.

「필란이! 웬 일일가? 필란이의 뒷 모습이 남정네 같으니!」

뒤 쫓아 온 시열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비비고 썸벼거리며 필란이의 손을 어루만졌다.

「호호호호 내가 덩기에 치마를 걷어 올려서 그렇게 보인게지 무슨 남정네 같을라구!」

「필란. 그렇게 아냐! 요새는 그렇게 어서쁜 필란이의

얼굴이 곰보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야!

「호호호 참 내가 곰보처럼 보인다구! 난 이때 외도 흥여 마마 다 했는데 어떻게 곰보가 되지?」

필란은 시열의 뜨거운 손을 상기된 얼굴에다 대고 부뻘뻘했다.

「필란이! 나는 참만해도 오는 가위 절에도 참례하지 못할가보아」

시열이는 눈을 섬뻍대며 강 건너로 시선을 옮겼다.

「시열이! 안돼! 안돼! 서라벌에서도 견줄 사람이 없는 시열이의 춤과 노래를 이번 가위절에는 꼭 보여주도록 해야만해!」

「필란이! 내 춤! 내 노래를 서라벌에서 보여주면 무일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야 시열이도 서라벌로 갈수 있지 않아!」

「서라벌! 서라벌로 나만 가서 잘 되면 무일해? 아버님의 병환은 나날이 위중해만 가시는데……」

시열이는 필란의 상반신에 몸을 의지하며 애연히 말하였다.

「시열이! 그대두 안돼, 아버님은 향란이에게 부탁을 하구 떠나게해. 사월과일에두 내가 가야금을 뜯구 시열이가 노래를 부르코: 우리들이 두 짝을 하지 않았

어. 시열이! 이번에는 우리가 기영고 첫 짝을 하고야 말자구응!」

필란은 시열을 가만히 끌어 안으며 불타오르는 눈초리로 사나이의 얼굴을 드러다 보았다.

「필란이! 나는 참만해도 못가겠어 우록 스승님의 아드님 인태와 함께 가도록 하라구.」

「안돼 안돼. 인태는 진정이지 난 싫어! 흥! 글세 인태따위 노래를 서라벌에서 하다니 우리집 검둥이가 웃게.」

필란은 원망스러운양 시열이를 바라보았다.

「필란이! 그렇게 자꾸 인태를 나쁘게만 얘기하지말아. 인태의 가야금은 필란이 다음은 가구 노래만해두 인태가 나 보다 나은편이거든」

「낯진 무에나? 앓는 소리가 없어서 나? 이것봐요 시열이! 우록 스승님께서도 아드님보다도 시열이가 꼭 가야만 한다구 그러셨어. 그러지말구 꼭 가게해응!」

필란이는 사나이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였으나 그는 손을 뉘 뿌리치고 큰 소리를 쳤다.

「안가 안간다니깐그대」

「아이구 잠작이야. 왜 큰 소리를 지르며 남을 떠다밀고야단이야.」

내가 미우면 미운다고 진정을 말해봐.」

「필란아! 너는 내가 미울터이지? 한 자 앞의 사람도 못할아 보는 장님이 다 된 내가 미울터이지?」

시열은 필란의 팔을 꼭 붙잡고 부르르 떨었다.

「호호호 참 기가 막혀! 시열아! 내가 미쳤나?」
필란은 사나이의 팔을 뚝뚝리치고 일어났다. 시열은 눈을 휘번덕거리며

「미쳤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의 노래와 춤의 스승이시며 아버지되신 분이 인사를 성으로 누워 계시다. 나 난 어 열이 빠졌나. 미쳤다.

「시열아! 너 정말 열이 빠졌나? 그러다가는 병어리 두 되겠다」

「피 피 필란아! 나 나 난 버 버 병어리다. 자 자 장님이다!」

시열이를 흔들며 정신을 채리라고 말하였으나 시열이는 본척 만척 들은척 만척 주먹을 부르치고 사지나 무처럼 정신을 떨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필란아! 내가 눈이 멀고 병어리가 된다! 년 년 시열이를 본척 만척 눈누 거들떠 보지 않을테지? 그렇지 필란아!」

「바바른대로 말해봐라! 뒤로 물러섰다.
「바바른대로 말해봐라! 바바른대로 말해봐!」

시열이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잔디위에 쓰러져 엉엉 우는 것이었다.

「이것봐요 시열이! 약을 더 쓰면 눈도 잘 보이게 되고 급할때 말 더듬는것도 깨끗해 진다는데 왜 자꾸 비관만하지? 시열이 짜장 장님이 되고 병어리가 되었다 해도 난 이미 시열네 집 사람이 아냐? 우리들이 솟골질 동무 시절에 부모님께들 맺어 주신 언약을 시열이가 팔 다리가 없는 병신이 되들 잊겠어? 난 시열이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팔 다리가 되어서 끝끝내 시열이를 따를테야!」

필란이는 시열이의 얼굴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지며 무메인 소리로 말하였다. 시열이는 울음을 그치고

「필란아 내가 바보야 내가 병신이야. 필란이의 아리마운 마음씨를 몰라주구 필란이의 마음을 괴롭혀줬으니 내가 미친놈이야. 필란이! 서라벌로 가자구! 필란이가 가야금을 뜰구 내가 노래를 부르구! 이번 위절에는 기령고 첫째를 하고야 말자구!」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마워라! 감격하셔라! 시열이! 공주마마 앞에서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르고 춤을 추는 시열이의 자태가 눈에 삼삼하여라!」
「필란이!」

「시열이!」

시열이는 필란이를 힘을 다하여 꼭 끌어안았다. 처녀는 사나이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부엌다.

이 때 언덕 아래서 「필란아!」 부르는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필란은 일어서 언덕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필란이를 부르고 언덕 아래서 올라온 사람은 필란의 어머니 금련이였으니 사실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 젊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필란이의 오목한 코며 머무알같이 점고 시원한 눈과 그러한 듯한 눈썹하며 가름한 얼굴의 윤곽까지도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 모녀가 좀 다르다는 것은 딸의 키가 후리후리한데 반하여 어머니는 바라진것이라 하겠다.

「필란아! 너 대체 웬 일이냐?」

금련이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말하였다.

「왜 그리셔요 어머니?」

「왜 그대가 무어나 들판으로 강변으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냐?」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요 어머니?」

「우룩스승님이 인래(隣來)도령과 같이 오셨는데 오늘은 네 가야금을 꼭 들고 가신다고 그러시더라.」

「싫어요 어머니가 제 대신 들어 들려 드리세요.」

필란이는 시무룩하여 말하였다.

「호호호호 망치스러워라 동네 개가 다 웃게 나보구 가야금을 들으라니?」

금련이는 뚱뚱한 몸에 간드러지게 웃었다.

「아지머니! 저희 집에 좀 들러 보셨어요?」

지금까지 모녀의 말을 듣고 앉았던 시열이는 눈을 썸뻛거리며 말하는 것이었다.

「참! 시열아! 빨리 내려가 봐라. 아버지 병환이 아직보다 잠작스리 더 해지신것 같더라.」

「아주머니! 암만해도 돌아가시려나 봐요」

「지금은 사람도 몰라 보시더라」

「아주머니! 전 먼저 가겠어요 필란이랑 뒤에 서서히 오세요」

「그래 먼저 내려가 봐라. 서라벌 의원도 와 있더라」

「그사람도 별 수 없어요. 먼저 갑니다요」

「그래 조심해 내려가라. 나도 숨 좀 돌리고 곧 가마」

시열이는 비탈길을 뛰어 내려갔다. 그러나 편다는 것은 그의 마음뿐인양 천방지축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의 중심을 잃었다. 허둥지둥 몇 발 자욱 내어 달던 시열이는 풀숲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마아!」

이것을 바라보던 필란이는 절에 있는 사람이 놀렔만큼 크게 소리쳤다.

「평지 같은 길에 쓰러지구 야단 법석이구나」

금련이는 이렇게 말하며 혀를 끝끝 찼다.

「어머니! 돌부리를 찼나 보죠?」

「저저 또 쓰러졌다. 이제 지척을 분별치 못하는 아주

장님이 다 됐구나」

「약을 더 쓰면 잘 보게 되겠조워!」

그러나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종의 집이나 의지 할 수 밖에 없는 시열의 눈은 점점 시원치 않아 가고 한숨과 눈물속에서 해가 뜨고 해가 저야 할 불운한 시열이의 가궁한 정상을 생각할 때 필란이는 뼈저리게 슬프고 가슴 아팠다.

「어머니! 시열이를 우리 집으로 오게하지요」

「무어? 우리집으로?」

금련이는 하마터면 놀래 자빠질뻔 하였다. 그런 소리는

꿈에도 생각 말라고 길길이 뛰었다.

「시열이는 필란이의 남편될 사람인데 아내의 집으로

오는게 그다지 큰 힘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필란이의 태도는 엄숙하였다.

「애가 한술 더 뜨네. 아가 그런 맹추같은 소리 작작

좀 해라. 그 애가 장님이 되구 보면 그 우환 명어리

물어떡한단 말이나?」

금련이의 말하는 얼굴에는 살기까지 서려있다.

「우환 명어리라니요?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코흘릴때 정해 주신 부부인데 팔 다리 병신이 된들

제가 시열이를 배반할 수 있겠어요?」

필란이는 철석같이 굳은 맹서를 어찌 어길 수 있겠느

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잘려나 잘해! 성례도 하지 않구 벌써부터 제 서방처

럼 법석이구나! 애 이것봐라 필란아! 글세 오직 하

나 밖에 없는 귀여운 딸자식을 어떻게 병신에게 준단

말이나?」

금련이의 말은 짐짓 애원에 가까웠다.

「어머니두! 시열이가 언제 병신이 됐나요?」

말은 야속하다는 듯이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어머니를

바라 보았다.

「장남은 병신이 아니냐? 서라벌 의원의 말도 시열이

의 눈은 고치기 어렵다더라. 오늘 아침에두 내가 시열

네 집엘 갔더니 날 그 집 종년 향란이로 잘못알고 「향

란이 이리 좀 와」 그러지 않겠니? 필란아! 아버지께

서두 후회하구 계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깐 파혼

을 하고 인태도령하구 하루 밤새 성례를 하도록 하자」

이것은 필란에게 있어서 청천의 벽력이 아닐 수 없었

다. 장님이 되어 홀로 눈물길 가련한 시열이를 배반하

고 우목(于勸)의 아들 인태에게 잔다는 것은 죽기보다

또 피로운 것이었다.

「인래네 집에는 죽어도 못가겠어요. 장님이 되거나 병어리가 되거나 다리 팔 병신이 돼도 시열이 하나만

이 필란이의 남편될 사람입니다.」

「아이구 난 모르겠다, 난 몰라! 이년이 오는 복을 차 버린다니깐 차 버려!」

「어머니! 우룩스승님께 머누리가 되어 호강을 하는 것 보다 병신된 시열이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옵니다.」

필란이는 이렇게 비장한 결심을 토로하고 뒤편 아랫입술을 지긋이 깨물며 애절한 눈으로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연화대를 만들어라! 극락세계를 꾸며봐! 너두 애비 어미 딸 안 들다가 후회할 날 있을라 애잉!」

금련이는 벌떡 일어나 언덕 길을 내려갔다.

생각하면 필란이에게 있어서 시열이는 소꿉 동무 때부터 가장 친히 사귀어 온 친절한 친구요 때이러해도 때일 수 없는 백년을 굳게 맹세한 약혼자인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반 숙명적으로 맺어졌다 하겠으니 그들은 청춘의 꿈은 피를 온통 쏟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었다. 이 사랑이 끊어진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 하겠으니, 만약 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또한 사람마자 친길 만길 지옥의 불구덩이까지라도 따라 가야만 할 비통한 사랑이었다.

필란이는 터질듯한 가슴을 부여안고 마을로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 언덕 길로 멀어지는 밤나무꽃 향기가 필란에게는 향을 피우는 뉘새인양 희뽕겨왔다.

III 애정무한(愛情無限)

필란이가 마을로 내려 왔을때 법지의 집에서 시열이의 곡성이 들려왔다. 아빨사 시열이의 아버지님은 돌아가시고 말았구나.

필란이가 이렇게 생각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참말로 향을 피우는 뉘새가 담을 넘어 풍겨왔다.

시열이의 아버지 법지는 죽은 것이었다. 법지의 죽음 앞에는 시열이가 울다가 지쳐서 쓰러졌고 금련이를 비롯하여 이웃집 아낙네가 몇사람 와 있고 필란이의 아버지 만덕이와 스승 우룩을 능가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가야금의 명수 계고(階古)와 그 밖에 서너 사람이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얼마뒤에 우룩이와 인래가 오고 친척도 없는 사고무친한 법지의 장사는 친지들의 협력으로 준비되었다.

사흘뒤 쓸쓸한 법지의 장송행렬에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 더욱 심하여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외아들 시열

이가 향란에게 부축되어 상여 뒤를 따랐다.

상제는 이제 울지도 못했다. 수척한 얼굴에 통통부은 눈으로 향란이에게 매어달리다시피 발을 질질 끌었다. 대문 앞에서 이 광경을 내다 보던 필란이는 안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 시열이는 눈이 먼다, 앞을 못보는 장님이 된다. 고 생각할때 필란이는 저의 앞까지 캄캄한듯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필란이는 내 눈이 멀어 가지고 시열이의 눈이 밝아진다면 머루알 같은 두 개의 점은 눈동자를 서슴지 않고 빠져서 내 놓겠다는 것이 지금의 그의 심정인 것이다.

이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필란이가 방문을 열었을 때 인래가 뚱뚱한 몸을 뒹굴거리며 들어와 마루위로 올라섰다.

「필란이! 왜 그렇게 나만 보면 내뺨기만 해? 난 아주 섭섭한데」

인래는 두꺼비 같은 손으로 필란이의 옥같은 손을 덥석 잡았다. 필란이는 사내의 손을 뚝 뿌리치고

「섭섭하거던 오지 말지 무엇하러 침침스럽게 쫓아다니는 거야!」

하고 냅다 쓰아부쳤다.

「필란이는 너무 매정스러워 필란이를 사랑하는 인래의

가슴 속을 왜 그다지도 몰라 주는냐말야?」

「인래가 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한탄 말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혼한 시열이가 있지 않어?」

「장님이 다 된 시열이를 선녀같은 필란이의 남편으로 삼을 작정이야?」

「장님이 되거나 짝추가 되거나 걱정말아, 시열이는 한 평생 내 남편될 사람이야.」 처녀는 사나이를 쏘아 보았다.

「내가 무에 보기싫고 원수스러워서 그렇게 독살스러운 눈으로 바라 보는 거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은 모두 보기 싫고 원수같이 아!」

「필란이! 모란꽃 같이 아리따웁고 연꽃 송이 같이 고운 필란이의 마음을 내가 왜 괴롭히겠어? 나는 선녀같은 필란이의 가슴 속에 행복을 부어 넣고 혹진주같은 두 눈동자에 기쁨을 불어 넣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 내 절절한 사랑을 필란이는 왜 몰라주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고 말하는 인래의 얼굴에는 참으로 애원의 물결이 구비치고 작은 눈 속에서는 눈물까지 비치는 양하였다. 「그렇게도 괴로운걸 무엇하러 쫓아 다녀? 나는 인래를 만나는게 괴롭고 인래는 나 때문에 괴롭다니 만나

「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

하머틀로 내려 서랴할 때 인래는 필란이의 두 팔을 덥석 잡고 부르르 떨며

「필란아! 난 진정 너 때문에 죽겠다」하고 비죽비죽 울었다.

필란이는 구렁이가 몸에 감긴 듯이 정그럽고 무서워서 문어발처럼 달라 붙은 사나이의 손을 전력을 다하여 뿌리치고 뒷문으로 빠져서 뒷동산 숲속으로 탈토와 같이 다름질 쳤다.

인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듯 뒷동산을 멍하니 바라 보다가 눈물을 씻으며 힘없이 언덕을 넘어갔다.

법지의 장사를 지낸지 한 일해 되던날 필란이가 밖에서 들어오니 만덕이 부치는 피난 가는 사람 모양으로 붙야 붙야 짐을 꾸렸다.

「필란아! 네 옷들은 네가 좀 챙겨라」

금란이가 남편과 부엌 세간을 꾸리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왜 갑작이 짐은 싸구 야단 이세요?」

「응, 오늘이 날이 좋다구 그래서 갑작이 이사를 가게 되었단다.」

「역시 우록 스승님 때 옆 집으로 가게 되나요?」

「그럼 거기 밖에 또 있냐?」

「싫어요 전 안 갈 테야요」

「이 집은 소부리 사람이 오늘 이사를 오는 데 년 뒤 남의 집에서 살테냐?」

「전 시열네 집으로 갈테야요」

하는 필란의 말을 들은 만덕이는 정충 뛰며

「귀 귀! 이년아! 네가 환장을 했냐?」

하고 팔을 노려 보았다.

「환장을 한 것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세요. 앉고 누워 있는 불쌍한 시열이를 혼자 내어 버리고 이사가 무슨 이사예요?」

「이년! 애비 말에 거역을 할 작정이냐? 네가 가지 않으면 부들이 매어 끌구라도 갈테니까 맘대로 해라.」 만덕이의 태도는 자못 강경하였다.

「아버님은 팔자식을 개 돼지로 아십니까? 굳게 언약을 맺은 시열 아버지님이 이젠 돌아가시고 아들 시열이는 하루하루 더 어두워만 가는 눈을 감고 캄캄한 방에서 저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열이가 장님이 된다고 저는 시열이를 배반하고 저 하나의 복락만을 꿈꾸며 다른 사내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겠습니까?」

하고 필란이는 울면서 눈물 겨웁게 말하였다.

「언약이구 도리구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만덕이는 한마디 딱 찰라 말하고는 수레에다 짐작을 실었다.

이 때 대문 밖에서 향란이가 헐터벌떡거리며 들어와

「아가씨! 큰 일 났읍니다요. 빨리 좀 시열 도령님을
가봐 주셔요!」

하고 필란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왜 그러지? 무슨 번고라도 갑작이 생겼나?」

「네 시열 도령님의 병환이 심상치 않사와요!」

「어찌면!」

필란은 놀랐다.

「영감마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도령님의 풍증이 심해지
셔서 눈은 아주 질벽이 되고 말은 한마디도 아불리지
를 못합니다 그려!」

향란의 말을 들은 필란은 하마트면 쓰러질변 하였다.

「가엾어라! 시열 도령님이 무슨 업보로 장님이 되고

병어리까지 된단 말인고!」

필란은 흐느껴 울었다. 향란이도 따라 울며

「어두운 방구석에서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도령님의 양자는 참말로 보기에 민망하고 측은하읍니

다요!」

하고 말하였다.

「원통하여라! 그렇게 아름답던 노래소리도 이제 못들

게 되었지!」

필란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장롱속에

서 금은 패물을 몇개 꺼내어 향란에게 주었다.

「향란이! 이걸 팔아서라도 시열 도령님의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 줘요!」

「고맙습니다 병신된 도령님을 위하여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해 주시니 지하에 계신 두 분께서도 얼마나 고마

워 하시겠읍니까?」

「향란이! 눈이 멀고 병어리가 되었어도 시열 도령님은

필란이의 낭군이 아니겠소?」

필란이의 말에 너무나 감격한 향란은

「필란아가씨! 아가씨의 은혜는 백골난망이읍니다!」

하고 비죽비죽 울어 버렸다.

「내가 들과 취야할 사람을 상전의 아들이라는 의리 때

문에 향란이가 애를 쓰구 있으니 향란이의 은혜야 말

로 잊지않고 절초보는 하리다!」

「고마우신 아가씨! 선녀같은 아가씨!」

「우리는 우룩 스승님택이 웃으로 이사를 간다니 한 향

란이를 보기도 어렵겠소!」

「그럼 우룩 스승님택 자체 인래도령하고 정혼이 됐나

요?」

「부도님들끼리 하시는 일이지 마는 나는 죽는 한이 있

을지라도 인래택 점으로는 안갈 작정이요!」

필란의 눈과 입에는 굳은 결심의 빛이 서리었다.

「시열도령님이 가엾기는 하지만 필란아가씨의 앞길을

위해서는 우룩 스승님택으로 가셔압조!」

향란의 말을 들은 필란은 분노의 소리로 외쳤다.

「향란이! 어서 가요. 그런 소릴 하려거든 나를 찾아

오지도 말아요!」

「필란아가씨! 필란아가씨!」

향란이는 너무나 감격하여 필란의 손목을 붙잡고 눈물

지었다. 필란이도 향란이를 붙잡고 울었다.

이 때 밖에서 금련이의 소리가 들리자 향란이는 불야

불야 뒷문으로 빠져 다라났다.

(次號繼續)



Model: XFV-1 (Navy)

VTO (Vertical Take-Off Fighter)



Model: 88A (U.S.A.F.) "Voodoo"

Fighter-Bomber



Model: T-33 (U.S.A.F.) TV-2 (Navy)



IMPORTANT CONTENTS OF COMET 35

Foreword.....	By Kim, Kee Wan
To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Kim, Chung Yul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OK
.....	Chang, Duk Chang Chief of Staff, ROK Air Force
"Letters of Congratulation" on the Third ROK Armed Force's Day.....	Walter C. Dowling U.S. Ambassador to Korea
.....	Eduardo Quintero Philippine Ambassador
.....	Richard Hertz, German Minister to Korea
Introspection Needed in U.N.....	Hwang, Sung Soo
Unstabled Area of the World.....	Kong, Chin Hang
Periscoping Taiwan.....	Kim, Kwang Sup
Theory of Millitary Power.....	Lee, Kyung Choon
I Ask Communists.....	Kim, Chang Soon
On the Spirit.....	Lee, Eun Sang
An Explanation of Modern Government.	Kim, Kyung Soo
Latest Map of the World.....	Choi, Bok Hyun
The "Soldier and the Printed Word....	Ryang, Choo Dong
The Principle of Artificial Rainfall....	Chung, Chang Hee
The "Bi-Kyuk-Chin-Chun-Roe" and the "Bul-Rang-Ki"(The bomb and the flying ladder in ancient times of Korea)	
POEM Flying Over the Blue Sky....	Hong, Hyo Mynn Shin, Seuk Chung
A Paraboloid.....	Kim, Yong Ho
Composing Aboard a Plane....	Park, Mok Wol
A Mid-day Nap.....	Kim, Nam Jo
Autumn and My Plane.....	Park, Doo Chin
The Fish and the Air Plane..	Kim, Kyu Dong